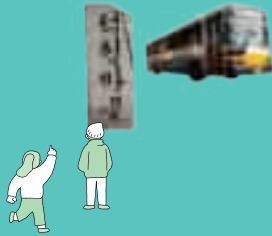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16-14

안양동

안양동은 수리산 아래 안양천·수암천을 끼고 형성된 지역으로, 안양역 개통 이후 안양 지역 행정·경제·교통·교육·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1960년대 도시화로 농경지가 주거지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구도심으로서 노후 시가지를 재정비하며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제11권
안양동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紇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문과 첨삭을 하였다.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contents

1 안양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006

제1장 안양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 008

제2장 안양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 050

2 안양동 마을의 변화와 주민 생활 / 086

제1장 햇볕 드는 양지말, 배움터가 되다 / 088

제2장 시민의 휴식처가 된 병목안 / 126

제3장 벌터의 기억 위에 아파트 도시를 건설하다: 덕천마을 재개발사업의 기록 / 158

제4장 마을공동체가 만든 변화: 명학마을 도시재생 이야기 / 186

제5장 사라지는 냉천마을을 기록하다 / 216

3 안양동의 교육과 돌봄 공간 / 244

- 제1장 안양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 안양초등학교 / 246
- 제2장 안양기독교보육원, '좋은집'이 되다 / 268
- 제3장 안양 중등교육의 초석, 안양중학교와 안양여자중학교 / 292
- 제4장 만안구 북부권 교육의 기틀을 세운 만안초등학교 / 322
- 제5장 안양 유아교육의 출발지, 안양유치원 / 348

4 다채로운 삶의 경로 읽는 안양동의 도시 풍경 / 372

- 제1장 안양 최고(最古) 안양병원의 자리매김 / 374
- 제2장 어쩌다 주상복합, 명학시장 아파트 / 394
- 제3장 삼덕제지 공장 터에서 열리는 종이축제 / 420
- 제4장 '6동 밭데리 골목'을 아시나요 / 442
- 제5장 생태 힐링 공간을 꿈꾸는 수암천을 따라 걷다 / 466

01

안양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제1장 안양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제2장 안양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1장

안양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1. 수리산과 안양천 사이에 위치한 안양동

1) 안양시의 서남부에 자리한 시가지

안양동은 안양시라는 도시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이며 도시 형성의 발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안양동이라는 지명이 가지는 의미는 물론 안양동에 설치된 경부선 철도의 안양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가지가 확장하면서 안양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안양동은 서쪽에 자리한 수리산 줄기와 동북쪽의 관악산에서 뿜어 내린 비봉산 줄기에 의한 산지, 이들 산줄기 사이를 흐르는 안양천 주변의 평지로 구성된다.

안양동의 시가지는 안양역 일대에서 처음으로 형성되었으며, 수도권에 공업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화 과정에서 안양천 서쪽에 있는 수리산 기슭의 환경사지로 시가지가 점차 확장해 나갔다. 법정동에 해당하는 안양동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의 과정을 거쳐 모두 9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었으며, 행정동에 포함된 숫자는 생성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안양역 일대가 가장 먼저 도시화에 진입해 안양1동과 안양2동 등 숫자가 낮은 행정동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고, 남쪽으로 향할수록 행정동에 포함된 숫자가 커진다. 안양동의 도시화 시기는 안양역 일대가 가장 빠르고 수리산의 동사면에 자리한 안양9동이 가장 느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화에 따른 시가지 확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지를 포함하는 안양2동·안양6동·안양9동을 비롯해, 제조업이 입지하여 상대적으로 상주인구의 규모가 크지 않은 안양7동의 면적이 다른 행정동에 비해 넓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안양동의 남쪽은 수리산(469.3m)에서 관모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의해 군포시와



안양시의 중앙에서 서남단에 걸친 안양동

경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군포시에 자리한 산본고가삼거리의 북쪽 시가지가 안양동에 포함됨에 따라, 산줄기의 말단부에서는 산의 남쪽 일부 구역이 폭이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군포시 산본동과 마주한다. 안양동과 군포시의 경계 역할을 하는 산줄기에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수리터널이 통과한다. 안양동의 서쪽은 수리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연결된 수암봉(397.9m)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사이에 두고 안산시와 마주하며, 이 산줄기에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수암터널(1,882m)이 개설되어 있다. 안양7동의 동쪽에서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만안구 호계동과 비산동이 자리하며, 북쪽으로는 관악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삼성천을 사이에 두고 만안구 석수동이 마주하고, 북서쪽으로는 수암터널 북쪽에 있는 산줄기가 만안구 박달동과 경계를 형성한다. 수리산 북쪽에서 산줄기를 따라 형성된 안양동과 박달동의 경계는 꽃동산공원 근처에서부터 안양천에 이르기까지 밀집 시가지 사이의 소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꽃동산공원에서부터 안양천에 이르는 구간에서 안양동과 박달동의 경계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2) 수리산을 등지고 안양천을 마주하는 시가지

안양동은 수원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부선 철도가 안양천 서쪽의 평지를 따라 통과하고 안양1동에 안양역이 개통하면서 역전취락의 형태로 성장하였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안양동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성격을 가진 곳이었다. 수리산의 북사면에 형성된 골짜기를 따라 일부 자연마을이 자리했으며, 산 사면의 끝자락에는 안양천변에 형성된 논과 밭을 이용해 농경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거주하던 자연마을이 있었다.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안양동에 있던 자연마을은 수리산을 등지고 마을 앞쪽에 펼쳐진 농경지와 안양천을 바라다보는 소위 배산임수의 형태를 가진 곳에 들어섰으며, 일부는 수리산 정상에서 뿔어 내린 산줄기 사이의 골짜기에 입지하였다. 1919년에 간행된 『조선지형도』 「군포장」도엽을 보면, 지금의 안양동에는 안양천 서쪽으로 능골(陵谷)·양지말(陽地村, 陽至洞)·담안(牆內村, 장내동)·뒤뜨미(後頭尾)·창박골(蒼峯洞)·안골(安谷)·신촌(新村)·안양촌(安陽村)·명학동(鳴鶴洞)·주점리(注點里) 등의 마을이 있었고, 안양천 동편에 오산(烏山)과 석수동(石水洞)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신촌·안골·창박골·뒤뜨미·능골은 수리산에서 흘러오는 수암천을 따라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이었고, 명학동·주점리·담안말·양지말은 수리산 기슭에서 안양천변의 농경지가 보이는 곳에 형성된 마을이다. 오산과 석수동은 경부선 철도의 동편에서 관악산 남서사면에 있었던 마을이며, 삼성천 북쪽의 석수동 마을은 지금이 석수동에 포함되었다.

수리산은 주로 흑운모 호상편마암과 백운모 편마암으로 구성되며 곳곳에 규장암이 관입해 있다. 수리산은 대체로 토산(土山)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다양한 식생으로 덮여 있지만 수암봉을 비롯해 수리산 칼바위, 수리산 병풍바위 일대에는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수리산은 안양동과 군포시 및 안산시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최고봉인 태을봉의 높이가 489.2m이다. 수리산은 견불산(見佛山)으로도 불렸다. 최고봉인 태을봉보다 해발고도가 조금 낮은 슬기봉(469.3m)을 일반적으로 수리산이라 칭하며, 슬기봉은 거룡봉(巨龍峰)으로도 불린다.¹ 수리산의 산계는 동북 방향으로 태을봉과 관모봉 등의 봉우리가 연속되어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수암봉으로 이어진다. 능선 사이에는 크고 작은 물줄기가 흐르며, 북사면에는 하천이 만들어 놓은 비교적 깊은 골짜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 주변의 녹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이 1971년부터 지정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주변의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안양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안양동의 서쪽에 자리한 수리산은 해발 100m 이상인 산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었기에, 수리산은 상대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수리산은 성남시 남한산성, 가평군 연인산에 이어 2009년 7월 16일 경기도의 3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자연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수리산의 북사면을 흐르는 하천은 수암천이 대표적이다. 수암천은 수리산 줄기에 자리한 수암봉 동쪽 골짜기에서 발원했다는 데에서 명칭이 유래했으며,² 안양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뒤쪽에서 흐르는 하천이라는 연유로 ‘뒷개울’로 불리기도 하였다. 안양 시가지의 동쪽을 흐르던 안양천은 ‘앞개울’로 불렸다.³ 유로연장이 7.0km, 유역면적 8.3km²에 달하는 수암천은 안양동의 수리산과 수암봉 사이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흐르다가 안양2동에 있는 박달2교 근처에서 안양천에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안양천의 제1지류에 속한다. 수암천은 발원지에서부터 병목안시민공원 일대에 이르기까지 산지 사이를 통과하므로 경사가 급한 편이지만, 그 이하의 구간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다. 하천의 상류는 자연하천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류부는 도시하천의 형태로 변형되었다.

수암천의 상류는 하천 주변이 산림지로 이루어져 있고 산의 정상부에 공군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사람들이 접근이 많지 않고 인간의 간섭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계의 교란이 적은 상태에서 양호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류부는 하천에 접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주변에 식당을 비롯한 개발행위가 진행된 곳이 많아 생태계의 인위적 교란이 발생하였다.⁴ 수암천의 하류부는 안양의 도시화와 함께 시가지를 끼고 있는 1.1km 구간이 복개되어 상부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었지만, 2017년 기존의 복개 구간을 철거하는 하천 복원 공사를 마무리해 지금은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하였다. 수암천과 더불어 수리산에서 발원하여 안양동을 흐르는 소하천으로 능곡천(안양9동), 서울제지발천⁵(안양3동과 안양9동), 소골안천(안양6동), 후두미천(안양9동)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안양동은 물론 안양시를 대표하는 하천은 안양천이다. 안양천은 의왕시 왕곡동의 지대고개 북쪽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면서 여러 물줄기를 합류시킨다. 안양시 구간에서는 비산동의 안양중앙초등학교 근처의 쌍개울에서 평촌

신도시를 통과해 흘러오는 학의천을 합류시킨다. 안양천은 의왕시와 군포시 구간에서는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지만, 안양시에 진입해 안양동에서 유로를 서쪽으로 변경하는 경부선 철교 밑의 안양교 부근에서부터 국가하천이 된다. 안양천은 안양시의 중심부를



수암천 안양3동 구간



안양천 안양2동 구간(202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큰 하천으로, 안양시의 대표 하천이라는 데에서 안양천으로 불리게 되었다. 본래 안양천은 삼성산에서 흘러 안양유원지를 지나서 삼성천을 지칭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하천 이름을 새롭게 명명하면서 안양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을 지금과 같이 안양천으로 부르게 되었다. 안양천은 옛 문헌에 대부분 군포천(軍浦川)으로 표기되었으며,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에서는 사근천(沙斤川, 사그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양천구 일대에서는 오목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대에서는 대천(大川), 안양 지역에서는 호계(虎溪, 범계)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안양천은 조선시대에 정조가 부친의 능에 참배하러 다니면서 1795년 만안교를 건설한 이후, 수원시의 입구에 해당하는 지지대고개에 이르는 구간까지 정조의 화성 행행(行幸) 여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하천이다.⁶

안양천변에는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충적지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농경지로 활용되었다. 안양천변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이유는 충적지 주변에 겨울철의 강한 바람을 차단해 줄만한 자연적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가 낮아 음료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여름철의 집중호우 시에는 안양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의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⁷ 안양천은 본래 물길이 구불구불한 하천이었지만, 1960년대 말부터 안양시의 도시화가 본격화하면서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관전군읍지』 지도 안양 부분(1899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군포천(軍浦川, 현 안양천)과 인덕원천(仁德院川, 현 학의천)이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도중에 안양천석교(安陽川石橋)가 있다.



1960년대 수암천 상류의 울목동 구간(1965년, 변원신 제공)



1960년대 수암천 안양공업고등학교 구간(1965년, 변원신 제공)

인해 유로가 정비되었고, 하천 주변 지역으로는 기계·전기·전자산업 등 대규모의 공장과 주택이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1972년 안양천의 지류인 수암천변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안양동의 본격적인 도시화가 시작되었다. 1977년 7월 안양천에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하천 주변 지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안양시가 1978년 안양천 수계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안양천의 모습이 탄생하였다. 안양천 유역은 안양 시민의 주요한 생활 터전이고 하천을 흐르는 물은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된다. 최근에는 안양천 주변의 둔치가 산책로·운동공간·수변공원 등으로 탈바꿈하였다. 안양동 구간의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에는 동양교, 호계대교, 명학대교, 호안교, 전파교, 서로교, 덕천교, 비산대교, 임곡교, 안일교, 양명교, 박달2교, 안양교, 안양대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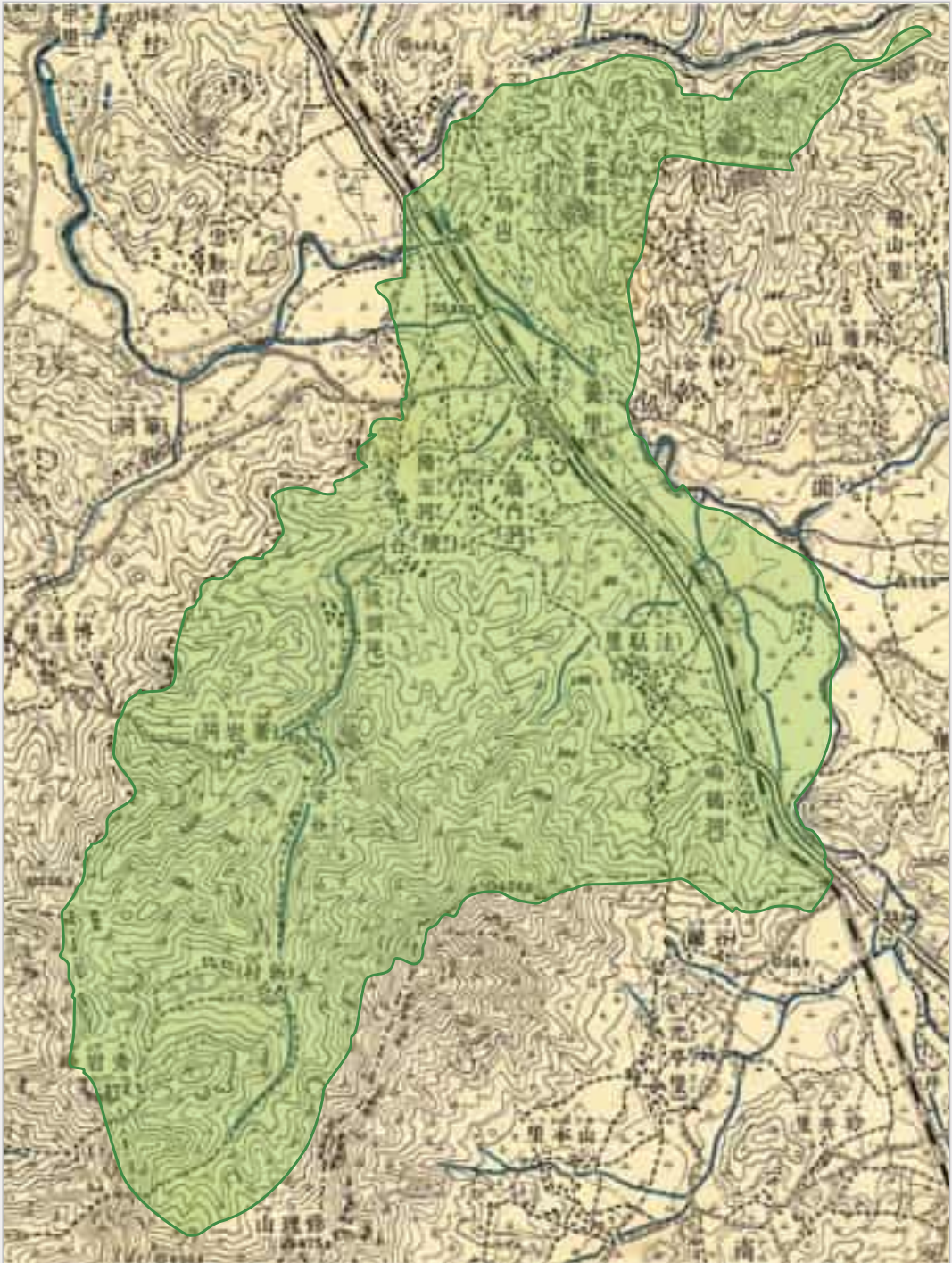
2. 안양동의 행정구역 변천과 지명 유래

안양동은 과거 경기도 시흥군에 속했던 안양읍이 1973년 안양시로 승격하면서 새로 형성된 행정구역이다. 안양시는 1973년 7월 1일에 시급 도시로 승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경기도 시흥군에 속해 있었다. 조선시대에 현재의 안양시는 경기도 과천시에 속한 안양리(安陽里)이었다. 1895년 과천현이 과천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천군 하서면에 속했던 안양리는 1911년에 간행된 『조선지리지자료』에서 지금과 같은 안양리(安養里)로 한자 표기가 변경되었다. 이후 일제에 의해 1914년 3월 1일에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흥군 서이면(西二面) 안양리로 개편되었다. 서이면이란 서쪽에 자리한 두 개의 면이라는 의미이며, 당시 과천군 상서면(上西面)과 하서면(下西面)을 통합해 신설된 면의 명칭이다. 1914년 시흥군 서이면으로 편제될 때, 과천군 하서면에 속해 있던 발사리(撥舍里)·석장리(石牆里)·안양리(安養里)·후두미리(後頭尾里)·장내리(牆內里) 등의 5개 마을이 통합되어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편제되었다. 후두미리는 우리말 ‘뒤뜨미 마을’의 한자 표기, 장내리는 ‘담안 마을’의 한자식 표기이다.

1941년 10월 1일, 시흥군 서이면이 시흥군 안양면으로 개칭되면서 안양동은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로 편제되었다. 안양면은 1949년 8월 15일 안양읍으로 승격되었고, 1973년에 7월 1일에는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하면서 시흥군에서 분리되었다. 시 승격과 동시에 법정동 안양동이 탄생하였다. 1992년 10월 1일, 안양시에 구제가 실시됨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으로 편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정동 안양동은 9개의 행정동을 거느리고 있다. 1973년 안양시 승격과 동시에 안양동은 안양1동~6동으로 분동하였다. 1979년 4월 28일에는 안양6동이 안양6동·7동으로, 이어 1985년 11월 5일에는 안양6동이 다시 안양6동·8동으로 분동하였다. 그리고 1994년 7월 1일에는 안양3동을 안양3동·9동으로 분동하였다. 이렇게 보면, 안양동의 도시화는 안양역이 있는 안양1동에서 시작해 그 주변에 자리한 안양2동~5동으로 확장해 나갔으며, 안양동의 남쪽에서 산지를 끼고 있는 안양9동과 안양8동 등지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도시화가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안양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삼막천을 가로지르는 석수동의 만안교(萬安橋)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삼성산 남쪽 기슭에 있는 안양사(安養寺)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한자 표기가 동일한 안양사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더 유의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그 이유는 ‘만안’이라는 이름이 안양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



조선총독부 발행 1:50,000 지도 「군포장(軍浦場)」 도엽의 안양동(1920년, 종로도서관 제공)



『호구총수(戶口總數)』, 1789.

선시대 만안교가 건설되기 전부터 이미 안양이라는 지명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과천현 하서면(下西面) 안양리(安陽里)라는 표기가 있는데, 이것이 안양이라는 지명의 최초 문헌기록이다. 안양(安陽) 지명은 『1782년 지방지도』 「과천현」에 표기된 안양장(安陽場)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안양(安陽)의 한자 표기는 지금 사용되는 안양(安養)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안양이라는 지명의 또 다른 유래인 안양사는 삼성산(455.8m) 남서사면의 석수동에 있었던 사찰 이름이다.⁹ 사찰은 삼성천을 사이에 두고 안양2동과 마주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현재 그 자리에는 안

양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안양이라는 지명의 시초가 된 안양사는 조선시대에 폐사되었으며 1959년에 (주)유유산업¹⁰ 안양공장의 부지로 이용되었다. 이후 공장이 이전해 나간 자리는 2004년 안양역사관으로 재탄생했으며 안양역사관은 2016년 안양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안양사(安養寺)는 고려 왕건이 건립한 사찰이라는 점에서, 안양이라는 명칭은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안양(安養)은 마음을 편안하게 지니고 몸을 쉴 수 있는 극락정토를 뜻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명에서는 양(養)보다 양(陽)의 사용 빈도가 높았고 양택풍수의 속성을 내포하는 양(陽)을 사람들이 더 선호했기 때문에 안양(安養)이 안양(安陽)으로 혼용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¹¹

戶口總數表二續 全數通

縣内面	元戶三百二十六口 一十三十二
東面	元戶三百二十二口 一千二百六十八
南面	元戶二百七十一口 一千五十一
西面	元戶四百八十六口 一千九百五十八
上北面	元戶三百二十口 一千二百五
下北面	元戶二百九口 七百三十一
果川	元戶三千二百七十三口 一萬四千一百七十九
縣内面	元戶六百二十口 二千七百七十八

東面	元戶四百八十八口 二千三百三十六
南面	元戶四百六十口 一千九百二十九
上北面	元戶五百七十四口 二千五百二十九
下北面	元戶五百八十三口 二千一百四十二
上西面	元戶二百四十四口 一千五十三
下西面	元戶三百四口 一千四百十二
精城	元戶一千六百九十八口 五千九百九

『호구총수(戶口總數)』 과천현 부분에 보이는 상서면과 하서면 지명(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下西面(하서면) 安陽里(안양리)라고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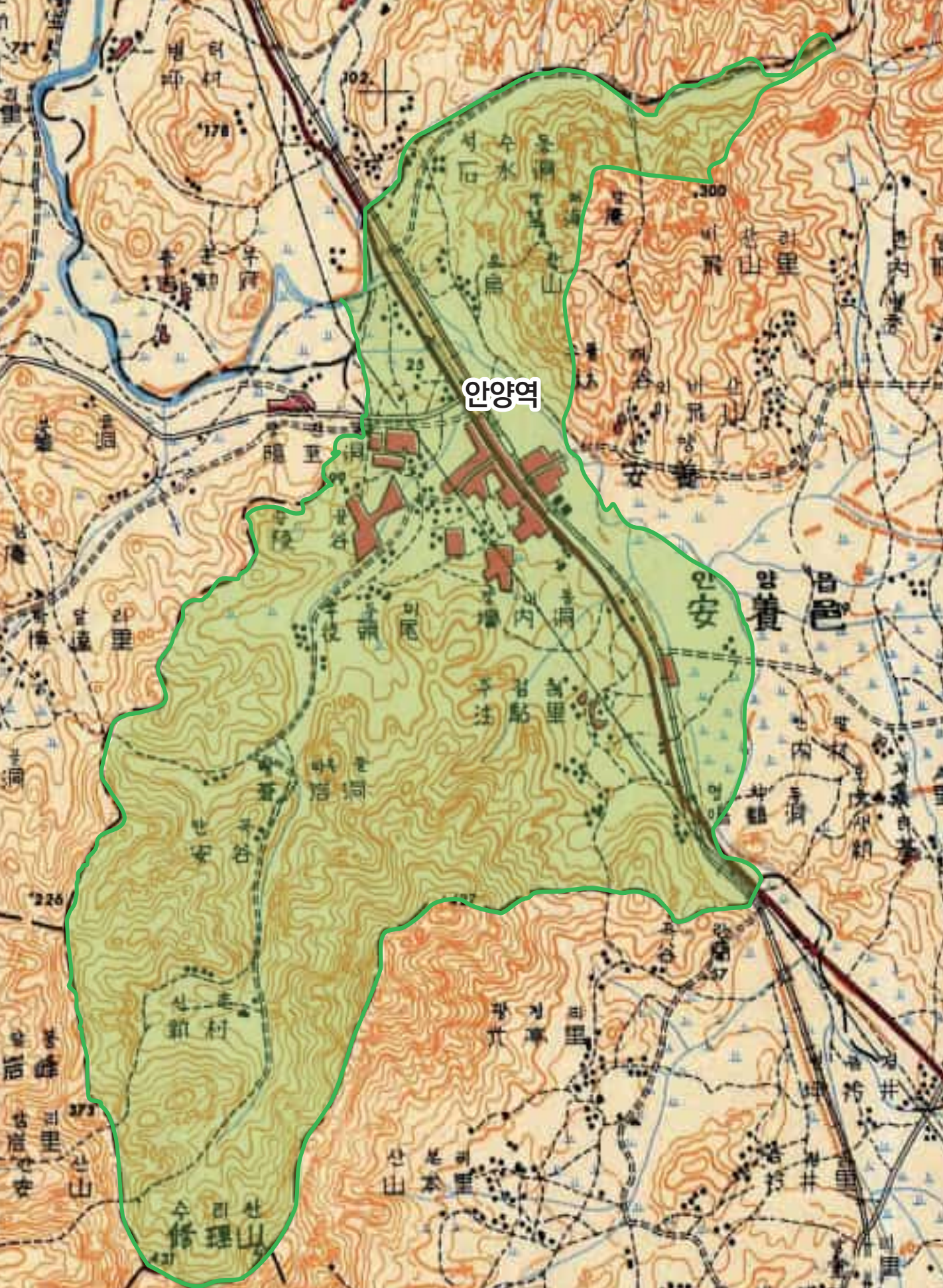
3. 교통 발달과 함께 성장한 시가지

1) 안양시의 관문이 되는 안양역

철도 교통은 우리나라의 교통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철도가 개통함에 따라 한반도 전체의 공간구조가 재편된 것은 물론 철도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중심지 또는 상업중심지 등이 발달하면서, 기존 하천교통의 중심지가 철도역 일대로 옮겨오기도 하였다. 1905년 개통한 경부선 철도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경부선 철도의 철도역이 안양천 서쪽에 설치되면서 안양의 교통체계는 물론 지역변화가 본격화했다고 할 수 있다.

안양동의 변화는 안양역이 설치된 1905년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안양역은 안양촌이 있던 곳에 설치되었는데, 이곳은 도보가 주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시절에 안산과 과천을 연결하는 동서 방향으로 이어진 도로와 수원과 서울을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교통로가 만나는 지점이었다. 남북방향의 도보 교통로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노량진-시흥-안양-수원화성으로 향하던 수원로(水原路)의 구간이다. 수원로는 한양에서 동작나루를 통해 남태령과 과천을 지나던 본래의 구간에서 경로가 험한 남태령 구간을 버리고 시흥에서 안양을 거쳐 수원으로 향하는 새로운 구간이었으며, ‘수원별로(水原別路)’라 불리기도 하였다. 1905년 개통한 경부선이 수원로와 나란하게 부설되면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보 교통로의 교차점인 안양촌(安陽村) 일대가 안양역의 자리로 결정된 것이다.

안양역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안양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연마을이 있었다. 안양촌에 경부선 철도의 역이 설치되면서 안양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상업활동이 집중하는 역전취락이 형성되었다. 철도가 서울과 수원으로 연결됨에 따라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경부선 철도 및 국도 1호선의 여객과 화물 수송을 분담하면서 안양역 주변 지역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가장 빠르게 도시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 주변의 시가지는 경부선 철도와 간선도로를 따라 남북방향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시가지가 오늘날 안양동을 구성하는 지역이 되었다. 특히 시가지 역사가 오래된 경부선 철도와 안양천 사이에 자리한 안양1동과 안양7동의 주거지역은 2000년대 이후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규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면서 안양시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재탄생하였다.



안양역

안양

양양

신촌

수리산

산

광서리

본리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72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226

안양

안양

안양

102

안양

안양

25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300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안양



1984년 안양역 앞(안양시청 제공)

안양역 일대는 1930년대부터 당시 시흥군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공장이 밀집해 공업지대로 탈바꿈했던 서울의 영등포와 견줄 만큼 제법 규모가 큰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비행기 생산시설, 군용물자 보관 기지 등이 들어섰으며, 1932년에는 농경지가 풍부해 개발 가능성이 많았던 양지말(안양3동)에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 인견공장 설립 계획이 수립되었고¹² 이듬해인 1933년 3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일제강점기에 안양동의 도시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셈이다. 1936년에는 시흥군청을 안양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와 조선총독부를 방문하기도 했으며,¹³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장에서는 공장부지의 확장을 위한 부지 기부 문제와 도로개수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1947년 11월 29일에는 영등포에 있던 시흥군청이 안양면으로 이전했다.¹⁴ 이처럼 안양동은 이미 근대 시기에 상당한 공업기능을 보유하면서 교통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시가화 구역으로 발전한 동시에 주변지역에 대한 중심지 기능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안양역 일대의 역전취락의 형태로 시작한 안양동의 도시화는 안양천 서쪽방향으로 수평적 팽창을 시작했다.

경부선 철도의 동쪽에서 일찍부터 안양의 공업 발달을 이끌었던 지역은 안양7동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제조업 공장이 다수 남아있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2023년 7월 3일 안양역(안양시청 역사·포토 갤러리 제공)

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래 철도는 도시화 과정에서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시가지를 서로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철도 노선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하는 지역은 상이한 도시시설이 입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로부터 경부선 철도의 동쪽에 접한 안양 7동이 경부선 철도의 서쪽에 접한 안양6동이나 안양8동과 가지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안양7동은 제조업체가 많이 있지만, 안양6동과 안양8동은 상업시설을 비롯한 주거지역의 특징이 강하다.

경부선 철도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운행하는 구간이기도 하며, 안양동에는 안양역과 명학역이 설치되어 있다. 안양역은 경부선 철도 개통과 동시에 1905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기 시작한 1974년 8월 15일부터 전철역으로 지정되면서 여객과 화물을 모두 취급했지만, 1994년 1월 11일부터 화물 취급을 중단했다. 안양역은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 다른 지방에서 안양으로 드나들던 사람과 물자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안양시의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화물 취급이 중단되고 경부선 철도의 무궁화호 정차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금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안양역을 이용해 안양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서울과 수원 방향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기능한다.

안양역사(安養驛舍)는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후 1956년에 새롭게 건축되었으며, 우

리나라에서 최초로 전철이 운행하기 시작한 1974년에 다시 한번 증축되었다. 그러나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역사의 확장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안양역은 2001년 12월 민간 자본을 통해 새 역사로 재탄생하였다. 안양역은 대규모 쇼핑몰이 연계되어 안양 시민은 물론 주변 도시 사람들도 많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다양한 문화 공연이 열리는 역 광장과 환승형 터미널 등을 갖춘으로써, 다시금 안양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인 2010년대에는 일평균 이용객 수가 5만 명을 넘었다. 2022년 기준 안양역의 일평균 이용객 수는 무궁화호 983명, 수도권 전철 1호선 4만 3,554명이다. 무궁화호의 이용 패턴을 보면, 하행선은 승차 인원이 많고, 상행선은 하차 인원이 많아, 안양역에서는 수원 방향으로 오가는 승객이 서울 방향을 오가는 승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기준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양역의 이용객은 84만 969명을 기록해,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다. 안양역의 남쪽에 설치된 명학역은 1974년 8월 15일 수도권 전철 개통과 더불어 영업을 시작했다. 명학역의 이용객 역시 2023년 3월 이후 감소해 2023년 7월 이용객 수는 29만 8,503명이었으며, 2022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 수는 1만 5,995명이었다.¹⁵

2) 국도 1호선과 간선도로

국도 1호선은 현재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이 도로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목포에서 서울을 거쳐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정비하여 만든 신작로(新作路)이다. 일제강점기 새롭게 개설된 도로라는 의미를 갖는 신작로는 대부분 조선 시대에 이용되었던 대로(大路)를 사용하였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조선시대의 대로가 아닌 새로운 구간으로 통과하기도 했다. 국도 1호선으로 도로 명칭이 부여된 것은 일제강점기가 아닌 1960년대의 일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남북으로 달리는 도로에 홀수 번호를 부여하고 동서로 달리는 도로에 짝수 번호를 부여했으며, 도로의 번호는 서쪽에서 동쪽 순으로, 남쪽에서 북쪽 순으로 부여하였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서남부에 자리한 전라남도 목포시는 국도 1호선과 국도 2호선의 시발점이 된다.

국도 1호선은 일제강점기 목포에서 경성에 이르는 국도 3호선으로 명명되었다. 경부선 철도의 서쪽에 개설된 이 도로는 당시 안양시 구간에서 경부선과 나란히 통과하였다. 이로 인해 안양역 일대는 자동차 교통과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철도 교통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서쪽의 안산 지역과 동쪽의 과천으로 이어지는 자동

차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도 1호선의 구간 가운데 안양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수원에서 서울로 연결되면서 수도권 산업 발달을 도모했기에 1976년 11월 21일에 '경수산업도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서울과 수원을 연결하는 대로라는 의미에서 2009년 12월 10일부터 '경수대로'로 불리지만, 경수대로의 구간은 수원시 곡선동에서 안양시 석수동의 석수역까지이다. 석수역에서부터 서울로 향하는 구간의 도로 명칭은 시흥대로이다.

안양동을 통과하던 국도 1호선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도시 내 교통정체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도 1호선의 구간은 호계동의 호계삼거리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안양천의 동쪽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안양동을 관통하던 국도 1호선은 안양2동의 안양천 동쪽 구간에서만 안양동을 통과한다. 안양동을 우회하는 국도 1호선 구간은 평촌신도시의 서쪽 경계를 따라 남북으로 통과하며 군포시 구간에서부터 석수역 근처에 이르는 8.1km 구간을 10차로로 확장하면서 3개의 지하차도와 1개의 고가차도를 건설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었다.¹⁶ 1990년대 초반 안양시 일대에서는 평촌신도시와 군포의 산본신도시를 비롯해 대단위 택지가 조성되면서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국도 1호선이 남북으로 개통된 유일한 자동차도로였기 때문에 안양의 중심부인 안양동을 통과하는 도로의 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했으며 수도권 전철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양동 일대의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동을 우회하는 국도 1호선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1974년 국도 1호선 안양우체국사거리 근처(안양시청 제공)



안양동을 우회하여 개통한 국도 1호선 경수대로 양명고등학교 구간

안양동은 계획적으로 건설된 시가지는 아니지만, 이 지역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직교형을 유지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는 남북으로 안양동을 관통하는 안양로이다. 안양로의 동쪽으로는 경부선 철도와 나란히 만안로가 통과하며, 안양천을 따라서는 안양천서로가 통과한다. 안양로의 서쪽으로는 수리산 기슭에서 박달동을 향해 냉천로가 뻗어 있다. 안양7동에서는 경부선 철도의 동쪽으로 엘에스로와 덕천로가 있다. 이들 도로와 교차하면서 동서로 연결된 도로에는 성결대학로, 시민대로, 문예로, 수리산로, 전파로, 소곡로, 현충로, 관악대로, 장내로, 병목안로, 박달로, 박달우회로 등이 있다. 안양천 동쪽에는 안양2동을 통과하는 경수대로, 예술공원로가 있다. 이상의 도로가 안양동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이들 도로에서 파생된 도로가 시가지 곳곳을 통과한다.

안양동은 자연마을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곳에서 발달한 시가지이고, 안양역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이 형성됨에 따라 택지조성 과정에서 저층의 주택 및 상가가 많이

입지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국도 1호선으로 기능했던 안양로를 비롯해 일부 간선도로를 제외하면 나머지 도로는 폭이 좁은 소로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신도시에 버금가는 개발 계획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주택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교형의 가로망을 기반으로 시가지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수리산 기슭을 따라 자리한 시가지를 제외한 대부분 구역의 도로망은 직교형으로 구성되었다.

4. 안양동의 도시화와 지목의 변화

1) 1960년대 이후 본격화한 도시화

안양동의 시가지 확장과 도시화는 한국전쟁 이후인 1960년대부터 본격화했다. 안양동은 안양역에서부터 외곽 방향으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시가지가 조성됨에 따라, 북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을 향해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안양시는 옛 국도 1호선 구간인 지금의 안양로와 경부선 철도를 통해 서울 및 경기 남부지방과 교류하면서 안양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입지하고, 남북으로 교통로를 따라 1960~1970년대에 직선상의 도시공간을 형성하였다. 안양동의 성장은 1970년대 들어 더욱 빨라졌으며 1973년에 안양읍은 지금의 안양동을 중심으로 시급 도시로 승격했다. 도시의 경제적 기반이 확충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양천과 수리산 사이의 산록과 농경지가 주거단지와 공업지역으로 편성되면서 안양동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안양시의 성장과 더불어 안양동에서도 대부분 농경지가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 격자형의 도로가 개설되었고 안양역 방면과 수리산 사면이 끝나는 지점에는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이 시기에 건설된 주택은 저층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구성되며 대부분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안양동에서는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연대가 오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한 안양동의 도시화는 기존 농경지를 서서히 잠식했다. 농경지가 줄어들면서 안양동에 거주하던 농가의 수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양동의 농가 수는 1973년에 222호로 안양시 전체 농가(1,173호)의 18.9%에 달했지만 1980년에는 114호로 감소했고 도시 전체의 농가(865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줄었다. 안양시는 서울대도시권에서 근교 농업지역의 성격을 보유했지만, 도시화의 진행



1:50,000 지형도 「안양」 도엽의 안양동(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74년과 1990년 도시공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과 더불어 농경지가 감소함에 따라 농가의 규모도 줄어들었다. 특히 안양동은 도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가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안양동에서 시 승격 이후 비교적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1930년대부터 도시지역의 성격을 가지면서 발전한 안양동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기 이전 대부분의 개발 가능지는 시가화 구역으로 조성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안양천 동쪽의 평촌신도시 개발 및 다른 지역의 도시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안양동의 도시공간 충전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시가지 발달의 역사가 오래된 곳인 만큼 건축물의 연령도 상당히 노후한 특징을 가진다. 2023년 기준 안양동의 건축물 가운데 건축 연령이 30년 이상 된 것이 전체 건축물의 65.8%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연령대는 31~40년 된 건축물이며, 이는 전체의 38.3%이다. 반면 건축 연대가 10년 이하인 건축물의 비율은 6.0%에 불과했다. 건축물의 연령이 11~20년인 것의 비율은 8.6%, 21~30년인 것의 비율은 19.8%를 차지했다. 41년 이상된 건축물의 비율은 27.5%이다. 주택은 단독주택의 건축물 연령이 3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에 반해 공동주택은 30년 이하의 건축물이



저층 주택이 밀집한 안양8동 상록지구 일대(202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대농 안양공장 부지에 들어서는 진흥아파트 분양 광고(『경향신문』, 1983년 1월 22일)

지배적이다. 이는 안양동의 주거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체로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이 건설되었지만, 증가하는 인구에 대응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 토지이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1990년대 이후 공동주택 중심의 주택이 건설되었음을 의미한다. 2021년 안양시에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쇠퇴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해 집수리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만안구 10개의 행정동이 쇠퇴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7개 행정동이 안양동에 자리할 정도로, 안양동의 시가지에는 노후 지역이 많다. 안양동의 9개 행정동 중 안양6동과 안양9동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7개 행정동이 쇠퇴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안양시의 제조업은 일찍이 안양역과 수리산 사면의 사이인 안양동에 금성방직 및 고려석면 등의 업체가 입지했지만, 1970년대에는 경부선 철도의 서쪽편이 주거지와 상업업무 용지로 변화함에 따라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쉬운 미개발지로 제조업의 입지가 확산되었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 안양의 제조업은 안양천과 경부선 철도의 사이(안양7동)에서 집중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오래전에 제조업이 입지했던 안양역과 수리산 사면을 비롯한 안양역 동편은, 제조업체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기존 공장부지가 일반 시가지 또는 공동주택지대로 바뀌었다.

안양역 동편의 한국제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제2공장을 건립하면서 1998년 9월 안양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자리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2002년부터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그 남쪽 부지는 본래 대농 안양공장이었지만 공장설비가

1976년 전라남도 순천으로 이전하면서 매각되었다. 토지금고(한국토지공사의 전신)에 서는 이 부지를 서민주택단지로 개발하기로 하였고, 이후 진흥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진흥아파트는 1983년 분양되었으며, 건축 연대가 오래되어 안전 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안고 있는 진흥아파트를 철거하고 신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2024년 10월 입주를 시작하였다.

건축 연대가 오래된 주택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서 안양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동의 사업 대상은 안양 1동 97-3번지 진흥아파트를 비롯해, 안양2동 42-26번지 향림아파트, 안양2동 80-4번지 청원아파트, 안양7동 190-6번지 동성2차아파트 등이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은 안양2동 841-5번지 일원의 안양역세권 지구, 안양8동 398-32번지 일원의 상록지구, 안양2동 18-1번지 일원의 예술공원 입구 주변, 안양2동 34-1번지 일원 삼영아파트 주변 등이다.¹⁷ 이들 사업 대상지는 2024년 12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이다. 한편, 안양5동 618번지 일원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공업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안양동 역시 1970년대부터 많은 공장이 입지하는 장소로 변화하였다. 근래에는 안양에 위치했던 공장 설비의 일부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공장부지의 대부분은 공장 이외의 용도로 토지이용이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동에는 여전히 많은 공장이 가동 중이다. 안양동에서 건축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장이 총 192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건축 연대가 40년 이상 된 공장이 전체의 26.6%에 달한다. 또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47.9%를 차지할 정도로 오래된 공장이 많은 편이다. 안양동은 일찍부터 공업 기능을 비롯해 주거 기능과 상업 업무기능 등 일반적인 도시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을 담당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공업 기능이 약화되면서 주거지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제조업 설비가 토지의 효용이 높은 도시 중심부보다는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안양동에서도 앞으로 기존 공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작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례는 일제강점기 이래로 서울의 공업지대로 성장했던 영등포공업지대 또는 1960년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역군으로 기능했던 구로공업단지 등이 공장설비 이전 후 주거공간·상업공간·레저공간 등으로 재탄생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장 관련 요소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보다는 안양동 또는 안양시의 공업 발달 관련 역사성과 현장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일부 설비의 산업유산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2) 임야와 대지가 많은 시가지

2020년 기준 안양동의 면적은 15.34km²로 안양시(58.47km²)의 26.3%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행정동이 밀집 시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면적이 넓지 않지만, 수리산을 끼고 있는 안양9동의 면적은 6.42km²에 달한다. 1973년 안양시로 승격할 당시만 해도 안양동의 면적은 21.51km²로 넓었으며, 이는 당시 안양시 전체 면적(58.16km²)의 37.0%에 달했다. 안양시의 도시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안양동의 일부는 군포시로 편입되거나(1994년), 박달동과 경계 조정을 거치거나(1994년), 석수동과 비산동에 편입되는(1996년) 등의 과정을 거쳐 면적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안양2동 안양역세권지구



1988년 안양7동 공업지역(안양시청 제공)

〈표 1〉 안양동의 지목 구성 변화

(단위 : m²)

연도	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1997년	15,425,235	357,238	91,775	9,180,933	3,115,980	310,162	308,063	1,185,537
2000년	15,416,866	348,286	91,504	9,155,122	3,125,106	286,262	309,520	1,202,009
2005년	15,417,663	301,270	69,899	9,070,869	3,177,453	223,922	377,743	1,235,411
2010년	15,361,827	276,568	63,986	8,775,157	3,198,210	240,425	583,398	1,251,718
2015년	15,365,278	246,573	52,489	8,727,359	3,192,004	252,862	614,611	1,290,684
2020년	15,342,339	225,872	50,535	8,663,143	3,183,715	249,322	614,798	1,322,759

자료 : 안양시, 『안양통계연보』.

법정동별 지목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1997년 이후 2020년에 이르기까지, 안양동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및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수리산의 영향이 크다. 농경활동이 이루어지는 농경지, 즉 전·답은 수리산의 수암천 주변에 분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규모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임야의 면적은 1997년 9.18km²에서 2020년 8.66km²로 감소하였다. 주택이나 건물부지로 활용되는 대지의 면적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학교용지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안양동

에 자리한 교육기관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교가 있으며, 이들 학교는 대체로 수리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공장용지는 안양7동에 주로 분포한다. 안양7동의 제조업 밀집 지역은 안양시 도시계획에서도 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소규모 제조업체의 이전 등으로 공업시설이 감소함에 따라 안양7동의 공장용지 역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안양동은 도시공간의 양분 현상이 뚜렷해졌다. 즉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주택 및 시가지가 들어선 서쪽과 제조업체가 입지한 동쪽의 토지이용이 명확하게 차별화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의 서쪽은 안양역 일대와 안양로 주변이 상업 업무공간으로 발전하면서 주거지역과 상업 업무지역으로 나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주택들은 수리산 기슭에 3층 내외의 저층 주택 형태로 많이 건설되었고 수리산과 안양동의 시가지가 만나는 산자락은 주로 교육기관이 들어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양동의 제조업 기능은 서서히 약해졌고, 기존 제조업이 입지했던 장소와 공장 주변의 노후주택 부지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신규의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대표적인 장소는 안양역 주변의 경부선 철도 동쪽 지역이다. 이처럼 도시 내 토지이용이 변화하고 공간 재구조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경부선 철도는 토지이용이 유사한 연속적 도시공간의 형성을 제한하는 장애물 또는 경계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양동의 시가지는 공업지역과 비공업지역으로 양분되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또한 제조업의 입지가 미약한 주거지역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분리되었고, 주택의 건축 시기에 따라 노후주택 밀집 지역과 신규주택 밀집 지역으로 나뉘었다. 주택의 질적 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는 향후 사회적 분리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내포하므로, 도시민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의한 사회적 공간 분리를 억제할 수 있는 도시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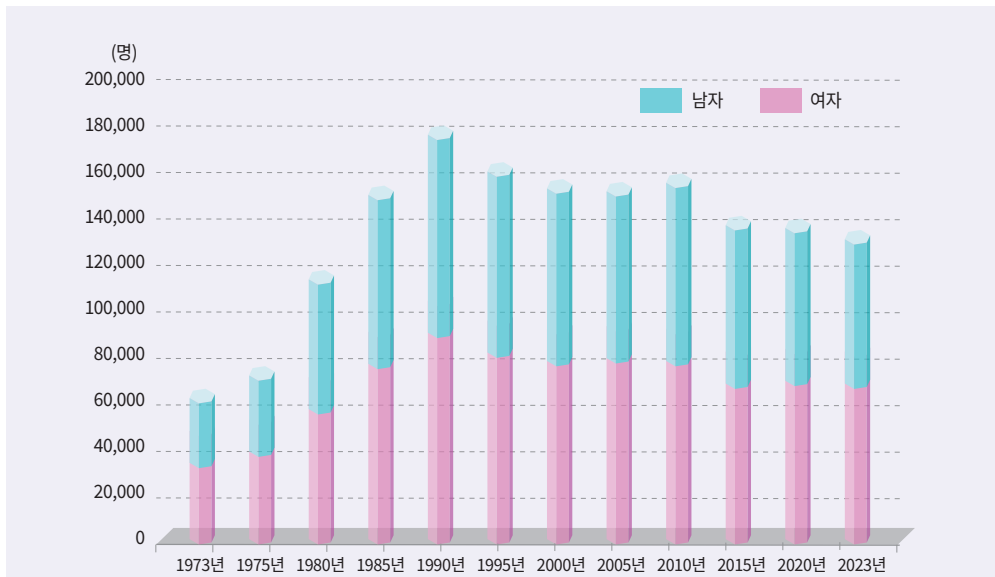
5. 안양동의 주민과 경제활동

1) 감소 추세로 전환된 인구 규모

안양동의 인구는 시 승격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1973년 시 승격 당시 인구는 6만 6,338명(남자 3만 1,443명, 여자 3

만 4,905명)이었던 인구는 1980년 11만 6,688명으로 증가했으며 1990년에는 17만 8천 154명을 기록했다. 안양동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91년으로, 당시 인구는 18만 1,404명(남자 9만 1,275명, 여자 9만 129명)이었지만, 이듬해인 1992년에는 17만 8,690명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안양동의 인구는 1991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안양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시기는 2015년 이후이다. 이에 따라 안양동의 인구가 도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59.7%로 매우 높았지만, 1990년 37.1%로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23.2%까지 비중이 축소되었다. 이후 안양시 전체의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안양동의 인구 비중은 2020년 기준 24.9%로 상승하였다. 1973년 이후에 전개된 안양동과 안양시의 인구 규모 변화를 통해 보면 안양동의 도시화 속도에 비해 안양시 전체의 도시화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3년 시 승격 당시 안양동에는 6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었지만 이후 분동을 통해 지금은 9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고 행정동 간 경계 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1973년과 2023년의 행정동별 인구 변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행정 경계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안양4동과 안양5동에서는 1973년에 비해 2023년의 인구 규모가 감소했다. 2023년 6월 말 기준 행정동별 인구는 안양6동(2만 6,750명), 안양2동(2만 3,169명)이 많고, 안양4동(6,794명), 안양8동(8,499명)이 적다.



안양동의 인구규모 변화

〈표 2〉 안양동의 행정동별 인구

(단위 : 세대, 명)

구분	세대	인구			세대당 인구
		계	남자	여자	
안양1동	5,121	12,021	6,019	6,002	2.35
안양2동	10,909	23,169	11,589	11,580	2.12
안양3동	7,425	15,895	7,877	8,018	2.14
안양4동	3,574	6,794	3,384	3,410	1.90
행정동 안양5동	4,881	10,023	5,000	5,023	2.05
안양6동	12,691	26,750	13,586	13,164	2.11
안양7동	5,804	15,089	7,402	7,687	2.60
안양8동	4,302	8,499	4,385	4,114	1.98
안양9동	7,105	16,632	8,211	8,421	2.34
안양동	61,812	134,872	67,453	67,419	2.18

자료 : 안양시청, 2023년 6월 말.

1991년 이후 안양동의 인구 규모가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신도시 건설이다. 수도권권 1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안양천 동쪽의 농경지였던 달안인들이 개발 대상지로 지정되었고, 그 자리에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992년부터 주민 입주가 본격화되었다. 또한 시가지 역사가 오래되고 노후 건축물이 증가한 점도 안양동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장소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열악해진다. 도시 주변부에서는 신시가지가 개발되기도 하고, 택지개발을 통해 신규 주거공간이 조성되지만, 주거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도시 활동이 집적해 있는 도시 중심부에서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더디게 진행된다. 도시 중심부에서는 인구를 흡인하는 요소보다 배출하는 요소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공동화를 경험하게 된다.

안양동에서는 안양6동을 제외한 모든 행정동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과 비교하면 안양7동 역시 인구가 감소했지만, 안양7동은 덕천로와 관악대로 사이의 단독주택·다세대주택·소규모 제조업체 등이 혼재하던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최고 32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된 후 2017년부터 4,250세대가 입주하면서 인구는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이곳과 관악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안양1동에서 2,700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안양1동에서도 2025년 이후 인구 감소 경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동의 인구 감소는 전출 인구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감소 원인으로는 출산율 하락도 간과할 수 없다. 출산율 감소는 결국 세대당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안양동의 세대당 인구는 1973년 4.89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85년에는 3.90명으로 4명 이하가 되었고, 2000년에는 2.91명으로 3명 선마저 무너졌다. 2023년 기준 안양동의 세대당 인구는 2.18명을 기록해 안양시 평균(2.40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행정동별로 보면, 세대당 인구는 안양7동(2.60명)을 비롯해 안양1동(2.35명)·안양9동(2.34명)에서 많았지만, 안양4동(1.90명)·안양8동(1.98명)·안양5동(2.05명)·안양6동(2.11명)·안양2동(2.12명)·안양3동(2.14명) 등에서 안양동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법정동별 세대당 인구는 관양동이 2.16명으로 가장 작으며, 관양동보다 조금 많은 지역이 안양동이다. 안양시에서 세대당 인구가 많은 지역은 신도시가 개발되었거나 근래에 대규모의 주택재개발을 통해 아파트가 많이 건설된 평촌동(2.96명)과 호계동(2.63명) 등이다.

2) 안양동 인구구성의 변화

시 승격 당시인 1973년 안양동은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여초 지역이었다.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성비가 1973년에는 87.6에 불과했을 정도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초현상은 완화되었다. 2022년에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다. 1973년 남녀 간 인구 격차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15~64세의 청장년층(경제활동인구)에서 매우 두드러졌으며, 특히 15~29세에 이르는 젊은 연령층에서 남자가 8,482명에 불과했지만, 여자는 1만 2,873명에 달했다. 이는 당시 안양동의 경제구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체 입지가 활발했던 안양시에서 젊은 여성 노동 인력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안양동에 입지했던 주요 제조업체가 다른 지방으로 옮겨 가면서 젊은 여성 노동력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성별 인구구성에서 남자의 비중이 약간 높게 형성되었고, 59세 이하의 연령층 가운데 20~24세에서만 여자가 남자보다 190여 명 많았고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제활동인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졌지만, 노년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짐에 따라 전체적인 남녀 구성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 인구구성의 변화와 함께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유소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콘서트를 관람하는 노인들(2022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제공)

층의 감소와 50세 이상 장년층·노년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 35.9%에 달했지만, 2000년에는 19.9%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9.0%로 감소하였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 2.1%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8.1%로 상승하였다.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감소한 만큼 노년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았음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64세의 인구 비중이 동반 상승했음을 반영한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973년 62.1%에서 2022년 72.9%로 상승하였다.

안양동에서는 1973년에 10대(25.4%)와 10세 미만(23.3%)의 인구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지만, 2000년에는 20대(19.1%)와 30대(18.9%)의 인구 비중이 높았다. 2022년에는 50대(17.1%)와 60대(16.0%)의 비중이 상승하였다. 1970~1980년대에는 연령층별 인구구성에서 비중이 탁월한 연령층이 눈에 띄었지만, 지금은 연령층별 인구 비중의 편차가 감소한 가운데 유소년 인구에 비해 노년 인구의 증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표 3〉 안양동의 연령층별 인구구성의 변화

(단위 : 명, %)

연령층	성별	1973년		2000년		2022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유소년 (0-14세)	남자	11,939	17.7	16,239	10.4	6,139	4.5
	여자	12,198	18.1	14,647	9.4	6,046	4.5
	계	24,137	35.9	30,886	19.9	12,185	9.0
청장년 (15-64세)	남자	18,988	28.2	59,004	38.0	50,537	37.3
	여자	22,800	33.9	57,274	36.8	48,322	35.6
	계	41,788	62.1	116,278	74.8	98,859	72.9
노년 (65세 이상)	남자	506	0.8	3,153	2.0	11,109	8.2
	여자	888	1.3	5,145	3.3	13,475	9.9
	계	1,394	2.1	8,298	5.3	24,584	18.1
합계	남자	31,433	46.7	78,396	50.4	67,785	50.0
	여자	35,886	53.3	77,066	49.6	67,843	50.0
	계	67,319	100.0	155,462	100.0	135,628	100.0

자료 : 안양시, 『안양통계연보』, 1974년, 국가통계포털.

비고 : 비율은 연도별 총인구에 대한 것임.



안양동의 성별 · 연령별 인구구성 변화



유유산업 노동자들(1969년,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 제공)

안양동에서 2022년 기준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안양7동(14.9%)이고, 그 뒤를 이어 안양1동(10.1%)이다, 반대로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안양4동(5.5%)이고 안양8동(6.1%)에서도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은 안양4동(23.3%)·안양5동(22.4%)·안양9동(21.8%) 등지에서 높고, 안양7동(12.8%)·안양6동(14.9%)·안양1동(15.4%)에서 비교적 낮게 형성되었다. 안양동 내에서도 행정동별 인구구성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구구성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를 반영하는 주택 유형 및 주택 건축시기 등과 관련이 있다.

시 승격 당시인 1973년의 안양동 인구구성은 여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공업지대의 특징이 반영되었다. 20~30대 젊은 연령층의 규모가 큰 지역은 노동력의 전입 인구에 의한 인구 증가를 보여주며, 이는 주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안양동은 주로 남성 노동력이 필요한 중화학공업보다 경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므로, 젊은 남자에 비해 젊은 여자의 전입이 활발했기에 1973년의 인구피라미드가 다소 기형적인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도시경제의 근간이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인구 규모가 15만 명을 넘어선 2000년에는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선진국형 인구구성을 나타내었으며, 노년 인구의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 2022년에는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모양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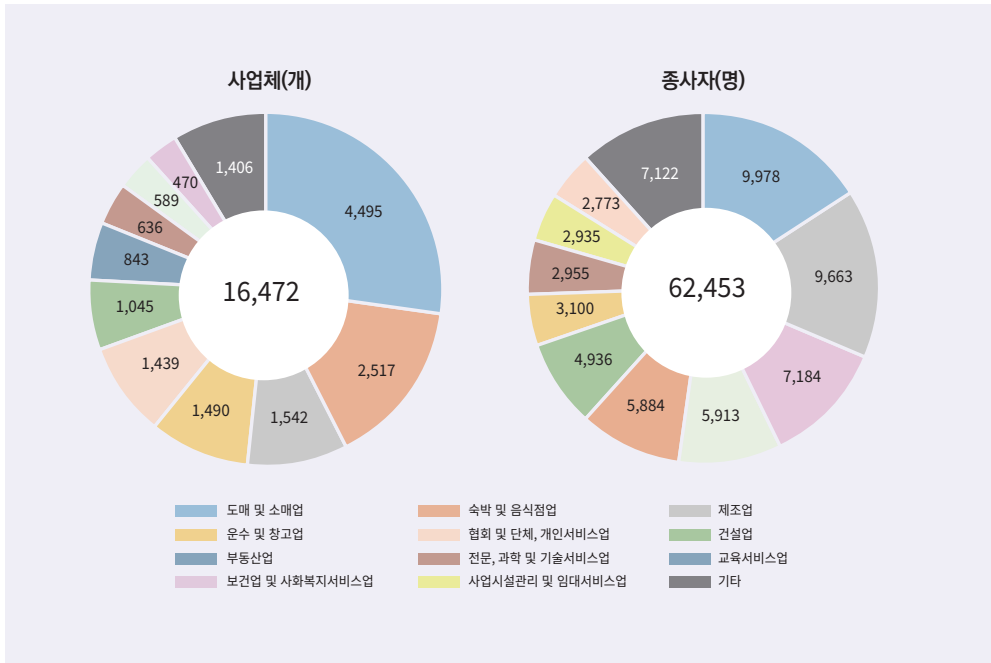
했으며, 50대 이상 연령층의 인구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의 인구피라미드를 2000년과 비교하면 인구 집단의 주요 연령층이 상승했다는 것과 노년 인구의 증가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안양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은 도시 내 다른 동에 비해 높은 편이다. 행정동 단위에서는 안양4동·안양5동·안양8동의 평균연령이 46.0세를 넘어섰으며, 안양7동이 39.8세로 가장 젊었다. 안양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지역은 안양동을 비롯해 석수동·박달동·비산동이며, 평촌동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다.

3) 안양시 경제활동의 중심지

안양시의 기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찍부터 안양시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안양동은 여전히 안양시 경제활동의 핵심부로 기능한다. 가장 최근인 2021년 기준 안양시에는 모두 6만 3,452개의 사업체에 27만 2,06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였으며, 이 가운데 안양동에 입지한 사업체는 도시 전체의 26.0%에 달하는 1만 6,473개, 종사자 수는 도시 전체의 23.0%에 해당하는 6만 2,453명이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3.6명으로 안양시 전체의 4.3명보다 작았다. 2000년 기준 안양동에는 1만 2,321개의 사업체에 5만 4,509명의 종사자가 근무했으며, 당시 도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각각 37.4%와 34.6%에 달했다. 안양동의 경제활동이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은 안양동의 경제활동이 도시 전체의 경제활동에 비해 다소 뒤쳐진 성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안양동은 안양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산업대분류 방식에 따른 구분을 토대로 보면, 일부 업종에서는 안양동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33.9%), 제조업(29.9%), 건설업(26.3%), 도매 및 소매업(25.2%),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28.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1%) 등이 도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4.5%), 교육서비스업(30.8%), 숙박 및 음식점업(29.8%), 제조업(27.3%), 운수 및 창고업(26.6%), 도매 및 소매업(22.2%) 등의 비중이 높게 형성되었다. 이들 업종은 안양동의 특화 업종이라 볼 수 있다.

2021년 기준 안양동에 가장 많이 입지한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이며, 그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이 뒤따랐다. 이들 사업체는 안양1동과 안양4동을 중심으로 안양역에



2021년 안양동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상위 10개 업종

접한 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다. 즉, 안양역 일대의 안양동은 상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체는 안양7동(792개 업체 입주)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 볼 때, 이들 세 업종은 안양동 전체 사업체의 50%를 웃도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의 분포는 사업체 수의 분포와 다소의 차이점이 보인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지만, 두 번째로 많은 종사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제조업이라는 점이 사업체 수의 분포와 가지는 차이점이다. 안양동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안양7동은 안양동 내에서 다른 행정동과 구별되는 제조업 집적지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안양7동은 9명을 넘지만, 나머지 8개의 행정동에서는 제조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가 4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안양동은 교육서비스업 부문에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 안양동에는 안양시 전체 교육서비스업체의 19.5%가 입지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 전체의 30.8%가 분포한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의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안

양시 전체에서 6.4명을 기록했지만, 안양동에서는 10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 특히 안양 3동·안양5동·안양6동·안양8동에서는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안양동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 이들 4개 동은 수리산의 말단부에서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곳에 시가지가 형성된 곳이므로 안양동의 시가지가 서쪽으로 확장하는 경계부에 속하는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의 산지 말단부에는 연성대학교(안양3동)·안양대학교(안양5동)·성결대학교(안양8동)를 비롯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여러 공교육기관이 입지해 있으며, 평지에 조성된 시가지에는 공교육기관 및 사교육기관이 많이 들어서 있다.

6. 안양의 중심지

안양동은 안양시의 출발점인 동시에, 안양시의 도시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중심지이다. 안양동은 경부선 철도 부설 이후 설치된 안양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해 안양천과 수리산 사이의 농경지를 시가화 구역으로 전환하면서 현대도시로 성장해 왔다. 도시 발달 초기인 일제강점기 이래로 안양동은 군수공장을 비롯해 제조업이 들어섰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서울을 벗어난 제조업체의 입지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공업 지역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상업활동과 공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 밀집 지역으로 발전해 온 안양동은 안양시에서 도시화의 시기가 가장 이른 지역만큼 일부 시가지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또한 도시 중심부에 들어선 제조업으로 인해 시가지는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공업 기능 등이 좁은 범위 내에서 혼재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부 제조업체가 빠져나간 이전 적지를 대상으로 신규의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안양동의 공업 기능은 다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안양천과 경부선 철도의 중간지대에는 제조업체가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

안양동은 안양천변에서 서쪽으로 멀어질수록 주거 기능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택은 건축 연대가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시가지 역시 과거에 형성된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사람이나 자동차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들 전통 주택지역은 저층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거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몰아내는 인구 배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안양동의 인구 규모가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거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기존 거주자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요컨대, 안양동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성격의 시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요소는 점진적으로 현대적 요소로 대체되고 있다. 과거의 것은 역사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철거보다 보전과 보존을 통해 안양동의 역사적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과거의 활기를 되찾는 동시에 안양시의 중심지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0년사』, 안양시, 199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30년사』, 안양시, 200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40년사』, 안양시, 2014.
안양시공보관실, 『우리가 원하는 미래, 안양이 만듭니다』, 안양시, 2023.
대한주택공사, 『안양지구 개발 구상 및 전략』, 1999.
한국토지공사, 『안양지구백서(1단계; ~2002.6)』, 2002.

註

- 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1권 역사와 전통의 안양』, 2008, 15쪽.
- 2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지명사전』, 2011, 124쪽.
- 3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2008, 243쪽.
- 4 최정권, 「도시하천의 생태적 재생계획에 관한 연구-안양시 수암천을 대상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3(6), 2010, 135~136쪽.
- 5 하천 이름은 발원지가 서울제지라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460쪽.
- 6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지명사전』, 2011, 62~64쪽.
- 7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1권 역사와 전통의 안양』, 2008, 104쪽.
- 8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2-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325쪽.
- 9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2008, 240쪽.
- 10 2008년 유유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1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편, 『경기도 역사지명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246쪽.
- 12 「朝鮮織物會社 安養驛前에 設置」, 『동아일보』, 1932년 8월 13일.
- 13 「始興郡廳 誘致고지 郡民大會를 開催」, 『조선일보』, 1936년 3월 4일.
- 14 「始興郡廳 落城」, 『조선일보』, 1947년 12월 3일.
- 15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수송통계.
- 16 「경수산업도로 확장 연내 완공」, 『경향신문』, 1993년 1월 27일.
- 17 안양시 도시정비사업(<https://www.anyang.go.kr/newtown>).

제2장

안양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김용환 수원도시재단 차장



1. 안양동의 인구 및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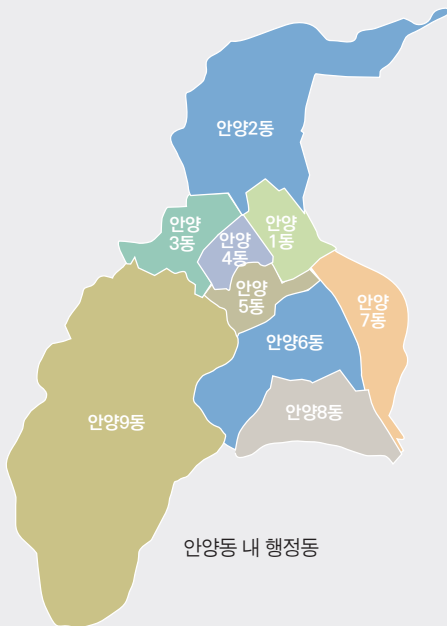
안양동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안양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안양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여 지역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통의 요지로서 성장하였다.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안양대학교·성결대학교·연성대학교 등의 대학교와 더불어, 안양공업고등학교, 안양여자중·고등학교, 성문중·고등학교, 신성중·고등학교, 근명중·고등학교, 양명·양명여자고등학교, 안양문화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등 여러 중·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교육의 중심지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과 교육의 이점 덕분에 안양동은 안양시에서 상업, 교통, 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법정동(法定洞) 안양동은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안양1~9동의 행정동으로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 비산동·호계동·석수동과 접하는 부분 경계가 행정동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분석 진행을 위하여 통계자료 구득(求得)이 가능한 행정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안양동(안양1~9동)은 2023년 기준 13만 3,729명이 거주하고 있다. 안양시 전체 인구의 약 24.6%, 만안구의 약 57.9%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2017년 14만 5,051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안양동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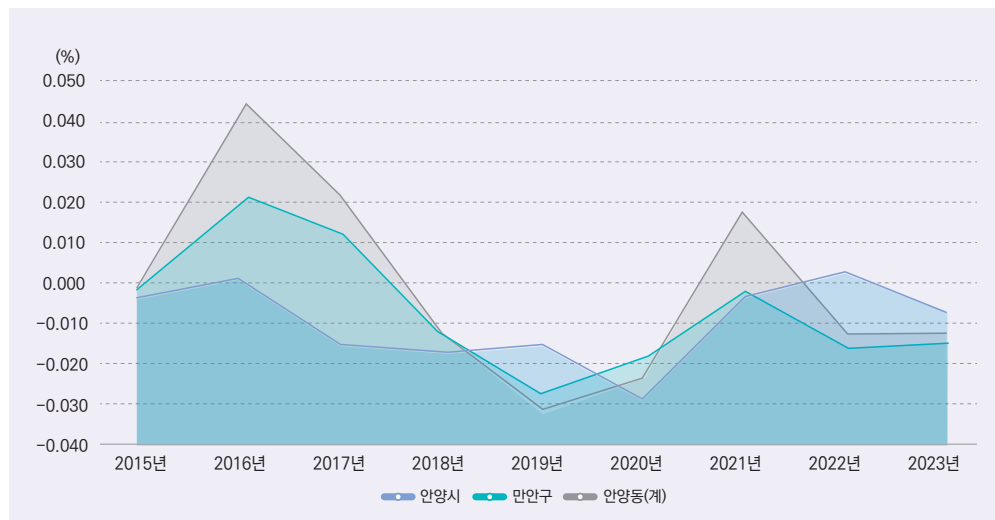


〈표 1〉 안양시·만안구·안양동의 인구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안양시	600,809	597,789	597,414	587,764	576,831	567,044	550,027	547,178	548,228	544,660
만안구	247,315	247,270	252,353	254,977	251,512	244,235	239,413	238,311	234,394	230,664
안양동										
전체	118,719	117,853	123,803	126,584	125,018	120,754	117,356	120,062	118,788	117,205
안양1동	18,726	18,547	18,044	18,255	18,148	14,862	12,728	12,485	12,097	11,883
안양2동	23,637	23,118	23,099	21,973	20,867	21,676	21,854	21,277	23,066	22,983
안양3동	18,113	17,777	17,657	17,592	17,310	16,799	16,800	16,484	16,084	15,687
안양4동	7,010	7,057	7,247	7,351	7,282	7,273	7,275	6,949	6,804	6,738
안양5동	14,311	14,322	14,003	13,827	13,569	13,215	10,693	10,254	10,128	10,012
안양6동	20,580	20,787	19,131	19,352	19,767	19,618	21,078	26,355	26,771	26,557
안양7동	4,293	4,245	12,550	16,246	16,278	16,126	15,903	15,654	15,161	15,006
안양8동	12,049	12,000	12,072	11,988	11,797	11,185	11,025	10,604	8,677	8,339
안양9동	18,135	18,359	18,458	18,467	18,078	17,686	17,692	17,247	16,840	16,524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통계」(<https://jumin.mo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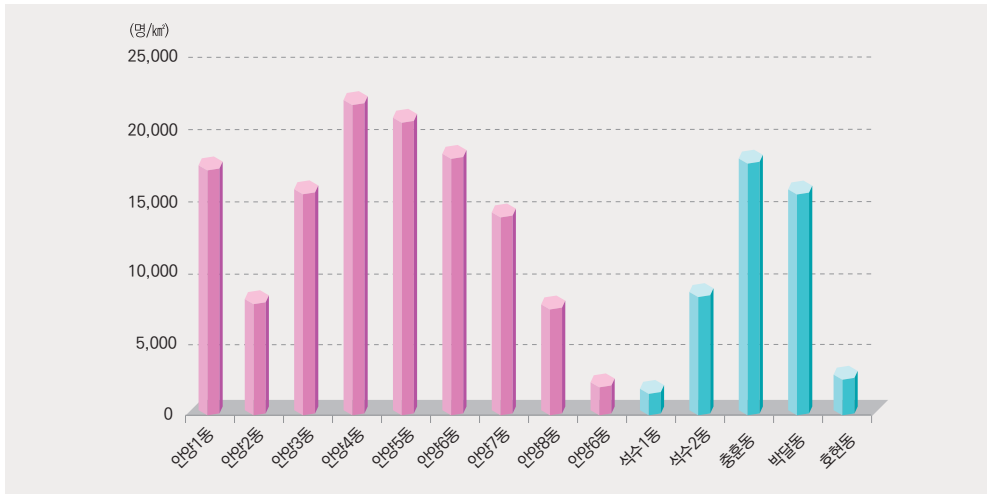
2015~2023년 안양시·만안구·안양동의 인구 변동률

〈표 2〉 2022년 안양시·만안구·안양동 인구밀도

(단위 : 명/㎢)

구분	인구밀도	구분	인구밀도
안양시	9,476	전체	9,051
만안구	6,535	안양1동	18,210
석수1동	2,061	안양2동	8,412
석수2동	9,097	안양3동	16,271
충훈동	18,320	안양4동	22,645
박달동	16,242	안양5동	21,026
호현동	3,181	안양6동	18,654
		안양7동	14,705
		안양8동	8,308
		안양9동	2,636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2023년.



2022년 만안구의 동별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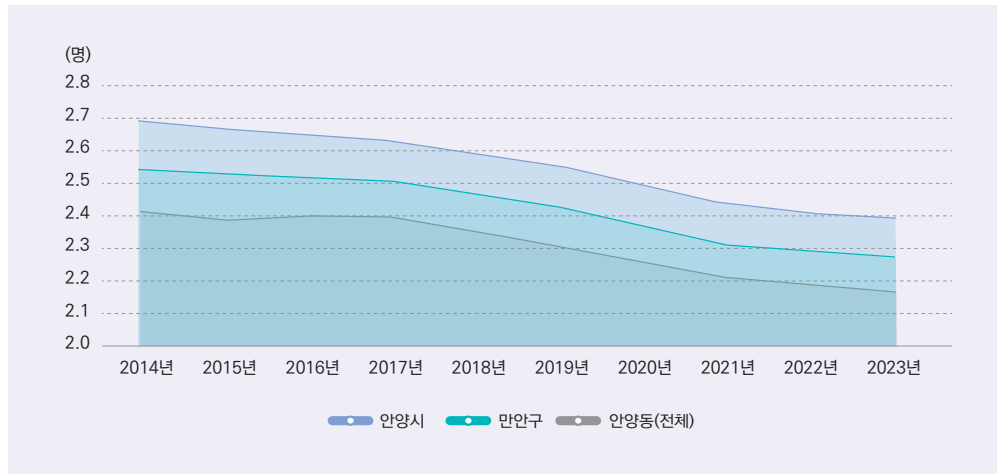
2022년 안양동 인구밀도는 9,051명/㎢이며, 만안구 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안양 4동과 안양5동을 포함하고 있다. 안양동의 인구밀도는 안양시 전체 인구밀도와 비슷하나, 만안구 인구밀도의 약 1.5배로 만안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다.

〈표 3〉 2014~2023년 안양시·만안구·안양동의 세대당 인구수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안양시	2.69	2.67	2.65	2.63	2.59	2.55	2.49	2.44	2.41	2.39
만안구	2.54	2.53	2.52	2.50	2.46	2.42	2.36	2.31	2.29	2.27
전체	2.41	2.39	2.40	2.39	2.35	2.30	2.25	2.21	2.19	2.17
안양1동	2.76	2.77	2.75	2.71	2.62	2.50	2.43	2.38	2.36	2.32
안양2동	2.35	2.32	2.29	2.25	2.20	2.19	2.16	2.11	2.12	2.11
안양3동	2.43	2.43	2.41	2.38	2.35	2.31	2.24	2.20	2.16	2.13
안양4동	2.24	2.21	2.17	2.11	2.07	2.03	1.98	1.93	1.91	1.89
안양5동	2.23	2.21	2.20	2.17	2.16	2.13	2.10	2.08	2.06	2.05
안양6동	2.24	2.23	2.23	2.22	2.20	2.17	2.13	2.12	2.11	2.10
안양7동	2.44	2.41	2.69	2.79	2.79	2.76	2.72	2.66	2.62	2.59
안양8동	2.28	2.26	2.25	2.20	2.16	2.12	2.05	2.01	1.99	1.97
안양9동	2.72	2.68	2.66	2.62	2.57	2.50	2.44	2.38	2.35	2.33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https://jumin.mois.go.kr/>).



2014~2023년 안양시·만안구·안양동의 세대당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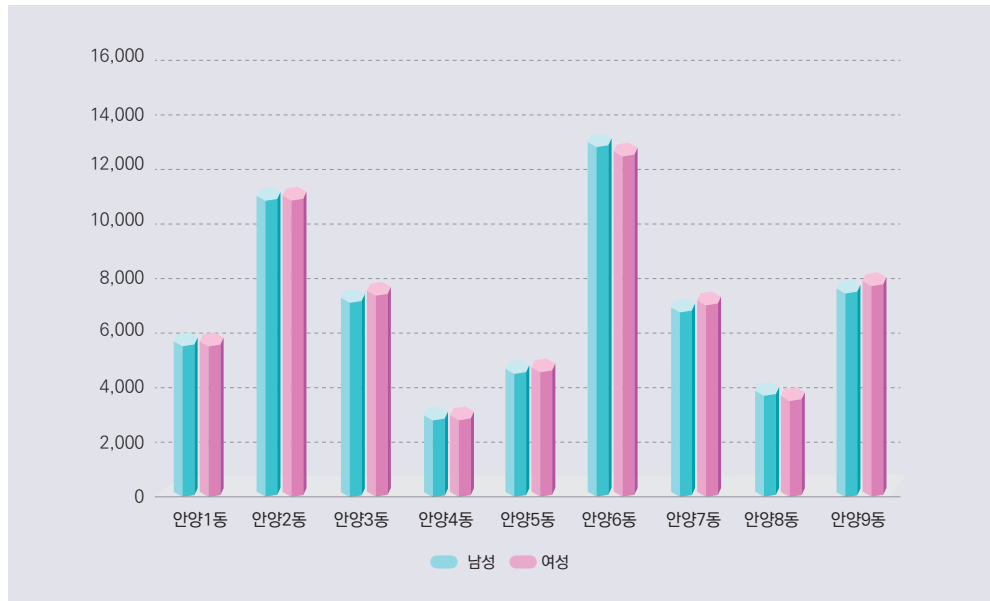
안양동의 2023년 세대당 인구는 2.21명이다.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안양시 전체적으로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양동은 안양시와 만안구에 비례하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표 4〉 안양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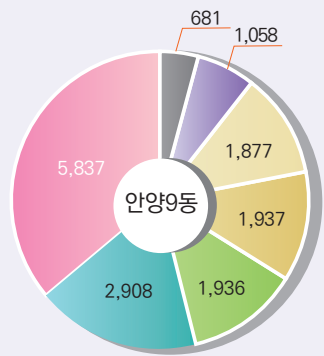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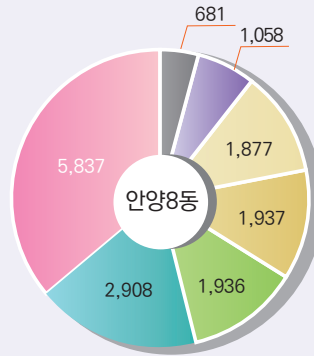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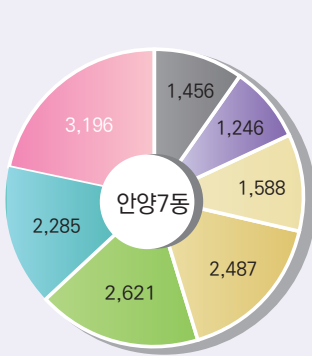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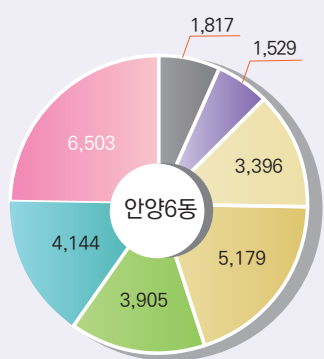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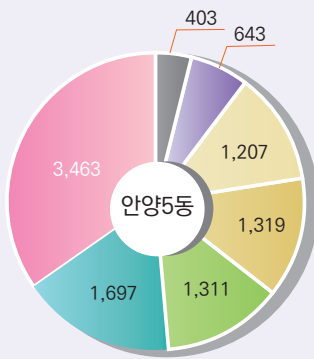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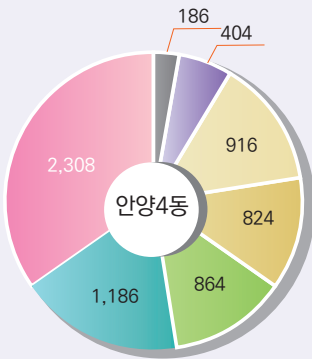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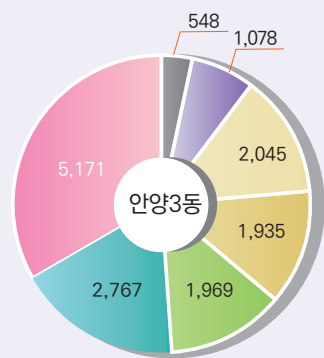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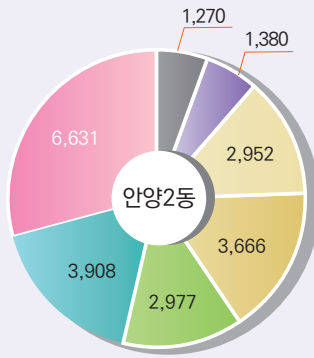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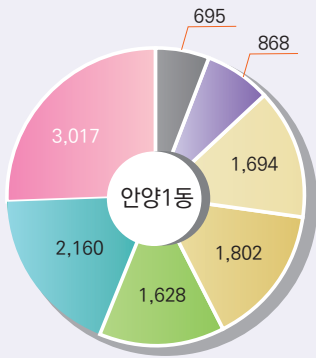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안양1동	11,864	5,923	5,941	695	868	1,694	1,802	1,628	2,160	3,017
안양2동	22,784	11,385	11,399	1,270	1,380	2,952	3,666	2,977	3,908	6,631
안양3동	15,503	7,612	7,891	548	1,078	2,045	1,935	1,959	2,767	5,171
안양4동	6,688	3,332	3,356	186	404	916	824	864	1,186	2,308
안양5동	10,053	5,013	5,040	403	643	1,217	1,319	1,311	1,697	3,463
안양6동	26,473	13,406	13,067	1,817	1,529	3,396	5,179	3,905	4,144	6,503
안양7동	14,879	7,281	7,598	1,456	1,246	1,588	2,487	2,621	2,285	3,196
안양8동	8,289	4,275	4,014	240	488	1,077	1,039	1,038	1,503	2,904
안양9동	16,281	8,018	8,263	681	1,058	1,877	1,937	1,983	2,908	5,837
안양동(전체)	132,814	66,245	66,569	7,296	8,694	16,762	20,188	18,286	22,558	39,030
비율	100.0	49.9	50.1	5.5	6.5	12.6	15.2	13.8	17.0	29.4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주거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2024년 1월 기준)」를 활용한 추정치).



안양동의 행정동별 남녀 인구(2024년 1월 기준)

안양동의 거주 인구는 남성 6만 6,245명, 여성 6만 6,569명으로 성비가 비슷하다. 세부적으로는 60대 이상 인구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긴 하지만, 10대~50대 인구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10대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안양동의 연령별 인구 분포(2024년 1월 기준)

〈표 5〉 2014~2022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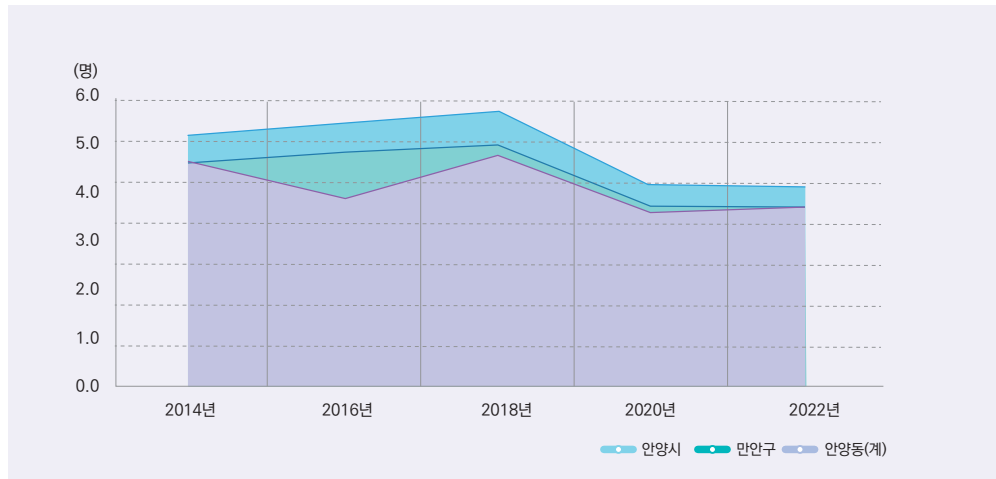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안양시	44,505	235,143	44,767	246,711	44,824	255,402	63,348	267,279	65,722	276,105
만안구	17,716	84,011	17,383	85,351	17,778	89,166	22,696	85,860	24,892	94,242
전체	12,936	60,887	12,690	50,325	12,930	62,706	15,970	59,189	17,512	67,863
안양1동	2,630	9,087	2,538	8,794	2,489	9,469	2,535	6,860	2,406	7,156
안양2동	1,783	6,416	1,730	6,603	1,707	6,948	2,215	6,364	2,189	7,160
안양3동	1,088	4,467	1,105	4,162	1,132	4,675	1,395	4,592	1,461	4,999
안양4동	1,666	4,633	1,643	4,984	1,626	5,240	1,851	4,706	1,790	5,393
안양5동	1,005	5,736	975	5,864	996	5,902	1,095	4,805	1,054	4,863
안양6동	1,884	10,469	1,816	9,562	1,873	10,023	2,727	10,741	3,127	10,655
안양7동	1,394	13,220	1,457	3,323	1,672	13,835	2,213	14,093	3,535	19,967
안양8동	904	5,049	865	5,381	874	4,916	1,102	5,032	1,011	5,485
안양9동	582	1,810	561	1,652	561	1,698	837	1,996	939	2,185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해당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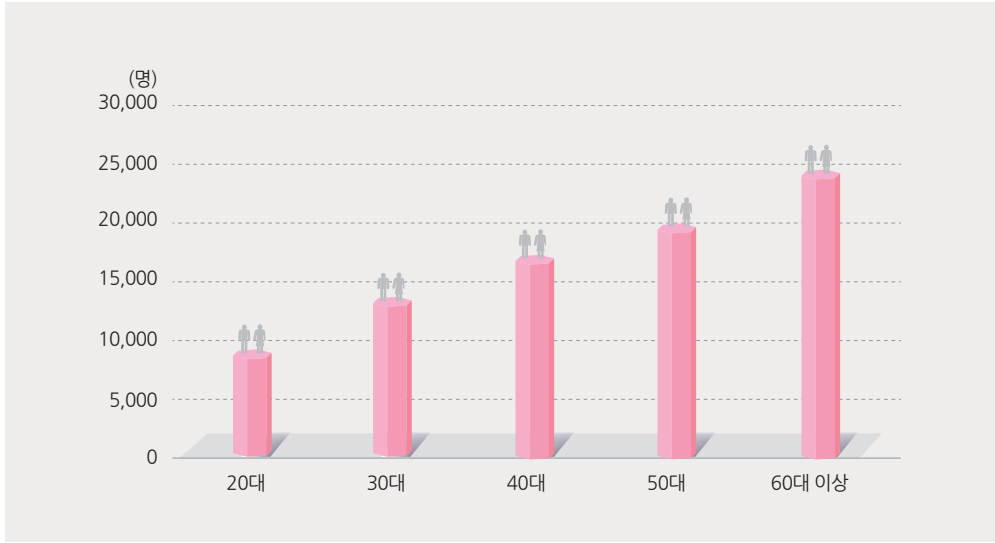
〈표 6〉 2014~2022년 안양시·만안구·안양동 사업체당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안양시	5.3	5.5	5.7	4.2	4.2
만안구	4.7	4.9	5.0	3.8	3.8
안양동(전체)	4.7	4.0	4.8	3.7	3.9



2014~2022년 안양시·만안구·안양동 사업체당 종사자 수 변화



안양동의 연령별 인구 분포(2024년 1월 기준)

2022년 현재 안양동에는 안양시 전체 사업체의 약 26.6%인 1만 7,512개 업체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점포가 밀집한 안양역 일대의 상업지역과 명학역 근처 공업지역이 안양동에 속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양동 사업체 종사자 수는 총 6만 7,863명으로,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약 3.9명이다.

〈표 7〉 안양동의 직장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안양1동	10,015	3,822	6,193	1,215	1,582	1,947	2,212	3,059
안양2동	10,097	4,490	5,607	1,027	1,311	1,811	2,575	3,373
안양3동	7,167	2,714	4,453	900	897	1,314	1,758	2,304
안양4동	6,673	2,491	4,182	586	946	1,181	1,638	2,322
안양5동	7,229	2,653	4,576	985	1,317	1,371	1,573	1,983
안양6동	12,417	6,382	6,035	1,148	1,830	2,469	3,071	3,899
안양7동	20,281	11,991	8,290	2,208	4,034	4,947	4,775	4,317
안양8동	7,455	3,374	4,081	1,227	1,064	1,496	1,728	1,940
안양9동	3,141	1,432	1,709	157	361	534	854	1,235
안양동(전체)	84,475	39,349	45,126	9,453	13,342	17,070	20,184	24,432
비율	100.0	46.6	53.4	11.2	15.8	20.2	23.9	28.9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직장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를 활용한 추정치).

안양동의 직장인구 총 8만 4,475명 중 남성이 3만 9,349명, 여성이 4만 5,12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0.21%, 50대가 약 23.89%로 40대·50대가 전체 직장인구의 44%가량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안양7동은 2만 281명으로 안양동 내에서 가장 많은 직장인구가 분포해 있다.

2. 안양동의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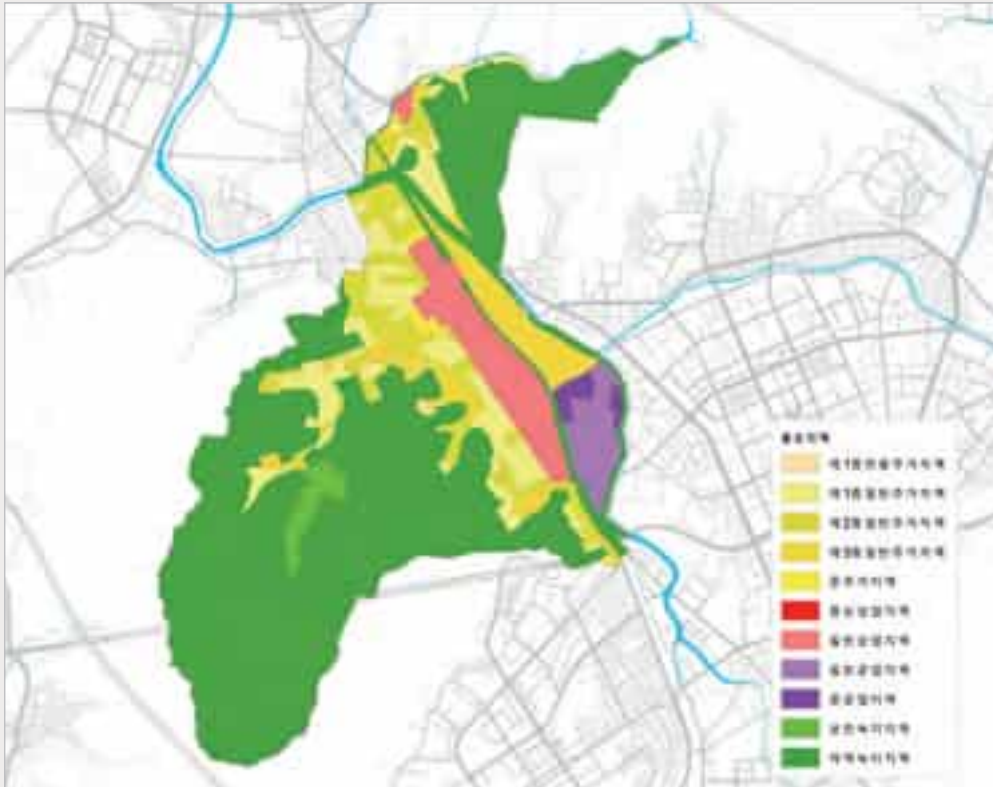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안양동은 남쪽과 북쪽에 걸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64.02%로 안양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9.88%), 제2종 일반주거지역(7.54%), 제3종 일반주거지역(5.97%), 준주거지역(0.62%)을 포함하는 주거지역은 약 24.02%를 구성한다. 6.53%의 면적을 차지하는 상업지역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이며, 공업지역은 2.97%의 일반공업지역과 0.87%의 준공업지역을 합쳐 약 3.80%를 차지한다.





수리산과 안양동의 주거지역



안양동의 용도지역

〈표 8〉 안양동의 용도지역

(단위 : ha, %)

구분	면적	비율	구분	면적	비율
제1종 전용주거지역	0.85	0.1	일반상업지역	100.45	6.5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1.83	9.9	일반공업지역	45.10	2.9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5.98	7.5	준공업지역	13.35	0.9
제3종 일반주거지역	91.79	6.0	보전녹지지역	24.19	1.6
준주거지역	9.58	0.6	자연녹지지역	984.12	64.0
			합계	1,537.24	100

자료 : 「국토계획/공간사실」,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상업지역(안양일번가)



주거지역(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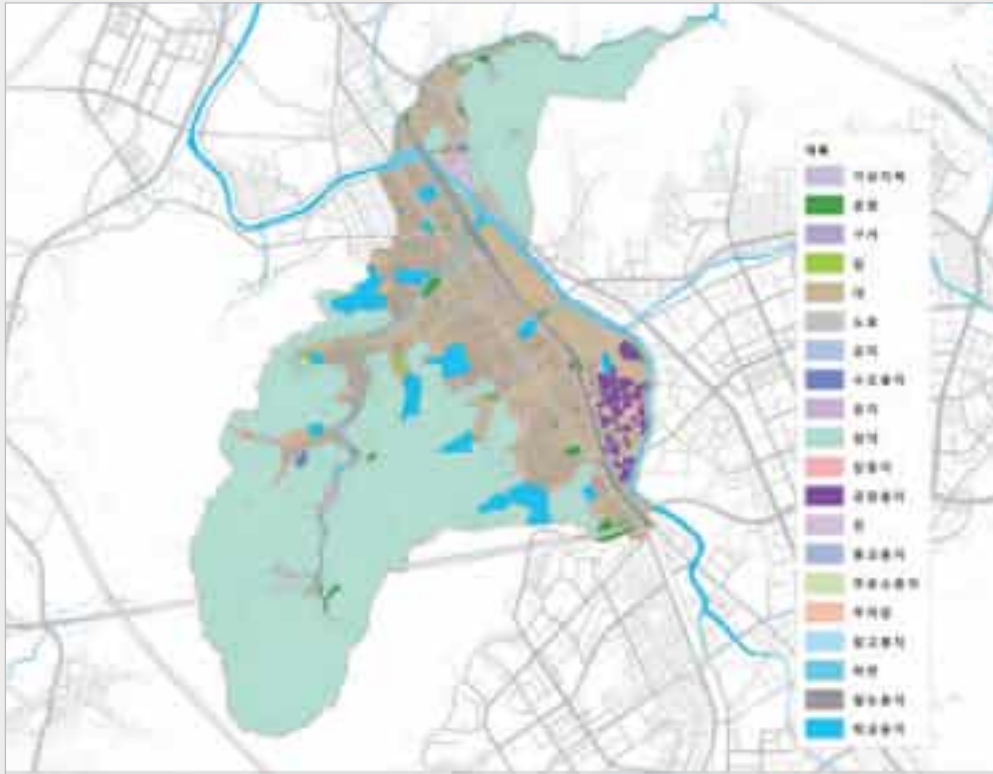
공업지역(코오롱인더스트리)



자연녹지지역(수리산)



보전녹지지역(병목안시민공원)



안양동의 지목

〈표 9〉 안양동의 지목별

(단위 : ha, %)

구분	면적	비율	구분	면적	비율
임야	862.29	56.2%	잡종지	14.13	0.9
수도용지	2.06	0.1%	공장용지	23.49	1.5
묘지	0.51	0.0%	전	21.61	1.4
유지	0.003	0.0%	종교용지	4.65	0.3
가상지목	0.002	0.0%	주유소용지	1.02	0.1
공원	14.78	1.0%	주차장	2.94	0.2
구거	1.38	1.0%	창고용지	0.24	0.0
담	4.76	0.3%	하천	45.00	2.9
대	321.71	21.0%	철도용지	18.91	1.2
도로	133.35	8.7%	학교용지	61.82	4.0
			계	1,534.65	100.0

자료 : 「연속지적도형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학교용지(신안초등학교)



철도용지(안양역)



종교용지(중앙성당)



주유소용지(안양동 603-1)



공장용지(아이에스비즈타워)



하천(안양천)

안양동의 지목은 임야가 5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대지(21.0%), 도로(8.7%), 학교용지(4.0%) 순으로 이어진다. 하천(2.9%), 공장용지(1.5%), 전(1.4%), 철도용지(1.2%) 이외의 나머지 지목은 모두 1% 미만이다.



안양동의 공간시설

〈표 10〉 안양동의 공간시설

(단위 : ha, %)

구분	면적	비율	구분	면적	비율
경관녹지	2.27	1.2	소공원	0.17	0.1
공공공지	0.96	0.5	수변공원	1.22	0.6
공원	12.52	6.5	어린이공원	4.45	2.3
교통광장	6.68	3.5	완충녹지	2.98	1.5
근린공원	47.25	24.6	일반광장	0.49	0.3
녹지	0.401	0.2	체육공원	12.72	6.6
문화공원	99.83	52.0	합계	191.95	100.0

자료 : 「국토계획/공간시설」,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체육공원(병목안시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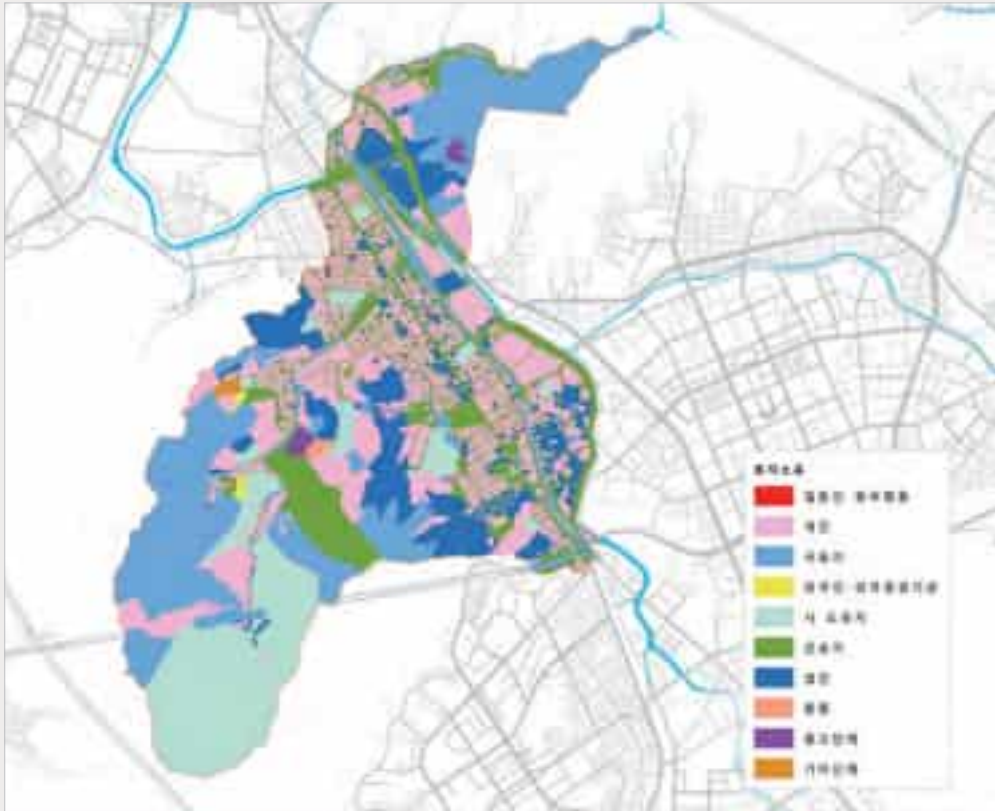
어린이공원(냉천어린이공원)

공간시설이란, 광장·공원·녹지·유원지 등 건물이 없는 공개 공간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안양동의 공간시설 현황을 보면, 문화공원이 안양동 전체면적의 5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린공원 24.6%, 체육공원 6.6%, 공원 6.5% 등 공원 시설이 안양동의 주된 공간시설을 구성하고 있다. 6.68ha의 교통광장은 동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그 외 경관녹지·어린이공원·완충녹지 등은 각각 1~2%의 비율로 나타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안양동 개발제한구역(ㄱ 개발제한구역), 2024년 7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안양동의 개발제한구역은 794.812ha로, 전체 면적의 51.3%를 차지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관악산과 삼성산, 남쪽으로는 수리산도립공원 등이 위치해 경기 남부 지역의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양동의 토지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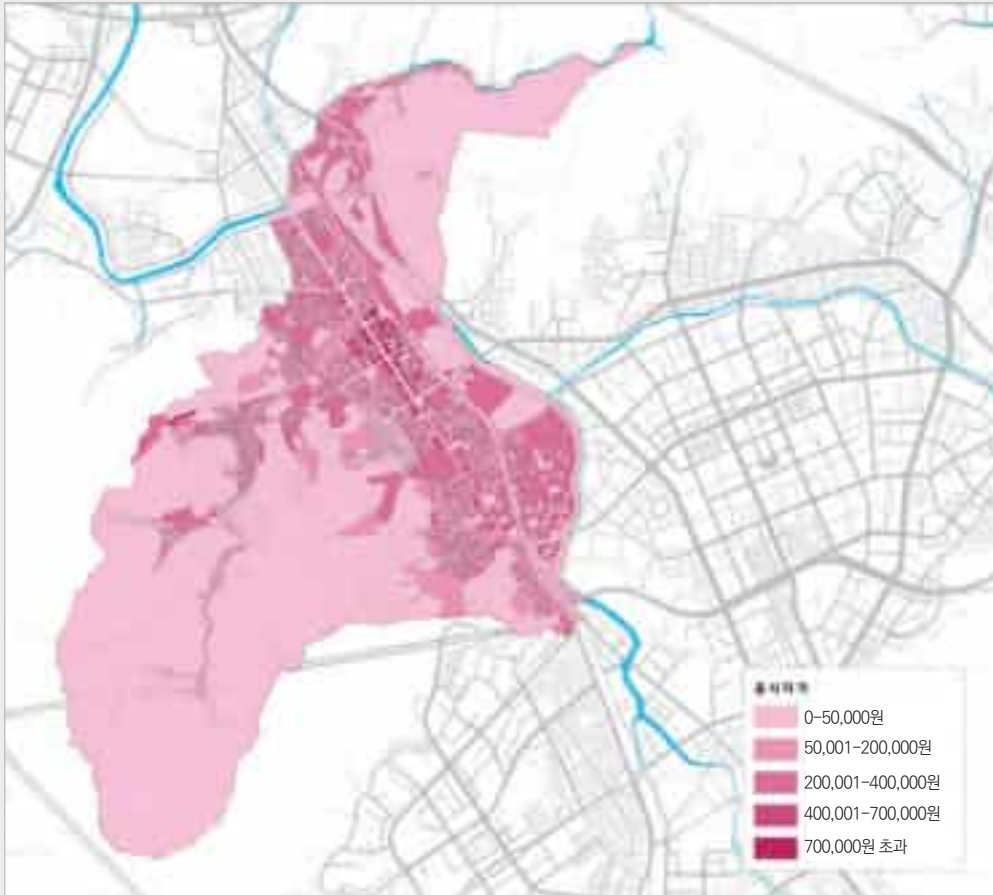
〈표 11〉 안양동의 토지소유

(단위 : ha, %)

구분	면적	비율	구분	면적	비율
일본인 창씨명 등	0.06	0.0	군유지	260.46	17.0
개인	418.34	27.3	법인	197.58	12.9
국유지	388.03	25.3	종중	3.75	0.2
외국인·외국공공기관	4.13	0.3	종교단체	11.49	0.7
시·도유지	247.20	16.1	기타단체	3.74	0.2
			합계	1,534.78	100

자료 : 안양시청, 「토지 소유구분 자료」, 2024년 10월.

안양동의 토지소유는, 개인 소유(27.3%)와 국유지(25.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군유지 17.0%, 시도유지 16.1%, 법인 12.9% 가 그 뒤를 잇는다. 소유자 가운데 일본인 창씨명이 있다는 것은 안양동의 역사와 관련 있어 보인다.



안양동의 공시지가

〈표 12〉 안양동의 공시지가

(단위 : ha, %)

개별공시지가	면적	비율	개별공시지가	면적	비율
0~50,000원	1028.68	67.0	400,001~700,000원	19.98	1.3
50,001~200,000원	70.58	4.6	700,000원 초과	382.93	24.9
200,001~400,000원	33.87	2.2	합계	1,536.04	100

자료 : vworld(<https://www.vworld.kr/>)개별공시지가정보, 2024년 7월.

안양동의 공시지가는 1㎡당 5만 원 이하의 토지가 1028.68ha로 전체의 67.0%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자연녹지이다. 안양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상업지역은 1㎡당 7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대부분 1㎡당 2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나타났다.

3. 안양동의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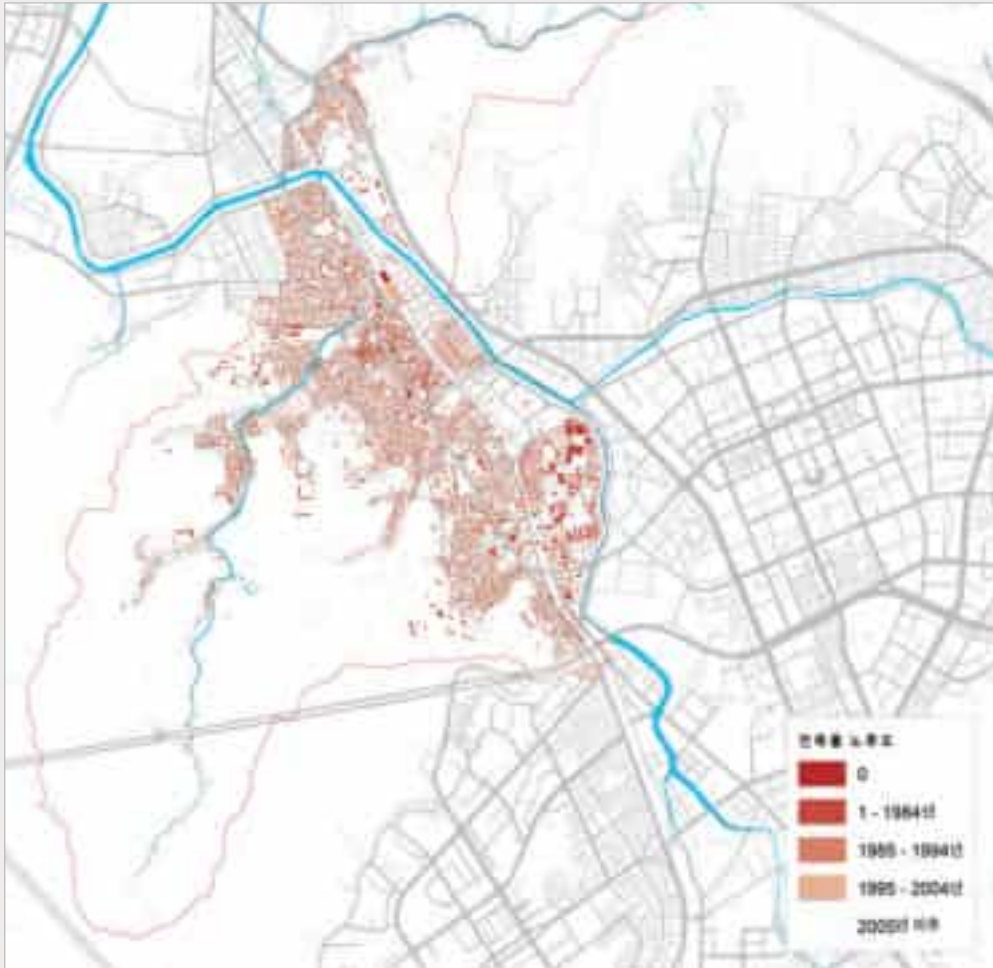
안양동의 도시개발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업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지와 상업지역 확장으로 이어졌다. 자연녹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쪽과 북쪽으로는 건축물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4,837동으로, 약 4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안양동 내 주거·상업·공업 등의 용도지역에 걸쳐 다양한 건축물이 노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 오래된 저층 주택이 많이 분포하는 편이다.



안양역 주변 상업지역



명학역 주변 공업지역



안양동의 건축물 노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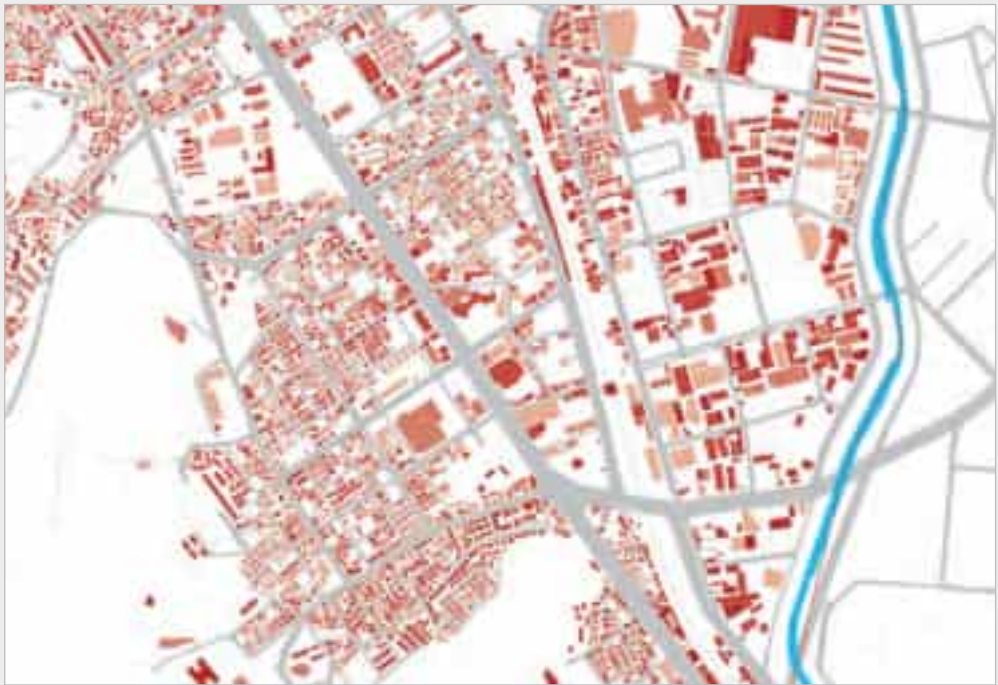
〈표 13〉 안양동의 건축물 노후도

(단위 : 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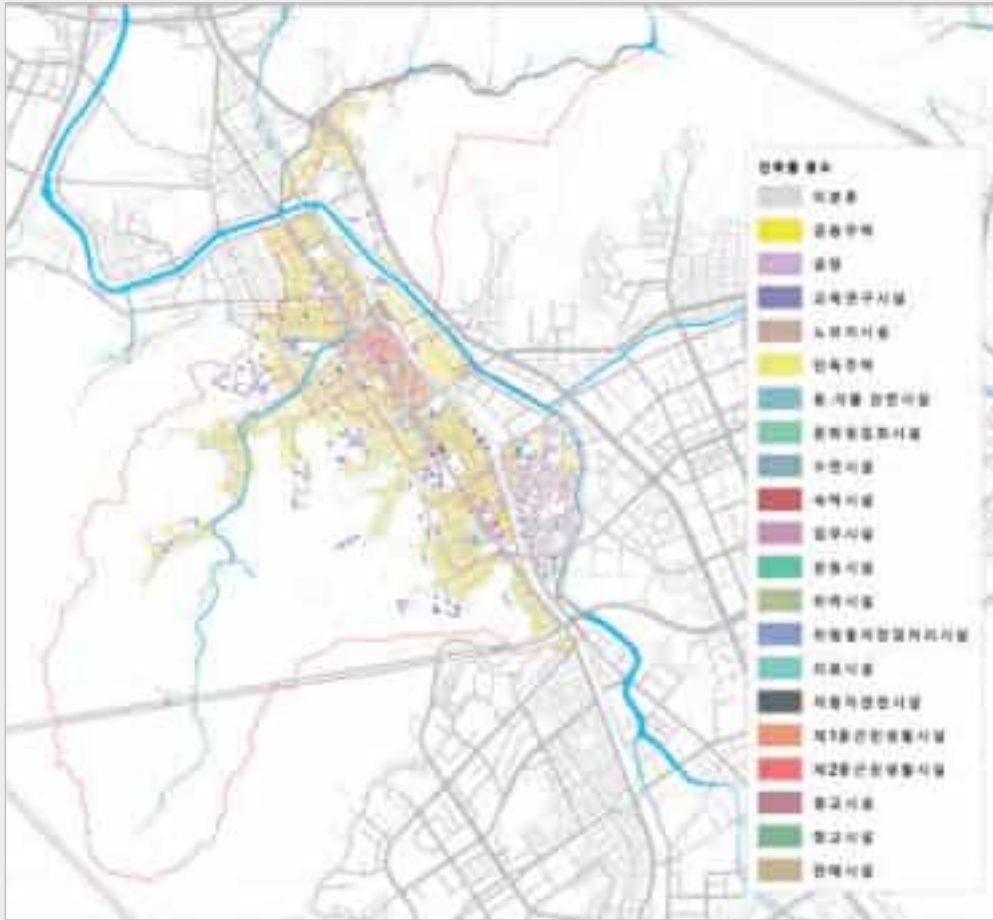
사용승인일	동수	비율	사용승인일	동수	비율
-	1,758	16.7	1995~2004년	1,528	14.5
1~1984년	3,079	29.2	2005년 이후	999	9.5
1985~1994년	3,164	30.1	합계	10,528	1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안양역 주변(상)과 명학역 주변(하)의 건축물 노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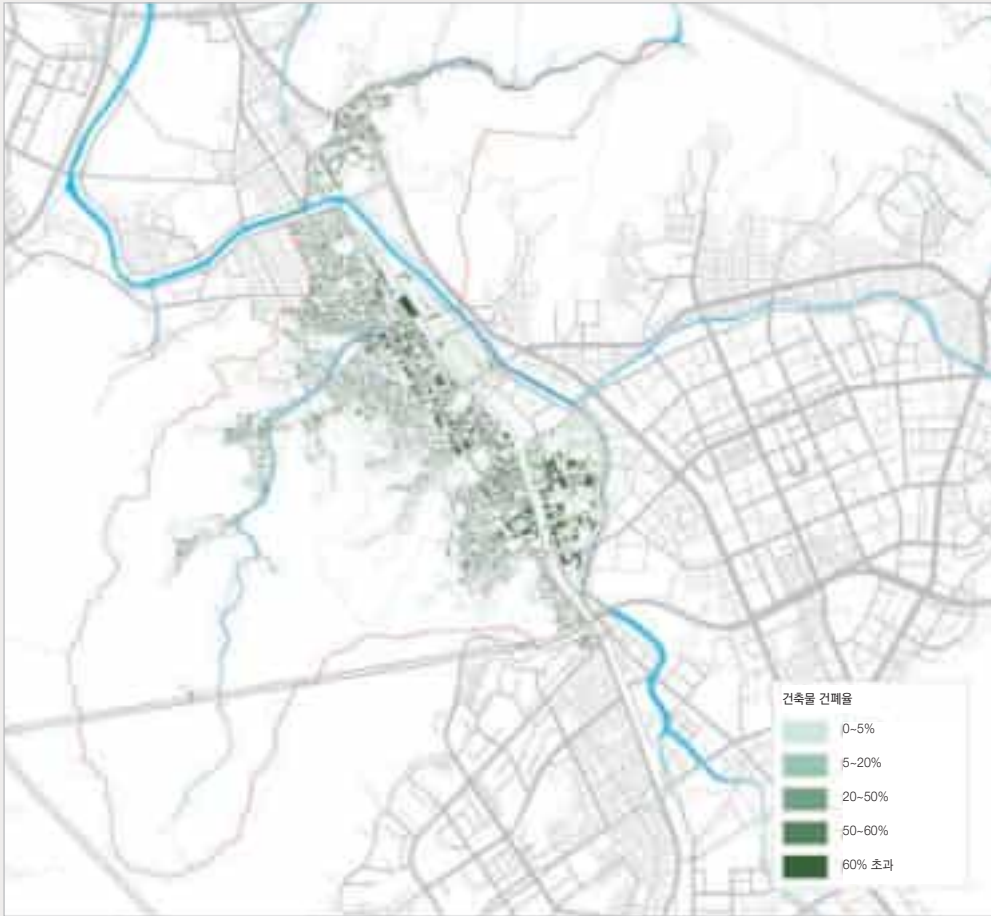


안양동의 건축물 용도

안양동의 건축물은 동의 동쪽에 치우쳐 분포한다.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명학역 인근에 공업 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안양로의 서쪽으로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특징을 보인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요 도로인 안양로와 만안로 변에 상업용 시설이 주로 밀집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단독주택이 모여 있다.



안양역 주변(상)과 명학역 주변(하)의 건축물 용도



안양동의 건축물 건폐율

안양동의 전체 건축물 3,661동(무허가 및 부속건축물 포함 10,528동) 가운데 건폐율 50~60% 범위에 속하는 건축물이 3,327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약 9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안양동 대부분의 건축물이 중간 수준의 건폐율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건폐율이 6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주로 상업지구, 고밀도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에 위치하며 이들 지역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안양역 주변(상)과 명학역 주변(하)의 건축물 건폐율

〈표 14〉 안양동의 건축물 건폐율

(단위 : %, 동)

건폐율	동수	비율	건폐율	동수	비율
0~5%	29	0.8	50~60%	2,327	63.6
5~20%	76	2.1	60% 초과	707	19.3
20~50%	522	14.3	합계	3,661	1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임.



안양동의 건축물 용적률

〈표 15〉 안양동의 건축물 용적률

(단위 : %, 동)

용적률	동수	비율	용적률	동수	비율
0~50%	211	5.8	200~500%	1,009	27.6
50~100%	500	13.7	500% 초과	48	1.3
100~200%	1,892	51.7	합계	2,6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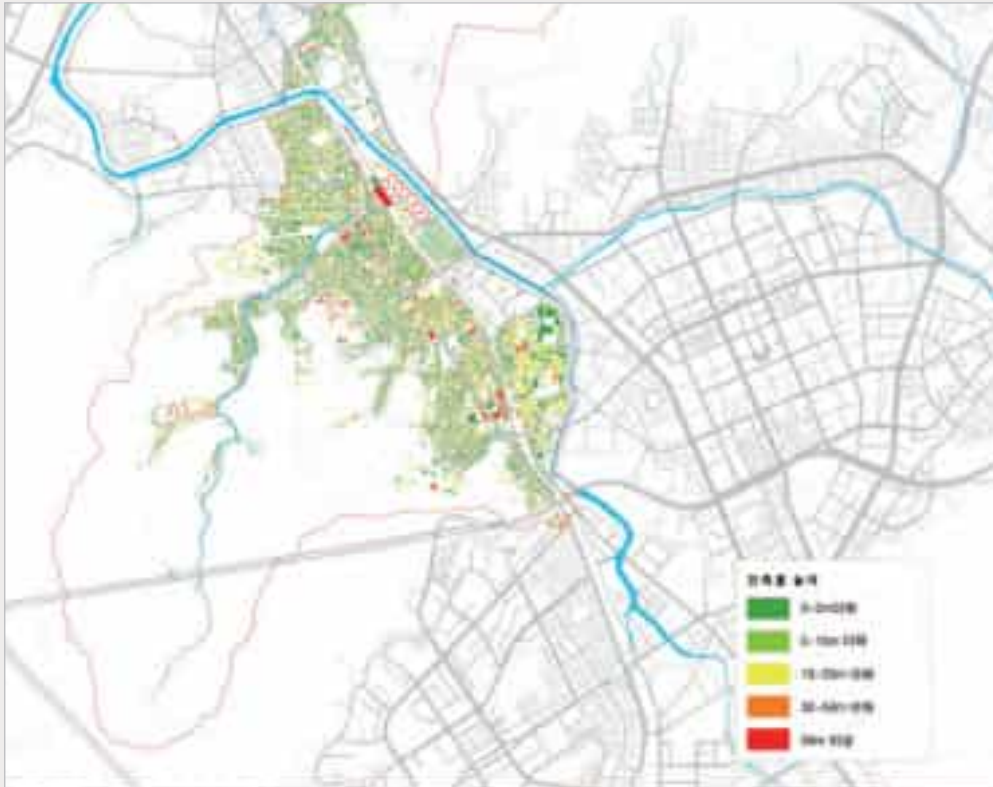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임.



안양역 주변(상)과 명학역 주변(하)의 건축물 용적률

안양동의 건축물 용적률 현황을 보면, 100~200% 구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1,892동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200~500% 구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1,009동으로 27.6%를 차지한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용적률이 주변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동의 건축물 높이

〈표 16〉 안양동의 건축물 높이

높이	동수(동)	비율(%)
0~5m 이하	192	5.6
5~10m 이하	969	28.0
10~30m 이하	2,107	60.9
30~50m 이하	104	3.0
50m 이상	87	2.5
합계	3,459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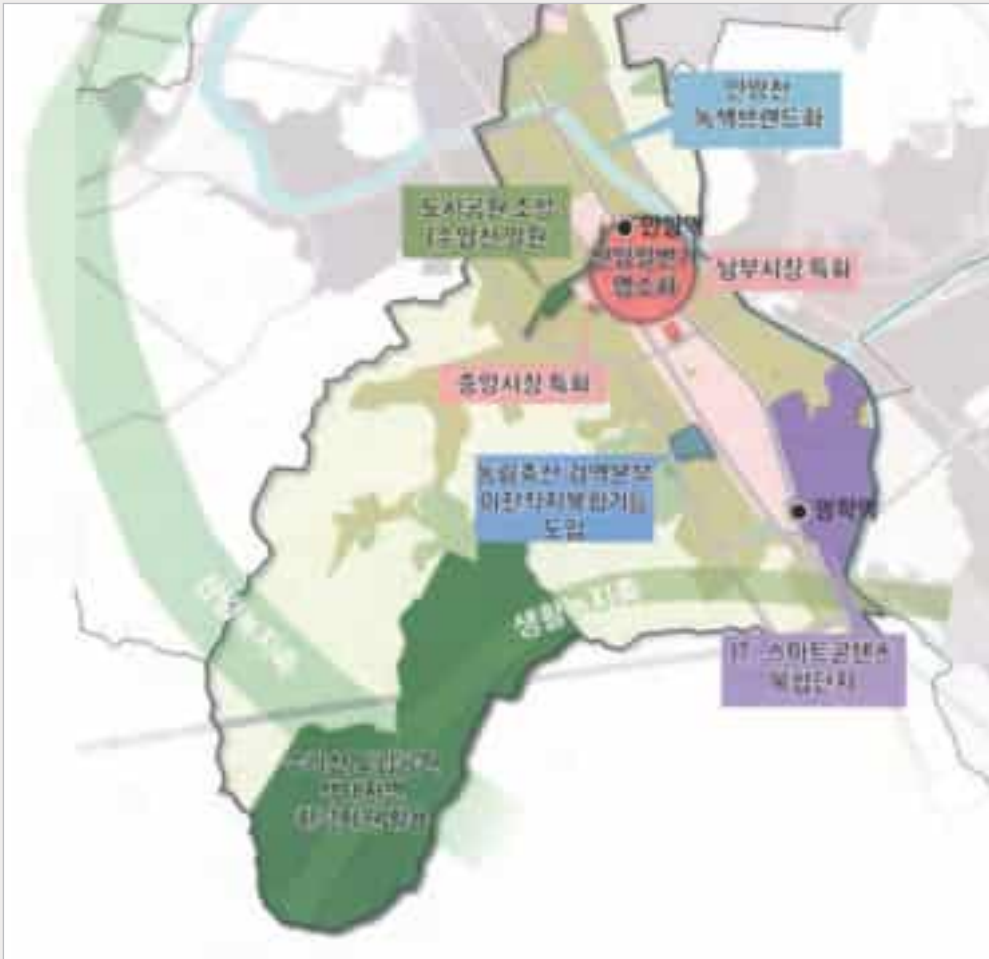
안양동의 건축물 높이 현황을 보면, 10~30m의 건축물이 전체의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5~10m 건물이 28.0%를 차지한다. 이는 안양동에 중층 주거 및 상업 건축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양역 주변(상)과 명학역 주변(하)의 건축물 높이

4. 안양동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구상

안양동이 위치한 안양·명학 생활권은 상위계획에서 안양역으로 대표되는 원도심 기능 회복과 특화거리 조성,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통한 젊은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용도 혼재 지역에 대한 정비 등 도시 공간 구조 개선과 관련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수리산 도립공원 등 서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계획되었다.



안양·명학 생활권 계획(안양시, 『2030년 안양도시 기본계획』, 2017)

〈표 17〉 상위계획에서의 안양동 현황

분류	현황
2030 안양도시 기본계획(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명학 생활권 개발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시재생 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 시흥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도로망 구축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도시재생 전략 수립(전통시장, 역사문화자원, 골목길 등) - 공공기관 이전적지 복합 기능 도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② 원도심 기능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 추진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지속적 정비 ③ 안양1번가 명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 주변, 전통시장, 대학가 등 장소성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 안양역세권 주변 정비를 통한 상권 활성화 - 중심지 경관 정비 및 특화 요소 도입 ④ 안양천+수리산 녹색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천 명소화 실천(시민생활, 문화공간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화) - 휴식·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수암천변 수변공원 조성 - 수리산도립공원 생태 자연환경 자원 활용
2020 안양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중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기존 시가지 정비 및 개발 - 만안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안양천 정비를 통한 수변공원 조성 - 보전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시생태환경 보전 • 명학중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중심 상업용지 정비 - 대학 및 공공시설 정비를 통한 젊은 문화거리 조성 -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용도혼재지역에 대한 정비 - 안양벤처밸리와 연계한 도시첨단산업 유치 - 수리산도립공원과 연계한 여가 공간 조성
안양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재정비)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양3동·4동·8동·9동은 인구감소 및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다수의 쇠퇴지역 • 안양8동·9동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이 열악한 안양8동 명학초교 일원을 대상으로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주거지원 및 리모델링 방식 추진 • 안양3동·4동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등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안양시 경관계획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안생활경관구역: 중심지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을 통한 기성시가지 활성화 유도 - 서부자연경관구역: 수리산의 생태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산림 휴양 경관 창출 • 경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경관축: 관악산 삼성산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자연성 보호 - 수변경관축: 하천변 경관위해요소 관리 및 수변경관 특성화 유도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도(안양시,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19)



2032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총괄도(안양시,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2023)

■ 경관구역(4)

안양시 경관특성과 형성구역, 심취 및 관련계획 반영

북부자연경관구역 : 생태환경 보호 및 산림과 조화로운 녹색 시가지 경관 창출
 서부자연경관구역 : 수리산의 생태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산림휴양 경관 창출
 만안생활경관구역 : 중심지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
 동안생활경관구역 : 쾌적성, 편리성, 여가문화 이미지 형성



■ 경관축(10)

주요간선도로 및 녹지 수변축을 대상으로 설정

녹지경관축 : 주요산지의 산림, 녹지경관 보전
 수변경관축 : 하천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
 도로경관축 : 경관 위해요소 관리, 녹지네트워크 구축
 철도경관축 : 녹지대 경관형성 및 방음벽 등 시설물 경관 개선

■ 경관거점(34)

철저한 경관요소를 형성하고 있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

관문경관거점 :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인자성 강화
 녹지경관거점 : 녹지거점 배후 자연경관 보전
 예술여가경관거점 : 커뮤니티 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역사문화경관거점 : 상징성 및 인자성 강화

안양시 경관계획

제1장

햇볕 드는 양지말, 배움터가 되다

김기영 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교수



1. 햇별이 먼저 드는 마을, 양지말

양지말은 안양3동의 대표적인 자연마을이다. 한자로 양지동을 표현하자면, 앞이 특
퍽이 있어 별이 잘 드는 지형이므로 '양지바른 땅'이라는 뜻의 '양지동(陽地洞)'이라 해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을 토박이들은 '햇별이 슬기롭게 먼저 들어온 곳'이라는 뜻으
로 '양지동(陽智洞)'이라 해야 맞는다고 하였다.

조선 2대 왕 정종의 7남인 수도군(守道君)의 증손 지제부수(砥提副守) 이공이 양지
말에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온다. 그 후 원영삼이 군자면 정왕리에서 이주
하면서 원씨 집성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양지말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마을이라서
마을의 중심부(현재 안양서초등학교 정문 앞길) 도랑을 기준으로 남촌과 북촌으로 구분
하였다.

양지말은 마을의 남쪽에 있는 수암천에서 물을 끌어다 농사에 이용하였다. 이 마을은
밭이 많고 논이 적은 농촌이었다. 논은 마을 서쪽의 노적봉 자락으로 조금 있는 정도여
서 양지말 사람들은 다른 동네로 가서 논농사를 지었다. 밤나무 숲이 있었고, 포도밭도
있었고, 밭에는 매년 봄마다 씨를 뿌려 수확하는 채소를 심었다. 뽕나무 심어 누에 치고
목화 심어 길쌈하는 평범한 마을이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병목안 채석장에서 안양역으로 왕래하는 자갈열차가 마을의 남
쪽 수암천변으로 지나다녔다는 것이다. 마을에는 자갈열차가 지나갈 때 열차에 올라타
다 내리며 노는 아이들도 있었다.





2. 밤나무골의 기억



『양지마을의 까치소리』 표지(1991년)

양지말에서 태어나 자란 이용구(李潞求)의 수필집 『양지마을의 까치소리』는 그의 유년기였던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안양의 산업화·도시화 과정과 생활상을 담고 있어 안양을 기록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용구는 일상에서 겪고 느낀 점을 글로 남겼으며, 30여 년간 써 온 글을 모아 수필집으로 엮었다. 어린 시절의 고향마을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쓴 글을 통해 당시의 양지마을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나는 서울 근교인 시골에서 태어났다. 해마다 늦은 봄이면 여김없이 노랗게 긴 술이 돌아나 피어나는

밤꽃 향기가 온 마을을 진동시켰고 때를 같이 하여 꿀벌통(양봉)도 모여들었으니 우리 마을은 밤나무골이었다. 물론 우리 집에도 많은 밤나무가 있었다. 어느새 꽃은 지고 조그맣고 가시가 부드러운 밤송이가 얼굴을 나타내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짐에 따라 때맞춰 대나무 칼도 만들어 풋밤 깎기에 대비해야 했다.

풋밤을 까서 밤밥을 지어 먹어도 배탈하고 연하고 달콤했다. 나는 어려서 동네 제일가는 밤 따기 선수였다. 장대가 필요 없이 돌만 있으면 돌팔매로 딸 수가 있었고 한번 던지면 밤송이 두서너 개는 꼭 떨어뜨리고 말았다.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대에 담아 외딴곳으로 옮겨 까곤 했다. 당시 동네 여기저기(곳곳마다)에는 모닥불이 있었다. 풋밤송이를 통째(밤송이째) 모닥불에 묻어 구워 먹으면 맛이 좋았다. 그 맛은 군밤도 아니고 삶은 밤도 아닌 약간 넋내가 나는 듯한 별다른 밤맛이었고 또한 짓궂게 장난도 서슴지 않았다. 길 가는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해 왕밤을 그냥 통째로 불에 넣어 마치 총소리와도 같이 「핑」하고 폭발하게 하여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다.

〈이용구, 『양지마을의 까치소리』, 세종인쇄사, 1991, 286쪽〉

현재 안양예술고등학교 자리는 과거 밤나무숲이었다. 학교 뒤편 울목주공아파트의 ‘울목’이라는 이름도, 당시 이 일대를 ‘울목’이라 부르던 마을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안

양 지역은 장내동 중앙성당 일대, 충훈부 마을 주변 등 곳곳에 밤나무숲이 있었다고 한다. 양지말 역시 마을은 물론 노적봉에도 밤나무가 무성하여 밤꽃이 필 무렵이면 온 동네에 밤꽃 향기가 퍼졌던 모양이다.

밤나무숲으로 뒤덮인 우리 고장은 정거장과 윗마을로 통하는 오솔길을 걸어가자면 크고 작은 밤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대하는 이가 없었으니 당시 인심 좋은 것이 밤 때였다. 이때가 되면 서울에서 친척들과 학우들이 운동 삼아 자전거나 기차를 타고 찾아와 반갑고 즐거웠다. 또한 단체 밥 줍기 대회가 수없이 열렸다.(공직자 및 회원 동반 가족) 즉 밤나무를 사서 주인이 장대로 따 내리게 하고 각자 준비한 기구로 그릇에 까 담는다. 이때 장비 없이 줍다가 밤송이에 얻어맞으면 큰 고역을 당한다. 다 줍고 난 다음에는 각 종목에 걸쳐서 시상(수량상·중량상·왕밤상·회오리밤상·기타)도 하고 요새 말하는 야유회 같은 것이라 술도 마시고 도시락도 먹으며 여흥도 하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다가 돌아갔다.

〈이용구, 『양지마을의 까치소리』, 세종인쇄사, 1991, 272쪽〉

일제강점기의 신문 기사 중에는 안양을 밤의 고장이라고 소개하고, 안양에서 개최되는 습률(拾栗)대회를 알리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습률대회는 주로 여성들이 참가하는 행사로, 참가비를 내고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모여서 밤을 줍는 것이 주 행사였다. 그러나 단순한 수확 행사에 그치지 않았고, 참가자들은 보물찾기와 게임을 하고, 도시락도 먹으며 하루를 즐겼다. 누가 더 많은 밤을 줍는지 겨루었지만, 경쟁보다는 함께 모여 밤을 줍고, 웃고 떠드는 잔치의 장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밤도 주웠지만, 때로는 밤나무를 흔들며 송이를 떨어뜨리며 서로 도우며 바구니를 채워갔다. 바구니가 가득 찼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다 못 했을 것이다. 밤 줍기는 단순한 수확의 자리가 아니라, 고된 일상 속 작은 기쁨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시절 가을날의 풍경이었다.

3. 채만식의 「안양복거기(安養卜居記)」 속 양지말

‘탁류’를 집필한 근대소설가 채만식은 1940년, 안양 양지말에 거주하며 『매일신보』에 6회에 걸쳐 「안양복거기」라는 수필을 연재하였다. ‘P형’이라는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은, 집에 대한 기대와 실망, 남루한 일상에 대한 화려한 비판 등이 표현되어 있어 옛글을 읽는 재미가 있다.

골목을 빠져나가느라니 눈앞을 커다란 일괴의 산이 가로막는게 기가 딱 질리는 것 같았고 그 산에서 밀려내려온 사석 바닥의 황폐한 하천 언덕을 바른편 조선직물 공장을 끼고 걸어가기를 10분 계딱지만큼 한 오막살이 초가들만이 도들막 몇십호가 박힌 갈데없이 가난해빠진 한촌의 동구에 다다라 자 이 흉악한 물골들 가운데 어느게 내집일 것이고 하면서 마음 가득 삼산스런판인데 허어!

〈채만식, 「안양복거기」, 『매일신보』, 1940년 6월 7일〉

채만식은 누가 버렸다고 해도 주워가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의 실망에 ‘기구 망측한 꼬락서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울타리도 사립문도 없이 구차스러운 집으로 표현하며 수필가답게 신세 한탄에 열을 올렸다.

샀다는 집이라는 게 얼마짜리 집이고 하니 일금 2백 70원…… 훗 3백 원에서도 30원이 모자라는 2백 70원짜리 집이오. (중략) 하영든 그래서 지지리 근천스럽게나마 집이란 걸 사느라고 사기는 샀소. 집을 샀으니 내 집을 ‘소유’한 것이고 내 집을 소유했으니 어쩐지 내가 일조에 셋집살이를 면하고서 내 소유의 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즐지에 키가 쑥 솟은 것도 같아 자꾸만 발 밑이 내려다보이려고 하오. 옛날 이라면 쌍놈이 처음으로 감투를 쓰고서 기분이 이랬을까요? 영년(永年)의 하숙생활은 그만두고 명색이 살림을 하기 영년 근 10년이 온전히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셋집살이였소.

〈채만식, 「안양복거기」, 『매일신보』, 1940년 6월 6일〉

내 집 없는 설움. 당시의 채만식도 다르지 않았다. 하숙 생활과 셋집살이를 전전하다 구한 안양 집에 있으니, 키가 쭉쭉 커진 기분이라고 P형에게 너스레를 떠다. 안양복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1940년대의 양지말의 모습이 그려진다.

“마당 정전방(正前方)으로 가직이 이좌(二座)의 그것이 처억 버티고 있는데 하나는 돌 멩이를 발 길 가랑 쌓아올린 석조(石造!) 다른 하나는 거적을 둘러친 빠락(!)”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채만식은 P형에게 고한다.

시방은 그래도 안팎으로 희게 종잇장도 붙이고 또 아주 운치있게시리 바자로 빙 둘러 울타리도 세우고 우물 두던과 앞뒤 마당도 고르고 그리고 변소도 임시나마 뒤꼍에다가 숨겨 만들고 기타 가지가지로 공력을 들인 덕에 집은 완구히 사람 명색이 들어 사는 형용을 갖추었소.

〈채만식, 「안양복거기」, 『매일신보』, 1940년 6월 7일〉

채만식은 닥쳐올 여름 홍수철을 걱정한다. 큰물이 질 때마다 산에서 사석이 밀려 내려오고, 그 하천의 행동권 안에 든 자신의 집은 큰 홍수가 나면 어찌 될지 모른다면 걱정과 한탄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채만식은 안양에 대해 안양에 대해 흥만 본 것은 아니고, 추앙하는 글도 덧붙였다. 안양의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밤나무숲(栗林), 흐드러지는 찔레꽃, 두견의 울음소리에 대하여 예찬한다.

물이 대단히 흐소. 아무 데를 파도 삼사 척이면 물이 나지 않는 바닥이 없고 한 길만 넘으면 정갈한 식수를 얻소. 집집마다 그래서 조그만씩 조그만씩한 웅덩우물이 제각기 없는 집이 없소. 수질도 좋기로 또한 유명하오. 물이 좋아서 이 고장 사람들은 체증이란 걸 모른다고까지 하니 식량이 귀한 이 당절에 도리어 무서운 소리요. 아물든 그 덕에 나도 적년의 소화불량이나 나수었으면 만행이겠소. 일설에는 안양물을 오랫동안 먹으면 디스토마가 없어진다고도 하오.

〈채만식, 「안양복거기」, 『매일신보』, 1940년 6월 11일〉

채만식은 편지 형식의 수필을 통해 1940년대 양지말의 풍경과 삶을 『안양복거기』에 연재하며 남겼다. 그 기록은 80여 년 전 안양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준다. 이는 박물관의 유물 못지않게 사람들의 일상과 기억을 기록한 것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隨筆
ESSAY
文學

安養卜居記

◎ 葉 萬 植

此項文藝之類，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才力與修養而定。故欲求其進步，必先求其修養之充實。此項文藝之類，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才力與修養而定。故欲求其進步，必先求其修養之充實。

此項文藝之類，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才力與修養而定。故欲求其進步，必先求其修養之充實。此項文藝之類，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才力與修養而定。故欲求其進步，必先求其修養之充實。

此項文藝之類，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才力與修養而定。故欲求其進步，必先求其修養之充實。此項文藝之類，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才力與修養而定。故欲求其進步，必先求其修養之充實。

此項文藝之類，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才力與修養而定。故欲求其進步，必先求其修養之充實。此項文藝之類，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才力與修養而定。故欲求其進步，必先求其修養之充實。

此項文藝之類，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才力與修養而定。故欲求其進步，必先求其修養之充實。此項文藝之類，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才力與修養而定。故欲求其進步，必先求其修養之充實。

此項文藝之類，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才力與修養而定。故欲求其進步，必先求其修養之充實。此項文藝之類，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才力與修養而定。故欲求其進步，必先求其修養之充實。

P형.

이번에 불시로 송도를 떠나 이곳 안양으로 이사를 했소. 경부선(京釜線) 안양역(安養驛)이고 경성과는 바로 24킬로 상거(相距)에 아주 지근한 사이고 여름 한철이면 푸울과 포도와 수박으로 그밖에도 관악산(冠岳山) 하이킹의 초입처로 두루두루 서울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형한테도) 잘 알려진 그 안양이오. 하나 그러고저러고 궁벽스럽게 안양이라니? 그동안 몇해를 두고 무던히 버르던 이사가 일껏 서울을 경중 건너뛰어 하필 안양이란 말이냐고 형이며 지우(知友)들이며 펍 이상히 여기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할 것이오. 사실 나 스스로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뜻밖이었소. 안양이라고 이름이나 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경부선 열차로 가끔 지나다니거나 했을 따름이지, 근년 그렇게들 푸울이 좋으네 포도며 수박이 맛있네 관악산과 연주암(戀主庵)이 보암직하네 해싸도 진작에 한번인들 와 본 적도 없고, 뿐만 아니라 어디로든지 이렇다 할 조그마한 결연이나 연분도 없던 땅이오. 해서 내가 일조(一朝)에 안양이라는 이 고장엘 와 일간두옥(一間斗屋)일망정 기둥뿌리를 박고 다만 한때나마 거접(居接)해 살리라고는 막상 꿈박이오 일찌기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소.

그러나 그러했건만 나는 시방 이렇게 번연히 여기 그 안양땅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 하고도 양지말(陽智村) 한구석의 어떤 집인 이 집에서 이처럼 천연덕스러이 기거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새 다 이런 글밭까지 초(草)하고 있으니까요! (중략)

고맙지 않소? 그리고 아무려나 흥미스럽지 않소? 운명이라는 걸 믿고 그리하여 앞으로 올 내일 것을 …… 과연 무엇일꼬 하면서 고요히 기다리고 있어 보기가. 하나 물론 이런 늙은이 반찬 같은 오락은 모처럼 갈수록 세대적으로 기개가 괄괄한 ‘장한(壯漢)’에게는 도시구미가 돌을 게 못 되고, 따라서 권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저 그렇더라 말일 따름이오.

〈채만식, 「안양복거기 ①」, 『매일신보』, 1940년 6월 5일〉

P형.

이번 안양으로 오면서는 집을 한 채 샀소. 살 집 주택을 샀단 말ियो. 어떻소. 적지 많이 놀랐을 게요. 옳지! 이군이 한때 금광 어찌구 부산나케 돌아다니더니 필시 눈먼 돈을 몇푼 좀 잡은 모양이라고 신통해하면서. (중략)

샀다는 집이라는 게 얼마짜리 집이고 하니 일금 2백 70원 …… 훗 3백 원에 서도 30원이 모자라는 2백 70원짜리 집이오. 그나 그뿐이겠소? 2백 70짜리 그 집을 사는데 우리 삼형제가 협력을 하여 그리고 시방 아랫방에서 눌러 살고 있는 복수(福洙) 김서방에게 70원이나 취대를 하여 겨우 1백 70원을 우선 치르고서 나머지 백 원은 이 달(5월) 말일까지로 계약을 하고는 아무런 집들이를 했었소. 했는데 잔액 그놈 백원을 감당한다던 세째중형이 일 계량했던 것이 갑자기 낭패되면서 돈 예산도 그만 틀어져 기일까지에 끝전을 청장(淸帳)해 주지 못했고 해서 시방 사정이 무척 각다분하게는 되었소.

그러니 어떻소? P형. 그만한 곡절이면 내가 집을 사기는 샀어도 단연 부한(富漢)이 되었을 혐의가 없고, 따라서 심심치 않던 친구 하나를 잃어버릴 위험도 없고 하니 든든안심을 해도 좋지 않소? 하영든 그래서 지지리 근천스럽게나마 집이란 걸 사느라고 사기는 샀소. 집을 샀고…… 집을 샀으니 내 집을‘소유’한 것이고 내 집을 소유했으니 어쩐지 내가 일조에 셋집살이를 면하고서 내 소유의 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즐지에 키가(소위 地體[지체가]) 썩 솟은 것도 같아 자꾸만 발 밑이 내려다보이려고 하오. 옛날이라면 쌍놈이 처음으로 감투를 쓰고서 기분이 이랬을까요? (중략)

처음이 되어 길이 들지 않아서 혹은 소유했다는 그 내 집이라는 게 하도 빈약하여 마음에 차지를 앓고 오히려 한심스러워서 두루 그렇달 수도 있겠지요. 십상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요, 그러나 한편 생각을 하자면 보다 더 깊은 곡절이 있음인 듯싶으오. 하지만 그 내용을 여기에 드러내놓고 천착하기는 스스로 삼감이 마땅한 도리일까 해서 일단 붓을 멈추오.

<채만식, 「안양복거기 ②」, 『매일신보』, 1940년 6월 6일>

P형.

오늘은 내 그 육중한 주택을 스케치하여 자랑 겸 구경시켜 드리겠소. (중략) 진작 노순(路順)을 들은 대로 역전의 조선직물(朝鮮織物)이란 뜻말이 섰는 골목으로 들어서다가 길목의 가갯사람더러 “양지촌(陽智村)을 어데로 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양젯말요? 네에 글러루 곧장 가시오” 해서 우선 양지말을 양지촌이라고밖에 몰랐던 나의 무지를 시정할 수가 있었소. 골목을 빠져나가느라니 눈앞을 커다란 일괴(一塊)의 산이 가로막는게 기가 딱 질리는 것 같았고 그 산에서 밀려 내려온 사석(砂石) 바닥의 황폐한 하천 언덕을 바른편으로 조선직물 공장을 끼고서 걸어가기를 범 10분 계딱지만큼한 오막살이 초가들만이 도드락 몇십 호가 박힌 갈데없이 가난해 빠진 한촌(寒村)의 동구(洞口)에 다다라 자 이 흉악한 몰골들 가운데 대체 어느게 내 집일 것인고 하면서 마음 가득 심산(心酸)스런 판인데 허어! 마침 풀 묻은 손에 귀알을 든 네째중형이 바로 길 어떤 한 집에서 내다보아 드디어 내 집이 그 집이로군 하고 확정이 되는 찰나 참으로 누가 집어다 내버렸대야 주워가지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실망이 되게 기구망측한 꼬락서니였소.

P형. 주택이란 것에 대한 우리네의 상식적인 개념은 그 외양에 있어서는 우선담이나 울타리가 있고 출입하는 대문이나 사립문이 있고 한 것이어야 되지를 않소? 참으로 그 당장 울타리도 없고 사립문도 없고 한 구차스런 집이 과연 내집이라니 할 때에 그 순간만은 나도 먼 옛날의 덩시렁던 고향의 집과 동시에 소년 적의 내가 눈앞에 어리면서 자못 심회가 좋지 못했소. 수리산이라는 아까의 그 산을 안고 동남향으로 앉은 고패집이 아랫방 한간 부엌 한간 안방 한간 마루 한간 건넌방 한간, 야속하게도 모두가 다꼭꼭 한 간씩이었소. (중략) 집이 알은 것은 그러나 둘째요 울타리와 사립문이 없는 것 다음으로 기막힌 발견은 변소이었소. 마당 정전방(正前方)으로 가직이 이좌(二座)의 그것이 처억 버티고 있는데 하나는 돌맹이를 발길 가랑 쌓아올린 석조(石造) 다른 하나는 거적을 둘러친 빠락(!) 돌이 다 지붕은 없고 이 알량한 주택에 그것이 둘이나 존재한 소치는 그새까지 두 세대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소. (하략)

〈채만식, 「안양복거기 ③」, 『매일신보』, 1940년 6월 7일〉

隨筆
文學
ESSAY

安養卜居記

田 蔭 萬 植

此篇係作者自述其在安養卜居之經過，文字簡潔，敘述詳盡，頗具文學色彩。全文共分五段，第一段敘述其卜居之緣起，第二段敘述其卜居之經過，第三段敘述其卜居之環境，第四段敘述其卜居之生活，第五段敘述其卜居之感想。全文以第一人称敘述，感情真摯，讀來動人。

此篇係作者自述其在安養卜居之經過，文字簡潔，敘述詳盡，頗具文學色彩。全文共分五段，第一段敘述其卜居之緣起，第二段敘述其卜居之經過，第三段敘述其卜居之環境，第四段敘述其卜居之生活，第五段敘述其卜居之感想。全文以第一人称敘述，感情真摯，讀來動人。

此篇係作者自述其在安養卜居之經過，文字簡潔，敘述詳盡，頗具文學色彩。全文共分五段，第一段敘述其卜居之緣起，第二段敘述其卜居之經過，第三段敘述其卜居之環境，第四段敘述其卜居之生活，第五段敘述其卜居之感想。全文以第一人称敘述，感情真摯，讀來動人。

此篇係作者自述其在安養卜居之經過，文字簡潔，敘述詳盡，頗具文學色彩。全文共分五段，第一段敘述其卜居之緣起，第二段敘述其卜居之經過，第三段敘述其卜居之環境，第四段敘述其卜居之生活，第五段敘述其卜居之感想。全文以第一人称敘述，感情真摯，讀來動人。

此篇係作者自述其在安養卜居之經過，文字簡潔，敘述詳盡，頗具文學色彩。全文共分五段，第一段敘述其卜居之緣起，第二段敘述其卜居之經過，第三段敘述其卜居之環境，第四段敘述其卜居之生活，第五段敘述其卜居之感想。全文以第一人称敘述，感情真摯，讀來動人。

P형.

아무려나 그렇게 해서 우선은 몸을 붙이고 안기는 앓은 셈이나 인제 멀지 않아 닥쳐올 여름 홍수철을 생각하면 마치 옛날 서울의 서부이촌동(西部二村洞) 주민이 된 듯싶은 불안이 없지를 앓소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큰물이 질 때마다 산에서 사석(砂石)이 밀려내리고 밀려 내리고 한 것이 일찌기는 상당히 폭 넓었을 듯싶은 하천을 죄다 메워 평지가 거진 되었고 시방은 한복판으로만 가느다랗게 실개천이 흐르고 있을 따름이오. (중략)

누구는 말하기를 아무리 큰비가 와도 오는 대로 죽죽 다 물이 빠지고 수해를 당할 염려는 조금도 없다고 하오. 누구는 그러나 말하기를 아닌게 아니라 물이 염려스럽다고도 하오. 그리고 또 누구는 ‘공직자적(公職者的)’으로 말하기를 불원(不遠)하여 하천 개수(改修)공사를 실시할 터인즉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그 설에 대하여 누구는 건 말뿐이지 언제 될는지 모를 소리라고 하오. 어느 말을 믿어야 좋을는지 무던한 답답한 노릇이오. (중략)

사람이 사는 이웃에 대해서는 아직 처음이라 잘은 모르겠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부질없이 이웃을 흉아작하는 게 불가한 일이기로 짐짓 피하는 것이지만 인가 이외 거로 대단 유쾌하지 못한 이웃이 둘이 있소. 공동묘지와 상여집 이 두 가지의 반갑잖은 물건 말이오. 집에서 정전방(正前方)으로 뻗히 바라다보이는 불과 삼사백 미터 상 거의 산등성이에 가서 공동묘지가 있소. 그게 그런데 또 이사를 해오던 바로 첫날에 마침 한패의 장례가 있어서 상여로 더 붙어 인간들이 들끓고 무덤을 파고 게다가 경기(京畿)의 장례풍속이란 오죽 난(亂)한가요! 술들을 퍼먹고서 장구 치고 노래부르며 춤추고 떠돌고…… 대단히 불쾌했소. 집에서 북쪽으로 이웃한 집을 사이에 두고 삼십간 남짓한 곳에 짚으로 인 돌담집이 보이는 게 동중 공유(洞中共有)의 상여집이오. 공동묘지가 불쾌한 거라면 상여집은 도무지 그로테스크하고 추해서 눈에 거슬려 견딜 수가 없소. 집 사위의 황무지를 기경(起耕)해 먹느라고 부절히 시비(施肥)를 하는 통에 주야없이 코로 스며드는 악취!

P형. 하루는 내 홀로 앓아 장태식(長太息)을 했소. 내 어이 만지(蠻地)엘 왔더뇨 하면서…… 참으로 문화 없는 풍습·풍물이 한두 가지뿐이 아니오.

〈채만식, 「안양복거기 ④」, 『매일신보』, 1940년 6월 8일〉

隨筆
文學
ESSAY

安養卜居記

◎ 蔡萬植

此書係作者自撰，內容豐富，文字流暢，為文學愛好者必讀之佳作。全書共分十卷，每卷均有精闢之論述，讀後令人回味無窮。

本書之特色在於其獨特之視角與深刻的社會批判。作者以敏銳之觀察力，揭露社會之種種醜態，並提出其改革之建議。其行文風格幽默詼諧，讀來令人捧腹大笑，同時亦能發人深省。

此書不僅僅是文學之傑作，更是社會之縮影。作者以筆為刀，直擊社會之要害，其勇氣與才情令人欽佩。全書之論述，均建立在紮實之事實基礎上，具有極高之參考價值。

總之，此書為一部不可多得之文學精品。其內容之豐富與形式之創新，均為後世所罕見。讀者若能細心品味，必能領略到作者之良苦用心與獨特魅力。

蔡萬植著
 安養卜居記
 某某出版社
 某某年某某月

本書之出版，旨在推廣優秀文學作品，促進文化交流。希望廣大讀者能踴躍參與，共同營造良好之閱讀氛圍。

P형.

오늘은 물을 데워서 방안으로 들여다놓고 몸을 씻었소. 이 고장에 공중목욕탕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오. 그래도 역전의 저자가 그만이나 은성(殷盛)하면서 목간 하나가 없다게 참으로 말도 못할 동네로구나 했소. 대체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목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서울 가서……” “장사를 하러 거진 매일 서울 왕래를 하니까 그 길에 서울서……”라는 것이었소. 따은 그럴 듯도 했소.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은근히 기가 막히는 절창이었소. “……그리구 여름엔 저기 푸울에 가서 씻구……”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던 것이었소. 푸울에 가서 목욕을 한다는 것이오, 때를 벗기는 목욕 말이오.

P형. 듣기에 어떻소? 남달리 수영을 좋아하는 형이겠다, 그래서 푸울에 다니기를 즐겨하겠다 하는 터이니 목욕을 한다는 즉 때를 벗긴다는 그 푸울에 관해서 상상이 어떠하냐 말시오? 집에다가 욕실을 설비하자니 성세가 부치고 오늘처럼 물을 데워 자배기에 담아 놓고 방안에서 씻자니 군색스럽고 부득불 나도 서울로 목간을 하러 다녀야 하겠는데, 그 한번 목간에 1원 각수가 들겠으니 목간비 치고는 하품이 날 지출이 아닐 수 없겠소. (중략)

우편배달이 더디고 목간집이 없고 상여집과 선린을 해야 하고 병인(病人)이 있어도 자동차는 커녕 인력거 한 채 구해낼 수 없고 백물(百物)이 심지어 채소까지도 서울서 내려먹어 입이 떡 벌어지게 비싸고…… 하다지만 그러나 그런 것쯤 식량문제에 비(比)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오. 보리 닛 되에 쌀 한 되, 이것이 이곳 일대의 잡곡 대 백미의 혼합량이오. 시국이 시국이니 혼식을 하여 마땅하고 만약 국책이나 당국의 방침이란다면 5 대 1은 말고서 순잡곡만이라도 먹을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은 물론이오. 그러나 시방 어디를 가든지 1 대 1, 즉 반반이 최고울 이고 바로 지척사이인 서울만 하더라도 외미(外米) 백미 잡곡 해서 3 4 3의 비율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오십 리를 벗어난 이곳이 5 대 1이라니 대체 그 기준이 무엇에 의거함인지를 알 길이 없소. (중략)

여름에 포도와 수박이 얼마나 좋으며 푸울이 얼마나 시원할는지, 그래서 이 갖추갖추의 불편과 불쾌를 넉넉히 메꿔주려는지 어찌려는지 모르겠으되 이사 오던 3일이 못하여 사람을 생으로 변화시키는 이 고장이 그만 싫증이 나고 말았소. (하략)

〈채만식, 「안양복거기 ⑤」, 『매일신보』, 1940년 6월 10일〉

隨筆 文學 ESSAY

安養卜居記

◎ 蔡萬楫

此種隨筆，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而非在使讀者得見作者之知識與才力。故其內容必多屬作者之私生活，或其對某事之感想，或其對某物之批評。其形式亦多屬自由體，不拘格調，不守章法。其語言亦多屬白話，不尚藻飾，不事雕琢。其風格亦多屬樸實，不尚華麗，不事堆砌。其篇幅亦多屬短小，不尚宏大，不事鋪張。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生活之豐富與否而定。其形式之自由與否，全視作者之才力之強弱而定。其語言之白話與否，全視作者之修養之淺深而定。其風格之樸實與否，全視作者之性情之淳樸與否而定。其篇幅之短小與否，全視作者之精力之充沛與否而定。故欲讀此種隨筆，必先觀其人之生活，其次觀其人之才力，再次觀其人之修養，再次觀其人之性情，再次觀其人之精力。如此則其內容之豐富，其形式之自由，其語言之白話，其風格之樸實，其篇幅之短小，自能瞭如指掌，不待智者而後知也。

此種隨筆，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而非在使讀者得見作者之知識與才力。故其內容必多屬作者之私生活，或其對某事之感想，或其對某物之批評。其形式亦多屬自由體，不拘格調，不守章法。其語言亦多屬白話，不尚藻飾，不事雕琢。其風格亦多屬樸實，不尚華麗，不事堆砌。其篇幅亦多屬短小，不尚宏大，不事鋪張。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生活之豐富與否而定。其形式之自由與否，全視作者之才力之強弱而定。其語言之白話與否，全視作者之修養之淺深而定。其風格之樸實與否，全視作者之性情之淳樸與否而定。其篇幅之短小與否，全視作者之精力之充沛與否而定。故欲讀此種隨筆，必先觀其人之生活，其次觀其人之才力，再次觀其人之修養，再次觀其人之性情，再次觀其人之精力。如此則其內容之豐富，其形式之自由，其語言之白話，其風格之樸實，其篇幅之短小，自能瞭如指掌，不待智者而後知也。

此種隨筆，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而非在使讀者得見作者之知識與才力。故其內容必多屬作者之私生活，或其對某事之感想，或其對某物之批評。其形式亦多屬自由體，不拘格調，不守章法。其語言亦多屬白話，不尚藻飾，不事雕琢。其風格亦多屬樸實，不尚華麗，不事堆砌。其篇幅亦多屬短小，不尚宏大，不事鋪張。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生活之豐富與否而定。其形式之自由與否，全視作者之才力之強弱而定。其語言之白話與否，全視作者之修養之淺深而定。其風格之樸實與否，全視作者之性情之淳樸與否而定。其篇幅之短小與否，全視作者之精力之充沛與否而定。故欲讀此種隨筆，必先觀其人之生活，其次觀其人之才力，再次觀其人之修養，再次觀其人之性情，再次觀其人之精力。如此則其內容之豐富，其形式之自由，其語言之白話，其風格之樸實，其篇幅之短小，自能瞭如指掌，不待智者而後知也。

此種隨筆，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而非在使讀者得見作者之知識與才力。故其內容必多屬作者之私生活，或其對某事之感想，或其對某物之批評。其形式亦多屬自由體，不拘格調，不守章法。其語言亦多屬白話，不尚藻飾，不事雕琢。其風格亦多屬樸實，不尚華麗，不事堆砌。其篇幅亦多屬短小，不尚宏大，不事鋪張。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生活之豐富與否而定。其形式之自由與否，全視作者之才力之強弱而定。其語言之白話與否，全視作者之修養之淺深而定。其風格之樸實與否，全視作者之性情之淳樸與否而定。其篇幅之短小與否，全視作者之精力之充沛與否而定。故欲讀此種隨筆，必先觀其人之生活，其次觀其人之才力，再次觀其人之修養，再次觀其人之性情，再次觀其人之精力。如此則其內容之豐富，其形式之自由，其語言之白話，其風格之樸實，其篇幅之短小，自能瞭如指掌，不待智者而後知也。

此種隨筆，其目的在使讀者得見作者之思想與感情，而非在使讀者得見作者之知識與才力。故其內容必多屬作者之私生活，或其對某事之感想，或其對某物之批評。其形式亦多屬自由體，不拘格調，不守章法。其語言亦多屬白話，不尚藻飾，不事雕琢。其風格亦多屬樸實，不尚華麗，不事堆砌。其篇幅亦多屬短小，不尚宏大，不事鋪張。其內容之豐富與否，全視作者之生活之豐富與否而定。其形式之自由與否，全視作者之才力之強弱而定。其語言之白話與否，全視作者之修養之淺深而定。其風格之樸實與否，全視作者之性情之淳樸與否而定。其篇幅之短小與否，全視作者之精力之充沛與否而定。故欲讀此種隨筆，必先觀其人之生活，其次觀其人之才力，再次觀其人之修養，再次觀其人之性情，再次觀其人之精力。如此則其內容之豐富，其形式之自由，其語言之白話，其風格之樸實，其篇幅之短小，自能瞭如指掌，不待智者而後知也。

P형.

청하지도 않은 외래한(外來漢)이 남의 고장엘 들어와서는 지지리 흥만 보았으니 오늘일랑 어디 추앙을 좀 하는 것도 공평하여 무사(無私)한 노릇일뿐더러 또한 예의일까 싶으오.

물이 대단히 흐소. 아무 데를 파도 삼사 척이면 물이 나지 않는 바닥이 없고 한 길만 넘으면 정갈한 식수를 얻소. 집집마다 그래서 조그만씩 조그만씩한 웅당우물이 제각기 없는 집이 없소. 수질도 좋기로 또한 유명하오. 물이 좋아서 이 고장 사람들은 체증이란 걸 모른다고까지 하니 식량이 귀한 이 당절에 도리어 무서운 소리요. 아뿔튼 그 덕에 나도 적년의 소화불량이나 나수였으면 만행이겠소. 일설에는 안양물을 오랫동안 먹으면 디스토마가 없어진다고도 하오. 사실이라면 쿨룩거리는 토질환자(土疾患者)들에게 그 위험한 (연전의 해남(海南)사 건처럼) 에메친 주사가 아니라도 반가운 복음이겠으나 잘못하다가는 너무 많이 모여들어 나의 품치구역을 해칠 염려가 있소.

P형. 울림(栗林)과 나와는 아마 알지 않은 인연이 있나 보오. 송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바로 집 가까이 넓고 그윽한 울림이 있어서 무시로 나가 거닐기에 매우 좋소. 수리산이 우뚝 솟았고 그 아래로 작은 봉들이 첩첩이 싸이고 그리고는 하천을 따라서 ○장의 평탄한 녹지대인데 거기에 가서 무려 수천 주의 밤나무가 울창하니 들어섰소. 내 집에서는 바로 손이 닿을 듯 그 앞이고, 하천을 지나 자갈 운반의 인입선(引入線) 철독을 넘어서면 이내 그 울림이 나서오. 큰 집단의 녹음이 보기에든 눈이 즐겁고 나는 집에 있는 때면 매일같이 거기서 한시경씩 거니르오.

소가 유유히 풀을 먹고 있고 이때만은 나도 소와 더불어 한가하오. 바닥에는 요새 한참 짙레꽃이 피어 흐드러져서 꽃도 꿈거니와 향기 또한 좋소. 그중에서 일전엔 분홍색 짙레꽃을 발견했던 것이오. 참으로 분홍색 짙레꽃의 이쁘장스럼이란 말할 수가 없소. (중략)

P형. 이 밖에도 자랑함직한 거리가 많을 것이나 엔간히 지면도 넘치고 했으니 이번일랑 이 어림에서 줄이고 붓을 놓겠소.

<채만식, 「안양복거기 ⑥」, 『매일신보』, 1940년 6월 11일>

4. 안양 최초의 안양산업사, 안양 최대의 조선직물주식회사

이용구가 묘사하였듯 ‘안양천을 낀 조용하고 온화한 농촌이었던 안양은 전답에 의존하며 농사에 종사했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개화기를 맞이한 안양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안양 지역 최초의 공장으로 알려진 ‘안양산업사’가 안양역전에 설립되었다. 위치는 양지말, 현재 안양3동행정복지센터 근처로 추정된다. 1929년 1월 1일, 『조선일보』에 안양산업사 광고가 실렸다. 안양산업사는 안양 출신 엄기승이 주도하여 설립한 회사로, 농업자금 저리대부, 양계·양돈 사료 공동구입, 수리개간사업, 농촌지도, 비료 공동구입, 농잠구(農蠶具) 판매 등을 통해 농촌 사회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본 부족과 경영 미숙 등의 이유로 3년여 후에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양잠·양계·양돈을 중심으로 농촌과 연관되는 산업체가 설립되었을 만큼 양지말이 입지가 좋은 자리였음을 보여준다.

1932년, 양지말 옆으로 조선직물주식회사가 들어섰다. 거대한 건물과 하늘을 찌를 듯한 굴뚝을 세우고, 공업용 저수지를 만들고 기계를 들여오고 사원을 모집하였다. 이용구는 어릴 적 조선직물주식회사의 기공식에 참석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

기공식은 넓게 닦아 놓은 공장 신축 부지 중앙부에 새끼줄과 말뚝이 꽂혀 있고 높은 단상에 붉고 흰 천으로 포장을 치고 오색 비단 천(테잎)이 나부끼는 가운데 회사의 간부급 인사들과 군(郡)과 면(面) 내 각 기관장들이며 이곳 유지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이 고장에 처음 있는 행사라 갓 쓴 노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경 나온 동민들이 운집하여 기공식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기공식이 시작되었다.

기공식이 끝난 뒤 많은 고객들에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미리 준비한 딱딱하게 굳은 축하 찹쌀떡을 단상에서 사방으로 마구 던져 뿌렸다. 고객들은 모두 많이 주우려고 서로 밀치고 당겼다. 그러나 그 처사를 지금 생각하니 몹시 불쾌하기 짝이 없고 모욕감과 수치감에 사로잡힌다. 왜냐하면 그들은(일본인) 마치 닭에게 먹이를 주듯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용구, 『양지마을의 까치소리』, 세종인쇄사, 1991, 272쪽〉

조선직물주식회사는 양지말과 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건물 한 동을 지어주었고 양지말 사람들은 이 건물을 마을 공회당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공회당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강습소로 사용하게 되었다. 양지말 강습소



안양산업사 광고(『조선일보』, 1929년 1월 1일)
 사업목적으로 농자 저리대부, 계돈사로 공동구입, 수리개간사업, 농촌지도, 비료 공동구입, 농잠구 판매라고 적혀 있다.



1938년 조선직물주식회사 조감도(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조선직물주식회사 광고에 포함된 경성부 안양역 앞 공장 조감도이다.

는 정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큰 공장이 마을에 들어와서였을까. 양지말은 안양의 여느 마을보다 전기가 일찍 들어왔다. 안양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29년 말이었는데, 이용구는 양지말에 전기가 들어온 때를 1938년으로 기억한다.

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없었다. 5학년 때(1938년) 어느 가을 학교에서 돌아오니 전수도 없는데 우리 집 사랑방에 전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알고 보니 우리 집이 전기 시공본부로서 우선 임시로 나무와 나무에 전기줄을 끌어 전공들이 유숙하는 동안 사용한다 했다. 참 반가운 일이었다. 다음날부터 전주가 세워지고 집집마다 내선시설등이 약 한 달 만에 완공되어 마을 전체가 일시에 점등되었다. 가호마다 암흑세계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환호 소리로 가득 찼었다. 그날 밤은 모두들 장등(長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옆집 창수할아버지는 긴 담뱃대를 전등불에 대고 불을 붙여보았다고 하고 우리 어머니는 구석구석이 밝다고 하시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용구, 『양지마을의 까치소리』, 세종인쇄사, 1991, 289쪽〉

전기가 가설되었지만, 양지말의 모든 집에서 전등을 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벽에 구멍을 뚫고 등 하나로 방·부엌·마루를 옮겨가며 사용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전기를 설치하고도 요금을 내지 못하여 석 달 만에 전기가 끊긴 집도 있었다고 한다. 양지말에서는 여전히 석유불에 의존하는 집이 많았던 듯하다.

안양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안양역의 여객과 화물의 물동량은 증가하였다. 직원들이 고향에 편지하고 송금하느라 우체국 역시 바쁘게 되었다. 이용구의 기억에 의하면, 공장이 세워지고 초기에는 노동자가 500~1,000명이던 것이 점차 늘어 1940년경 남녀 직공이 약 2,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4년 조선직물주식회사도 군용비행기 부품 생산공장으로 전환되어 시흥군 일대에서 징집된 조선인들이 현장 노무자로 투입되었다. 안양 사람들은 원거리 징용 대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치되었으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 박흥식이 세운 조선비행기주식회사는 비행기 1대를 조립하였으나, 해방을 맞으며 미군이 회사를 접수하였다.

4. 양지말에서 개교한 학교

가장 먼저 문을 연 학교는 일제강점기 안양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들의 초등교육기관으로 설립한 아사이(旭)공립국민학교이다. 현재 안양공업고등학교 자리, 그러니까 양지말과 조선직물주식회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안양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대부분 안양역 근처에 모여 살았고,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에는 일본인 직원이 거주하는 사택이 있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인해 아사이학교가 양지말에 세워졌을 것이다.

김대규(사인) : 일본 사람들이 강습소를 하나 만들어서 안양에 살고 있는 일본인 자녀들 교육을 거기가 따로 시켰어요. 이제 그게 한, 1940년? 기록에 의하면 아사이학교, 일본말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고 나는 그냥 말로만 아사이학교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어쨌거나 우리 동네, 우리 3동에 처음 나타난 교육기관이에요. 근데 금방, 5년 안에 패망해서 사라졌어요.

해방 이후 아사이학교 건물은 1946년 3월 개교한 흥안국민학교가 사용하였다. 그러나 흥안국민학교는 얼마 안 가 이전하였고 1948년 2월 개교한 안양중학교가 교사로 사용하게 되었다.

안양중학교는 안양 최초의 중학교이다. 안양중학교 개교 이전에는 안양에 중등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로 통학하거나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런 사정이 있어 해방 직후부터 안양에도 중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열망에 힘입어 안양중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다. 사립학교로 개교한 안양중학교는 이듬해에 공립중학교로 전환되고 1952년 학제 개편에 따라 안양중학교와 안양공업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1987년 안양중학교는 양지말을 떠나 석수동 충훈부로 이전하였다.

안양 최초의 여성 중등교육이 시작된 곳도 양지말이었다. 안양중학교 개교 이후 1949년 초부터 박영래를 비롯한 지역 유지 몇 명이 여자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안양여자중학원을 만들어 교육을 시작하면서 정식 여자중학교 설립을 서둘렀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1951년 8월에 수업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1952년 3월 22일 안양여자중학교가 문을 열었다. 안양여자중학교는 조선직물주식회사 기숙사를 수리하여 교사로 사용하였다. 회사 안에 학교가 있어서 운동장도 크지 않았다. 개교 직후 제1회 졸업식 거행되었는데, 안양여자중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편입한 학생들과 6·25전쟁으로 인해 서울에서 안양으로 피난 내려와 있던 이수생들이 첫 졸업생이었다.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교사도 안양여자중학교 개교 당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53년 전국 중학생 학력경시대회에서 안양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이 경기도 1등을 차지한 것도 실력 있는 교사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내순 : 이수생들이 한강 도강 못하니까 받아주던 그때 선생님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숙명에도 가고, 진명도 가고 그랬던 거였어. 다리가 끊겨서 다리를 넘 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군인들 저 보트로 해가지고 보트 다리를 놔가지고 그랬을 적에 우리 기가 1학년에서 3학년 졸업하면서 서울의 학교를 제일 잘 간 게 우리 아닐까 싶어.

안양여자중학교는 안양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했지만, 서면(현재 광명시)·동면(현재 서울시 시흥동)·과천·남면(현재 군포시) 등에서도 걸어서 통학하였다. 제3회 졸업생 명단을 보면 약 1/3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 2/3를 차지하는 안양읍 학생의 대부분은 안양리에 거주하였다. 양지말 출신 이내순(안양여중 제3회 졸업생)은 60년이 지났어도 눈앞에 생생하도록 이야기를 해준다.

안양여중 제3회 졸업생(제3회 안양여자중학교 졸업앨범, 1954년)





수업 중인 안양여중 교실(제3회 안양여자중학교 졸업앨범, 1954년)

이내순 : 정문도 금성방직 담 이렇게 쌓은 거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안양여중 팻말 붙이고 조금 올라가면 안양중학교 저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중이니까 애네들은 남학교를 가려면 우리 학교 앞을 지나서 가잖아. 그런데 그때 이제 사십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좀 짓궂고 그랬었나 봐. 눈이 오면 남학생들 지나가면 눈 쌓여 있는 거 나무에다 쳐 이렇게 해서 남학생 지나가면 담 넘어러 당기고 그런 생각이 나거든. 금성방직 담을 이걸 뚫어가지고 여기 안양여중 간판이 붙었고 그 기숙사 그 옆에 저수지가 엄청 큰 게 있었어. 인공 저수지. 인공 저수지가 있었어. 그러가지고 4시간 끝나면 저수지 근처에서 앉아서 놀고.

당시 양지말 학생들은 모여서 서로 돕고 가르치며 ‘분단공부’를 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사교육 광풍이 몰아치기 이전에는 또래끼리 혹은 아는 언니가 모르는 동생에게 공부 가르쳐주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경쟁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돕는 상생의 교육,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돌을 나르고 있는 안양여중 학생들(제4회 안양여자중학교 졸업앨범, 1955년)



교사 전경(제3회 안양여자중학교 졸업앨범, 1954년)

이내순 : 그때 안양여중 다닐 적에 분단공부라는 게 있었잖아. 분단공부. 그러니까 양지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남미, 정애, 나. 원씨네 개네 집이 넓으니까 거기서 다 모여서 자고 하는 거야. 시험 때. 원○○이가 잠이 많아. 초저녁잠이 많아. 공부하다가도 졸아. 그러면 자는 사람 시계 그려주고 수염 그려줬다고. 그 집의 언니가 개울에 빨래하러 다녀와 보면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놈의 기지배들 공부하러 와서 자기만 한다고. 그렇게 공부했지. 시험 기간에 모여서.

당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는 흔치 않았다. 도시의 ‘신여성’이 아닌, 안양의 여염집 아낙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며 등에 업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냇가에서 빨래하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글자를 배우는 것은 사치였다. 초등학교까지는 어찌어찌 보낸다 하더라도, 여자를 중학교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집이 많았다. 중산층 이상, 소위 ‘좀 산다는 집’에서도 여자가 많이 배우면 ‘팔자가 사나워진다’라며 ‘가서 땀감이나 해 오라’는 사나운 호령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였다.

이내순 : 아버지가 중학교를 안 보내줘가지고. 아버지가 양지말 이장이었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안 보내니까 며칠을 울고불고 싹 짜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들어온 거지.

1955년, 안양여자중학교는 지금의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이전을 준비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병목안에서 돌을 주워 와 건물의 벽을 쌓았다. 1956년, 아직 완공되지 않은 학교 건물이었지만 수업을 시작하면서 양지말 시대를 마감하였다.

돌 모으는 안양여중 학생들(1957년, 백영희 제공)



5. 노적봉 자락에 문을 연 학교

1970년대 들어서 노적봉 골짜기에 있던 농경지에 학교가 하나씩 들어왔다. 가장 처음은 초등학교였다. 1972년에 안양서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뒤를 이어 안양공업전문학교(1977년),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1981년),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1983년), 안양외국어고등학교(1997년)가 속속 설립되어 양지말은 안양 교육의 요람지가 되었다.

이제 우리 마을 서쪽 노적봉에는 안양예고가 서고 그 옆 아산과 논은 깎고 메꾸어 많은 학교(서국민학교, 안양여상, 안양공전 등)가 우뚝 섰다. 남쪽(능곡동)은 신안국민학교, 신안중학교, 안양서여자중학교가, 또한 병목안에도 양지국민학교가 새로 세워졌으니 제일 오래된 안양공고를 비롯하여 도합 9개의 배움터가 생겼으니 우리 마을(안양3동)은 바야흐로 안양시에서 으뜸가는 교육 마을이 되었으니 이 시대의 조류를 누가 막겠는가?

〈이용구, 『양지마을의 까치소리』, 세종인쇄사, 1991, 310~311쪽〉

안양외국어고등학교와 안양문화고등학교 등교 시간(이정범 제공)





2023년 안양예술고등학교 졸업식(안양예술고등학교 공식 페이스북 제공)

안양서초등학교는 만안초등학교에서 분리 개교하였다. 이로써 박달동과 안양3동 일대 아동들이 좀 더 가깝게 통학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안양서초등학교 옆에 개교한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는 1967년 3월 개교한 안양영화예술학교를 이어받은 것이다. 영화감독 신상옥이 운영하던 영화사 신필름이 설립한 이 학교는 한국 최초의 정규 예술고등학교이다. 연기과·무용과·음악과를 갖추고 석





안양서초등학교 전경(이정범 제공)



안양여고 사거리(1968년, 국가기록원 제공)
 사진 상단 왼쪽부터 안양공업고등학교, 금성방직, 안양여자고등학교가 있다.

수동 안양영화촬영소에 교사를 마련하여 실기교육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2대 교장 최은희가 납북되면서 학교는 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1983년 양지말에 이전 개교하였다. 2000년에 학교명을 안양예술고등학교로 변경하였다. 안양예술고등학교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의 으뜸가는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안양예술고등학교 하면 연극영화과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국내 고교 최초로 연극영화과를 개설하였고, 내로라하는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안양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안양은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데 여기에는 안양외국어고등학교도 한몫한다. 2024년 안양외고 홍보영상을 보면 다양한 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체육대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학생’이 되고 싶다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는 두터워진다. 경기도에는 안양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 총 8개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대학입시 성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적봉 아래의 학교는 아니지만, 양지말에서 가장 먼저 개교한 사립 안양중학교는 1950년에 공립 공업중학교로 학교 과정을 개편하여 염직과와 전기과를 두었고, 1951

년 학제 개편으로 6년제 중학교가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로 분리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3학년은 안양중학교로, 4~6학년 안양공업등학교로 분리되었다. 안양공업고등학교는 이후 건축과·기계과 등이 신설되었고, 2003년에는 섬유소재디자인과·전기제어시스템과·지형공간시스템과 등으로 개편되었다가, 2010년에는 신소재화학공업과·전자기계과 등 시대에 맞춰 학과명과 커리큘럼이 변경되었다. 2024년 현재 졸업생 누계 3만 3천여 명에 이른다.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다름 아닌 축구이다. 축구부는 1970년 창단 이래 전국대회 30회 우승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고교축구 붐을 일으키며 우리나라 고교축구의 입지를 단단히 하였다. 1996년 안양 LG치타스가 안양으로 연고지를 옮기며 후원 관계를 맺고 적극적인 투자를 받았다. 이 시기 안양 LG치타스와 호의적인 관계를 맺으며 졸업생 대부분의 선수가 안양 LG치타스에서 프로 데뷔를 했다. 이 시기를 대표했던 선수 가운데, 이영표·김동진·이지남 등은 국가대표팀에도 선발될 만큼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

안양공업고등학교 전경





안양문화고등학교 웹툰 수업(안양문화고등학교 제공)

과거 밤나무 숲이어서 해마다 봄이면 짙은 밤꽃 향기를 내뿜던 자리에 있는 연성대학교는 1976년 안양서초등학교 바로 위쪽에 안양공업전문학교로 개교하였다. 설립자 권상철은 ‘공업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중견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연성학원과 안양공업전문학교 설립을 인가받았다. 안양공업전문학교는 개교 당시 전자·토목·통신 3개 학과 560명의 입학정원 규모였다. 이후 건축과와 공업경영과를 신설하고 1979년 안양공업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90년에는 안양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다시 바꾸었고, 1998년 안양과학대학으로 또다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2012년 연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교명 변경과 더불어 학교의 규모도 확대되어, 현재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다. 양지말 출신 시인(詩人) 김대규가 작사한 연성대학교의 교가에 ‘양지골에 뿌리내린 면학의 전당이다’라는 가사가 있다.

2023년 안양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연성대학교와 안양문화고등학교는 안양3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수암천 양지1교에 벽화를 그렸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연성대 실내



2012년 연성대학교 정문에 걸린 교명 및 비전 선포식 현수막(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연성과학대학에서 연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건축과·웹툰만화콘텐츠과·영상콘텐츠과, 그리고 안양문화고등학교 등 3개 기관에서 8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동에서는 먼저 낙후된 벽면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안양문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프라이머와 바탕칠 작업, 영상 기록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연성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과에서는 도안 및 스케치작업, 실내건축과에서는 스케치 및 채색 작업, 영상콘텐츠과에서는 벽화 조성 과정의 영상 기록 작업을 맡아 하는 등 총 1개월가량의 협업이 이루어졌다.

이들이 그린 벽화는 어느새 시간이 흘러 빛이 바래졌지만, 그들이 디자인하고 직접 색칠해 넣었던 그 청춘은 남아 있다. 이들은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수암천변을 걷고 있을지 모른다. 학교가 지역의 섬이 아닌 학교마을로 거듭나는 의미 있는 시공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 | | |
|---|---|
| 1 | 3 |
| 2 | 4 |
1. 안양공업고등학교 축구단 제28회 MBC 전국고교축구대회 3연패 축하연(1990년, 이정범 제공)
 2. 안양공업고등학교 축구단 제28회 MBC 전국고교축구대회 우승 축하 카퍼레이드(1990년, 이정범 제공)
 3. 시 승격 50주년 기념 수암천 양지1교 벽화 그리기 사업(2023년, 안양시청 제공)
 4. 완성된 수암천 양지1교 벽화(2023년, 안양시청 제공)



제2장

시민의 휴식처가 된 병목안

윤유석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객원연구원



1. 병목안로를 따라 병목안시민공원으로

안양역에서 나와 안양로를 건너면 병목안로가 시작된다. 병목안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도로가 좁아지고 주택가와 아파트단지를 지나 삼덕공원과 안양3동주민센터를 지나면 수암천 줄기를 따라 병목안로가 이어진다. 오른쪽으로 노적봉 자락에 자리 잡은 안양예술고등학교가 보인다. 여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안양9동이다. 2차로였던 도로가 1차로로 좁아지면서 또 한 번 병목안 구간을 지나면 왼쪽으로 병목안시민공원·수리산한증막·돌석도예박물관·천주교 수리산성지·최경환 성인 고택으로 이어진 병목안로가 수리산도립공원 제3산림욕장에서 끝이 나고, 오른쪽으로는 창박로를 따라 창박골한증막·아파트·빌라와 창박예비군훈련장까지 이어진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병목안로를 따라 사람들이 들어온다. 시민공원, 캠핑장, 산림욕장, 수리산성지 등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병목안시민공원은 유모차나 캠핑 의자 등을 가지고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공원에 가려면 30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평지에 조성된 일반 공원과 달리 수리산 밑에 만들어진 공원이기 때문이다.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평지 산책로가 있는 백세행복길이나 사계절 정원길로 연결된 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연인이나 아이의 손을 잡고 혹은 유모차나 캠핑용 의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도 있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백세행복길로 걸으며 치매방지 놀이기구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계단을 다 오르면 “와~” 하는 탄성과 함께 탁 트인 경관이 눈 앞에 펼쳐진다. 가장 먼저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것은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다. 깎아지른 산등성이 위로 만들어진 진 높이가 65m, 폭 95m 규모의 국내 최대 인공폭포이다. 가동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평





일의 경우 5월·9월·10월은 11시~13시, 17~19시, 6월은 20시, 7월·8월은 21시까지 폭포수를 볼 수 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13~19시 가동하는데, 역시 날이 더워지는 6월과 7·8월에는 1시간씩 연장된다.

병목안시민공원의 진면목은 폭포 옆으로 펼쳐진 잔디광장이다. 수리산이 병풍처럼 드리운, 그야말로 산속 공원이자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이다. 잔디광장에서 수리산을 병풍 삼아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공원 주변을 산책하거나 가볍게 뛰며 운동하는 사람도 눈에 띈다. 자리를 깔아놓고 두세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10살 전후의 아이들은 부모 손을 이끌고 놀이터로 가기 바쁘다. 2024년 2월에 완공된 병목안시민공원 모험놀이터이다. 증강현실(AR) 체험과 신체놀이를 할 수 있는 복합 놀이터로 12m 높이의 놀이대를 중심으로 밧줄 놀이대, 그네, 언덕 놀이대, 미끄럼틀 등에서 신체놀이를 할 수 있다. 벽면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증강현실로 동물을 볼 수 있는 최신식 야외놀이기구이다.

공원 한편에는 화물차량 2량이 선로 위에 놓여 있다. 화물차량과 병목안시민공원과의 연관성은 안내 표지판에 잘 소개되어 있다. “병목안시민공원 조성부지는 1930년부터 1980년대까지 철도 자갈을 채취하는 채석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자갈은 경부선 복선 및 수인선 철도를 부설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채석장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절개면이 생겨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낙석 등 재해의 우려가 있어 이곳을 환경친화적인 산림 복구와 다목적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웰빙 체력 단련장, 사계절 정원을 조성하고 특히 대규모 사면을 이용한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시민 여가 선용의 장소 및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전시된 화물열차는 이곳에서 생산된 철도 자갈을 실어 나르던 자갈 차량이며, 철도는 안양역에서 이곳까지 연결되었던 선로 일부를 복원하여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량의 화물차량은 수리산의 돌을 나르던 자갈 차량으로, 병목안시민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의 시간으로 여행할 수 있는 타임머신 열차이다.



병목안시민공원에 조성된 채석장 철길과 자갈 열차

2. 안양역에서 채석장까지 자갈차가 오갔던 병목안

옛날에는 안양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병목안까지 들어왔다. 수리산에서 캔 돌을 나르는 화물차였다. 돌이 많은 수리산을 마을 사람들은 ‘돌산’이라고 불렀고, 돌을 나르던 화물차를 ‘자갈차’라고 불렀다. 기차길이 생긴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안양역은 1905년 서울 영등포와 부산 초량을 오가는 경부선이 개통될 때 여객이나 화물 수요가 많은 보통역으로 개통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30년 후인 1934년, 안양역과 연결된 철길이 놓이면서 돌산이라 불리던 수리산에서 철로 주변에 깔 자갈을 채취하기 시작하였다. 병목안에서 캔 자갈은 영등포역과 연결된 안양역을 거쳐 경부선과 경인선이 놓이는 철길에 부러졌다. 해방 후에도 채석은 계속 이어졌는데, 철로 주변 자갈로 사용되다가 이후에는 수도권 일대의 건축용 골재로 사용되었다.

화물칸을 빼놓고 가면 인부들이 돌을 더 작게 깨 광주리에 담아 화물칸을 채웠는데, 그렇게 채워지는 시간이 2~3일 정도 걸렸다. 남포(다이내마이트)를 터뜨려 돌산을 깨는 것도 2~3일 간격이었다. 병목안 철길은 1930년대부터 채석장 위 담배촌에서 나고 자랐던 윤덕현(1947~)은 25살까지 담배촌에 살면서 기차가 오가는 것을 보고 들으며 자



1974년 병목안 채석장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랐다. 그가 기억하는 화물기차는 2~3일에 한 번씩 병목안 채석장으로 들어왔다. 10량 정도 되는 긴 열차였다. 1980년까지 운행되었다. 지금도 수암천 옆 금융아파트 인근에는 철로의 흔적과 집들이 있어 옛 모습을 짐작케 한다.

2013년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마을조사에서 토박이 주민 임부성(남, 1952년생)은 “전국 각지에서 머슴 살던 분이나 직업이 없던 사람들이 ‘안양 어디어디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더라’는 말을 듣고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곳곳에서 이곳으로 몰려들어 채석장에 의지해 생활하였다. 작은 손망치 하나만 있으면 생산하는 대로 임금이 정해지는 방식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동지를 틀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는 남포 기술자(TNT)는 고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채석장이 생기고 기차길이 놓이면서 일거리를 찾아 병목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서 철도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광복 이후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전에 전쟁을 겪으면서 1960년대 아프리카와 함께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지금과 같이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철도이다. 철도



안양9동 수암천 변 채석장 철길 흔적

는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물론 무연탄, 철광석, 텅스텐 같은 지하자원을 실어 나르면서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견인하고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 철길을 놓는 데 사용된 것이 병목안 채석장의 자갈이었고, 그 산업화와 도시화에 함께 한 사람들이 병목안 사람들이었다.

옛날 병목안 채석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는 찾기 어렵지만, 그림 한 점이 남아 있다. 안양 미술계의 큰 별인 홍사영 화백의 작품으로, 그가 남긴 그림이 병목안 채석장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안양9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근처의 수암천 양편으로 병목안로를 따라가다 보면, 벽화로 남아 있는 채석장 자갈 열차를 만날 수 있다.





벽화로 남은 채석장 자갈 열차



벽화로 남은 채석장 자갈 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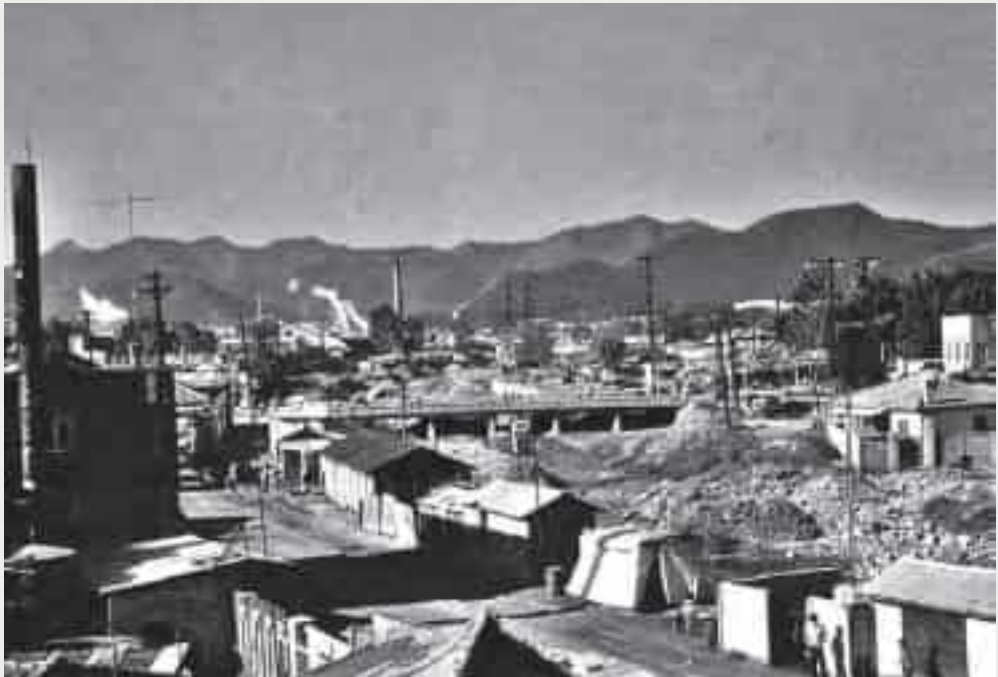
1960년대 병목안 채석장 기차길 옆 초가집(안양시청 제공)



1960년대 후반 수암천을 건너는 병목안 철길과 새마을교(변원신 제공)



1970년대 울목동 앞 채석장 철길(이정범 제공)



1970년대 안양역으로 이어지는 수암천 변 채석장 철길(이정범 제공)
현재 안양로320번길이다.

3. 토박이에게 듣는 마을 이야기

병목안 채석장이 있었던 안양9동은 안양읍에서 안양시로 승격하던 1973년에는 안양3동이었던가 1994년 분동이 되면서 안양9동이 되었다. 도로명이나 아파트명, 상가명, 표지석 등에 남아 있는 율목, 새마을, 병목안, 창박골, 담배촌 같은 이름들이 안양9동의 대표적인 마을이다. 양지초등학교 입구 새마을교부터 병목안 삼거리, 시민공원, 한증막을 지나 수리산산림욕장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까지 병목안이고, 병목안 아래로는 율목동과 새마을이 있고 병목 구간을 지나 위로는 창박골과 담배촌이 있다. 구술을 한 윤덕현은 천주교 신자로 조부 때부터 수리산성지가 있는 담배촌에 살았다. 담배촌은 1830년 전후 천주교 박해를 피해 천주교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담배를 재배해 살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1947년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25살이 되던 1972년까지 담배촌에서 살았는데 윤덕현이 자랄 당시에는 담배농사는 거의 짓지 않았고, 농사를 짓거나 땔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특히 1960년부터 임업시험장에서 산림을 조성하기 시작한 후로는 아무나 땔감을 주울 수 없었다. 2013년 조사 당시 돌석도예박물관 우측 산자락에 있던 한옥이 1960년대 수리산임업시험장 관리자사택 겸 관리사무소였다. 임업시험장에서 관리하면서부터는 담배촌 사람들만 수리산에서 땔감을 주어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었다. 안양 역전 중앙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수암봉 고개를 넘어 군포장과 안산장에도 내다 팔았다. 1970년 이후 연탄이 대중화되면서 땔나무 장사가 사라지기 전까지 담배촌 사람들에게 땔나무와 산나물은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다.

안양에서 살았던 삶을 회상하며 여러 편의 수필집을 낸 이용구(남, 1926년생)도 2013년 마을조사에서 8살 때 보았던 담배촌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한다.

이용구 : 이곳(담배촌과 수리산)은 당시 안양 주민들의 식생활 공급지로, 봄에는 각종 산나물이 풍부하고 가을에는 연료(땔나무)의 공급지였다. 이곳 주민이 사는 곳은 척박한 땅이라 일부 보충으로 주로 솔잎 나무를 지게에 가득 싣고 동이 트기 전 새벽녘에 떠나 그 먼 길을 걸어서 안양역전 나무시장으로 지고 나와 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등 수리산은 이곳 사람들의 수입원이기도 했다. 지금도 눈감으면 70년대 전 어두컴컴한 새벽길에 나무지게 행렬이 보이는 듯 아득하다.

4남 2녀 중 막내였던 윤덕현은 6·25 전쟁 때, 첫째 형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누



수암천과 병목안 한증막(1976년, 안양시청 제공)
현재 흥화브라운빌아파트 근처이다.

님도 어깨에 총상을 입어 내내 고생하였다. 수리산 전투로 알려진 그 전장지가 바로 이곳 담배촌이었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1951년 1월 25일부터 2월까지 미 제25사단 제35연대와 국군 15연대, 터키여단으로 편성된 연합군이 중공군과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던 수리산을 공격해 격퇴하였다. 당시 담배촌에 중공군이 있었는데, 연합군이 수리산 성지 주변으로 계속 포를 쏘 중공군 1개 사단을 전멸시켰다. 이 전투의 승리로 유엔연합군이 한강선을 확보하기 위한 북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영등포, 안산, 인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주요한 고지였던 수리산에는 이후 미군부대가 들어왔다. 석수동에 있는 미군부대(83병기대대)의 통신대였는데, 1970년대 중반 한국군이 인계받아 공군 레이더기지가 되기 전까지 병목안을 오갔다.

채석장은 아니었지만 미군부대도 병목안의 돌을 깎았다. 병목안과 담배촌 경계에는 ‘문둥바위’로 알려진 큰 바위가 있었다. 산자락에서 나온 바위는 손수레 하나가 겨우 지날 정도의 폭만 남기고 수암천 개울까지 닿을 정도로 위세가 당당한 바위였다. 임부성은 “우리 어머니가 가마 타고 시집오실 때 문둥바위를 돌다가 개울에 떨어질 뻔하셨을 정도로 그곳을 통과하는 도로가 매우 좁았고, 리어카가 다니는 길 정도밖에 안 되었다”



병목안 문동바위(경기관광공사 제공)

고 기억하고 있었다. 윤덕현은 그 바위의 이름이 문동바위가 아니라 ‘문동바위’라고 하였다. 마을의 문이 되는 입구 동쪽에 있어 문동바위이다. 바위 옆에는 묘가 있었다. 길을 내기 위해 바위를 깨려고 해도 묘 주인이 바위가 있는 풍수 때문에 못자리를 썼는데, 깨뜨리면 어찌느냐 하여 깨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들어오면서 길을 낸다고 그냥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깨어 나간 마을 앞 거대석은 이후 도로가 확장되면서 계속 깨어나가 지금은 그 기세를 찾아볼 수 없고, 안내판에만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는 문동바위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윤덕현은 26살이 되던 1972년 서울로 나갔다가 새로 만들어진 주택단지로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고 1979년 이곳으로 돌아왔다. 이때 들어온 곳이 ‘새마을’이다. 새마을은 원래 부자를 꿈꾸며 새 터를 일구었다고 해서 신부동(新富洞), 신부골[新副谷]로 불리다가 1969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마을이라 불렀다. 1988년에는 마을 안쪽에 양지초등학교도 설립되었다.

새마을 옆 울목동(栗木洞)은 ‘밤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 100여 년 전에는 ‘밤 줍기 대회’가 열려 유명해지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1933년 10월 4일 내용에는 10월 1일, 10

월 첫 공일인 이날을 맞이하여 안양 로적봉 밑 밤나무 무성한 잔디밭에 열린 신가정 주최 부인습물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천지가 떠나갈듯한 웃음과 박수성리에 재미있는 경기 10여 종목을 마치고는 밤 줍기를 시작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울목동은 1977년 홍수 때 수해를 크게 입었다. 7월 8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천변에 살던 8가구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적봉 자락이 무너져 내리고 수암천이 넘쳐 오막살이 판잣집 여러 채가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발생한 수해였다. 수해 때 철로 상당 부분도 파손되었다.

윤덕현이 새마을에 이사 한 때는 수해 이후 2년이 지난 1979년이였다. 새마을에 들어와서는 기차 소리나 남포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였다고 하니 수해 이후 복구가 되지 않아 한참 동안 화물열차 운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채석장이 공식적으로 폐쇄된 것은 1989년이다.

윤덕현은 45살이 되던 1992년까지 새마을에서 살고 동안구 비산동 아파트로 이사해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 비산동으로 간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담배촌 수리산성 지성당에 갔지만 몸이 아픈 후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당이 있는 담배촌에 간다. 윤덕

윤덕현의 집터에 들어선 돌석도에박물관(안양시청 제공)





1977년 홍수로 수해를 입은 울목동(안양시청 제공)
수해 복구 중인 사람들 옆으로 파손된 채석장 철로가 보인다.



1978년 새마을 전경(안양시청 제공)

현이 나고 자랐던 집터는 이제 돌석도예박물관이 되었다. 담배촌에 살던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은행나무집과 함흥집만 남아 있다. 이제는 마을 사람이 아니라 수리산성지와 돌석도예박물관, 천변 카페와 식당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안양9동의 추억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4. 수리산유원지가 될 뻔한 병목안시민공원

1980년대 이후 병목안에서 들리던 기차 소리와 남포 소리가 잦아들고 채석장의 흔적만 남은 폐석장이 되었다. 시민공원이 되기 전 폐석장은 유원지가 될 뻔하였다. 지금의 시민공원 면적의 2배가 넘는 238,800㎡, 72,237평 부지에 유희시설·운동시설·휴양시설·편익 및 관리시설을 조성한다는 수리산유원지 계획이었다. 유희시설에는 회전목마·회전컵·점핑카·바이킹 등이 들어가고, 운동시설에는 수영장·테니스장·스포츠센터·다목적 운동장 등이, 휴양시설에는 관광호텔·골프장·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이, 편익 시설에는 주차장·식당·목욕탕·야외음악당 등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유원지 개발계획이 세워진 것은 1989년이였다. 계획 당시 안양시 인구는 468,101명으로 과거 5년간 6.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당시 2·3차 산업 중심 도시였던 안양은 약 95%에 달하는 취업률을 보이는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늘어나는 도시의 시민들을 위한 휴양공간이 필요하였다. 당시 안양에는 1950년대부터 형성된 안양유원지가 있었는데, 관악산과 삼성산에서 흘러 내려온 계곡물이 자연스럽게 풀장으로 만들어진 곳이었다. 인근에 관광호텔과 방갈로 등 위락시설과 음식점, 매점이 있어 여름이면 서울과 수원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왔다. 1969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지만, 1971년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인해 안양유원지는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수리산유원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안양유원지를 대신할 유원지였다. 수암천을 따라 그린벨트 경계 지역까지 유원지 부지로 조성하려고 하였다. 1991년에는 당초 204,100㎡였던 면적에 34,700㎡를 더해 238,800㎡으로 변경되었다. 「안양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신청서 보완제출(1991.9.25.)」에는 유원지 개발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① 현재 안양시 도시계획 구역에는 비산공원 내에 일부 유원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각종 편익시설 부족 등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유원지는 유일하게 본 수리산 유원지가 있을 뿐이다.

② 본 유원지는 세부조정계획이 수립되지 있지 않은 관계로 주택 및 상가 등의 시설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용객의 레크레이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따라서 세부 조성 계획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공간의 확보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타공원 및 관광자원과 유원지 주변 지역의 기능 조화를 유지하면서 유원지라는 특성에 부합토록 체계적인 개발과 시설의 균형적 배치를 통한 합리적이고도 시행할 수 있는 유원지 조성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원지 개발계획의 목적은 무질서하게 난립한 기존 시설물을 정비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으로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공간의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1991년~1994년까지 시행을 해 1996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적 승인서를 통해 당시 수리산유원지 부지 일대의 토지 현황과 토지소유

주말농장으로 이용되던 병목안 채석장 부지(이정범 제공)



〈표 1〉 수리산유원지 부지 토지이용 현황(1991년)

(단위 : m²)

구분	소계	전	답	대지	임야	하천	도로	잡종지	철도
면적	238,800	36,511	7,292	4,842	151,372	26,111	5,388	2,325	4,959
구성비	100	15.3	3.0	2.0	63.4	10.9	2.3	1.0	2.1

〈표 2〉 수리산유원지 부지 토지소유자별 현황(1991년)

(단위 :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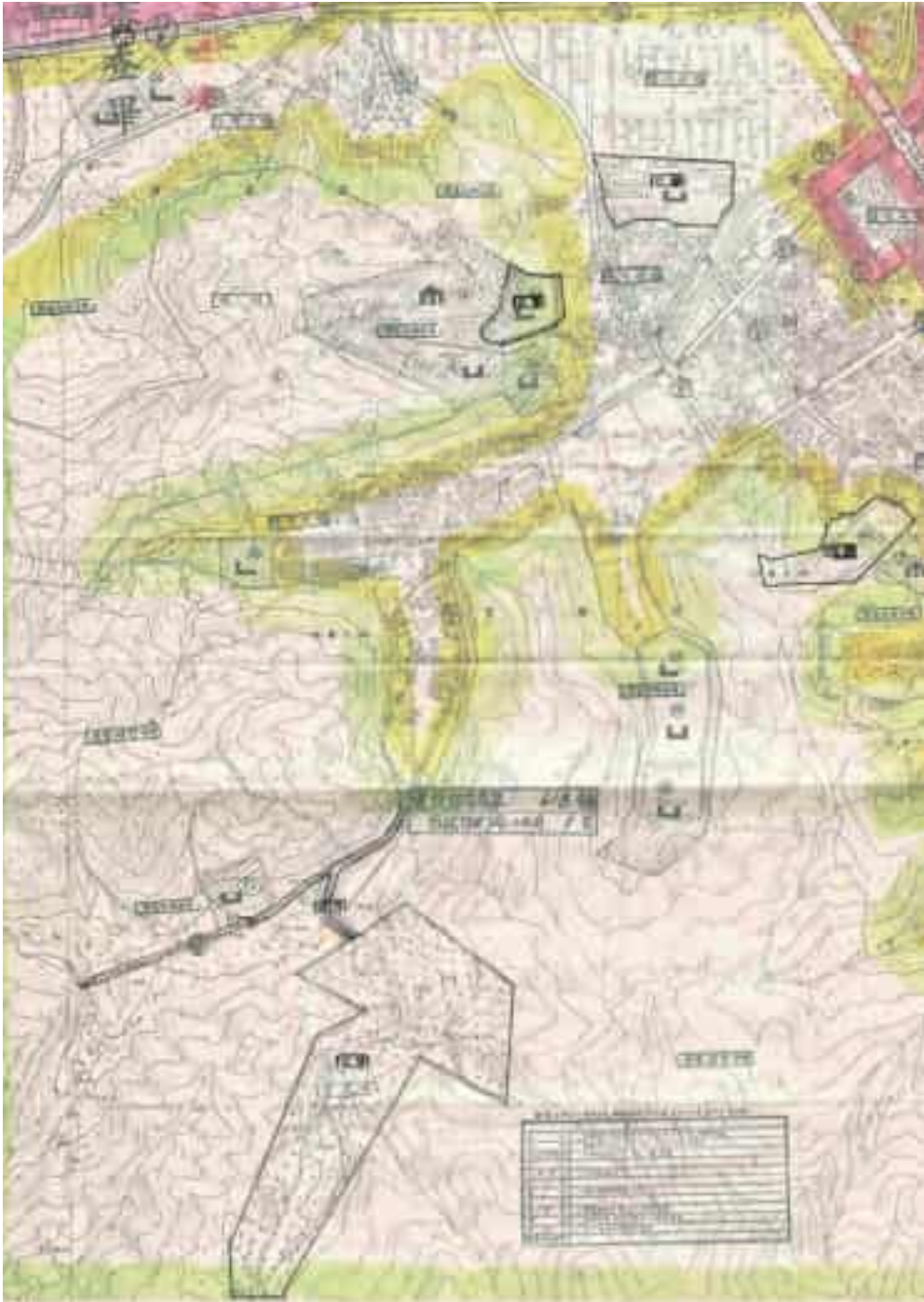
구분	소계	전	답	대지	임야	하천	도로	잡종지	철도
합계	238,800	36,511	7,292	4,842	151,372	26,111	5,388	2,325	4,959
국공유지	121,227	1,307	793	-	82,711	26,111	5,346	-	4,959
사유지	117,573	35,204	6,499	4,842	68,661	-	42	2,325	-

〈표 3〉 수리산유원지 부지 시설물 현황(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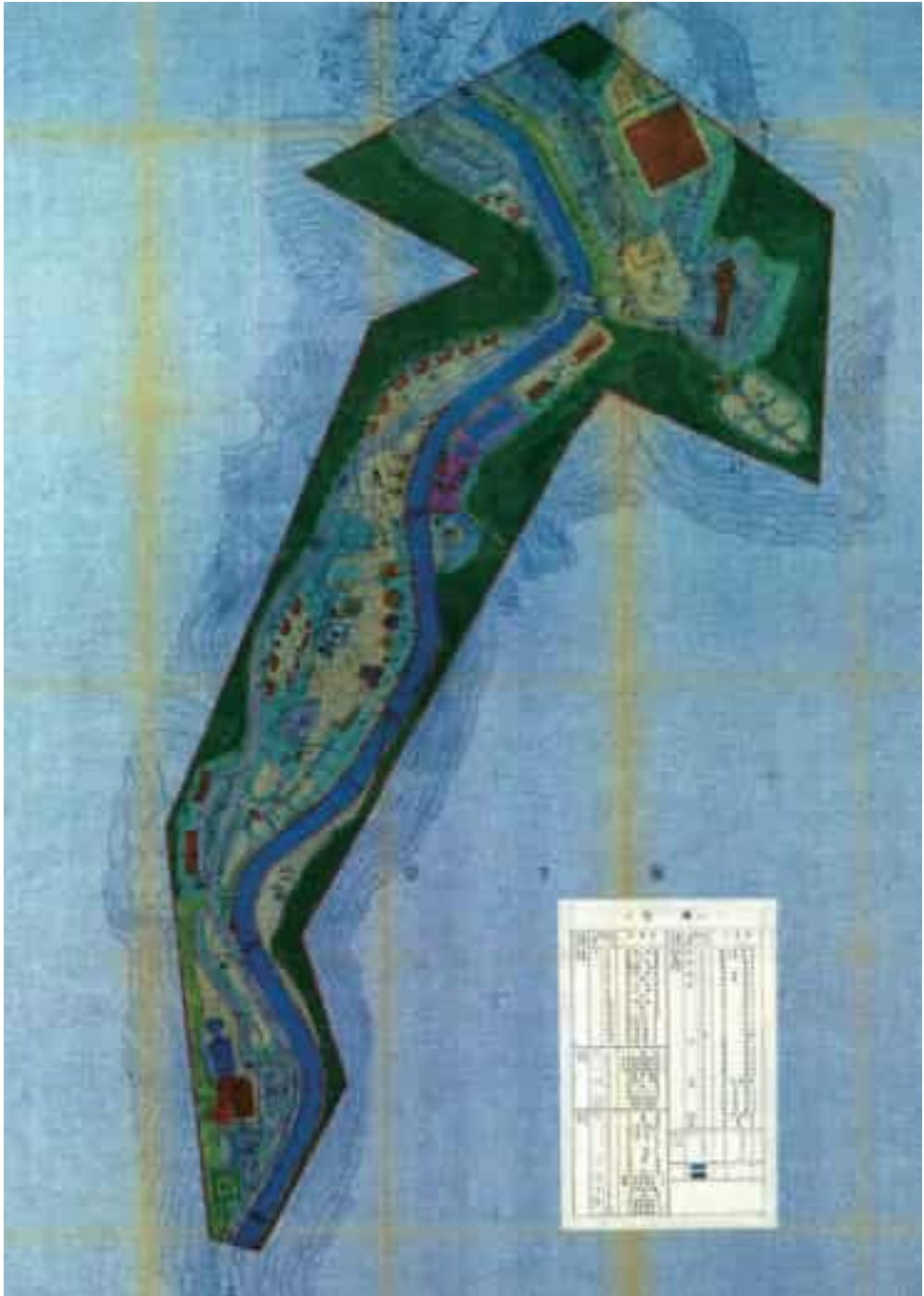
구분	수량	상태	비고
합계	35동		
건축물	주택	22동	불량
	식당	7동	불량
	매점	1동	불량
	한증막	2동	보통
	사찰	1동	불량
	기타	2동	불량
기타	-	보통	취사장6, 파고라1, 소각장3, 휴지통3, 벤치4

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임야가 전체 면적의 63.4%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답도 18% 이상이었다. 토지 소유자 현황의 경우 전답, 대지, 잡종지, 임야 등 49.23%의 부지가 사유지였고, 임야를 포함한 하천, 도로, 철도가 국공유지로 전체 개발 면적의 50.77%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개발 예정지에는 35동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한증막 2개 동을 제외하고 상태는 거의 좋지 않았다. 도로 상황도 폭 6m의 콘크리트 포장 진입도로와 폭 2~3m의 등산로가 있었다. 개발 예정지 내 급수는 지하수와 하천수를 취수하여 간이 상수시설로 이뤄지고 있었고 하수시설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하수가 인근 수암천으로 방류되고 있었다. 전력과 통신선이 진입로 변을 따라 유원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공중전화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건설부고시 제1987-618호 안양도시계획재정비총괄도(안양시청 제공)



경기도고시 제1991-378호 수리산유원지 조성계획도(안양시청 제공)



병목안 채석장 부지 수리산유원지 조성 현장 방문(1991년, 안양시청 제공)

수리산유원지의 개발 기본계획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민의 교화적, 정서적, 활동공간 기능이 있는 전형적인 ‘계곡형 유원지’, 시민의 정서순화를 위한 ‘교화적 유원지’, 복합적 기능을 갖춘 ‘다계층 유원지’로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건축물 조성은 기존지형 여건, 토지이용상태, 외부로부터의 접근 조건 등의 제반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유원지 전체 부지 중 약 4%에 해당하는 10,215㎡ 규모였다. 공간을 자연보호구역과 개발 구역 2개 구역으로 구별하여 수목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자연보존구역은 그대로 두고, 개발 구역은 유희시설·운동시설·휴양시설·편의 및 관리시설·기타 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유희시설지구는 부지 19,512㎡, 건축 면적 500㎡에 회전목마·회전컵·바이킹·오락장·요술집 같은 유희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운동시설지구는 부지 19,540㎡, 건축 면적 3,800㎡에 수영장·체육관·게이트볼장·다목적 운동장 등이, 휴양시설지구는 부지 38,080㎡, 건축 면적 2,716㎡에 13층 높이의 관광호텔 1동을 비롯해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그리고 3층 높이의 여관과 유스호스텔이, 편의 및 관리시설지구는 부지 52,919㎡, 건축 면적 3,007㎡에 도로·주차장·목욕탕·식당·매점·화장실·관리사무소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면적이 가장 넓은 기타 구역은 부지 108,749㎡, 건축 면적 192㎡에 광장·파출소·매표소·청소년야영장·취사장·야외음악당 등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표 4〉 수리산유원지 시설 면적 현황(1991년)

(단위 : m²)

구분	합계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의 및 관리시설	기타
부지	238,800	19,512	19,540	38,080	52,919	108,749
건축	10,215	500	3,800	2,716	3,007	192

〈표 5〉 수리산유원지 세부시설

구분	시설내용
유희시설	회전목마, 회전컵, 어린이비행기, 회전의자, 점핑카, 어린이열차, 바이킹, 배터리카, 오락장, 요술집
운동시설	수영장, 체육관, 정구장,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장
휴양시설	관광호텔(13층), 수영장, 골프연습장, 휴게실, 여관(3층), 유스호텔(3층)
편의 및 관리시설	제1주차장, 제2주차장, 목욕탕(2개), 식당(10개), 매점(7개), 변소(8개), 관리사무소
기타	광장(2개), 파출소, 매표소(2개), 청소년야영장(2), 취사장, 야외음악당

〈표 6〉 수리산유원지 개발 투자계획

(단위 : m², 백만 원)

구분	합계	지원별	
		시	민자
합계	31,549.1	5,666.4	25,882.7
기반시설	5,711.9	5,211.9	500.0
휴양시설	16,135.5	141.5	15,994.0
유희시설	1,318.3	-	1,318.3
운동시설	5,915.6	16.0	5,899.6
편의시설	2,467.8	297.0	2,170.8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관민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310억 원 규모의 총개발비 중에서 안양시가 56억 원을 들여 도로·주차장·광장·상수도·하수도·교량·담수보·조각물·관리사무소·파출소·야영장·조경휴게지·다목적 운동장·게이트볼장·취사장·변소 등을 개발하고, 민간이 258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호텔·유스호텔·휴게실·여관·체육관·식당·매점·목욕탕·수영장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발 범위와 예산 규모가 몇 차례 변경되면서 민관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호텔·골프장 등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 개발이 필요했지만, 수리산 아래 개발제한구역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에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수리산유원지 조성 계획은 무산되고 2000년대 들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도시계획에 따라 2006년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졌다. 만일 수리산유원지 계획이 그대로



병목안시민공원

진행되었다면 지금 병목안시민공원, 캠핑장, 산림욕장이 있는 곳에는 회전목마, 바이킹, 요술의 집 등이 있는 놀이시설과 호텔, 골프장, 수영장이 있는 지금과 전혀 다른 경관이 되었을 것이다.

수리산유원지 조성 계획이 무산되면서 회전목마, 바이킹, 관광호텔, 수영장, 골프장 대신 폭포와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사계절 정원이 만들어졌다. 면적도 유원지 면적의 절반 정도인 101,238㎡ 규모로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자연 그대로의 수리산과 수암천의 경관을 보존할 수 있었다.

안양시는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 2004년 시민공원 공사를 착공해 2006년에 완공하였다. 시민공원 내 3,300㎡ 부지에는 유희시설이 아닌 '사계절 정원'과 같은 조경시설을 조성해 약 160종의 조경수목 30만여 그루를 심었다.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놀이공원을 조성하려던 곳이 지금은 소나무로 둘러싸인 병목안캠핑장과 산림욕장이 되었다.

이렇게 지켜지고 만들어진 병목안시민공원과 캠핑장, 산림욕장 등은 안양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2021년 안양예술공원, 안양천, 평촌중앙공원, 망해암일몰, 안양1번가, 수리산성지(최경환 성인), 평촌1번가문화의거리, 병목안시민공원, 만안교가 안양9경으로 지정되었다. 안양의 명소를 찾아 안양9동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5. 사람들의 쉼터, 놀이터, 삶터가 된 안양9동

수리산 품 안 깊숙이 들어앉은 안양9동은 돌과 나뭇을 캐고, 땀감을 구하던 일터에서 휴식과 놀이가 있는 쉼터와 놀이터가 되었다. 시집간 딸 내외와 손자를 데리고 와 생일 케이크를 잘라 먹는 가족도 쉼을 찾아 인근 지역에서 차로 이곳을 찾았다.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는 평일에도 일이 끝나면 동네 사람 6~7명과 함께 이곳에 와 자리를 깔고 앉아 통닭을 시켜 먹곤 했다. 옛날에는 개천을 따라 보신탕 하는 무허가 식당들이 많아 어수선했는데, 공원으로 정비가 된 후로는 자주 오게 되었다. 놀이터 공사로 한동안 못 오다가 완공 이후 손주들을 데리고 오랜만에 찾아왔다. 손주들은 놀이터에서 마냥 신나게 놀고 있었다.

놀이터를 지나 아래로 내려오면 병목안배드민턴장 앞에 통나무집 매점이 하나 있다. 시민공원에 있는 하나뿐인 매점으로 놀이터의 아이들이나 캠핑장에 온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캠핑장처럼 매점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문을 닫고 3월부터 개점하는

데, 주중에는 운영하지 않고 토·일요일만 문을 연다.

매점을 운영하는 최영숙은 몸이 불편한 점주를 대신해 봉사활동 삼아 서울에서 이곳까지 온다. 벌써 7년째인데, 매점 창문으로 보이는 수리산의 사계절을 감상하느라 어떻게 세월이 갔는지 모른다고 하며 해마다 바뀌는 산의 빛깔과 모습을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남겨 두었다. 자연뿐 아니라 오가는 사람들도形形色색이다. 뮤지컬 배우나 유명 가수들이와 멋진 공연을 펼치기도 하고 방송에 소개된 폭포를 촬영하러 방송국 사람들도 종종 찾아온다고 한다.

매점 밑으로 내려가면 멀지 않은 곳에 병목안캠핑장이 있다. 병목안캠핑장에는 유독 아이들이 많다. 캠핑장 안에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이다. 물놀이장은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수리산 계곡물을 받아 놓은 곳이라 수돗물을 사용하는 도심공원의 물놀이장과 비교할 수 없다. 제1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가족도, 물놀이를 하고 나온 아이에게 고기 한 점을 물린다. 아이의 친구들이 데리고 몇 번 왔다가 이번엔 고정식 텐트를 빌려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와 이모, 오빠네 내외와 함께 주말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고정식텐트는 온돌과 에어컨이 있는 텐트로, 2019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16개 동이 만들어졌다. 4인실이 1박에 4만 원밖에 하지 않아 예약하



병목안캠핑장 내 물놀이장(202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한다.

제1캠핑장 위로 일반 데크만 있는 제2캠핑장이 있다. 34개의 데크 위에 각자 가져온 텐트를 칠 수도 있고 그냥 자리만 펴놓을 수도 있다. 광명에서 3주 연속 이곳에 왔다는 한 가족은 오전부터 와서 계곡과 공원, 놀이터를 오가며 놀다가 아이는 잠들고 아버지는 음식을 하고 있었다. 집 근처 과천과 광명



병목안캠핑장 관리사무소 운영차장 윤동진

에 있는 캠핑장도 가보았지만, 병목안캠핑장이 물놀이시설이 있고 무엇보다 차량이 캠핑장 앞까지 들어올 수 있어 봄과 여름이면 병목안캠핑장에서 주말을 보낸다. 계곡에서 울챙이도 잡고 다슬기도 잡으며 자연 속에서 놀다 보면 아이들도 즐겁고 육아에 지친 엄마·아빠도 숨이 좀 트인다.

병목안캠핑장은 안양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병목안캠핑장 운영차장인 윤동



병목안캠핑장(2024년, 이정범 제공)



진에 따르면, 병목안캠핑장 이용객의 80%는 안양 시민인데, 온라인 예약 시 안양 시민이 1시간 동안 예약 우선권이 있어서 순식간에 예약 완료된다. 예약이 취소된 자리만 외지인이 예약할 수 있는 행운을 잡는다. 비가 오는 날에도 촉촉한 숲속에서 빗소리와 빗속 풍경을 즐기다가 가기도 한다. 2박 3일 캠핑을 하면서 산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수리산 소나무 숲 병목안캠핑장은 힐링의 공간이 되었다.

캠핑장 관리사무소에는 하루 24시간 2인이 내내 캠핑장을 관리한다. 물놀이장도 40cm 정도 일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량에 특히 신경을 쓰면서 관리하고 있다. 아이들이 물놀이장을 좋아하는 것도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병목안시민공원 입구에는 주민들이 용기종기 앉아 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할아버지들도 있고 같이 간식거리를 나누어 먹는 할머니들도 있다. 양지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여럿이 서로 말을 걸어가며 바로 친구가 되어 킥보드를 타기도 하고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병목안캠핑장의 밤(2017년, 안양시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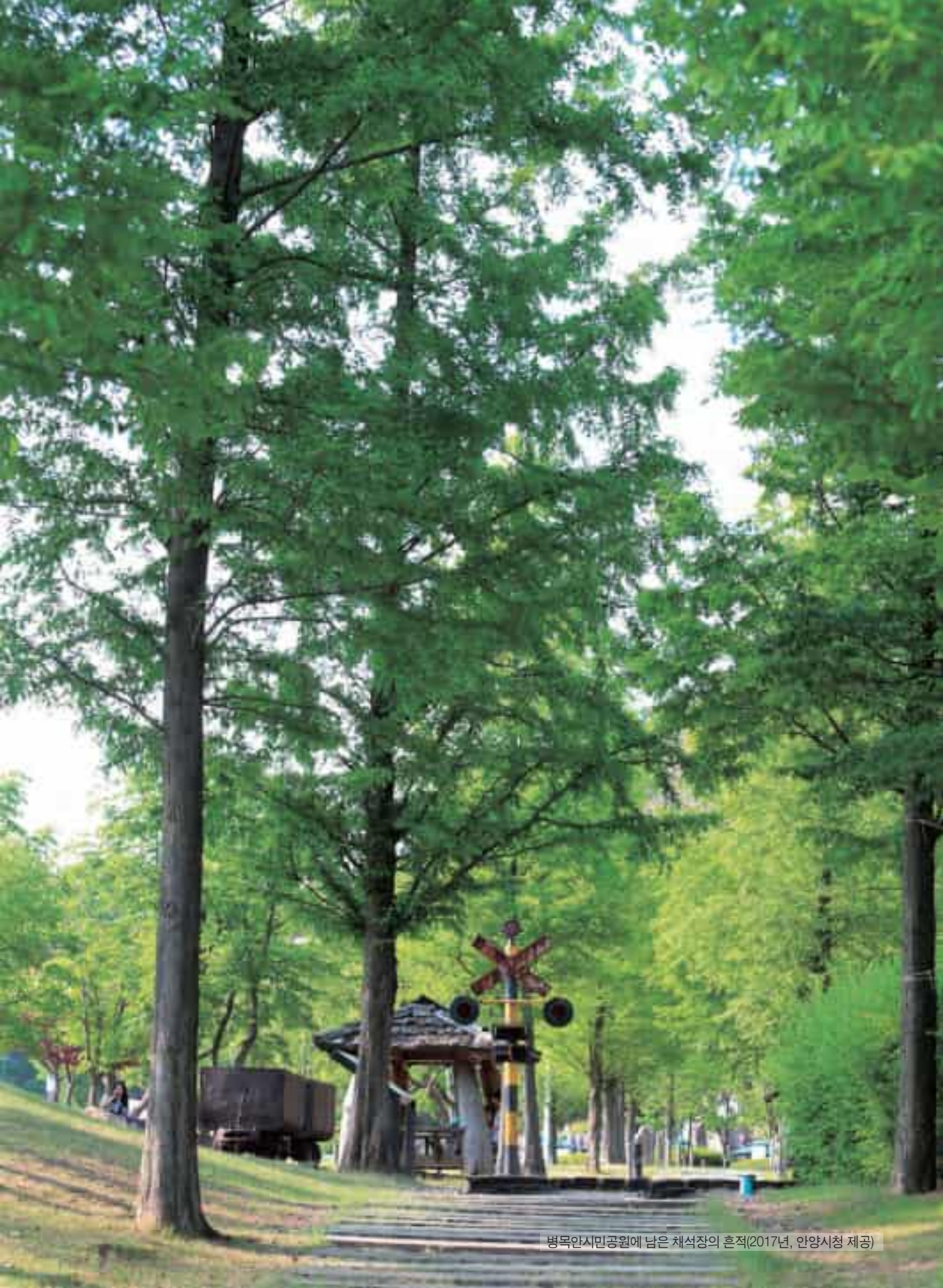
어린 동생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는 2018년에 창박골 아파트로 이사 왔다. 아이를 낳기 전, 안양 시내에서 살던 아이의 엄마는 갑상선이 좋지 않아 공기 좋은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건강이 좋아져 시험관으로 첫째 아들을 갖게 되었다.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에게 안양9동은 건강을 되찾게 해준 곳이고 새 가족을 갖게 해준 곳이다.

2024년 8월 현재 안양9동에는 7,044세대, 16,189명이 거주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3년 18,000명이 넘었던 인구수는 2017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택가가 많은 안양3동(15,448명)과 안양4동(6,649명)에 비하면 적지 않은 인구 규모이다.

그 옛날 병목안 수리산에 나무지계를 지고 오가던 사람들은 이제 유아차나 캠핑 수레를 끌고 병목안시민공원의 계단과 병목안캠핑장의 오르막길을 오른다. 채석장의 남포

소리나 화물기차 소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소리로 바뀌었다. 살기 위해 오는 사람도, 쉬기 위해 오는 사람도 모두 병목안에 들어와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병목안의 이야기, 안양9동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기록에 남지 않은 그 옛날 사람들부터, 박해를 피해 들어온 천주교인, 철도를 놓고 채석장을 만든 일본인, 전쟁통에 들어온 중공군과 인민군, 연합군, 통신부대로 들어온 미군,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들어온 이주민과 그전부터 오래도록 살아온 토박이까지. 지금도 안양9동 병목안은 수리산과 수암천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놀며, 쉬며, 살아가는 안양 시민의 터로 가꾸어지고 변모하고 있다.





병목안시민공원에 남은 채석장의 흔적(2017년, 안양시청 제공)

제3장

별터의 기억 위에 아파트 도시를 건설하다 : 덕천마을 재개발사업의 기록

임근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1. 덕천마을의 발전사

안양7동은 안양시의 남쪽 중앙, 안양천과 학의천의 합류부에 위치한 행정동이다. 1.04km²의 토지 면적으로 이루어진 안양7동에는 1만 4,947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동네에 어떠한 방법으로 당도하더라도 눈에 띄는 건물이 있는데, 바로 육중하게 솟아있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아파트’(이하 메가트리아 아파트) 단지이다. 총 5,783세대가 거주하는 안양7동에서 4,250세대를 차지하는 메가트리아 아파트는 바로 이 행정동 내에서 지배적인 주거 형태라 할 수 있다. 가운데에 나 있는 덕천로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메가트리아 아파트가 자리한 주거지대가, 남쪽에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낮은 스카이라인의 산업지대가 외관상 뚜렷이 구분된다.



‘미니 신도시’, ‘안양 최고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 등의 타이틀로 소개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아파트가 당연하게도 원래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6년 말 완공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안양7동이라는 행정동명과는 별개로 ‘덕천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안양 사람들 사이에서 익히 알려져 있었다. 덕천마을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까지 넓은 벌에 터가 들어섰다는 의미에서 ‘벌터’라 불리기도 한 만큼, 이 지역은 본래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논이 펼쳐져 있던 넓은 농경지였다. 오늘날 안양7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마을의 역사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벌터(浬村)’라는 표석이 설치되어 있다.

경상북도 선산 태생으로 13살에 안양 소곡동으로 온 후, 17살이던 1973년도부터 덕천마을에서 살기 시작한 권정숙은 이사 왔을 당시의 풍경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안양7동 전경(2024년)

메가트리아 아파트 뒤편으로 공업 지역이 자리한다.



권정숙 : 이쪽(아파트 단지 쪽)에는 집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 시절은 다 못 살던 시절이니까 집은 거의 뭐 한두 채 있었나? 다 논이었어요 그때는. 논에다가 집을 짓고. 그래 갖고 봄에 땅 풀릴 때는 장화 없으면 못산다 할 정도로 푹푹 빠지면서 진흙탕 같이었어요. (중략) 집의 형태는 슬라브라고 하는 옥상 있는 단층집, 그런.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초기로, 당시 시흥시 정왕동 출신의 원정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서 전주 이씨, 창녕 성씨 등이 정착하면서 최초의 마을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별터(안양7동)를 비롯하여 꼬챙이(석수2동)·달안이(비산2동) 등과 같이 일제강점기 초, 하천변 충적지에 형성된 마을들은 겨울철이면 강한 바람에, 장마철이면 수해에 시달려 사람이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허허벌판의 농경지, 말 그대로 별터였던 덕천마을은 원정상의 증손 원종만이 ‘덕천수퍼’를 개업한 이후 점차 발전하였다. 특히, 1972년,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국내 대표 제약회사인 동화약품의 안양공장이 이 지역(만안구 안양7동 189번지 일대)에 들어서면서 도로와 기반 시설, 상가가 조성되고 마을의 규모도 점차 확장되었다. 아침이 되면 동화약품으로 출근하는 300여 명의 직원이 지역 일대를 가득 메웠고, 자연스럽게 음식점, 술집, 식료품점 등의 상권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에도 각종 공장과 기업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안양7동 산업지대는 큰 공업지역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덕천마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1960년대 이래 지속된 서울의 인구집중 현상과 1970년대 고도의 경제발전으로 경기도 일대의 전답은 제조업 공장 부지로 변화하였다. 안양은 서울 지역 공장 입주 억제 정책 속에서 농촌의 도시화 및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였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섬유·식품·화학·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 기업들이 안양으로 몰려들었다. 이는 전형적인 소읍에 불과했던 안양이 규모를 갖추어 가며 1973년 시로 승격이 된 배경이었다.

과거 덕천마을에 거주 경험이 있던 구술자들은 1970~1980년대 당시 마을에서 활발히 운영되던 제조업 공장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한석주 : 동화약품·태광전자·삼풍섬유 요계 주 큰 공장이었고. 나머지는 다 뭐 개인 공장들, 중소기업이라고 봐야지. 큰 게 대기업은 태광전자·삼풍섬유. 삼풍에 실업고, 그런 게 있었지. 여기 우리 이쪽(구술현장이었던 아파트 남문 쪽 상가)으로는 준공업지역, 저쪽(명학역 방향)으로 안에 들어가면 공업지역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이쪽(아파트 방향)은 주거지역. 용도가.



1970년대 동화약품 풍경

전은기 : 태광은 학교에서 견학도 가고 그랬어요. ‘태광에로이카’였을 텐데. 저도 한번 갔었던 기억 나요. 태광. 단체로 견학 같은 경로. 이쪽(공장지역)은 거의 갈 일이 없고. 왜냐면 여기 아저씨들이 많고 그러니까.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산업 전반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재편이 본격화되었고, 덕천마을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해당 공업 지역이 단기간에 급격히 힘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말 통계는 공업 지역의 큰 규모를 잘 보여준다. 1997년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통계¹에 따르면 안양7동 내 제조업 사업체는 554개, 종사자는 10,667명으로, 산업 분류 체계상 여타 산업군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안양시 31개 행정동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2022년 기준 안양7동 제조업의 사업체는 884개, 종사자는 7,668명으로 확인된다.² 이처럼 업체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제조업 비중이 안양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넓게 펼쳐졌던 농지가 공장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안양7동의 인구는 자연히

증가하였고 주거지역(현재 메가트리아 아파트) 또한 빠른 속도로 변모하였다. 논과 천이 복개되어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전환되고, 그 위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행정 차원의 정비 작업도 지속되었다. 1973년 3월부터 1979년 11월까지 진행된 제6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비산 2동과 호계2동 일부를 포함한 안양7동 일대의 도로가 정비되었으며, 1977년 8월에는 덕천마을 주민들의 발이 된 10번 버스가 개통되어 현재까지 운행 중이다. 1979년 5월 1일, 안양7동은 행정적으로 안양6동에서 분동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풍물시장이 있던 길을 따라 조성된 메가트리아 아파트 단지 내 정원





1974년 덕천마을 토지구획정리사업(안양시청 제공)



1988년 덕천마을 전경(안양시청 제공)
철길 왼쪽 덕천마을과 오른쪽 안양6동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2. 기억으로 재구성한 덕천마을의 주민생활

덕천마을은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의 흐름 속에서 터가 형성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며 점차 마을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자신이 16살이던 해인 1972년부터 안양 장내동(현재 안양2동)에서 생활하다가 결혼과 함께 1981년부터 덕천마을에 터를 잡은 한석주는 마을로 이사를 왔을 당시 풍경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다.

한석주 : 그때 당시는 이제 한참 여기가 연립주택, 빌라, 뭐 아파트 5층짜리 한동 이렇게 지을 때지, 슬슬 들어올 때. 공려도 많았고. 여기가 그때는 포도밭 이렇게 논밭 이런 데였었는데, 그게 이제 슬슬 그 이후로 여기가 이제 주택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하고, 연립주택, 단독주택, 한 동짜리 아파트.

1973년에서 1981년까지 덕천마을에 살았던 권정숙은 결혼 후 서울로 이사를 갔다가 1987년 남편과 함께 친정이 있던 덕천마을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마을에 돌아왔을 당시 6년 만에 달라진 덕천마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권정숙 : 일단은 동네가 커지면서 시장도 생겼고. 덕천시장이라고 해서 여기 시장도 생겼었고. 자연적으로 애들이 많아지니까 학원 같은 거라든가 뭐 편리 시설이 많이 생겼죠. 병원 같은 것도 이제 그 후에는. (중략) 그때는 거의 논이 다 없어졌죠. 거의 집이 다 들어섰죠. 집이 일반 주택이나 빌라, 예전에 3층 빌라 같은 거. 그런 거는 많이 생겼죠. 연립주택 같은.

이처럼 1980~1990년대 덕천마을의 과거 풍경에 대해 구술자들은 각각 동지연립·개나리빌라·서울주택·동성아파트 등의 구체적인 건물 이름을 언급하며, 마을의 주거지대를 단독주택·연립주택·빌라·5층 내외의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찬 형태로 동일하게 묘사하였다. 또한, 과거 생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한 요소가 있었으니, 바로 덕천시장과 풍물시장이었다.

전은기 : 여기가 시장이었어요. 시장. 덕천시장이었고. 이쪽은 풍물시장이라고 하는 뭐 식료품도 팔도 이런저런 잡화 같은 거 파는 데도 있었고. (중략) 이쪽에서 딱 보면은 이게 '덕천시장'이라고 간판 같은 거 붙어 있었거든요? 일본 가면 '뽀뽀뽀' 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케이드처럼 써 있고. 여기(덕천시

장)는 식품 같은 거 주로 팔았고 넓은 길에 건물로 되어 있었다라하면은 여기(풍물시장)는 노점들, 음식점도 많고 여기는 지붕 있는 철제 같은 옛날 슬레이트 그런 걸로 되어 있고 높지도 않고 키 만한. 그리고 이 쪽에는 되게 웃긴 게 이게 그런 거 많이 팔았어요. 곱창볶음 같은 거.

최승광 : 이게 풍물시장이라고 전부 이게. 그 막걸리, 소주 이런 거 팔고 빈대떡도 팔고 뭐 족발, 닭발 이런 거 돼지껍데기 이런 거, 팔던 데야 여기가. 술 먹는 데야 여기가. 호프집, 뭘 집, 뭘 집, 뭘, 아 엄청났더니까. 길마다 다 먹는 집이야 그냥. 어 형님, 어 아우야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한잔하고 그런 거지 뭐. 그때 당시 이제 자연부락이었을 때는 식사집이 다 개방형이지. 이렇게 따로 문이 없었어요.

주요하게 언급되었던 두 개의 시장 중 덕천시장은 각종 식료품점 및 잡화점들이 늘어난 형태이고, 풍물시장은 포장마차식 가건물 음식점 및 술집이 늘어난 형태로 자리하여,



덕천마을 표석(2007년, 안양시청 제공)
10번 시내버스는 덕천마을을 경유하였다.



과거 덕천마을의 주요 장소(한석주 재구성)

마을 주민의 일상의 장터이자 만남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구술자들은 이 두 시장을 비롯하여 마을 내 주요 건물들의 위치를 조금씩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공인중개사 일을 해 지리에 익숙한 한석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오늘날의 아파트 단지 지도 위에서 각각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생활의 터가 되어 사람들의 정을 품은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덕천마을은 구술자들을 비롯한 주민들 저마다의 추억과 애정이 깃들어 있는 동네였을 터이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이상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결코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온전히 형성된 마을이 아니다보니 주민들은 이곳에 살며 여러 종류의 불편과 제약 그리고 문제를 겪어야 하였다. 1981년 덕천마을에서 태어나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학창시절을 보냈던 전은기는 즐거웠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난개발'이라는 표현으로 당시 마을의 상태에 대해 술회하였다.



덕천마을 품물시장(2011년, 이정림 제공)



덕천시장(2007년, 안양시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전은기 : 난개발됐다라는 느낌이 좀. 조그만 골목도 엄청 많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전신주도 이상했었던 거 같고. 그런 뭐 일단 그 주차난도. 막 이상하게 돼있는 차들도 엄청 많고. 좁고. 뭐 연탄 그때 엄청 했으니까. 눈 오고 이러면 연탄재 때문에 거리도 지저분하고. 주택도 뭐 완성도 있게 뭔가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니까. 통일성도 없고 동네가. 연립 같은 것들은 관리 안 되니까 지저분하고.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당시 덕천마을은 안양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네, “서민들이 사는” 동네, 나아가 “살기 굉장히 안 좋은 동네”, “슬럼가”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구술자들은 설명하였다. 건물의 낙후 정도, 부족한 기반 시설, 주차난, 서쪽으로 뻗어 있는 1호선 철도 소음, 그리고 사방으로 철길, 하천, 고가교에 둘러싸여 있어 생기는 고립감 등이 언급되었고, 무엇보다 매년 입었던 수해는 이 마을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로 하나같이 지적되었다.

덕천마을은 지형적으로 저지대 분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마을이 벌터였던 시절부터 비가 왔다 하면 땅이 진창이 되곤 하였다. 비 오는 날이면 버스정류장에는 동화약품 근로자들이 일제히 신발을 장화로 갈아 신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해에 취약한 마을이었다.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구술자들은 모두 물난리에 대한 저마다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권정숙 : 안양천에 물이 차면 얇은 집은 하수구로 물이 막 넘어와서 피해를 많이 봤죠. 하수구에서 물이 막 올라와서. 하수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안양천보다 이게 집이 얇으면 그냥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전부 하수구를 틀어막고 그랬어요 그때는.

전은기 : 매해 장마철마다 넘쳤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매해 장맛비 넘칠 것 같다고 하면은 방송사에서 뉴스 기자들 와서 촬영하고 보도하고 이런 거도 했었거든요... 90년대였을 텐데도 그때도 물 넘쳐 가지고 지하실에 저도 막 그 바케스로 물 푸고 했던 거도 기억나요. 뭐 입고 나면은 나중에 조금 있으면 가전제품이니 뭐니 밖에서 널어놓고 말리고 이런 것들도 종종 보는 풍경이었으니까.

수해 문제는 마을 이름이 벌터에서 덕천마을로 바뀐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덕천마을은 1977년 7월 대홍수 때 안양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벌터는 ‘수재민촌’이라 불린 바 있다. 당시 마을 지도자였던 최돈세는 긴급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마을

이름을 큰 천변에 자리하고 있다는 뜻의 ‘덕천(德川) 마을’로 명명하였다. 이후 1978년 안양천의 오염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자, ‘어린이들이 샘물 솟듯이 씩씩하게 자라 나라’에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 이상 수해가 없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내‘천(川)’을 샘‘천(泉)’로 바꾸어 ‘덕천(德泉)마을’로 개명하였다.

안양천과 관련해서 덕천마을은 물난리 말고도 또 다른 문제를 겪은 바 있었는데, 바로 환경오염, 수질 문제였다.

권정숙: 아주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물이 참 깨끗했어요. 그때는 깨끗했어요. 근데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이 하천수가 다 모여오니깐 그 공장에서 나오는 오물 같은 거. 집에서 나오는 하수물도 다 섞이니까 더러워졌죠.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살고 그랬었죠.

최승광: 어느 때가 안양천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 왜냐면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니까 몰래 폐수를 안양천에다 버리잖아 이렇게. 그러더니 갑자기 물이 시커먼 물이 나오더니 나중에 더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이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마흔한 살인데 개가 초등

1998년 8월 덕천마을 수해 복구(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 제공)



학교 다닐 때 ‘똥개천’이라 그랬거든.

전은기 : 초등학교 때 모험한답시고 이따만한 스티로폼 갖고 건너는 거 이런 거 하다가 빠져가지고, 그 때 너무 더러우니까 목욕탕 가도 일주일 동안 냄새 안 빠지고 이런. 그런 짓도 했더랬죠. 너무 시커매 가지고 바닥이 안 보였어요. 물이 너무 더러워서.

구술자들의 기억 속 1980~1990년대의 안양천은 ‘똥개천’이라는 속칭이 붙을 정도로 수질이 매우 안 좋았다. 안양천의 수질 문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사건이라기 보다는 안양시가 공업화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점차 누적되어 온 결과였다. 공장에서 배출한 오·폐수로 인한 안양천 오염의 심각성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안양천변 모리 농민들은 26일 안양 읍내 삼덕제지 공장 등 70여 개 각 공장에서 흘러오는 폐수로 1천 2백만 평에 걸친 올 농사를 망치게 됐다고 각 공장과 관계요로에 물려가 항의했다. (조락) 이 같은 공해현상은 안양 일원에 공장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6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계속된 가뭄으로 안양천을 흐르는 물이 모두 공장 독성폐수에 오염되어 더욱 피해가 많다.

〈‘못자리 모두 썩어’, 『매일경제』, 1970년 4월 27일〉

안양천 상류의 폐수 오염도가 높아져 이 물로 농사를 짓는 안양시 석수동 충훈부 부락 4만여 평에 달하는 논이 벼가 29일 현재 뿌리가 썩고 잎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安養川 계속되는 가뭄 廢水 오염 심각’, 『경향신문』, 1976년 6월 29일〉

주민들에 의해 공공연히 인식되고 있었듯 이 문제는 화학약품, 펄프 찌꺼기 등의 부산물을 만들어 내는 화학공장, 제지공장의 오·폐수 방류 및 늘어난 생활하수와 관련된 것이었다. 안양천의 오염 문제는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폐수 방류 업체에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안양천은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병 들기 시작하더니 1980년대에 들어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이 된 것이었다. 1984년 안양천의 연평균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193.3mg/ℓ로 전국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하천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하였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뭉쳐 1999년부터 추진된 ‘안양천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수질은

1995년 50.1mg/l, 2006년 3.2mg/l 로 낮아져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1977년 덕천마을에 살기 시작해 마을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왔던 최승광은 1991년부터 환경단체 연합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후 안양천 살리기 기획단에 참여하여 기울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부뚱하게 말해주었다.

최승광 : 조사하는데, 밟으면 그 꾸루룩 하고 암모니아 냄새, 썩어갓고. 물이 시커매. 그 암모니아 냄새때문에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더러웠어요 물이. 그래갖고 한번 살펴보자... 리와인터키킨다고 하죠,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갖고 다시 그 물을 다시 안양천으로 관을 통해서 7만 8천+인가 그래, 하루. 1일, 그걸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안양천도 그래서 살아났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학의천, 여기 쌍개물이잖아. 그 학의천이 대한민국 걸기 좋은 하천 뭐 그래 갖고 100선에도 들고, 어떻게 해서 살렸느냐 그래갖고 벤치마킹도 와서 이렇게 해서 가고. (중략) 혹시 구달 박사라고 아세요? 제인 구달. 제인 구달도 한번 오셨었어요, 여기. 고기도 같이 풀고 이래서. 사진이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무슨 책임가 나왔었는데.

안양천 살리기 프로젝트는 다른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고, 2004년에는 칠판지 연구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제인 구달 박사가 학의천에 방문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지속된 노력 끝에 안양천은 2000년대 들어 정상화되어 덕천마을의 주민들은 시름 하나를 덜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주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의 전부는 아니었으니, 앞서 언급했던 전반적인 낙후 상태에 변화가 없는 이상 주거환경으로 인한 피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곧 이어질 본격적인 덕천마을 재개발사업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학의천 물고기 방류 행사에 참여한 제인 구달(200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덕천교 아래 쌍개울 근처 안양천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200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3. 안양 최대 규모였던 덕천마을 재개발사업

덕천마을의 재개발은 2000년대 초부터 일부 주민 집단들의 청원 및 시위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부터 추진된 안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마을이 형성된 지 30여 년이 지나며 안양천 범람으로 인한 잦은 수해와 철도 소음, 편의시설 부재, 접근성 부족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 온, 가장 낙후된 마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사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세대들은 특정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주변에 동화약품, 태광산업 등이 포함된 준공업지역의 존재와 가용토지 문제로 이는 성공하기 어려웠다. 결국 마을이 조성될 당시부터 도로나 지대 등 도시계획이 잘못 이루어졌다는 대체로 합의된 인식 위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가닥이 잡혀 사업이 구상되기 시작하였다.

물밑에서 이루어졌던 덕천마을 재개발의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였다. 안양시는 2004년 7월 30일 동안구 비산2동 중앙초등학교 강당에



안양7동 내 재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총회(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09년 12월 5일, 덕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역 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이 참석하였다.



덕천마을 거리에 붙은 관리처분 반대 현수막(2011년, 이정림 제공)

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기반시설이 미비했던 구시가지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현황을 공유하고 덕천마을의 재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지 2년 뒤인 2006년 9월, 안양시는 ‘안양 덕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302호)를 공표함으로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로써 안양7동 내 공장 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전체(안양7동 148-1번지 일원, 257,410.19㎡)를 헐고 아파트를 새로 올려 신형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안양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계획상으로는 30층 높이 40여 개 동에 총 4,200여 가구(용적률 244.96%)의 아파트 단지가 2011년까지 지어질 터였다.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대한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각종 인허가 및 행정 절차, 공사 감독 및 감리를 맡게 되었고, 동시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주민 의견 수렴을 맡았다. 사업 규모가 5,950억 원에 달하는 이 대형 프로젝트의 시공사 자리를 두고는 지명경쟁 턴키 방식(설계·시공·유지관리를 시공자가 총괄하는 공사 방식)으로 4개 건설사 컨소시엄이 수주 경쟁을 펼쳤고 결국 2008년 3월 삼성건설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확정되었다. 시행과 시공의 주체가 결정된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말 안양



주민 이주를 독촉하는 현수막(2012년 9월, 이정림 제공)

시는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고(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8-135호), 사업 시행 기간을 2013년 6월까지로 계획하였다.

2006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그리고 2008년 시공사 확정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발표된 후, 이제 남은 일이라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배분하는 절차인 관리처분 그리고 아파트의 착공뿐이었다. 하지만 이어질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갔던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메가트리아 아파트는 2016년 11월에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으니, 애당초 계획이었던 2013년 6월보다는 3년을 넘겨, 최초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년을 넘겨 이 새로운 대규모 주거지는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9년 2월 분양신청 접수에 앞서 책정된 감정 평가금액이 일부 주민들에게 있어 예상보다 낮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분양신청 현장의 거친 분위기는 몇몇 기사들을 통해 상세히 전달된다. 기존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일정 지분을 인정받고 향후 분양대금을 추가로 내야 했는데, 낮게 책정된 감정 평가금액으로 인해 같은 평수 기준 '1억 이상의 돈을 더 내고 입주'³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반발하는 주

민들의 주된 입장이었다. 이들은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 취소 촉구 집회와 서명운동을 펼쳤고, 계속되는 이의 제기에 같은 해 3월 안양시의 요청을 받아 대한주택공사 측은 분양신청을 잠시 중단하기도 하였다.

1977년부터 덕천마을에 터를 잡고 누구보다 마을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현 동대표 최승광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 잠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당시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최승광 :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른 곳에 비하면 여긴 양반이었어요. 그니까 저희 집이 평당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최고 많이 나온 데가 1,000 한 200, 300도 나온 데가 있고 저 철뚝 길가 같은 데는 뭐 600, 700 이렇게 나왔어요. 보상가가. 그럼 억울하잖아. 싸움도 했죠. 더 달라고들. (중략) 이사 간 거는 제가 맨 끄트머리로 이사 갔는데, 이사 안 간다고 버티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신 너무 저평가됐으니 평가를 조금 더 해달라.

“일부 분양 대상자들이 책정된 자산평가 금액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향후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을 고려하면 사정은 달라”⁴질 것이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대한주택공사와 주민대표회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2009년 5월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 속에서 고성이가 오가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강성한 목소리가 전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았던 바, 주민들 상당수는 재개발이 빠르게 완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특별한 이의 없이 절차를 따랐고 결국 같은 해 8월 25일 분양신청 접수는 신청률 92%의 비율로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영세 가옥주 권리자 철거민 대책위원회, 주거 세입자 대책위원회,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단체를 구성하여 반대 활동을 펼쳤고 이에 따라 사업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편으로, 감정 평가금액이 낮았던 이유는 새로 건설될 아파트 단지가 지녔던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244.91%)이라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1988년부터 덕천마을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 온 한석주는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에서 덤덤하게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석주 : 용적률이 낮으니까 감정가가 낮을 수밖에 없지. 용적률이 높으면은 일반 분양이 좀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뭐 1,000평에 250세대 이하를 지은 거하고 280세대 300세대 짓는 거하고 차이가 많죠. 그게 이제 용적률이 낮으니까 일반 분양이 없다보니까 인자 조합원 부담금이 많아지는 거지... 뭐 비대위가 있었지만은 그런 거 뭐 다 찬성했기 때문에 끝난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용적률이 낮으니까 감정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만 해도 2009년 6월로 계획되어 있던 관리처분계획은 결국 2011년 4월 16일, 1,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주민대표회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덕천마을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비로소 공사 시작을 위한 준비가 끝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 12월부터 원주민들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듬해인 2012년 말까지 주민 94%가 이주를 완료하면서 마을은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재개발에 반발하거나, 마땅한 대책이 없어 이주 여력 없었던 주민 300여 세대는 여전히 마을을 떠나지 못하였다.

2011년 관리처분계획 통과부터 2012년 이주 완료까지 덕천마을 곳곳에 걸린 찬반 양 입장의 플래카드와 점차 황량해지는 거리 풍경들을 통해 재개발을 목전에 둔 당시의 마을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어 이주가 시작된 시점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존 건물 대부분은 공·폐가로 방치되었고 덕천마을은 점차 ‘폐허’, ‘유령마을’이 되어, 범죄나 청소년들의 탈선, 노숙인의 기거 공간으로 ‘우범지대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양만안경찰서는 해당 재개발지구를 ‘성폭력 범죄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주재로 범죄예방간담회가 열려 안전대책이 논의되기도 하였다.⁵

실질적인 철거 작업은 2013년 4월에 시작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공사는 결국 2016년 11월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안양시의 대표적인 노후 지역 중 하나였던 덕천마을은 이제 4,250가구가 살아갈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라는 이름의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한 대다수 덕천마을 주민들은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이제는 메가트리아 아파트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2008년 덕천마을(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15년 덕천마을(이정범 제공)



2016년 덕천마을(이정범 제공)



2024년 덕천마을(이정범 제공)

4. 계속되는 덕천마을의 역사

덕천마을이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분쟁이 있었지만, 이미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어떤 주거지역이든 그 주민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은 실질적인 것이기에, 제3자의 관점에서 마을의 과거 자취에 대하여 그 낡음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덕천마을 재개발은 진통을 겪으며 진행되었고 구체적으로 보상금 문제를 둘러싼 소통의 방식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재개발 사업의 계획과 비전이 아무런 이견 없이 실현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개발 찬반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주민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입장과 관점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덕천마을 원주민의 상당수는 그저 사업이 순탄하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묵묵히 기다린 끝에 현재 메가트리아 아파트 입주민이 된 경우가 많다. 덕천마을이 별터이던 시절부터 지역에 연고를 두어 왔던 권정숙의 차분한 태도는 그러한 입장을 잘 나타낸다.



빌라와 저층 아파트 밀집 주거지 덕천마을(2007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권정숙 : 끝까지 안 간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갔지만. 근데 뭐 크게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나게 싸운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도. 반발이 없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웃음) 어차피 되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쇠한 집, 오래된 집이 많았고 환경이 많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예전에 살던 환경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어려워했던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죠. 이렇게 안에 뭐 녹지라든가 저기 공원 같은 것도 많고 넓고 하니까 일단은. 좋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게 생기리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으니까.(웃음)

덕천마을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마찰은 하나의 마을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된 특수한 종류의 진통이었던바,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동네에 전에 볼 수 없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주거 형태의 골격이 갖추어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삶으로써 새로운 경관과 생활이 펼쳐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공인중개사인 한석주는 현재 진행 중인 인근의 재개발 사업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덕천마을 재개발은 오히려 순조롭게 진행된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낮은 감정평가금액에 영향을 주었던 낮은 용적률(244.91%) 및 건폐율(16.05%)이 오늘날에 와서 결과적으로 메가트리아 아파트를 넓고



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덕천마을(2024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덧붙였다.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한눈에 담기 힘들 정도로 큰 것은 오늘날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브랜드 아파트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지만, 메가트리아 아파트가 유독 널찍하고 목직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한석주 : 여기는 용적률이 250% 이하로 떨어져갔고 실질적인 조합원들은 피해를 많이 봤지. 감정가가 낮으니까. 그래도 순조롭게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지금 같이 다른 데 보면. (중략) 이사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맘만 돌아다녀도 여기보다 공간 넓고 쾌적한 데 없어. 용적률이 낮은데다가 거기 중간에 지금 공원 복개야 거기도. 옛날 그 복개. 아까 그 (풍물)시장 복개천 했던 자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더 쾌적한 거지. 더 쾌적하고 공원이 그래서 거기 아침에 한 바퀴만 돌면, 들레길만 들어 놓은 데 한 바퀴만 돌면 한 1키로 정도 돼요. 그래서 뭐 다른 데 하고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안양시에 구도심이 많아 토목공사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그의 이어진 말마따나, 안양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펜스를 넓게 두른 재개발 사업지구의 공사 현장과 설 새 없이 오가는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모여들면 마을이 생기기 마련이고, 마을은 나이를 먹기 마련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면해야 할 것인지는 압축적인 발전사를 지닌 안양, 나아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가 만능 해결책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물개성적’이고 ‘비공동체적’인 공간으로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주거지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 ‘덕천마을’이 ‘벌터’였던 것처럼 ‘메가트리아 아파트’도 ‘덕천마을’이었다는 점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마을에 대한 저마다의 추억과 애정을 품고 있는 이상 덕천마을은 생명이 다해 사라진 곳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공식적인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었던 ‘덕천마을’이 여전히 ‘덕천마을’로 회자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한때 벌터였던 그리고 한때 덕천마을이었던 현재 메가트리아 아파트 또한 이곳에서 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의해 아주 먼 훗날에는 ‘한때 ~였던’이라는 수식이 붙을 터이고, 마을의 역사가 그렇게 축적되어 감에 따라 덕천마을 또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갈 것이다.

註

1. 안양시, 『통계연보』, 1997년.
2. 안양시, 『통계연보』, 2022년.
3. 「주택재개발 주민들, 주공 분양 원천봉쇄」, 『오마이뉴스』, 2009년 2월 16일.
4. 「안양 덕천지구 재개발 주민반발로 난항」, 『연합뉴스』, 2009년 3월 19일.
5. 「경기청, 우범지역 순찰 강화… 강경량 청장 현장점검」, 『경기신문』, 2013년 3월 21일.

제4장

마을공동체가 만든 변화 : 명학마을 도시재생 이야기

우승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1. 명학마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우리의 사회는 글로벌 경제화와 함께 저성장과 양극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1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라 우리사회의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기본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의 기본 구조는 여러 요소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소는 도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기본 구조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산업 지역, 교통 인프라, 공공시설, 녹지 및 공원, 문화 및 여가 시설, 공공 서비스, 사회적 기반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대규모 신규 국토 개발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도시의 쇠퇴와 양극화가 심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 교통, 토지 이용 등에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 개인의 삶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의 활용 방식과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다양성은 도시 정책에 관한 이념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즉, 도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의 공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참여형 정책 추진 방식은 안양시 8동에 위치한 명학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두드러진다.



1970년대 명학마을 전경(1975년, 이정범 제공)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곳으로 산 중턱의 명학초등학교가 보인다.

2018년부터 추진한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추진 4년 차인 2021년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도시재생 모범으로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정책 부문 특별상에 선정되었다.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어졌다. 이 장은 안양8동에 위치한 명학마을의 도시재생에 관한 글이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건축과 주거의 변화 등은 별도로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최소화하고,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학마을의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갈등 관계도 함께 다루었다.

안양8동에 위치한 명학마을은 안양도시기본계획(2030)에 따라 만안대생활권의 안양·명학 생활권에 포함된다. 이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재정비촉진지구와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주민자치 조직을 육성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표 1〉 명학마을의 도시재생 여건 및 필요성

분야	여건	필요성
인구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18.4% 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비율 높음	노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개선
시설	편의시설 부족	복합 커뮤니티 시설 조성 기관과 연계한 마을 복지 프로그램
교통	세대 수 대비 주차 공간 부족	거주자 주차 공간 확보
공동체	재개발지역 해제에 따라 주민 갈등 주민 협의체의 대표성과 전문성 부족	갈등 관리 등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 프로그램 발굴·지원

명학마을은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일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에 명학역과 안양역이 있다. 특히, 명학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전철역으로, 1974년 8월 15일 간이역으로 개업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명학마을은 역에 인접하고 명학초등학교와 중앙병원(현재 메트로병원) 등 기반 시설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1990년대 평촌 1기 신도시 개발¹과 2000년대 도시 외곽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 유출이 심화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약 60% 이상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사유지 비율이 높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택을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하고 보행 도로가 미비하였다. 특히, 이 지역은 경제 활동 인구가 신도시로 유출되면서 그에 따라 상권 형성이 미약하고 마을 경제가 침체한 상황이었다. 또한 명학마을은 2010년 5월 27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주민의 반발로 인해 2013년 7월 2일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었다.² 따라서 도시 재생 사업 이전에 갈등의 요소가 잠재하고 있었다.

명학마을은 도시 노후화에 따라 재개발로 지정되고 해제되는 등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2013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후 도시재생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먼저, 2016년에 주민 공청회와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착수되었고, 2017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사업 유형은 주거 지원형이었다. 2019년에 도시 활성화 계획이 고시되었고, 2020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2022년에 두루미하우스와 스마트케어하우스가 준공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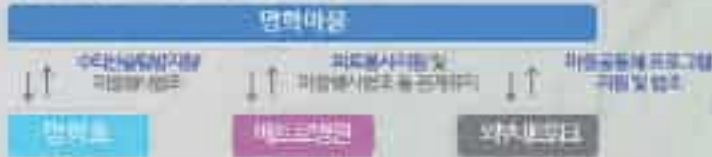
명학마을 전경

두루두루 행복하고 편안한

두루美 명학마을

두루두루: 여기까지 배정되어 온고루 이곳에서 여기까지로, 내사랑 저사랑 배정되어 온고루

- 미흡내부·외부자원/관리협력및관계형성을 통한 마을활성화도모 및마을행사추진



I. 생활인프라개선사업

- I-1 골목환경 개선사업
- I-2 골목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II. 주민복지·주거지원사업

- II-1 두루美하우스 조성(기능복합형 청년행복주택)
- II-2 스마트 케어하우스 조성(커뮤니티시설)
- II-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 II-4 김수리지원사업
- II-5 주거지원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III. 지역역량강화사업

- III-1 명학마을 주민역량강화교육
- III-2 마을텃밭조성
- III-3 마을소식지 발간
- III-4 두루미 명학마을 축제
- III-5 주민공모사업
- III-6 명학마을 브랜드·캐릭터 개발
- III-7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지원

수리산순환방파

명학초 연계 송담방 교실 운영 및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행사 협동추진

수리산

보도정비

메트로 병원과 연계한 미용행사추진 및 의료봉사 지원

메트로병원

두루美 하우스 조성



주민공동시설: 마을관리사무소, 다목적실
마을공방, 공동부익 등
(469.5㎡, 3층)
지하주차장: 135면(4628.4㎡, 2개층)
청년행복주택: 24세대(917.69㎡, 5층)

명학마을 사업구상도(안양시청 제공)



자율주택사업(동산빌라)



대지면적 : 339,20㎡
 연면적 : 546,63㎡
 주요시설 : 다함께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마을수다방, 경로당

스마트 케어하우스 조성

집수리지원사업
 (골목개선사업 연계)



140개소 지원 (총사업비 14억원)

도로환경 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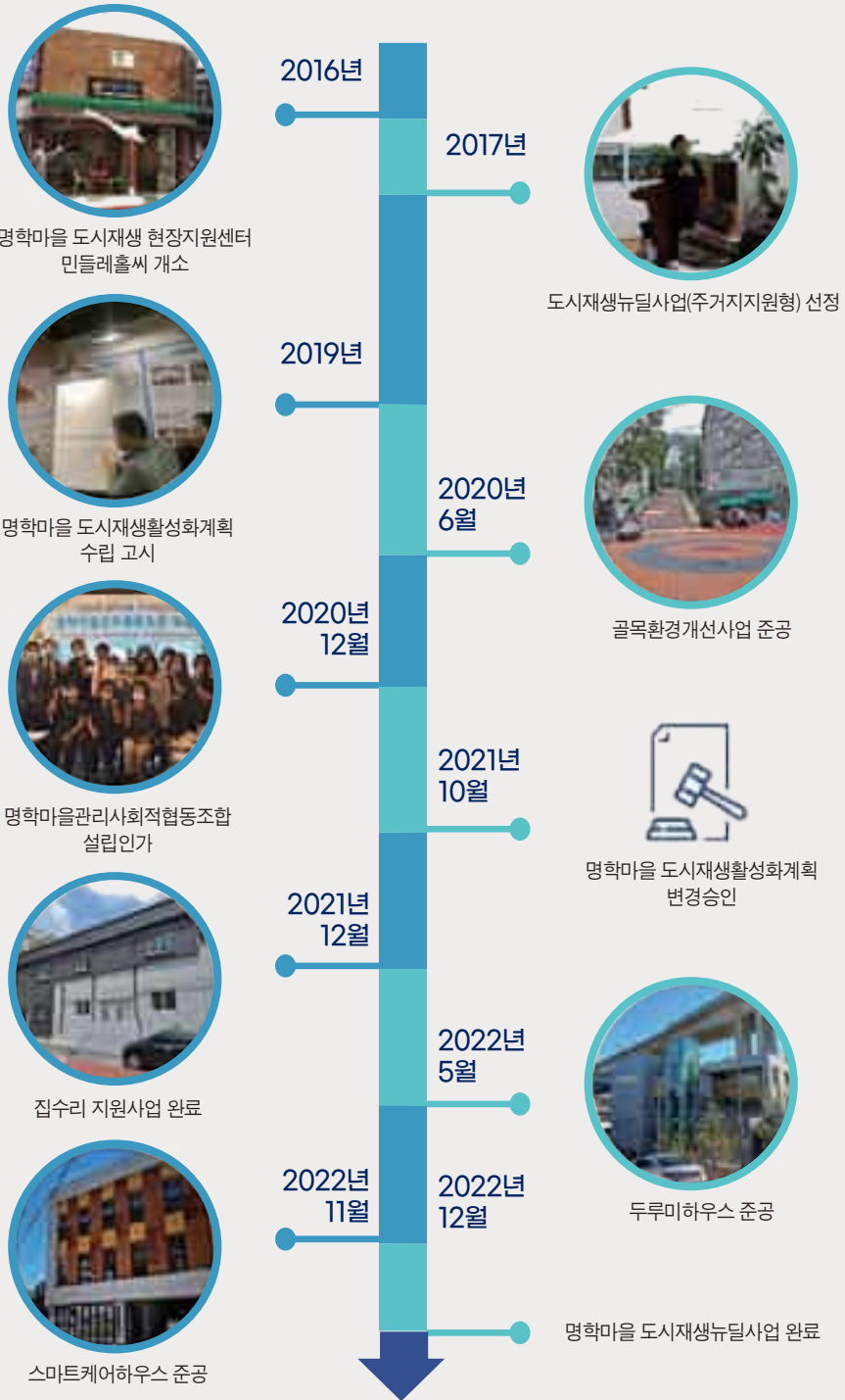
2017년 2월 4일 명학마을 도시재생을 위한 열린 주민토론회(안양시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성과

명학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계획으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를 나타냈다. 공영주차장·청년행복주택·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되는 두루미 하우스가 예정대로 추진되었고, 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마을카페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 시설 스마트케어하우스가 준공되었다.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골목환경 개선과 집수리 지원사업 등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사업이 완료되었다.

특히,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이후 마을의 관리와 지역사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민-관 거버넌스 및 갈등관리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선도조합에 선정,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을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꼽힌 것이다.³ 명학마을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일정



1) 두루미하우스

두루미하우스는 안양8동 1287-1번지에 위치한 사유지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6억 원이 투입되어 2022년 5월에 완공되었다.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 커뮤니티센터, 청년행복주택을 복합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안양시는 해당 부지를 제공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기반 시설 공사를 수행하였고, LH 공사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 명학마을협동조합은 주민 공동시설 운영에 참여하였다.

사업의 결과로, 134면의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었으며, 24세대의 LH 청년행복주택과 497㎡ 규모의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었다. 주민 공동시설에는 재활용센터·마을 공방·브레드홈·사무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공유 공간이자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두루미하우스 프로젝트는 명학마을에 공영주차장·커뮤니티 센터·행복주택을 통합한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새로운 공유 공간과 경제활동·창업 기회를 얻었으며, 지역 사회의 결속력과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행복주택 도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며, 두루미하우스 준공 후에도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스마트케어하우스 조감도(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양 명학마을 주민공동시설인 '두루미하우스'가 준공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새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지만 시는 '비가 많이 내려 생긴 일'이라는 입장이다.

〈「안양 '두루미하우스' 총체적 부실… 새 건물서 물 줄줄, 『경기일보』, 2022년 12월 15일〉

2) 스마트케어하우스

스마트케어하우스는 안양8동 356번지와 인근 두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22년 11월, 지상 4층, 연면적 524.76㎡ 규모로 완공되었다. 이 시설은 복지·돌봄·의료 서비스를 통합한 복합 케어하우스로, 명학마을 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기반 시설 공사를 담당하였으며, 안양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탁하였다. 또 명학마을협동조합에 마을카페 운영 권한을 부여했다. 스마트케어하우스는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스마트케어하우스 3층 두루미 공동육아나눔터(안양시청 제공)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추진한 사업 중 하나이다.

현재 두루미경로당(1층), 우리동네 수다방(2층), 두루미 공동육아나눔터(3층), 명학 다함께돌봄센터(4층)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주민과 어린이, 어르신을 위한 공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상호 작용과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명학마을 내에서 진행된 주택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저금리 용자를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건축 기준 특례가 적용되었다.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및 민간 전문가 지원 체계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이 사업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2020년 6월에 동산빌라가 준공된 점이다. 이 동산빌라는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 최초로 완료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명학마을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동산빌라의 성공적인 준공은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선도적인 사례로, 지역사회의 재생과 혁신을 상징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났다.

공공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속도가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도로나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략) 조합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은 서류 검토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여기에 주민설명회 후에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며 “조합방식 역시 투명하게 진행되고 현재 80% 이상 주민이 동의한 만큼 사업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설립을 앞둔 단계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민 반대로 지연되면 조합원만 피해를 입는다”고 덧붙였다. <「주민 반대… 안양 명학마을 가로주택정비 '난항」, 『경기일보』, 2022년 8월 30일>

4) 집수리 지원 및 마을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 및 마을환경 개선 사업은 명학마을 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14억 원이 투입되어 2021년에 완공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노후 및 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컨설팅과 공사 비용을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현물을 보조하였다. 자부담 비율은 당초 10%였으나, 상생협약 체결 시 5%로 인하되었다. 지원 범위에는 지붕, 외벽, 담장, 대문 등 주택의 외부 공간이 포함되었다.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으며, 2019년에는 58가구, 2020년에는 48가구, 2021년에는 30가구가 선정되어 집수리와 관련된 공사가 완료되었다. 단순히 물리적 개선을 넘어,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사업 완공 후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추가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병행되어야 할 사업이기도 하다.



명학마을 골목벽화(안양시청 제공)



명학마을 골목벽화(안양시청 제공)



마을 정자와 정비된 마을길(안양시청 제공)

5)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명학마을에서 총사업비 8억 3,400만원이 투입되어 2021년 7월에 완공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안양시와 명학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추진했다. 사업 내용에는 두 가지 작감지 센서 330개, SOS 비상 버튼 660개가 배포되고 설치되었다. 둘째, 스마트 스쿨존 안전 서비스로 차량 및 보행자 감지 시스템이 4곳에 설치되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명학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안전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고령자 안심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스마트 스쿨존 안전 서비스는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은 명학마을의 생활 환경을 한층 더 현대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명학마을 내에서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 교육 및 역량 강화를 기획하며, 마을 운영 시스템의 정착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 조합은 도시재생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자립성을 높이고 골목길 등 사업 계획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과정과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운영 관리 체계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마을 운영 시스템 정착을 지원했다. 그 결과, 명학마을에서는 주거 복지 지표가 개선되었다. 두루미하우스와 스마트케어하우스를 통해 계획된 것보다 약 3배 많은 주민 복지 시설이 확충되었고, 청년 행복주택은 계획 대비 약 1.6배인 24호가 확보되었다. 집수리 지원도 계획을 초과하여 136호가 진행되었으며, 마을 주차장은 1,045면으로 계획보다 확대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체계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 특히,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복지 및 생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명학마을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모델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학마을 도시재생센터 '민들레하우스' 개소(201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이웅장 명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명학마을 주변에는 자체적인 상권도 없고 매력적인 관광지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의 각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술한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공동체가 성숙했고 도시재생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안양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총 3곳이 참여했는데 성공한 곳은 명학마을 뿐”이라고 했다.

〈‘안양 명학마을, 실패한 재개발지역서 공동체 꽃피는 공간으로’, 『경향신문』, 2023년 1월 10일〉

3.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강화 사업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새로운 측면 중 하나는 지역 강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마을기자단 운영을 통해 마을 소식지를 발간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조직 간 소통을 촉진한 점은 주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안양시 도시재생대학 수료식(2017년, 안양시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1) 명학마을 도시재생대학

명학마을 도시재생대학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다양한 직무 교육을 하였다. 대학은 마을 내에서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도 맡았는데,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운영 계획 수립과 함께, 스팀 세차, 마을 카페 운영, 제과 제빵 기능사 등의 직무 교육도 수행하여 지속 가능한 거점시설 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명학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향후에도 이러한 교육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마을의 발전을 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2)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 주민공모사업은 4년 동안 수시로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사업의 효과로는 주민이 도시재생에 관하여 관심을 높이고, 주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했다. 실제로, 주민의 참여를 통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명학마을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마을 소식지, 『두루美 명학마을 이야기』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마을기자단을 구성하여 연 4회 마을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초기에는 ‘민들레흙씨’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였으나, 제5호부터는 『두루美 명학마을 이야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을 소식지는 주민 공모사업과 참여사업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을 보기 좋고 읽기 쉽게 구성하였다. 또한, 매달 명학마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명학마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두루美 명학마을 이야기』는 주민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명학마을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주민기자단이 직접 작성한 생생한 기사는 마을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은 마을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더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소식지를 매개로 한 정보 공유는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두루美 명학마을 축제와 마을 캐릭터

명학마을은 마을의 이름을 활용하여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두루美 명학마을 축제’를 시작했다. 축제는 마을 주민·지역 기관·공동체 조직이 협력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로 안양시 도시재생과 공동체 간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축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국에 알리고, 주민들의 관심을 통해 사업에 활력을 더하기 위

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마을 캐릭터와 브랜드를 제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 해설사와 숲 해설사를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두루미 명학마을 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마을 캐릭터와 브랜드를 통해 명학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게 했다. 마을 캐릭터는 두루미를 형상화하였고, 이름은 두루미 울음소리를 모태로 ‘뚜미’·‘뚜루’·‘루루’·‘루미’로 지었다. 마을 해설사와 숲 해설사 양성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명학마을을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캐릭터 명학마을프렌즈(명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2019년 명학마을 축제 Festival



2019년 명학마을축제(안양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명학마을 백서』, 2022, 72쪽)



제3회 두루미 명학마을축제(2019년, 안양시 공식 블로그 제공)

4.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갈등 양상

명학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은 전반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다. 이는 이해관계 충돌과 소통의 문제 등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이기도 하다.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갈등 양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했다.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잠재되어 있었고, 사업 추진 단계마다 갈등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뉴딜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협동조합 기능 도입 등에서 갈등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갈등 발생과 해결이 반복되었다.

둘째, 갈등의 주체와 내용이 다양했다. 사업 초기에는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회원과 참여하지 않는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후에는 거점시설의 청년(임대)주택 도입 여부가 갈등의 주요 내용이었다.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는 운영과 관련된 갈등으로 전환되었으며, 협동조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과 일반 회



2021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재생 우수정책사례 특별상 수상(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원 간의 갈등, 협동조합 내부의 갈등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갈등의 주체는 안양시, 주민협의회, 협동조합 조합원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셋째,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조직의 역할이 미비하였다. 물론, 명학마을에는 갈등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도시재생 추진협의회와 협동조합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이 너무 늦게 구성되었고, 조직의 목표가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치우쳐 있어서 제대로 된 갈등관리를 수행하지 못했다.

넷째, 사업 추진 단계별로 갈등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갈등의 주체와 내용이 단계별로 상이해서 갈등의 원인도 다양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단계에 맞는 맞춤형 갈등관리가 필요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이다. 물론, 명학마을에서도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갈등의 근원은 주민과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갈등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꼭 필요하다.

〈표 2〉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갈등 단계

구분	시기	갈등 내용	갈등 주체
갈등 잠복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시 (2016.4.~2017.11.)	재개발에 대한 미련	지자체 및 재생사업 주민협의회 재개발사업 희망자
1차 갈등	뉴딜 공모사업 선정 후 (2017.12.~2018.6.)	임대주택(청년주택) 도입	주민협의회 일반 회원 주민협의회 임대주택 반대 회원
2차 갈등	협동조합 도입가능 검토 시 (2018.7.~2019.12.)	협동조합 기능에 수익사업 희망	주민협의회 수익사업 희망 회원 주민협의회 수익사업 반대 회원
3차 갈등	협동조합 도입가능 결정 시 (2020.1.~2020.7.)	협동조합 조합원의 참여 자격(종교 문제)로 도입가능의 재검토	협동조합(새활용센터) 도입 찬성 회원 협동조합(새활용센터) 도입 반대 회원
4차 갈등	협동조합 준비과정 시 (2020.8.~2021.7.)	협동조합 사업목적의 상이	조속한 성과 희망 회원 많은 준비 희망 회원
5차 갈등	협동조합 운영 시 (2022.1.이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익성 문제	기존 업종 유지 희망 회원 새로운 대안 모색 희망 회원

자료 : 문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갈등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2021, 175쪽.

5.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사점

2018년부터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명학마을은 2022년 사업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사업 완료 후에도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그 예 중 하나가 명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안양시가 명학마을에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을 두고 발생한 갈등이다. 2023년 3월 23일 『경인일보』 기사에 의하면, 안양시가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지에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를 추진하자 명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기로 한 조합의 계획을 시가 협의 등도 없이 기초센터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기사를 통해 조합 관계자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조합 관계자는 “시가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조합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기초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기초센터가 필요하면 주민들과 협의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시재생사업 성과는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안양 명학마을 기초도시 재생지원센터 추진…주민들 ‘허탈」, 『경인일보』, 2023년 3월 23일〉

이렇듯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모범으로 선정하여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 사업 완료 후에도 각종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갈등의 양상과 대상은 다양하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과 관련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갈등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고, 추진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갈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갈등을 예측하고, 사업 종료 후까지 지속적으로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갈등 대응 조직의 초기 구성과 역할 강화이다.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다양한 갈등 주체와 갈등 내용이 존재하였다. 안양시는 도시재생추진협의회에 갈등관리 전문가를 포함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후부터 협동조합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갈등관리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

조직을 조기에 구성하고, 도시재생추진협의회와 협동조합 갈등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갈등관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주요 내용이므로, 갈등 해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갈등관리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해야 하며,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계별 맞춤형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각 추진 단계마다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갈등의 주체와 내용도 다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착수 전, 공모사업 시행 단계·세부 사업 추진 단계·협동조합 도입 기능선정·협동조합 운영 등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각 단계에 적합한 갈등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례는 명학마을에 국한된 것으로,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갈등관리 방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갈등관리 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노력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의 갈등관리 모델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안양시 명학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며, 지역 발전의 중요한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생활환경의 개선, 사회적 통합의 촉진, 역사와 문화의 보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확보,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각적인 목표를 통해 그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낡은 건물과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공원을 비롯한 녹지 공간 조성,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었으며,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역시 주요 고려사항이었다. 에너지 효율

이 높은 건축물 설계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등은 지역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였다.

물론 도시재생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갈등관리 또한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명학마을은 낙후된 지역에서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자랑스러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명학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도시재생사업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도시재생실증연구단,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매뉴얼』, 가천대학교, 2018.
- 문채, 「안양 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8.
- 안양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 안양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명학마을 백서』, 2022.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8.3.20)
- 명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http://www.myeonghak.co.kr/>).

註

1. 서울 도심에서 남쪽 20km 지점에 있는 평촌신도시는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투기 풍조 해소, 수도권 기능 분담을 목적으로 건설된 수도권의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가운데 하나이다. 이 신도시는 안양시의 신 중심업무지역, 도시 내 신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안양시 동안출장소(현, 동안구)인 평촌동·비산동·호계동·관양동 일원에 건설되었다. 1989년 8월에 한국토지공사 신도시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1995년 12월에 준공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평촌신도시)
2. 문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갈등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한국콘텐츠학회, 2018, 169쪽
3. 「안양시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모범으로 국토부 선정 '대한민국 도시대상' 받아」, 『브릿지경제』, 2021년 10월 28일.

제5장

사라지는 냉천마을을 기록하다

홍미숙 수필가, 안양문인협회 명예회장



1. 사라지는 것은 슬픈 일이다

사라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사라지는 것은 끝을 의미한다. 복원을 해도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그러니 한없이 슬픈 일이다. 나아가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 동물, 식물, 그 밖의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기에 슬프다.

그런데 안양5동의 냉천마을 전체가 사라졌다. 한 마을을 이루었던 집들이 모두 사라졌다. 주민들은 모두 집을 떠났다. 마을을 통째로 비워 주어야만 하였다. 이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뿐 아니라, 나무·꽃·새들도 이곳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구는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었을 테고, 누구는 태어나 자랐을 테고, 누구는 이곳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녔을 테고, 누구는 이곳에서 신혼의 꿈을 펼쳤을 테고, 누구는 자녀를 낳아 키우고 결혼시켰을 테고, 누구는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냉천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다. 싫다고 떼를 써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 물론 마을이 새롭게 탄생하길 바라는 주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이 마을로 다시 들어와 살기가 어려운 모양이었다. 현 집을 새집으로 바꾸어주면 무슨 불만이 있겠는가. 문제는 살던 집과 집터를 내놓고도 부담해야 할 돈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미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로 결정이 끝났으니 속상해도 일단 마을을 떠나야만 했다. 주민들뿐 아니라 “야옹야옹” 길고양이도, “구구구” 비둘기도, “멍멍” 강아지도 터전을 잃어 두려운지 정든 골목길을 서성대며 한참을 울부짖는다.

나는 사라져가는 마을의 모습을 눈에 담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장마가 주춤한 사이를 틈타 통행이 금지되기 한 달 전에 이 마을을 찾았고, 보름 전 또 찾았고, 일주일 남기고



2020년 냉천마을(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또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빈 집들이 어느새 많아졌다. 대부분 비어있었다. 집마다 추억이 담겨 있고, 희로애락이 구석구석 배어있을 텐데 주민들은 그대로 떠나야만 했다. 주민들의 얼굴이 다르듯 집들이 하나같이 달랐다. 지붕 색도, 대문 색도 같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다양한 집에 살면서 그동안 얼마나 다양한 사연들을 만들어 냈을까?

안양은 유난히 사라져가는 마을이 많다. 그동안 정겨운 마을 이름들을 갖고 있었으나 마을 이름도 사라진다. 건설회사의 이름을 딴 아파트촌이 들어서니 그렇다. 이곳 냉천마을도 마찬가지다. 이 마을은 내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더 서운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옆 동네 살면서 만안도서관을 자주 찾았다. 그런데 이 마을의 아래로 나 있는 큰길만 따라다녀 큰길 안으로 이렇게 많은 이웃이 사는 줄 전혀 몰랐다. 솔직히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다. 그랬기에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마을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하였다.

나는 냉천마을 옆 동네로 이사와 살면서 이렇게 큰 마을이 수리산 동쪽 자락에 숨어 있는 줄 몰랐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냉천마을과 같은 안양5동이지만 안양4동과 경계에 있다는 게 핑계라면 핑계였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덕천·동편·임곡·소곡 등의 마을이



2022년 냉천마을(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같이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섰다. 이곳 냉천마을도 마찬가지로 초고층아파트가 가득 들어설 예정이다.

냉천마을이 사라진다고 하여 한번은 문인들과 한번은 예술인들과 그리고 한번은 혼자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녀 보았다. 그리고도 두 번을 더 찾아갔다. 생각보다 골목도 많고 계단이 엄청 많았다. 지대가 높기 때문이었다. 냉천마을은 소곡마을 옆에서부터 안양대학교에 이르는, 꽤 길고 넓은 마을이었다. 이주가 시작된 탓에 버리고 떠난 집기들이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고, 대문에는 문패·교패·우유 주머니·우편함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대문 안으로 봄에 심었을 꽃과 채소들이 안마당에서 잡초와 뒤섞여 빈집을 쓸쓸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 가슴 뭉클하게 하였다. 더 이상 이곳에서 꽃필 수 없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홍빛 나리꽃이 대문 밖을 내다보면서 방긋 웃고 있었다. 여기저기 ‘공가(空家)’라는 딱지와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장’이 붙어있고, 경고장처럼 플래카드들도 얼른 마을을 떠나라며 나무꺾다.

2.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던 소통의 골목과 계단, 그리고 벽화

냉천마을에는 부잣집 양옥도 있고, 적산가옥도 있고, 골뚝이 우뚝 솟아있는 오래된 저층 아파트도 있고, 피난민들이 살았던 오두막도 있어 가옥의 다양함을 한 곳에서 모두 구경할 수 있었다. 가옥의 내부를 현대식으로 개조했더라도, 40년 가깝게 아파트 생활을 하는 나로서는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였다. 보기 어려운 풍경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어 경이롭기까지 했다.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소통의 골목과 계단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정겨운 골목길을 걷노라니 이웃이 금방이라도 달려 나와 어디 다녀오냐고 반갑게 말을 건넌 것만 같았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골목을 오가면서 이웃끼리 정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어 보였다. 옷깃만 한 번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곳에 살면서 좁디좁은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인연이 생겨났는지 궁금하기만 하였다. 분명 평생을 같이 하게 된 인연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인연을 만들어준 계단도, 골목도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곳 주민도 아니면서 내 마음이 왜 이다지도 쓸쓸하고, 허전한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왔던 주민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나는 이 골목 저 골목을 기웃거리고, 이 계단 저 계단 괜히 오르내리며 허전함을 달랬다.

골목도 골목이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계단의 모습에 한참을 올려다보았다. 운동복 차림으로 계단을 오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계단도 멋있었지만, 피아노 건반이 그려져 있는 피아노 계단은 눈을 떼기조차 어려웠다. 그 계단을 올라가 보았다. 밟아도 밟아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안 나지만 이 계단에 오르면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소리는 안 나지만 살금살금 밟으며 올라갔다. 조울을 한번도 안 하였을 테고, 손이 아닌 발로 하도 밟고 다녀 소리가 안 나는 모양이었다. 피아노 계단이 소리를 내지 않으니 내가 말로 피아노를 대신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안 나, 도미솔도 도솔미도 말로 하지요.”라며 혼자 흥얼거리려 보았다. 어느 곳보다 이 피아노 계단을 냉천마을 주민들은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발로 밟아도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계단으로 자꾸 오르고 싶어졌다.

계단을 오르고 골목을 지나 한참을 가니, 전망 좋은 곳에 ‘은혜슈퍼’가 있었다. 슈퍼는 이미 문을 닫았으나 그곳에서 안양 시내가 그대로 내려다보였다. 냉천마을의 전망대나 다름없었다. 아마 이 슈퍼는 고지대인 냉천마을 주민들에게 고마운 존재였을 것이다. 언덕을 한참 올라와야 만날 수 있는 슈퍼로, 급히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이 슈퍼가 없었으



냉천마을의 다양한 계단(이영섭 제공)



냉천마을에 있던 은혜식품(이영섭 제공)



냉천마을의 해바라기 벽화(심성권 제공)

면 한참 내려가야만 구매할 수 있으니 그렇다. 누구보다 동네 꼬마들한테 제일 인기였을 것이다. 갑자기 이 슈퍼를 들락거렸던 동네 꼬마들 모습이 아른거려 미소가 지어졌다.

마을 곳곳 골목에는 벽화도 정겹게 그려져 있었다. 역시 탐스러운 해바라기가 가장 많이 보였고, 허름한 담벼락에 그려놓은 해변의 모습과 하늘하늘한 코스모스도 눈에 들어왔다. 냉천마을 곳곳에 벽화전시장이 문을 연 것 같았다.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마을이니 다양한 대문만큼이나 다양한 담장들이 집을 보호하고 있었다. 담장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덩굴도 열심히 여름을 그려대고 있었다. 호박 덩굴도 담쟁이와 맞짱 뜨려는 듯 황금색 꽃까지 풍성하게 피워놓고 있었다.

3. 대문은 집의 얼굴이다

나는 결혼하면서부터 아파트에서만 40년이 되도록 살고 있다. 그러니 단독주택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냉천마을을 방문하면서 따뜻한 고향에서의 정서가 느껴졌다. 이곳의 집들은 대부분 기와집이었다. 나의 고향 집 대문은 큰 문고리와 꽃 모양의 경첩으로 모양을 낸 나무 문이었는데, 냉천마을의 대문은 대부분이 철문이었다. 색과 모양이 가지각색이었다. 같은 모양의 대문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다. 집주인이 다르고, 사는 사람이 다르고, 살림살이가 다르듯 대문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대문을 통해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사회를 만나고, 드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닌가. 이 마을에 와보니 대문이 그 집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사라져가는 냉천마을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다양한 대문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다. 대문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었다. 대문 전시장이 바로 이곳 냉천마을이었다. 어쩔 디자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을까 놀라웠다. 이 대문들이 문으로써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났다. 하지만 이 대문들을 모아 훌륭한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작품은 아마 냉천마을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의미가 클 것은 분명하다. 나는 이 대문들이 너무나 아까워 특색있는 대문들만 찍어 남겼다. 대문만 보아도 그 집의 형편이나 집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냉천마을은 단독주택들이 서로 담을 맞대고 가득 들어서 있다. 대문 위에 장독대가 있는 집, 꽃밭이 있는 집, 옥수수·가지·오이가 자라고 있는 집이 있고, 담장 위에 짚을 엮어 올려놓은 집, 철조망을 쳐놓은 집, 유리병 조각을 박아 놓은 집이 있는가 하면, 덩굴



냉천마을의 대문들

장미가 담장 밖까지 늘어져 가슴 설레게 하는 집이 있다. 그뿐인가. 청보랏빛 나팔꽃이 담장을 타고 올라간 집이 있는가 하면, 아예 담쟁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담장을 사시 사철 장악하고 있는 집이 있다. 담쟁이는 담장을 캔버스 삼아 철마다 다른 그림을 그려 놓는다.

대문 안의 마당 꽃밭에는 황매화·봉숭아·분꽃·채송화·백일홍·맨드라미·칸나·코스모스·해바라기·국화 등의 꽃이 피는 집들이 있고, 목련·라일락·감나무·포도나무·대추나무·앵두나무·살구나무·모과나무 등이 터줏대감이 되어 함께 보낸 집들이 있다. 그들과 헤어짐이 무척이나 아쉬웠을 주민들이다. 허락받아 이주주를 한 집 몇 곳을 들어가 보았다. 한옥이라 그런지 방과 마루에 문턱이 있었고, 부엌이 따로 떨어져 있는 집들이 있었고, 안방에 다락이 있는 집도 있어 어릴 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화장실이 재래식인 집이 있어 현재의 삶에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다.

대문 밖의 화분에는 꽃이 아닌, 고추·호박·가지·파·상추·깻잎·부추·열무·배추·썩갓 등이 가득 자라고 있었다. 주인을 잃은 그들이 방문객을 쓸쓸히 맞아주었다. 주민이 일찍 떠난 빈집을 지역 주민의 안내로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면서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 그대로 폐가가 되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골목에 사람들이 북적였을 텐데 그냥 폐가 그 자체였다. 쓸모 있었던 집들이 사람들이 떠나니 버려진 쓰레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이 떠난 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적막하였다. 너나 할 것 없이 이곳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을 텐데 그야말로 적막강산이 되고 말았다.

4. 냉천마을 역사의 흔적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이곳 지명의 유래가 된 찬우물[冷泉] 약수터에 들러 물 한 바가지를 마셨다. 이름처럼 물이 차가워서 온몸의 더위가 꺾이는 듯싶었다. 옛날에 가뭄이 심하게 들자, 어느 부부가 수리산 정상에서 치성을 드린 후에 맑은 샘물이 치솟았다는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찬우물은 우물이 있는 마을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수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솟아 나오던 우물의 이름이기도 하다. 찬우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바가지로 물을 뜨는 우물이었는데, 현재는 수도시설로 탈바꿈을 해놓아 운치는 예전만 못하였다. 약수터

옆으로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다.

이 마을의 중심은 찬우물 약수터와 더불어 살구나무가 있는 오거리이다. 마을광장처럼 넓은 공터가 자리하고 있다. 오거리를 지키고 있는 살구나무의 수령이 꽤 높아 보였다. 이 마을의 이정표 역할을 했을 살구나무 역시 이곳을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집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주민들의 이주가 거의 끝날 무렵 다시 냉천마을을 찾아갔다. 살구나무 오거리는 길고양이와 비둘기, 강아지의 쉼터가 되어버렸다.

냉천마을에 하나 있는 ‘찬우물경로당’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지 오래되었다. 아파트가 지어져도 경로당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서겠지만,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많이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마을의 터줏대감과 같은 어르신들이 함께했던 경로당이 어느 건물보다 더 많이 쓸쓸하게 보인다. “노인 한 명이 세상을 뜨는 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아프리카 속담도 있다. 다행히 옛 경로당 친구분들이 새로 들어설 경로당에서 다시 또 만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기쁘겠는가. 많은 어르신이 그렇게 되길 나도 바라고 또 바랐다.

경로당뿐 아니라, 30년 전에 나의 딸이 다녔던 뽕엘유치원도, 어느 집 안에 있던 석탑도, 이슬람 성원도, 사주·궁합·작명 집도, 터널 위에 지은 집도, 아랫마을 슈퍼도, 옷수선집도, 살구나무 오거리의 멋쟁이 거울도, 다양한 모습의 기와집들도 모두 사라지게 생겼다. 대문만 다양한 게 아니었다. 기와지붕의 기와 모습도 각양각색이었다. 별이 새겨진 지붕은 사라지는 게 좀 아까웠다. 밤마다 마주했던 하늘의 별들도 아쉬워하지 않을까 싶었다.

예전의 안양은 포도밭이 많았다. 내가 20대 때 안양유원지를 찾았을 때도 주변으로 포도밭이 즐비하였다. 냉천마을도 포도밭이 많았다고 한다. 원두막이 있는 포도밭의 풍경! 생각만 해도 설렌다. 안양의 특산물은 그때만 해도 포도였다. 안양의 ‘포도’, 대구의 ‘사과’, 나주의 ‘배’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우리나라의 산업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안양에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게 되었다. 그 결과 냉천마을에도 집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포도밭은 사라졌다. 그래도 이 마을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집 안과 밖에 포도나무 한 그루씩은 심었었다. 그러나 재개발을 앞두고 이 마을을 몇 번 방문했는데 포도나무가 집에 있는 집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아니, 한두 집 정도만 포도나무가 있었다.

냉천마을은 수리산 자락에 앉은 마을이다. 수리산이 영험해서인지, 냉천마을에는 불교·기독교·원불교·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시설이 어우러져 자리하고 있다. 안양 중앙성

당도 가까이에 있다. 그뿐 아니라 붉은 깃발, 흰 깃발이 내 걸린 집들도 유난히 많다. 무속신앙도 이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냉천마을의 옛 모습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제2의 냉천마을을 만들어갈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냉천마을 이름이 유래한 ‘찬우물 약수터’의 모습은 그대로 복원해 놓았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영영 이곳을 떠나야만 했던 주민들이 옛 추억이 생각나 이곳을 찾아왔을 때 시원한 물 한 바가지라도 대접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5.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 냉천마을 이야기

안양 지역은 근래 들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저층 주택이 모여 있던 마을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초고층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고 있다. 서울과 붙어있어 그런지 재개발·재건축이 붓물 터지듯 곳곳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이웃과 오순도순 정겨웠던 시절은 옛이야기가 되었다. 이웃과의 문턱이 냉천마을에 새롭게 들어설 초고층아파트만큼이나 높아졌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마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안양지회(이하 안양예총)가 발 벗고 나섰다. 안양예총 이재옥 회장의 주도 아래 2017년부터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이란 주제로 매년 안양시 문인협회·미술협회·사진협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사라져가는 마을을 찾고 또 찾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 남겨오고 있다. 2024년 현재 안양예총 소속 작가들이 9개의 마을 이야기를 수준 높게 남겼다.

〈표1〉 『안양, 우리 동네 이야기』

-
- | | |
|--------------------------|-----------------------------|
| 1. 동편마을 이야기(2017년) | 6. 안양예술공원·박물관 마을 이야기(2021년) |
| 2. 안양예술공원 APAP이야기(2018년) | 7. 안양중앙시장 이야기(2022년) |
| 3. 안양천·학익천 이야기(2019년) | 8. 안양일번가 이야기(2023년) |
| 4. 냉천마을 이야기(2020년) | 9. 병목안 이야기(2024년) |
| 5. 양지마을 이야기(2021년) | |
-

『안양, 우리 동네 이야기』의 이야기들은 참여 작가들 각자에게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안양예총은 참여 작가들의 책들을 모아 통권으로 만들었다. 문인협회·미술협회·사진협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남긴 이 책은 하나의 마을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나아가 안양의 민속문화는 물론 안양의 역사로 남게 되는 귀중한 책이 될 것이다.

2020년에 작업한 『냉천마을 이야기』는 이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면서, 사라진 냉천마을을 안양의 예술가들이 가림막에 다시 펼쳐졌다.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주가 끝나고, 주민이 남기고 간 흔적이 모두 사라진 뒤, 2022년 4월 18일 냉천지구 공사장 가림막이 세워졌다.

사라져 가는 안양 냉천마을 이야기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민들이 이주했습니다.
안양예총의 미술협회,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 30여 명의 회원들이
2020년 5월부터 냉천 마을을 답사하고 기록했습니다.

과거 냉천 주민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보금자리와 자연, 공간을
예술인과 주민들이 다양한 예술적 시각과 감성으로 재탄생시켜
사라진 것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냉천마을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최 **대한민국예술인연합회** 안양지부

사) 한국문인협회 안양지부 | 김산옥, 신장현, 신준희, 장계옥, 정용재, 조연순, 최영희, 홍미숙

사)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 강영미, 고순남, 김은경, 박영자, 박은애, 박효선, 안명미, 이신애, 이해인,
장순자, 조은신, 조연숙, 하비경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 | 강성휘, 김성은, 박유리,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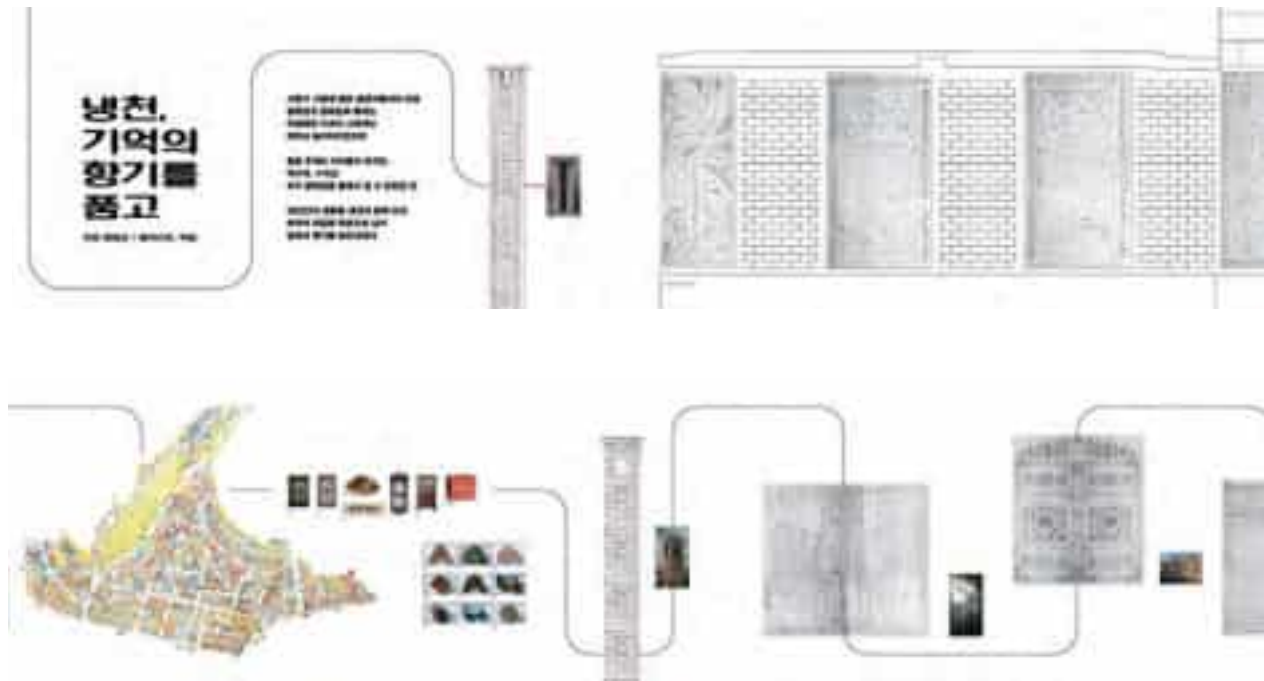
1. 냉천의 퍼즐을 맞추다
2. 냉천, 기억의 향기를 품고
3. 냉천, 꿈을 선물하다
4. 냉천, 이제는 추억 속으로
5. 냉천을 클로즈업하다
6. 냉천이 노래하다
7. 냉천, 골목길을 추억하다
8. 냉천, 이야기가 꽃으로 피어나다
9. 냉천, 오래도록 행복을 품고 살았어요
10. 냉천을 소환하다
11. 냉천에게 말을 건네다
12. 냉천, 또 다른 세상을 만나다
13. 냉천이 말하다
14. 냉천 해바라기, 희망과 마주하다
15. 냉천, 추억으로 기억으로 다시 만나다
16. 냉천, 그리움을 그리다
17. 냉천에 스며들다



『냉천마을 이야기』에 참여한 안양예총 문인협회(안양예총 제공)



〈냉천의 퍼즐을 맞추다〉, 사진 심성권 · 이영섭



〈냉천, 기억의 향기를 품고〉, 정창근



냉천,
꿈을
선물
하다

냉천
정음체



냉천
정음체

〈냉천, 꿈을 선물하다〉, 글 정음체 · 사진 박용하

냉천,
이제는
추억
속으로

냉천
정음체



고스란히

남아있던

우리의 흔적도,

냉천로115번길

그동안
원기결절이라는 옛문하에
매달 다리를 깔았는데,

깊었던 슬대깁기도,
추렁한 폭소리로 가득 채웠던 울목도,

이제는 추억 속으로!

〈냉천, 이제는 추억 속으로〉, 글 · 사진 김성은



11.5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오늘도
피워라피워라 피워라피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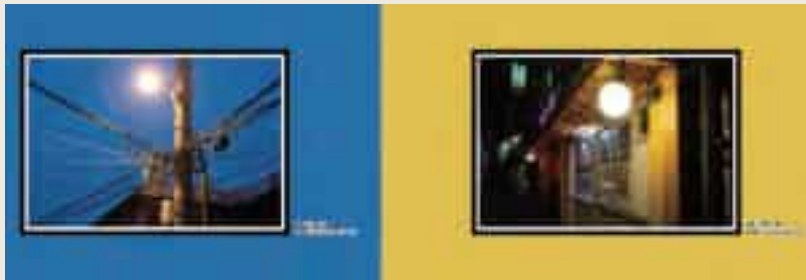
물독 구석 구석



첫눈 추억과

이삭가린 날

나의 마음도 함께 남겨둔 채



〈냉천을 클로즈업하다〉, 사진 강성휘 · 신정애 · 양순희 · 백승의 · 신선건



가사
 김산옥
 신장련 · 신준희 · 장정욱 · 정용채 · 최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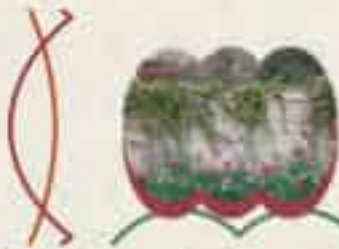
가사
 김산옥
 신장련 · 신준희 · 장정욱 · 정용채 · 최영희



가사
 김산옥
 신장련 · 신준희 · 장정욱 · 정용채 · 최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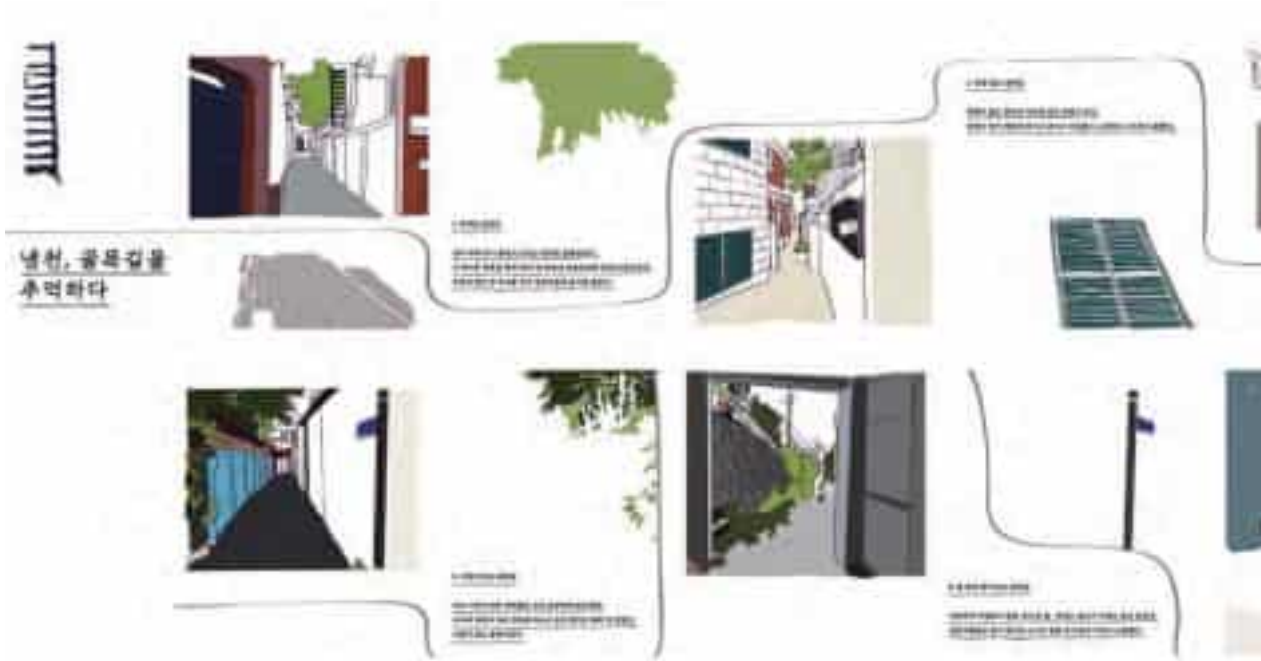
가사
 김산옥
 신장련 · 신준희 · 장정욱 · 정용채 · 최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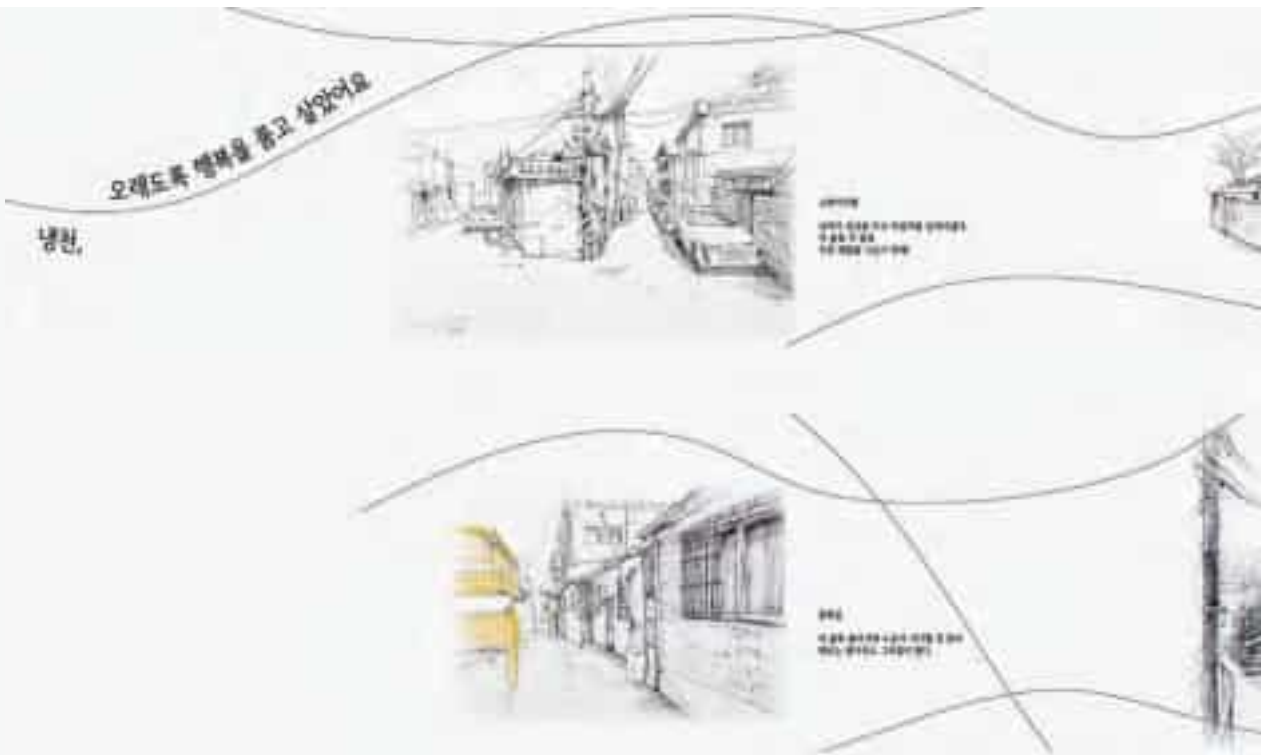
가사
 김산옥
 신장련 · 신준희 · 장정욱 · 정용채 · 최영희



가사
 김산옥
 신장련 · 신준희 · 장정욱 · 정용채 · 최영희



〈냉천, 골목길을 추억하다〉, 그림 황혜연 · 글 조인순



〈냉천, 오래도록 행복을 품고 살았어요〉, 그림 고순남 · 글 김산옥



1. **CONCEPT**
DESIGNING A COMMUNITY SPACE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2. **CONCEPT**
DESIGNING A COMMUNITY SPACE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3. **CONCEPT**
DESIGNING A COMMUNITY SPACE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4. **CONCEPT**
DESIGNING A COMMUNITY SPACE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5. **CONCEPT**
DESIGNING A COMMUNITY SPACE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6. **CONCEPT**
DESIGNING A COMMUNITY SPACE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7. **CONCEPT**
DESIGNING A COMMUNITY SPACE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8. **CONCEPT**
DESIGNING A COMMUNITY SPACE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9. **CONCEPT**
DESIGNING A COMMUNITY SPACE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10. **CONCEPT**
DESIGNING A COMMUNITY SPACE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냉천이 말한다〉, 글 냉천주민들 · 캘리그래피 박효선



〈냉천을 소환하다〉, 그림 이혜연 · 글 정용채



〈냉천 해바라기, 희망과 마주하다〉, 글 정용채 · 조은숙, 사진 박용하 · 심성권 · 서능원

(리쌍반) (리쌍반) (리쌍반) (리쌍반) (리쌍반)



〈냉천에게 말을 건네다〉, 글·그림 안영미



냉천,
 추억으로 기억으로
 다시 만나자

2012년 11월 15일

이 마을은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입니다.



〈냉천, 추억으로 기억으로 다시 만나자〉, 글·그림 김은경



〈냉천, 그리움을 그리다〉,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17개 부제에 맞게 준비한 작품들이 일러스트로 재탄생하여 가림막에 전시되었다. 그 결과 가림막이 수준 높은 야외 갤러리가 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3년 가까이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참여 작가들은 물론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기분이 산뜻했을 것이다. 어수선한 공사장의 가림막에 예술가들의 작품이 새겨져 있으니, 공사장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순화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가림막이 화창한 봄날로 변신하였다.

냉천지구 공사장 가림막 갤러리(안양예총 제공)





『안양, 우리 동네 이야기-냉천마을 이야기』는 좋은 성과를 내었다. 모처럼 만에 예술가들에게도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다른 동네 이야기와 달리 냉천마을 이야기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이라는 주제도 함께 담고 있어 자료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다. 야외 갤러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야외 갤러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안양 예총 작가들에게 공사장 가림막을 내어준 건설회사가 너무나 고마웠다.

사라지는 냉천마을을 답사하고 나서, 시인은 시로 써서 시화를 만들었고, 화가는 냉천마을을 그림으로 그려냈고, 사진작가는 사진으로 남겼다. 모두의 작품이 가림막의 야외 갤러리를 빛내주었다. 나의 ‘대문 이야기’도 멋진 일러스트 작품으로 전시되었다.

또한, 냉천마을 주민들이 떠나면서 남긴 한 단어, 한 문장이 미술협회 박효선 작가의 캘리그라피로 표현되어 가슴 뭉클하게 해주었다. 냉천마을 주민들이 남기고 간 말이 가장 긴 가림막을 물들였다. ‘정겨운 어머니의 품, 다락방, 디딤돌, 청춘의 한 자리, 따뜻한 곳, 살고 싶은 곳, 어린 시절 추억’ 등등 자신들이 살았던 냉천마을을 떠나면서 남긴 말들이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냉천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38년을 살아온 탁본 기록가 정창근 작가도 참여하여, 냉천마을의 문패·담장·기와·수막새·대문·문고리 등과 그 밖의 생활용품 탁본 작품을 전시하였다. 새로운 장르를 구축한 작가의 작품이 돋보여 많은 사람의 발길을 붙잡았다. 아마 이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안양시 문인협회의 김산옥·신장련·신준희·장정옥·정용채·조인순·최영희·홍미숙, 미술협회의 강영미·고순남·김윤정·김은경·김종선·박영자·박은애·박정란·박효선·손순자·안명미·우동호·이신애·이혜연·장순자·정창근·조은신·조인숙·주시돌·하미경, 사진협회의 강성휘·김성은·박용하·백승의·신선건·신정애·심성권·양순희·이영섭 등은, 사라져가는 냉천마을을 기록하고 기억으로 남기는 작업에 기꺼이 동참한 작가들이다.

제1장

안양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 안양초등학교

박정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1. 안양공립보통학교, 안양 최초의 공립 초등 교육기관

안양초등학교는 안양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교육 기관으로서, 1927년 3월 3일 시흥 학교평의원회의에서 안양공립보통학교 신설 결의를 시작으로 점점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3월 7일, 안양공립보통학교 기성회가 조직되어 임원 선정과 제반 사항이 결정되었다. 그해 12월 말, 기성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찬조로 안양 유지들로부터 일정 금액과 토지를 기부받아 이듬해 2월 건립을 목표로 학교 건축에 착수하고자 계획하였다.

당시 안양 지역에 초등교육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수백 명의 어린이가 영등포, 시흥, 군포 등지의 공립보통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었다. 안양의 어린이들이 원거리를 통학하면서 겪는, 적지 않은 위험과 불편을 묵과할 수 없었던 안양의 유지들은 안양공립보통학교 기성회를 조직하였고, 일정 금액과 토지를 기부받았으나 1928년 10월 중순까지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혹은 기부금의 수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기성회도 존폐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다. 이에 각 리 대표가 서이면사무소에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방책을 강구하면서 기성회의 쇄신과 기부 개선을 위해 힘썼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1929년 7월 4일 공립보통학교 설립이 인가되어, 9월부터 교사 건축에 착수하였다. 12월에 1동의 건물과 교장 사택이 건립되었고, 이후에도 매년 계속 사업으로 교실을 늘릴 계획도 세웠다. 드디어 12월에 4학급 4학년제로 안양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고, 같은 달 20일에 30여 명의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여, 1933년 3월 23일에 40여 명의 학생이 졸업하였다.



안양공립보통학교 개교를 소식을 전하는 신문 기사(『동아일보』, 1929년 12월 26일)



안양공립심상소학교 6년제 승격(『동아일보』, 1940년 3월 11일)

이후에도 안양 장학회가 조직되어 교사 증축을 위해 모금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때 모인 증축 자금으로 1937년 8월에 증축 공사를 시작하여 10월에 벽돌 건물이 증축되었고 다음 해에도 12개의 교실 완성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1938년에는 조선교육령에 의해 4월 1일, ‘안양공립심상소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학교가 4년제로 운영됨에 따라 매년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타교로 전입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과 안양 인구가 1만 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초등 교육기관이 빈약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안양 시민들이 학년 연장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여 학년 연장 운동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1940년에 안양공립심상소학교가 6년제로 승격되었다. 아울러 더 많은 학생들



신축 벽돌 교사를 배경으로 촬영한 안양공립심상소학교 제8회 졸업 기념사진(1938년, 안양시청 제공)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증축을 위한 기부도 계속되었다. 1941년 4월 1일, 안양공립국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6년에는 안양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초등교육 기관의 명칭은 보통학교, 국민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가 혼용된다. 과거의 기억이나 역사를 서술할 때는 당시의 명칭을 사용하고, 전체적인 초등교육 기관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1996년 이후 사용되고 있는 명칭인 초등학교를 사용하였다.

1930~1950년대 꿈 많던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의 추억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안양초등학교의 다채로운 풍경을 그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양 교육의 유구한 역사가 지닌 풍부한 결을 생생하게 기록하고자 한다.



2. 제7회 졸업생이 들려주는 1930년대 안양공립보통학교 이야기

안양초등학교 7회 졸업생 이용구는 그의 수필집 『양지마을의 까치소리(1991)』에 안양공립보통학교 4년의 경험을 적어 놓았다. 1926년생인 이용구는 1930년대 중·후반에 4년제 안양공립보통학교에 다녔고, 시흥공립보통학교에 전학하여 졸업 후 서울의 중학교로 진학하였다.

7회 졸업생은 1935년에 입학하여 1939년에 졸업하였다. 그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학교는 단층 건물이었으며, 지금처럼 운동장이 넓었다. 학교 남쪽, 교장 선생님 관사 앞에는 운동장만큼이나 널찍한 농업실습장이 있어 고구마와 배추를 심었고, 코스모스가 피던 화단, 그리고 회전 그네가 있었으며 학교 주변으로는 논과 배밭이 펼쳐져 있었다. 3학년 부터 4학년까지 매주 3~4시간, 하루 중 마지막 수업 시간에 농업 교과가 편성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농사짓는 방법을 배웠다. 이른 봄에는 배나무 가지치기부터 시작해서 봄 채소를 가꾸고, 고구마와 딸기를 재배하였다. 여름에는 제초 작업은 물론, 배에 봉지를 씌우거나 모를 심었고, 가을에는 무와 배추를 가꾸고, 고구마를 캐며, 벼 타작을 하였다. 재배한 채소는 외밭 손수레에 실어 끌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였다. 비료와 퇴비도 학생들이 직접 구해 마련했다. 특히 7~8월이면 3·4학년이 거주지 동네별로 모듬을 만들어 퇴비를 마련하는 작업을 경쟁하듯 하기도 했다. 근처 야산에서 풀을 베어 퇴비를 만드는 작업은 농업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방과 후, 심지어 여름방학 때도 공을 들이는 활동이었다. 1등 상을 받아 자신이 사는 동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무더운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풀을 베어 날랐다. 3·4학년이지만 낫질에 능숙한 나이 많은 동급생이 있었는데, 능숙하지 못하여 낫이나 풀에 손을 베이는 학생들도 있었다.

추수가 거의 끝날 무렵, 늦은 가을이면 어김없이 학교 운동회가 열렸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서이면 전체의 큰 잔치였다. 학생들은 운동회가 다가오면 체육이 아닌 타 교과 시간에도 운동회 연습을 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또한 미리 운동화, 청색과 백색으로 변경이 가능한 운동모자, 런닝셔츠 등을 구매해 놓았다. 운동회날에 비가 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도 어린 학생들은 전날 잠을 잘 못 이루기도 하였다. 드디어 운동회 당일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하얀 런닝셔츠, 운동화와 운동모자를 착용하고 길을 나섰다. 학교 운동장에 도착하면 만국기가 휘날리고 확성기를 통해 경쾌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50m·100m·200m 달리기와 릴레이 달리기, 기마전, 2인 3각 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었다. 점심시간에는 부모님이 싸 오신 맛



군포공립보통학교 식목 행사(1930년대, 이한수 제공)

안양공립보통학교가 4년제로 개교하였으므로 안양에서는 6년제인 군포공립보통학교로 진학하기도 하거나, 안양공립보통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다시 군포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5-6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기도 하였다.

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달콤한 솜사탕을 사 먹기도 하였다. 학생들만 이날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선생님과 학부모를 위한 경기도 마련되어 있어서,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행사였다. 마지막으로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고, 곧이어 폐회식으로 운동회가 끝나면 상품을 손에 나눠 들고 가족·친구들과 함께 피곤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였다.

4학년 때는 가사 요리 실습 시간에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도 하였다. 교장선생님 관사에서 여학생은 앞치마에 수건을 쓰고 일본인 여선생님의 지도하에 일본 음식을 만드는 실습을 하였다. 남학생은 방과 후에 교내외 청소를 끝낸 오후 4시경, 음식을 시식하기 위해 모였다. 종이 올리면, 한 사람당 사과, 찢 고구마 1개씩, 과자 여러 개와 함께 여학우가 정성스레 만든 낫선 음식이 책상에 놓였다. 식사 전에 일본인 교장 선생님의 불교식 합장 기도 후, 모두 잘 먹겠다는 인사를 일어로 합창했다. 집에서 미리 가져온 식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맛보기 시작하였는데, 대개는 처음 보는 일본 음식이었다. 빛깔도 향도 맛도 낯설었기에 음식을 불편해하는 학우도 있었고, 입맛에 맞아 맛있게 먹는 학우도 있었다.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호떡집이 있어, 하굣길에 호떡을 하나씩 사서 친구들과 웅기종기 모여 나눠 먹던 추억과 그 달콤한 맛은 잊혀지지 않는다. 4학년 때는 기차

길 쪽으로 향해 있는 교실에서 공부하였는데, 기차 소리로 점심시간을 가늠하기도 하였다. 담임 선생님은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에게 호떡 심부름을 시키곤 했다. 큼직하고 따뜻한 호떡 두 개가 교탁 위에 놓이면, 그제서야 모두가 도시락을 열고 점심 식사를 시작하였다. 매일 호떡을 점심으로 드시던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별명은 그래서 ‘호떡 선생’이었다.

원죽(소풍)을 가던 때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1·2학년은 안양유원지로, 3·4학년은 염불암으로 향했다. 흰 보자기에 도시락을 싸서 메고 학교 운동장에 모인 다음,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함께 두 줄로 나란히 친구의 손을 잡고 자갈밭 국도를 따라 소풍지로 걸어갔다. 장터에서 안양역과 미륵당을 지나 안양천의 긴 다리를 건너 유원지 입구인 만안교에 도달하면, 잠시 앉아 안양천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했다. 이때 학교에서는 큼직하고 반투명의 눈깔사탕 두 개씩을 학생들에게 배급하였다. 안양유원지에 도착하면 풀장에서 놀고, 노래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안양의 자연을 만끽했다.

첫 수학여행은 4학년 초, 봄에 인천 월미도로 향했다. 역시 흰 전대에 도시락을 싸서 메고 집에서 받은 용돈도 챙겼다. 안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하인천역에 내려서 월미도로 걸어갔다. 7회 졸업생은 마침 썰물 때라 바다 깊숙한 곳까지 걸어 들어가 계를 잡고, 조개도 줍고, 해초와 굴을 따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바다를 직접 보기는 처음이라 정말 바



안양공립국민학교 입학생 신사참배 기념사진(1945년, 최인용 제공)

맛물이 짠지 손에 짚어 맛보기도 했다.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실망에 넣은 조개를 선물로 사기도 했다. 집으로 오는 길에는 성냥공장을 견학하였고, 깡깡의 맛과 인천의 풍경을 눈과 마음에 담은 일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렇듯 안양초등학교에서의 오랜 기억과 인연은 소중하게 남아 오늘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3. 1940년대 안양국민학교

1945년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에 안양 어린이들은 안양보통학교에 바로 입학한 이가 있는가 하면, 동네 강습소에 입학하여 공부하기도 하였다. 당시 안양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산수나 도형 개념 등을 묻는 구술시험이 있었다. 일본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있었고, 1~2학년은 한국어 사용이 가능했으나 3학년부터는 일본말을 사용하게 했다.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입학식에 일본인 교장이 군복을 입고 등장하였고, 학교에서 단체로 신사참배를 하던 시절이었다. 1~2학년은 4교시까지, 고학년의 경우는 6교시까지 공부하다가 하교하였다. 수업 마지막 1~2시간 정도는 배추를 심거나, 논에 가서 모내기도 하고, 배밭에서 배를 돌보는 등의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강습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로였다. 강습소는 안양 지역의 지식인들이 운영하던 사립과 국가에서 관리하던 관립 초등교육 기관이 있었는데, 안양리의 양지말·주접리, 일동리(현 관양동) 중촌·부림말, 이동리(현 평촌동) 귀인동, 호계리 안말 등 여러 군데에 분포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강습소에서도 일본말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강습소에도 일본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함께 있었고, 일본말을 사용해야 했다. 한국말을 사용하면 혼나거나 벌을 받았다.

1945년 해방 이후,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안양국민학교에서는 일본어도, 일본인 교사도 자취를 감추었다. 아울러 안양국민학교 학생들이 거주지별로 비산동·관양권은 관양국민학교, 석수권은 삼성국민학교, 호계·평촌권은 흥안국민학교로 각각 분산되었다. 이와 동시에 강습소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안양국민학교로 편입하기도 하였는데, 안양초등학교 18회 졸업생 안홍순도 그런 경우이다. 그는 1936년에 안양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을 주접리 강습소에서 공부하다가, 광복 이후인 1946년에 안양국민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였다. 강습소에 다니는 학생은 어린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준 나이보다 4~5살 위라도 기초교육이 필요하다면 입학하여 수학하였다. 강습소



1945년 안양국민학교 1학년 1반 학생과 담임교사(최인용 제공)

학생들이 안양국민학교로 편입할 당시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알맞은 학년으로 배정되었다. 그러므로 동급생이라 하더라도 적게는 2~3살, 많게는 10살까지 나이 차이가 있었다.

18회 졸업생은, 집에서 학교까지 아이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걸어 다니던 때를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는 주점리 범바위 아래에 살았고, 집 바로 옆은 밤밭이었다. 당시 동네 풍경과 친구들이 살던 집의 위치 하나하나 다 표시한 지도를 그릴 정도로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포도가 유명했던 안양답게 포도밭이 많았고, 배밭과 논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밤밭, 양계장, 형제고개를 지나 안양국민학교로 등교하였다. 1940년대 안양국민학교는 정문이 지금의 만안로 쪽으로 나 있었다. 학교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20여 개의 계단을 오르면 정문에 이르렀다. 배밭과 계단 아래에는 논이 있어서 오고 가는 길은 논두렁길, 정겨운 시골길이었다. 집이 먼 친구들도 논두렁길을 걸어 학교에 왔다. 일본식 신발인 계다도 신고, 그마저도 없으면 맨발로 다니기도 하였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아이들은 그래도 넉넉한 집이었다. 논길 걷다가 눈에 빠져 옷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 흙먼지를 잔뜩 묻힌 채 그래도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함께 배우고 익혔다.



안양국민학교 18회 졸업 기념사진(1950년 5월 6일, 안홍순 제공)

그 당시에 안양국민학교는 지금처럼 반듯하고 널찍한 운동장을 가지고 있었다. 18회 졸업생은 비가 오는 날만 빼놓고 거의 매일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아침 조회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가을 운동회도 그렇다. 1930년대처럼 1940년대의 운동회도 일종의 마을 잔치였다. 19회 졸업생은 운동회 날에 서이면은 물론 안양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즐기는 축제였다고 회고한다. 집에서 삶아 온 고구마·밤·달걀·보리밥 등을 함께 나눠 먹고, 웃고 이야기하며, 마음껏 뛰고, 팀을 나누어 저마다의 기량을 뽐내던 시간이었다.

소풍도 즐거운 추억이다. 18회 졸업생은 망해암과 안양유원지, 이 두 군데가 주요 소풍 장소였다고 기억한다. 염불암·망해암·삼막사 등은 한 번 정도 소풍으로 다녀왔고, 고학년은 연주대까지 올라가기도 하였다. 점심시간도 기억한다. 저학년은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점심 도시락이 필요 없었다. 그의 가정 형편은 운택하지 못하여, 고학년 때는 점심을 싸 오지 못하고 운동장에 있는 펌프로 물을 길어 배를 채워야 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에게 그나마 소풍날은 맛있는 김밥과 사이다를 먹을 수 있는 신나는 날이었다. 지금 볼 때는 귀한 음식이 아닐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최고로 특별한 음식이었다. 그렇게 김밥과 사이다를 들고 친구들과 짝을 지어 망해암으로, 안양유원지로 소풍을 다녔다.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힘차게 뛰어다니던 그때를 기억한다.



안양국민학교 3학년 3반 봄 소풍 기념사진(1950년, 이재겸 제공)

안양유원지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풀장으로 유명했다. 서울 사람들도 그곳에서 수영을 즐기고 포도를 먹으며 휴양하기 위해 모여들 정도였다. 안양의 대표 명소로서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임시 정류장이 생기기도 했다. 그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철로를 따라 걸어가 풀장에서 친구들과 떡감고 수영하던 추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안양천도 물이 맑고 시원했다. 그는 친구들과 한창 놀다가 목이 마르면 안양천의 물을 떠다 마시던 추억이 잊히지 않는다. 시원하고 청량한 개울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더랬다. 긴 방학 때 친구들과 만나 안양의 여기저기를 탐험하고, 안양풀에 가서 수영하며 신나게 놀던 기억은 큰 기쁨으로 남아 있다.

학교에서는 국어, 산수, 미술, 음악, 체육을 배웠다. 특히 18회 졸업생은 음악 선생님의 성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김의수 음악 선생님은 주점리 강습소에서부터 안양국민학교까지 가르침을 받은 스승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다. 음악 시간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19회 졸업생에게도 발견된다. 특히 선생님이 학교에 기껏해야 1~2대밖에 없던 풍금을 손수 연주하시면, 그 선율에 따라 목청껏 노래를 부르던 기억은 아름답게 남아 있다. 가을에 학예회 준비를 하면서 풍금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연습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중학교 입학시험이 있어 중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나

머지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하곤 했다. 18회 졸업생은 6학년 때 촛불을 켜놓고 자율학습을 하던 기억을 풀어놓기도 하였다. 방과 후에 선생님도 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에 입장하였다. 당시에는 책가방 없이, 책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두르고 다녔다. 5·6학년에 진급하여 도시락을 싸는 날은 보통 밥과 김치 정도를 도시락에 담아 보자기에 썼다. 19회 졸업생은 친구들과 걷다가 뛰다가 하다 보면 책보에 김치국물이 새는 일이 허다했다고 술회한다. 겨울에는 난로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점심시간에 먹기도 했다. 방과 후에는 바로 지정된 장소에서 청소 당번이 청소를 하고, 교실에서는 분단



1946년 안양공립국민학교 4학년 박희산의 수업증서와 통지표 (독립기념관 제공)

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청소했다. 신발주머니는 없었는데 교실은 마룻바닥이었기에, 학생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이나 양말로 생활했다. 지금과 비슷하면서도 또 너무나 다른 풍경이다. 그렇게 1940년대 안양국민학교의 시간이 흘러갔다.

당시 학제는 가을에 입학해서 5월에 졸업하는 시스템이었다. 18회 졸업생은 1950년 5월에 안양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6학년 때 학교에는 4학급이 있었고, 1~2반은 남학생, 3반은 여학생, 4반은 남녀 혼합반이었다. 졸업 시에 학생이 꽤 많아서 2백 명 이상이던 것으로 기억한다. 졸업식은 교실에서 졸업생들은 의자에 앉아 있고, 교장 선생님이 축사를 하고, 담임 선생님이 졸업장을 나눠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졸업식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동네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한 그릇씩 먹던 것이 그 당시의 졸업식 풍경이었다.

국민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과의 모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짝수달 18일에 안양에서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목을 다진다. 18회 졸업생 인터뷰 대상자는 6학년 때 친구들이 살던 곳과 이름으로 지도를 작성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함께 만든 추억에 대한 애착이 크다고 이야기한다. 지금도 그때의 친구 중 열 명 정도는 안양에서 거주하고 있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동문회에서 얼굴을 보려고 서로 노력한다.

그는 국민학교 졸업 이후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가난한 살림에 학업만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시절도 국민학교 때가 유일했다. 그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한 달 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상당수의 안양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길에 나섰지만, 그와 가족은 피난을 가지 않고 안양에 쫓겨주었다.

22회 졸업생(1941년생)은 6·25전쟁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제18회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와 다르게 제22회 졸업생은 3학년이 되던 때에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는 1948년 즈음에 안양국민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였다. 광복 이후 초등교육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교과서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고 책을 등사한 인쇄물을 선생님이 나눠주면 그것으로 공부하였다.

당시 안양국민학교에는 4개 학급이 있었고, 한 학급에 50~60명 정도였다고 기억한다. 한 반에 있는 동급생들 나이는 들쭉날쭉하였다. 9살 위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에 입학하였으나, 해방 후에 잠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는 지금 처럼 학령기가 정해져 있어, 동시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환경이 아니었다. 강습소에서 공부하다가 학교에 들어오거나 집안 사정으로 쉬는 등, 학생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나이가 상이했다.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나도 동급생이기에 서로 반말을 하며 함께 공부하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친구처럼 지냈다.

4. 1950년 6월의 전쟁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뒤에 북으로부터 인민군이 빠르게 치고 내려왔다. 인민군은 학교를 점령하였고, 인민군에 동조하는 교사는 남고, 그렇지 않은 교사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 학교의 교육환경은 급변하였다. 바로 피난을 떠난 아이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 학생 수는 거의 반으로 줄었다. 피난을 가지 않고, 학교에 출석하던 아이들은 이제 인민군이 가르치는 노래와 사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22회 졸업생은 아버지가 철도공무원이라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고, 남은 가족과 집에 머물렀기에 학교에 출석하였다. 그는 그때 인민군 스타일로 차렷 경례하는 것을 배웠고, 운동장에 집합하여 제식 훈련을 받았다고 술회한다. 인민군 노래도 배웠다. 그러나 1951년 1·4후퇴 당시 그의 가족도 안양을 떠나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다. 우여곡절 끝에 대전에 도착하여 법덕리라는 동네의 큰 기와집 주인의 선처로 행랑채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머물게 되었다. 집주인은 농사를 크게 짓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농사일을 도우며 서울이 수복

되기까지 세 식구가 그곳에서 피난 생활을 이어갔다. 2년 남짓의 시간 동안 대전에서 생활하였고, 피난 생활 동안 그와 여동생은 학교에 다니지는 못했다.

전쟁 때 안양에서는 수리산 등지에 많은 폭격과 전투가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탱크들이 박달리를 거쳐 서울로 진입하기도 했다. 1953년 중반, 서울 수복 이후 그는 드디어 대전에서 나와 가족과 안양으로 올라왔다. 안양국민학교도 전쟁 피해를 입었지만,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그의 집이 폭격으로 인해 무너져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부서진 집은 미군에게 목재 등을 원조받아서 다시 지을 수 있었다. 또한 전쟁 초기에 안양역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탄약을 실은 열차가 안양역 근처에서 폭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류탄 등 탄약 잔해가 철도에 많이 흩어져 있었다. 그 이후에 아이들이 철도 주변으로 가서, 총알 껍데기를 줍거나 탄약 잔해에 폭죽처럼 불을 붙여 터뜨리면서 놀았다. 그러다가 잔해에 맞아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서울 수복 후에도 학교 수업이 바로 정상화되지 못했다. 영국군이 학교 건물에 주둔하고 있어서 당장 교실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 체계가 아직 잡혀 있지 않아 교육청에서

안양국민학교 제19회 졸업 기념(1951년, 김종수 제공)



도 바로 교사를 발령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동네 어른들은 학교가 열리기까지 그저 기다리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천막이라도 쳐서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중앙시장 옆에 있던, 일제강점기 신사 마당 터와 안양유원지 등 곳곳에 천막을 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어머니가 허락해 주지 않아서 천막교실에 다니지 않았고, 학교가 정상 운영된 후에야 학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학생 수가 날로 증가하여 6개 반까지 늘어나고 오전·오후반을 운영했지만, 전쟁 이후에는 학생 수가 감소하여 학급 수도 줄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는 안양국민학교 6학년으로 편입하였고, 1954년 5월에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다. 4살 터울의 여동생은, 피난 생활 후 안양으로 다시 올라온 뒤에야 안양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었다.

5. 안양국민학교, 1950년대

제22회 졸업생은 학교 바로 아래 동네인 '학교 밑'에서 살았다. 학교와 가까웠기에 학교 종이 땡땡 울리면 그제서야 집에서 나와 학교로 얼른 올라가곤 하였다. 당시 옷차림은 한복, 그리고 신발은 주로 운동화를 신었다. 친구들의 경우에는 흰색이나 검정 고무신을 신곤 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기에 운동화를 신을 수 있었다.

그는 광복 후에 각 지역의 학교가 순번을 정해서 진행하던 운동회 추억을 떠올렸다. 안양국민학교에서 할 때도 있고, 수암국민학교나 과천국민학교에서 열릴 때도 있었다. 운동회 때 어머니가 김밥을 싸서 오시거나, 당시 판교에 거주하던 할아버지가 일부러 손자를 보러 운동회 때 학교를 방문하시기도 하였다. 운동회는 가족의 즐거운 행사였고, 또한 지역의 잔치였다.

소풍 때마다 주로 안양유원지에 가서 수영하며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다. 안양유원지 풀장에서 물장난하던 기억은 당시 안양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또한 지금의 안양중앙시장 자리에 친구네 포도밭이 있어서 여름만 되면 친구가 가져온 달콤한 포도를 실컷 먹을 수 있었다. 물론 장에 내다 팔기 위해 포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친구네 포도가 자신에게까지 순순히 차례가 올 리는 없었다. 그래서 주인집 아들이었던 친구와 함께 밤중에 서리를 하곤 했다. 주인집 아들이 같이 있어야 주인아저씨



안양역 앞에서 태극당 아이스크림 통을 들고 다니며 파는 아이들(1968년, 미살로프 제곱)
석수동 미군부대에 근무하던 닐 미살로프가 촬영하였다.

에게 걸리더라도 큰 꾸지람은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맑고 깨끗했던 안양천에서 천렵을 하던 기억도 특별하다. 부모와 함께 안양천에서 그물을 치고 미꾸라지나 민물고기를 잡거나, 시원하게 헤엄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천렵은 농경사회 이전, 고대 수렵사회부터 내려온 오래된 풍속으로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나기 위해 개울가에 그물을 치고 고기도 잡고, 헤엄도 치면서,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즐기는 여가 활동이다. 그는 친구들과 천렵을 하던 기억을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였다. 안양천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있는 된장과 고추장을 쓱쓱 풀고, 인근 밭에서 파와 마늘을 뽑아다가 쫄쫄 잘라 넣고, 집에서 국수 다발을 가져와 냄비에 다 같이 넣고 한소끔 끓여 옹기종기 모여 앉아 후루룩 맛있게 먹었다. 아직 어린 국민학생이었지만, 한데 어울려서 지내던 친구 중에 나이 많은 동급생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물고기를 잡거나 불을 쓰는 요리를 척척 잘 해냈다. 당시 여학생은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고무줄놀이나 소꿉놀이를 하였고, 남학생은 딱지치기·구슬치기·차치기·말뚝박기 같은 놀이를 하였다.

당시 간식거리는 지금처럼 다채롭고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를 위한 간식거리라고 한다면, 사탕 몇 가지와 파배기 같은 간식 몇 종류를 가게에서 팔곤 하였다. 특히

아이스크림, 일명 ‘아이스케키’라고 하는 얼음과자를 먹던 것이 그의 기억에 남는다. 그도 그럴 것이, 친구네 집이 제과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막대기에 얼음을 얼려 놓은 아이스케키를 친구들과 맛있게 먹던 추억을 풀어놓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는 아이스케키 통을 들고 다니면서 팔고 수당을 받기도 하였다.

혹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과 같이 운동장에 나와 심심풀이로 간식거리를 찾곤 하였다. 학교 옆으로 내려가면 빨간 흙이 나왔는데, 그 흙 속에서 식물 뿌리가 얽혀 있는 까만 식물 덩이를 찾는 놀이를 하였다. 당시의 아이들은 그것을 ‘쫄뜨기’라고 불렀는데,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맛도 괜찮았기 때문이다. 식물이 신기하기도 하고, 경쟁하듯이 빨리 찾는 놀이도 재미있었으며, 씹어 먹는 식감도 쫄깃해서 종종 놀이 삼아 찾던 간식거리였다고 회고한다. 빵은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 종종 먹을 수 있었다. 특식이라고 하면, 제삿날이 되어야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보통은 고기반찬을 먹기 힘들었다. 생선도 귀했다. 아버지가 철도국에서 생선을 수화물로 부치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면, 고등어 몇 마리를 얻어 오시곤 했고, 그것을 가족과 나눠 먹었다고 그는 술회한다. 혹은 크리스마스 때 교회로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가서 목사님이 나눠주시는 떡을 얻어먹곤 하였다. 모두 즐거운 추억이다.

제22회 졸업생은 수복 후 안양으로 돌아와 6학년으로 진급했을 무렵, 철없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몇쪽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당시 보육원에 살던 친구들을 종종 부러워하곤 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뒤 보육원 아이들의 수가 늘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안양국민학교에 편입학하였다.

보육원 친구들은 미군으로부터 원조받은 미제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회상한다. 예컨대, 보육원 아이들은 신기한 장난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최신식 옷을 입고 다녔다. 당시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대개 한복을 입고 다녔던 시절이었기에, 그런 모습은 어린 마음에 꽤 인상 깊고 부러운 대상이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영국군에 이어 미군이 안양에 들어와 꽤 오랜 시간 머물렀다. 그는 미군을 처음 보았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에 대해서는 당시 잘 몰랐지만, 어느 날부터 흑인 병사들이 군용 차량을 타고 안양 국도를 지나다니기 시작하였다. 전쟁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는 광경이기에 신기한 마음에 친구들과 함께 미군 차량의 뒤를 쫓아다녔다. 종종 미군이 차 밖으로 껌을 던져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할로~ 할로~”를 외치며 친구들과 미군 차량 뒤를 쫓곤 하였다.

또한 마을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국도변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미군을 환영하게



1950년도 안양국민학교 성적통지표와 1학년 수료증(이재경 제공)



1959년 시흥교육구 주최 국민학교 글짓기 대회 1등 상장(이정란 제공)

꿈 하기도 하였다. 당시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인사말이 전부였다.

그가 가장 존경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6학년 때 담임이었던 노봉희 선생님이다. 그는 당시 다른 반 선생님의 특징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1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엄격하였고, 4반 선생님은 무척 젊은 교사였다. 2반 노봉희 선생님은 연세가 지긋하고, 점잖은 성품에, 한 번도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모두를 존중해 주셨다. 이러한 이유로 노봉희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제일 많았다. 노봉희 선생님은 개성에서 교사를 하다가 전쟁 발발 직후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와,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정식 교사로 발령 받은 분이였다. 그는 노봉희 선생님을 보면서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국민학교 시절 그의 장래희망은 교사였다.

그는 전쟁 후 안양국민학교 6학년으로 진급해서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안양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시험용 책을 추천하였고, 그 책을 한 자 한 자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였다. 중학교 입학시험은 겨울에 시행되었고, 당시 중학교 진학률은 30~40% 정도였다고 기억한다. 안양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관양·흥안국민학교 등지에서도 안양중학교에 입학하고자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한국전쟁 전에는 학교 졸업식이 5월에 있었지만, 전쟁 후에는 지금처럼 2월에 진행되었다. 그는 졸업식이 강당에서 실시되었다고 기억한다. 졸업생과 재학생이 다 모여서 졸업생은 앞줄에 앉고, 그 뒤에 재학생이 앉았다. 졸업식 노래를 부르면서 선후배 간에 가슴 뭉클한 일화도 있었고, 학생들도 많이 울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지금처럼 졸업을 축하하며 꽃을 선물하였고, 졸업식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자장면을 먹었다.

제22회 졸업생은 지금도 안양국민학교 시절 함께 하던 친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중학교 역시 안양에서 다녔지만, 국민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끈끈하다. 티 없이 맑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 함께 공부하고 놀던 소중한 기억 때문이다. 국민학교 때 친구들은 안양 출신이 많았지만, 중학교 때는 안양국민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출신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안양이 아닌 다른 지역 친구들도 시험을 봐서 입학하였다. 그렇기에 대다수가 안양 토박이고, 오랜 추억을 쌓은 국민학교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에서 '동도회(同道會)'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가 안양에 머무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안양에



안양국민학교 17회 졸업생 동창회(1978년, 이석호 제공)
전 국회의원 윤국로, 삼영운수 설립자 신관선, 전 안양시의원 변원신 등이 17회 졸업생이다.



안양초등학교 19회 합동 팔순잔치(2017년, 이상구 제공)
19회 졸업생은 '일구회' 모임을 만들어 매월 2·4번째 수요일에 친목모임을 갖는다.

살면서 길을 걷다 보면 동창이나 선후배를 마주칠 수 있고, 자연스레 차 한 잔 혹은 막걸리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정겨운 관계가 너무도 소중하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양 초등교육의 산 역사인, 안양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듯 안양초등학교의 오랜 역사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인연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였다.





안양초등학교 전경(2007년, 안양시청 제공)

제4장

안양기독보육원 '좋은집'이 되다

정연학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선도문화학과 특임교수



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 ‘좋은집’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52번길 언덕 위에 벽돌색 지붕의 하얀 건물이 성곽처럼 우뚝 서 있는 곳이다. 울타리 안에는 푸른 잔디밭과 놀이터, 운동장, 컴퓨터실, 도서실, 예배실, 미용실 등 편의시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2025년 10월 현재, 좋은집에는 47명의 원아가 보육사 및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임상심리 상담원 등 전문인력이 원아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아동양육시설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좋은집에서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한 아동은 3,600여 명이다.

1. 100년의 시작, 고 오금선(吳兢善) 박사

좋은집은 우리나라 개화기의 선각자로서 미국에서 서양 의학을 배우고 돌아온 한국인 최초의 양의이자, 교육자, 사회사업가였던 해관 오금선이 1918년에 설립한 경성보육원이 그 시작이다. 오금선은 1878년 10월 4일, 충남 공주 사곡면 운암리에서 태어났다. 1896년 초, 관직에 나가게 되어 서울로 올라왔으나 아관파천을 비롯해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이 끊이지 않자 관직을 버리고 배재학당에 입학하였다. 그 이후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이승만·주시경 등과 함께 협성회보 창간위원으로 활약하고, 신홍우·안창호 등과 함께 독립협회의 부활과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만민공동회 집회를 계속해서 개최하였다. 고종은 이러한 활동을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 집회를 주동한 자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오금선은 체포령을 피해 충남 공주에 있는 스테드만(Frederick W. Steadman) 선교사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그때 이미 오금선은 아펜젤러



청년 오궁선(좋은집 제공)

로부터 기독교 세례를 받은 신자이었다.

오궁선은 사태가 잠잠해지자 다시 서울로 돌아와 배재학당에서 학업을 마쳤고, 알렉산더(A. J. A. Alexander) 선교사의 권유로 그를 따라 1903년 2월 초 미국 유학을 떠났다. 미국 켄터키 센트럴대학교에서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고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여 30세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1907년 11월,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파견 의료 선교사로서 귀국하였다.

귀국 후 오궁선은 군산, 목포 등 미국 남장로교 선교 지역인 호남에서 의료 선교를 통한 사회사업에 종사하였다. 자비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과 복지 분야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1913년 5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 대표 자격으로 세브란스의학교 조교수 겸 진료 의사로 전임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사립학교 탄압과 미국 학위 불인정으로 인해 일본 문부성 인정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1916년 4월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제국대학 도히(土肥) 교수의 연구실에서 피부 비뇨기학을 연구하며 학문적 자격을 보완하였다.

1년 뒤 귀국한 오궁선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피부 비뇨기학과장 겸 주임교수가 되었고, 한국에서 최초로 피부비뇨기과 교실을 운영하였다. 1917년은 3·1운동이 발발하기 직전으로 사회가 혼란한 시기였지만, 피부 비뇨기학의 기초를 다지고 끝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의학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당시의 우국지사들이 교육만이 이 나라를 다시 찾는 길이라고 믿고 묵묵히 육영사업에 전력한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오궁선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초대 교장 예비슨에 이어 1934년 제2대 교장이 되었다. 1940년 말엽 조선총독부는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미국인 교수 전원을 강제 추방하였고, 그 자리에 일본인 교수를 임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세브란스에서 기독교 정신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오궁선의 노력으로 그 빈 자리는 조선인 교수들로 대체되었다. 오궁선은 1942년 8월, 65세로 정년 퇴임하였다.



경성고아원에 처음 수용된 아이들(1920년, 좋은집 제공)
 김병찬 장로(왼쪽)와 오금선 박사(오른쪽)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서 있다. 김병찬 장로는 6·25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2. 경성고아원에서 안양기독교보육원으로

좋은집은 서울 남대문교회 장로 김병찬이 남창동 자택에 고아들을 모아 보살펴 준 것에서 시작하였다. 추운 겨울에 갈 곳이 없어 남대문시장 주변을 떠돌며 지내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김병찬의 이러한 구제 활동에 공감한 오금선·윤치호·정봉현·조병학 등은 이 아동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경성고아구제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경성고아구제회는 서대문 밖 옥천동에 있는 언더우드 소유의 대지와 가옥을 매입하여 고아원을 이전하고 1921년 5월에 경성고아원 개원식을 열었다. 1922년 5월 경성고아원은 재단법인 인가를 받으며 경성보육원으로 개칭하였다.

경성고아원은 거의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운영하였으나, 재단법인 경성보육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과 참여로 그 운영 범위가 확대되었다. 첫 이사장직은 윤치호가 맡았으나, 항일활동으로 보육원 운영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따라서 경성보육원의 실질적인 경영은 오금선이 도맡다시피 하였으며, 그는 2대 이사장이 되었다. 오금선의 이

사장 취임으로 경성보육원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보육원을 옥천동에서 청운동으로 이전한 것과 안양에 분원(농장)을 설치한 것이다.

경성보육원의 규정은 원아들이 15세가 넘으면 보육원을 나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당시 경성보육원 이사였던 윤치호·오공선·김병찬은 수원군 음덕면 남양리 소재 토지 5만 평을 팔아서 안양역 앞의 토지 6만 3,000평을 매입하여 농장을 조성하여 15세가 넘은 아이들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경성보육원 안양분원을 설치하고 한 것이다. 서울 신촌의 토지 6,000평을 팔아서 농장의 설비를 갖추기로 하였다. 안양에 농장을 조성하는 취지는 1935년 「고아의 “신낙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원래 고아란 의탁할 곳 없는 불쌍한 아동들을 수용하여 양육한다는 것이 경성처럼 복잡하고 팔자조케 호강하는 어린이가 많은 곳에서는 고아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자포자기 혹은 허영에 떠들 사회에 나가 다시 조치 못한 일을 만히 범하게 됨으로 이들을 위하여 활동할 능력만 있게 되면 곧 안양의 농촌으로 보내어 건전한 농촌 생활을 시키어 자작자급의 노력분투하는 정신과 실재력을 길러주자는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명년부터 서서히 착수하여 1만 1천여 평 산에는 공원을 만들고 5만 3천여 평의 논과 밭에는 전곡과 수전을 이루어 정말식(丁抹式) 농사를 짓는 외에 양계, 토끼, 비둘기, 도야지 등 가축을 기르고 화초와 과수 등을 재배하여 이 수입으로써 장래 그 골 살림은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고아촌은 초가 20채를 짓고 강당을 만들어 교화를 때때로 너허 주고 병실, 진찰소, 목욕 등 위생시설을 갖추어 노아 원연모범적 부락을 만들어 노려는 것이며 춘하추의 세 절기는 농사를 짓고 겨울 농한기에는 교육을 시켜 보통학교 졸업 정도를 만들려는 것으로 자못 이상적의 고아구제상 낙원(樂園)을 안양에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고아의 “신낙원”」, 『동아일보』, 1935년 11월 20일〉

오공선은 안양에 보육원을 설립할 당시부터 강당·숙소·진찰실·병실·목욕탕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원아들에게 농사·양돈·양토·원예 등을 가르쳐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산 마련 문제로 인해 윤치호를 비롯한 다른 이사들은 안양의 농장 건립에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이때 오공선은 자신의 사재를 들여 농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였다고 한다.

경성보육원 안양분원은 명칭을 ‘안양기독교보육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단독 주택을 여러 채 짓고, 보모(현재 생활지도원) 중심



안양기독교보육원 농장에서 농사짓는 아동들(『동아일보』, 1940년 4월 1일)

으로 가족을 이루어 자유롭게 커가도록 하였다. 오공선이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안양기독교보육원은, 주변의 임야와 논밭을 더 사들여서 논·밭·과수원·임야 등을 합쳐 15만 평이 넘는 마을을 이룰 정도가 되었다.

3. 전쟁의 시련을 딛고 보육원을 재건하다

해방 이후, 안양기독교보육원은 서울시장의 후생시설 대행기관으로 공인되었다. 1947년에는 안양의 마쓰모토(松本) 목장 관리권을 인수하여 젓소를 사육하여 아동들에게 우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오공선은 보육원 아동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과 여러 단체에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1949년에는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아동복지회(Christian Children's Fund, CCF)에 가입하였다. 이 단체의 원조는 보육원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그러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보육원 식구들은 전쟁 첫해에는 피난을 가지 못하



폭격으로 부서진 안양기독교보육원 건물(좋은집 제공)

였으나, 1·4후퇴 때는 부산 가덕도로 피난을 떠났다. 당시 안양기독교보육원에는 70여 명의 아동과 직원 등 모두 1백여 명의 식구가 있어 한꺼번에 피난할 수 없었다. 오금선은 가족들에 이끌려 먼저 부산으로 떠나면서 아동과 직원들을 3개 조로 나누어 부산까지 내려오도록 하였다. 가장 먼저 온 40여 명을 남해안 가덕도에 수용하고 나머지 가족들을 기다렸다.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조를 가덕도에서 만났지만, 세 번째 조는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길이 막혀 미처 보육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세 번째 조의 아동 20여 명이 폭격으로 희생되었다고 한다.

오금선은 6·25전쟁 때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동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962년 소파상 수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러한 소회를 밝혔다.

평생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1·4후퇴 때 안양에 남아 있던 30명 아이들 가운데 20여 명이 폭격에 잃은 일이다. 그 당시 70여 명 아동의 후송길이 끊겨 조바심치고 있는데, 세 때로 갈린 원아들은 걸어서 부산까지 오기도 했고, 중간에서 자리 잡기도 했으며, 안양에 발이 묶인 한 때는 폭격을 당해 20여 명이나 되는 친구를 잃어 애처로웠다. 이다음 나도 죽으면 그 원한의 고향들이 문힌 보육원 뒷산에 묻히고 싶다.



피난에서 복귀한 안양기독교보육원 사람들(1953년, 좋은집 제공)
뒤의 건물은 흙벽돌로 지은 생활관으로 보인다.

휴전 회담이 진행되면서 서울로의 복귀가 가능해지자, 오금선은 1952년 9월에 60여 명의 아동을 데리고 안양으로 돌아왔다. 보육원 건물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우선 1·4후퇴 때 데려가지 못해 희생된 20여 명의 어린 유골을 찾아 묻어주었다. 그리고 서둘러서 보육원의 복구 작업을 시작하였다. 흙벽돌을 찍어서 아동들의 생활관부터 짓기 시작하여 1952년 말에 생활관 4개 동을 완공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너무 많았다. 오금선은 미국에 있는 지인들과 인근의 미군 부대에 보육원 재건을 지원해달라는 편지를 썼다. 손수 타자기로 쳐서 작성한 간곡한 부탁의 영문 편지가 하루에 수십 통씩 후원자들에게 발송되었고, 외국의 구호 기관과 미군 부대에서는 구호물자와 후원금을 보내왔다. 특히, 주한미군 8군 45공병단은 석조 사무실 1개 동, 생활관 5개 동, 양계장 2개 동을 지어서 기증하였다. 1953년 9월 18일에 생활관 5개 동에 대한 준공식이 열렸는데, 준공식에는 함태영 부통령과 주한미국대사 부인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1953년에 교회와 의무실까지 완공함으로써 안양기독교보육원은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미군의 한국원조계획과 미국 기독교아동복지회의 원조로 보육원 재건을 마무리한 후 1954년 11월 21일 안양기독교보육원 봉헌식이 열렸다. 사회부장관·미8군 사령관



미국인의 후원으로 세운 보육원 건물(1955년, 좋은집 제공)
벽에 후원자의 이름을 새긴 초석을 붙였다.



미군의 원조 의약품(1950년대, 좋은집 제공)

등의 내빈이 참석하였다.

보육원 아동들은 도움을 준 외국기관과 국내외 인사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지어진 건물들에는 후원 또는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였다. 현재 그 건물들은 대부분 없어졌지만, ‘클락크사’와 ‘미세스 클락스사’는 남아 있다. 각각 2010년과 2012년에 증·개축을 하여 보육원의 예절관과 자립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양기독교보육원 시설 재건이 마무리되자, 오궁선은 자신이 구상한 가정적 수용제를 시행하였다. 단독 주택 형태의 생활관 한 동마다 1명의 부모 아래 10~15명의 아동이 가족 형태로 생활하는 것이다. 부모는 어머니이고 함께 지내는 아동들은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아동들이 시설에서 집단적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아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

4. 보육원의 이름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오공선은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이자 최고 시설의 보육원을 조성하였다. 보육원의 시설은 아동들을 위한 것이었을 뿐, 정작 본인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없이 손수 업무를 처리하였다. 오공선은 1963년 5월 18일 둘째 아들의 집에서 향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으로 거행되었고, 경기도 양주 망우리(현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묻혔다.

오공선은 생전에 의학 활동과 교육에 헌신한 공로로 1955년에 대한의학협회 의학교육 공로 표창을 받았고, 1962년에는 제6회 소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사후인 1963년 8월에 대한민국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어린이 보호 운동을 처음 시작한 소파 방정환을 기념하여 새싹회에서 1957년에 제정한 소파상 수상은 오공선에게는 의미 있는 상이었다.



34주년 기념식(1952년, 좋은집 제공)
기념식이 거행된 시기가 가덕도 피난 시절이다.

三十四週年記念
1952. 5. 25.



보육원 아동을 진료하는 오공선 박사(1950년대, 좋은집 제공)



제6회 소파상을 수상하는 오공선(1962년, 좋은집 제공)



1966년 당시 안양기독교보육원(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표 1〉 1977년 안양기독교보육원 시설 현황

시 설 명	규모 및 형태	시 설 명	규모 및 형태
사무실	27평, 석조	농기구 창고	15평, 목조 기와지붕
아동 숙소	10개 동, 반석조	직원 사택	6개 동, 목조 기와지붕
강당(교회)	66평, 목조	가축사	6평, 흙벽돌 건물
의무실	80평, 석조, 콘서트	임야	64,574평
재봉실	29평, 목조	전담	11,485평
목욕탕	8평, 벽돌조	학교 부지	26,089평
건조실	8평, 흙벽돌 기와지붕	대지	777평
숙사	60평, 목조 기와지붕	수영장 및 테니스코트	5,337평
창고	9개 동, 콘크리트조	기타 대지	4,641평

출처 : 해관오금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금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각 매스컴에서도 ‘고아와 울고 웃은 반평생—돈과 권세도 끝내 외면하고’(조선일보), ‘62년도 소파상—고아의 아버지 오금선 박사’(한국일보), ‘고아들의 산타클로스 오금선 박사’(서울신문)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하였다. 소파상 상장 기록에 따르면 1962년 안양기독교보육원에는 남자 81명, 여자 71명, 합해서 152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 중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35명, 고등학생 25명 등 총 120명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오금선 사후 그의 차남 오진영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보육원 운영을 맡았다. 안양시 도시계획에 따른 주변의 개발로 인해 보육원 전체 면적은 줄었지만, 시설은 늘었다. 또한 오금선 생전의 교육지침인 ‘정직·독립·봉사’에 따라 청소년을 교육하고자, 1973년 안양기독교보육원 부설 재단으로 학교법인 해송학원을 설립하고, 1974년 해송고등학교(현재 양명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1977년 당시 안양기독교보육원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안양기독교보육원은 1981년에 설립자 오금선의 호를 딴 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해관(海觀)’은 ‘인류를 생각하면서 온 세계를 바라본다’는 뜻이라고 한다. 1998년에는 보육원 명칭을 해관보육원으로 바꾸었고, 2007년에 다시 현재의 ‘좋은집’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좋은집은 아동들의 투표로 정해진 이름이라고 한다.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보육원의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러나, 보육원의 아동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올곧고 아름답게 자라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훌륭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설립자의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5. 좋은집을 소개합니다

좋은집은 본관·생활관·교육관·다운심리상담센터·기타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생활·성장·자립을 위한 통합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특별히, 설립자 오공선 박사의 일대기와 좋은집의 역사를 기록·보관하는 100주년 기념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본관은 3층 건물로, 1층에는 사무실과 자원봉사실·직원휴게실·보건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원장실·부원장실(해관방)·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3층에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강당이 있다.

생활관은 다목적실, 다운심리상담센터, 숙소 공간, 소다목적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숙소는 아동의 나이와 발달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된다. 1인실은 자립을 앞둔 아동이 홀로서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며, 2인실은 중학생 원생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3인실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함께 지내는 방이다. 2024년 4월에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된 신축 생활동은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강병근이 재능기부로 설계를 맡았다.

기타 편의시설은 자립체험관, 예절관, 미용실, 체력단련장, 구생활동, 운동장, 실내체력단련장, 소공연장 등이 있다. 자립체험관과 예절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한국전쟁 직후 미군의 원조로 건립되어 생활관으로 사용하던 한옥 형태의 건물이다. 하단은 석조, 상단은 연와조에 기와지붕 외관이지만, 내부는 모두 현대식으로 개조하였다. 건물의 정 초석에는 영어가 새겨져 있어, 오공선의 외국 지인들과 인근 미군 부대에 도움을 청해 지어진 건물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양명고등학교 부지에 속하는 옛 기독교보육원 의무실은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평가받던 목재 예배당은 헐려서 모습을 볼 수 없다. 예배당이 있던 자리에는 양명고등학교 테니스장이 설치되었다. 6·25전쟁 직후 안양기독교보육원 재건 당시 건축한 목재 예배당은 1950~1970년대 안양 사람들이 결혼식장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좋은집에 옛 기독교보육원 건물이 개별적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보육원이 하나의 생활관이 아니라 여러 동의 단독 주택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층 건물에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사는 형태의 일반적인 기숙사와는 달리,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단독 주택에 아이들의 공간을 제공해 주거 환경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여러 동





좋은집 전경



좋은집 본관(좋은집 제공)



다운심리상담센터(좋은집 제공)



안양 좋은집 부지에 남아있는 안양기독교보육원 건물
현재 아동양육시설 좋은집의 자립체험관으로 쓰고 있다



옛 건물을 개조한 좋은집 예절관(좋은집 제공)



보육원 뜰에 있던 예배당(좋은집 제공)

목조 건물로 1960년대에는 결혼식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예배당이 있던 자리에 양명고 테니스장이 들어섰다.



좋은집 100주년 기념관 내부

의 개별 주택으로 구성된 까닭에, 옛 기독교보육원 부지는 박달우회로의 고가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흩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좋은집은 2018년 건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자 고 오금선 박사의 일대기와 좋은 집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기념관을 설립하였다. 사진과 신문자료 등 아카이브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해 놓았으며, 한쪽의 작은 방에는 오금선 박사가 그간 수상한 상장과 상패를 전시해 놓았다. 작은 공간이지만 좋은집의 100년의 과정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좋은집은 2010년 중장기 특별사업으로 원내 심리치료실을 기획해 2011년 6월 개설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상담심리전문가를 초빙해 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였고, 놀이·미술·상담 등 다양한 개별 치료가 아동의 정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임상심리상담원을 배치하고, 아동청소년가족상담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치료 연계를 강화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보건복지부 및 다양한 외부 지원사업과 협력하며 아동의 심리 및 정서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2024년에는 생활동 신축과 함께 ‘다운심리상담센터’를 새롭게 출범시켰으며, 놀이, 언어, 미술, 연극 집단상담, 의사소통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심리정서지원은 후원자의 지원과 외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시작된 ‘경계성 지능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와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좋은집은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인 1악기’ 원칙 아래 아동의 음악 재능을 발굴하고, 전문 강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집중력과 인성,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2009년 5월에는 좋은집의 뮤지컬 「까만 사랑이」가 경기도 꿈나무예능발표회와 어린이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어서 아동복지협회 주최 AMK 지정기탁 예능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해관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고 2010년 12월, ‘감사의 날’ 무대에서 첫선을 보였다. 2013년 첫 정기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 연주회를 열고 있다. 해관오케스트라는 좋은집의 중장기 특화사업으로 중점 추진·진행되고 있다.

그밖의 동아리로는 클로버 봉사단, 기타 음악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등이 있다. 클로버 봉사단은 아동들이 각자의 재능을 바탕으로, 서로 돕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 형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해 교류하는 ‘타임뱅크’에서 시작하였다. ‘클로버 봉사단’이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단은 서로 협력하며 땀 흘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안에서 소통하며, 서로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다. 또한 수영, 태권도, 축구 등 다양한 특기 교육을 통해 아동의 체력과 자기 보호 능력을 키우고 있다.

좋은집은 아동의 자립과 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완공된 생활동 주방과 ‘해관뷔페’는 아동들이 직접 요리하며 자립심과 가족애를 키우는 공간으로, 맞춤형 영양교육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생일을 축하하는 ‘마이스페셜데이’는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행사로, 집 파티와 외식 나들이를 통해 생일을 특별하게 기념한다. 어린이날에는 키즈카페, 수영장, 놀이동산 등에서 아동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든다.

명절에는 아이들이 직접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자립한 선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애를 나눈다. 이웃의 독거노인을 찾아가 명절 음식과 선물을 전하고 장기자랑을 하는 활동은 10년 넘게 이어져 오며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심어주고 있다. 매년 여름·겨울 방학에 진행되는 캠프는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소그룹별로 진행되며 스키, 물놀이,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익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매년 창립기념일에는 자립가족을 초청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따뜻한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를 마련하며, 자립 아동 간담회를 통해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소통의 장도 운영한다. 해마다 열리는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는 아동의 표현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 예술인의 참여로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

고 있다.

좋은집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아동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온누리 자연학습장(원내 텃밭)은 아동이 고구마, 감자, 상추 등 다양한 작물과 채소를 직접 심고 가꾸며 자연의 소중함과 자립심, 협동심을 배우는 활동이다. 2024~2025년에는 관악장애인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가온누리 자연학습장을 운영하며, 수확물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등 나눔의 기쁨도 경험하고 있다. ‘해피트리’는 후원자가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소원을 담은 하트를 직접 선택해 선물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이다.

좋은집 퇴소 선배인 윤금동이 기부한 장학금에 해관재단이 일부 추가하여 설립한 ‘윤금동장학회’는 퇴소 아동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양만안로터리클럽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미니도서관 프로젝트’와 생일잔치는 아동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정서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이영표는 2005년부터 좋은집과 인연을 맺고, 축구 활동과 선물 지원,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아동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좋은집 아동들은 이러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도움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매년 12월 ‘감사의 날’ 행사를 연다. 1930년대부터 매년 12월이면 열리던 ‘성탄발표회’를 2012년부터는 ‘후원·자원봉사자님과 함께하는 감사의 날’로 이름을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노래·울동·합창·연주·뮤지컬 등의 다양한 재능을 펼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2016년부터는 해관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더해져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된다.

좋은집은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체계적인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25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는 아동들이 자립 후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자립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원내 자립체험관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자립 전 2~3개월간 자립예행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은 방학 기간에 ‘스스로 1박 2일, 자립을 향해 하루 한 걸음’이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립 훈련을 한다.

좋은집은 경기도와 경기도 아동상담소가 2005년 시범사업으로 공동 추진한 ‘하! 프로젝트’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데, 좋은집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아동들이 자립 후에 건강·마음·시간·경제 등을 잘 관리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퇴소 이후에도 좋은집은 LH 전세임대주택 연계, 자립정착금, 장학금,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사후 지원을 제공하며, 보육원장과 전담 요원이 직접 방문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전한다. 이러한 전방위적 자립 지원은 설립자 오금선 박사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아동들이 당당하고 안정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표 2〉 좋은집의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와 프로그램

핵심 가치	주요 과제	주요 프로그램
자존감 회복을 통한 일상성 회복	초기 적응	- 오리엔테이션, 건강검진, 입소아동 종합심리검사(*미취학 아동 : 원내 발달검사)
	면접 교섭 지원	- 연고자 상담, 연고자 간담회, 가족 단위 활동(원가정 대상 교육 및 가족 활동 지원)
	아동 상담	- 아동별 개별상담, 학교 상담, 입소 아동 심리검사, 종합심리평가 사례 관리, 사례 회의, 솔루션 회의 - 놀이·미술·음악·특수교육(언어, 인지, 감각통합) 등 심리치료, 청소년 상담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아동으로 양육	아동권리 및 욕구존중	아동권리교육, 아동자치회의(어울림), 우리가족회의, 아동욕구조사, 만족도조사 - 문화 활동 (세배드리기, 어린이날 나들이, 문화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 여름·겨울 캠프 활동, 해외 자원봉사 - 정서 지원 (아동 포트폴리오, 마이스페셜데이, 모범아동 시상) - 교류 활동 (정을 나누어요, 페스티벌 및 일일장터, 미니도서관 프로젝트) - 예·체능 활동(FCA축구교실, 해관 오케스트라 등) - 특기교육 활동(태권도·축구·검도·합기도·발레·댄스·피아노·미술), 유아체육교실 - 동아리활동 : 길따라 맛따라, 자전거, 스포츠 경기 관람 등 - 학원 수강 및 원내 학습지도 - 대학생 자원봉사 멘토링 - 유아 학습지원 - 면학 분위기 조성(열공합시다)
	발달 수준에 맞춘 정서 및 인지발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보호	- 건강관리(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등) - 맞춤식단 및 간식 프로그램 제공, 영양교육, 급식만족도 및 간식욕구 조사 - 특별급식(생일·명절·송년·어린이날 외식), 행복한 집밥
자립심 고취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 퇴소 준비(자립예행연습, 퇴소 상담, 퇴소식, 전세주택 지원사업 연계, 자립지원금 전달, 자립지원물품 전달) - 사후관리(정학금 지원사업, 퇴소 후 상담, 자립 역량 강화교육, 자립가족 방문, 자립가족 명절 시설 방문, 홈커밍데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격려 및 감사 행사), 후원 개발(감사의 날, 해피트리)

출처 : 좋은집(<https://www.anfam.or.kr>)

註

1. 좋은집(<https://www.anfam.or.kr>)
2. 고 오공선 박사와 관련된 자료는 100주년 전시관 내용을 비롯해 아래 문헌을 참고하였다.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 『좋은집 소식-좋은집 설립 100주년 기념호』, 2018. 해관 오공선선생 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한국 근대의학의 선구자』, 역사공간, 2020.
3. 「안양에 대농장 설치 고아를 농지로 지도」, 『동아일보』, 1935년 11월 19일 2면.
4.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123쪽.
5.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123쪽.
6.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123~124쪽.
7.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124쪽.
8. 「고아 위해 속사 건축」, 『경향신문』, 1953년 9월 22일 2면.
9. 「기독교보육원 봉헌식」, 『조선일보』, 1954년 11월 25일 3면.
10.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125쪽.

제3장

안양 중등교육의 초석, 안양중학교·안양여자중학교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안양 지역의 교육열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안양만의 특징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열’을 빠뜨리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평촌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원가는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경기도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을 자랑한다. 사교육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학원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해 안양 지역의 교육열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공교육의 규모도 그에 못지않다. 2024년 3월 현재 안양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총 86개로 (2,204학급, 5만 4,591명), 이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4개(494학급, 1만 3,917명)와 21개(646학급, 1만 5,686명)에 달한다.¹

물론 교육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단지 안양만의 것은 아니다. 자타가 공인하듯 교육열은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양에서 교육열이 유독 강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안양만의 독특한 조건이나 경험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사실 안양 지역에 중등교육기관이 설립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다. 오늘날의 교육열을 생각하면 의외로 늦은 편이다. 불과 80여 년 만에 45개에 달하는 중등학교가 생기는 동시에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교육열을 자랑하는 도시가 된 것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중등교육에 대한 안양 시민의 수요와 열망이 그만큼 컸음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안양 지역 중등교육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안양 지역 중등교육의 성장을 견인했던 안양중학교(이하 안양중)와 안양여자중학교(이하 안양여중)의 설립을 살펴볼 것이다. 안양중과 안양여중을 설립하던 당시의 과정을 통해 안양 역사의 한 국면은

물론이고 해방 이후 교육을 통해 안양 시민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이고 지금의 안양을 있게 한 시민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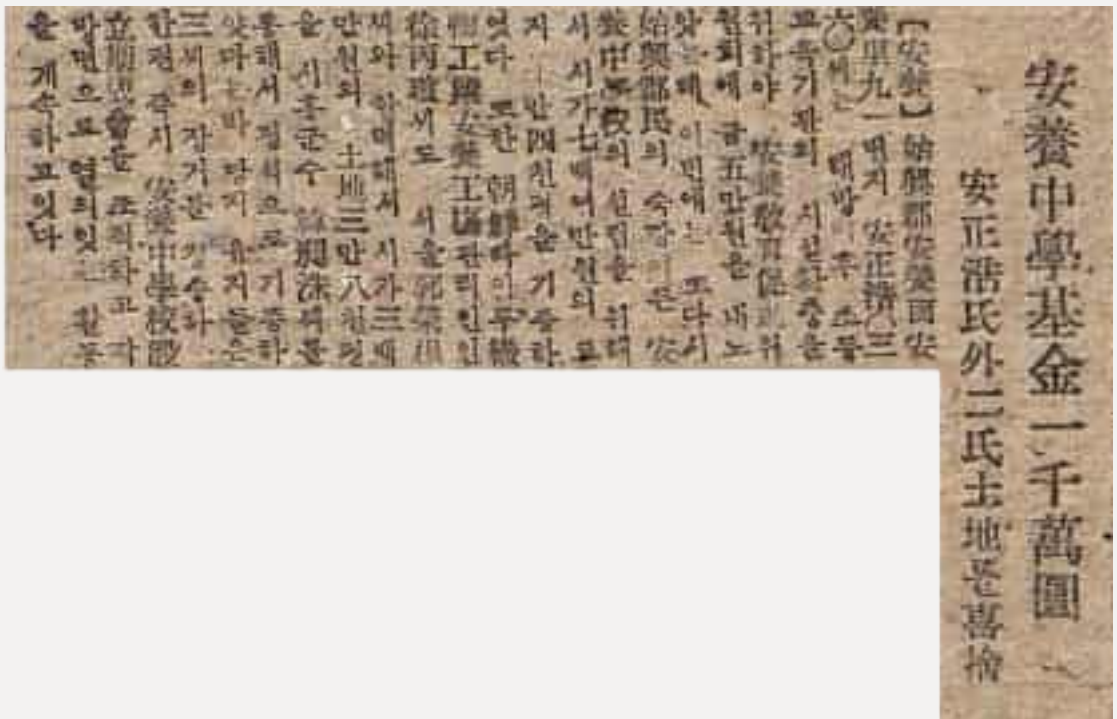
2. 안양중학교의 설립

안양 지역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안양공립보통학교(현재 안양초등학교)로 꼽힌다. 안양공립보통학교는 1928년 안양 지역의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기성회가 당국에 설립을 신청하고 이듬해인 1929년에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안양공립보통학교가 설치된 1920년대 후반은 안양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던 시기로 1925년 6,165명, 1935년 8,957명, 1941년 1만 2,333명을 각각 기록하는 등 192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²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 설립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뜻있는 이들이 기금을 모아 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이었다.

안양 지역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지만, 일제강점기 내내 안양 지역에는 더 이상 보통학교가 설립되지 않았다. 당시의 행정구역인 시흥군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해방 당시까지 국민학교는 8개로, 그 당시 시흥군이 지금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영등포구·관악구 일대를 포함해 광명시·안양시·군포시·과천시 등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음을 생각하면 아주 많은 숫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안양국민학교가 1940년 6년제로 바뀌기 전에는 안양 지역에는 6년제 초등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안양의 학생이 중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미 초등과정에서부터 인근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³ 중등학교 역시 설립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안양에 더 이상 초등교육기관이 설립되지 않았던 배경에는, 인근 지역인 과천과 군포에 이미 공립보통학교가 존재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었다.⁴ 그러나 중등학교조차 설립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인을 위한 학교 설립에 극도로 인색했던 일제강점기 정책에 있었다. 한일병합 직후인 1911년에 공포되어 일제강점기 교육정책의 골간을 이룬 제1차 조선교육령은, 충량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일본어 보급을 위한 보통교육과 일본의 경제적 필요에 부응하는 노동력 양성을 위한 실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3·1운동을 통해 조선인의 거센 저항이 확인된 이후,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에 일부 수정되었다. 1922년에 발표된 제2차 조선교육령은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하고 3개 면마다



안정호의 기부 소식을 전한 신문 기사(『국민교 만들라고 안씨 오만원 기부』, 『자유신문』, 3월 13일)



안정호와 두 사람의 기부 소식을 전한 신문 기사(『안양중학기금 일천만원 안정호씨외 이씨 토지를 회사』, 『자유신문』, 1947년 3월 6일)
안정호가 700여 만 원의 토지를 기증하고, 서병선은 광영근과 함께 300만 원 상당의 토지 3만 8,000평을 기증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다

보통학교 1개를 세운다는 원칙을 수립하는 등 일견 조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조선의 말과 역사·지리에 대한 교육이 줄어들 대신 일본의 말과 역사·지리에 대한 교육이 늘어나고, 전문교육이 억제되고 실업교육이 여전히 강조되는 등 일제강점기의 교육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았다.⁵

내내 억눌려있던 교육열은 해방과 함께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해방 당시 전국에 2,800여 개였던 국민학교는 불과 3년이 지난 1948년에는 3,400여 개로 증가했고, 의무교육이 실시된 1950년에는 3,900여 개로 늘었다. 학생 숫자도 크게 늘어 해방 당시 157만 명이던 것이 1948년에는 240만 명, 1950년에는 266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교육열이 분출하는 가운데 안양 지역에도 해방 직후부터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25일 인가를 받아 이듬해 3월 15일 개교한 흥안국민학교를 비롯하여, 1946년 9월 1일에는 시흥국민학교 분교(현재 삼성초등학교)와 안양국민학교 중촌분교(현재 관양초등학교)가 인가를 받았다.

초등교육기관이 해방과 동시에 속속 설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기관의 설립 필요성도 점차 커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안양 지역에 중등교육기관이 전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는 안양의 국민학교 졸업생이 진학할 수 있는 지역 내 상급학교가 마땅찮은 형편이었다. 해방 직후에는 안양 지역의 국민학교 졸업자가 매년 1,000여 명에 달했으나 이들이 중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수원 등 인근의 지역으로 통학해야만 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했던 당시 상황상 인근 지역으로의 통학은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해방 직후부터 안양 지역에 중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중등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안양면 안양리 소재 조선파일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⁶ 서병선(徐丙璵)이 중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3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하여 1946년 11월 3일 안양중학교설립기성회를 결성한 것이다.⁷ 이어 이듬해 3월에는 안정호(安正浩)가 700만 원 상당의 토지 10만 4,000평을 추가로 기증하였고⁸ 같은 해 6월에는 이영섭(李英燮)도 3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안양중 설립을 위해 지역의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중등학교 설립을 위해 기꺼이 사재를 털었던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안양중 설립을 추진했던 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안정호이다. 그는 해방 직후 안양중 외에도 안양 지역의 여러 학교와 교육기관에 수차례 기부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개업의로 알려진 해관(海觀) 안상호(安商浩)다. 안상호는 관립일어학교를 졸업하



안정호(앞줄 오른쪽)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재직 시절(대한치과 의사학회 제공)

고 정부 유학생으로 선발된 후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물이다. 또한 안상호는 와타세 쇼자부로(渡瀬庄三郎)가 쓴 생리학 교재인 『보통교육생리학교과서(普通教育生理學教科書)』(開成館, 1903)를 번역하여 『신편생리학교과서』(의진사, 1909)로 펴내는 등 한국의 근대 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⁹ 안정호는 안상호 슬하의 4남 3녀 중 첫째인 딸 안운자(安縝子)에 이어 둘째로 태어났다. 안정호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로 재직하다가 해방 이후 안양에 정착하였다.¹⁰ 줄곧 서울에서 활동해온 그가 굳이 안양에 정착하게 된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의 집안 선산이 시흥군 금정리(현재 군포시 금정동)에 있었던 점과¹¹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안정호는 안양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뒤, 안양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초등교육기관의 시설 확충을 위해 ‘안양교육촉진위원회’를 설립하고 5만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군포국민학교에 1만 5,000원, 안양 평화보육원에 토지 1만 5,000평과 현금 1만 원을 기부하는 등 특히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¹²

1946년 안양중학교설립기성회의 회장을 맡은 박영래 역시 안양의 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인물이다. 식민지기에는 에스페란토어의 연구와 보급에 힘썼던 박영래는,¹³



문교부 차관 안양 방문 기념(1949년, 박인재 제공)
 뒷줄 왼쪽 세 번째가 박영래이다.



박영래 선생 추도 기념(1952년, 박인재 제공)
 안양여자중학원장이던 박영래는 전쟁 중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조선직물 부지 내 안양여중 교사이다.

해방 이후에는 안양 지역의 중등교육에 힘을 쏟았다. 그는 안양중학교설립기성회의 대표를 맡은 것을 비롯해, 안양여중 설립에 참여하여 안양여자중학원의 학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안양여중 졸업생 이정란(전 안양여고 교장)의 구술에 따르면, 이재형이나 김완종 등을 초빙한 것도 박영래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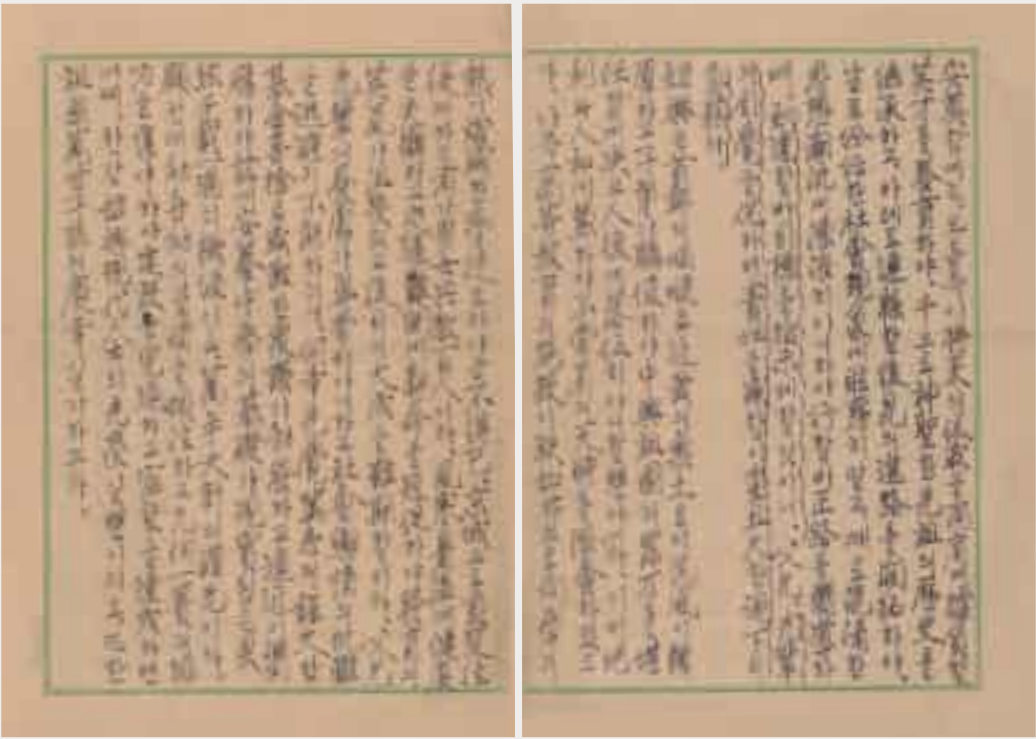
하지만 안정호와 박영래는 별도로 자신의 뜻을 밝힌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관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와 함께 안양중 설립에 참여했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어떤 의도와 배경으로 안양중 설립에 나섰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대신 안양중학교설립기성회가 1946년 11월 설립과 함께 발표한 「안양중학교설립취의」를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다. 여기에서 신생 독립국으로서 일제강점기 고난을 극복하고 산업을 진흥하여 신생 독립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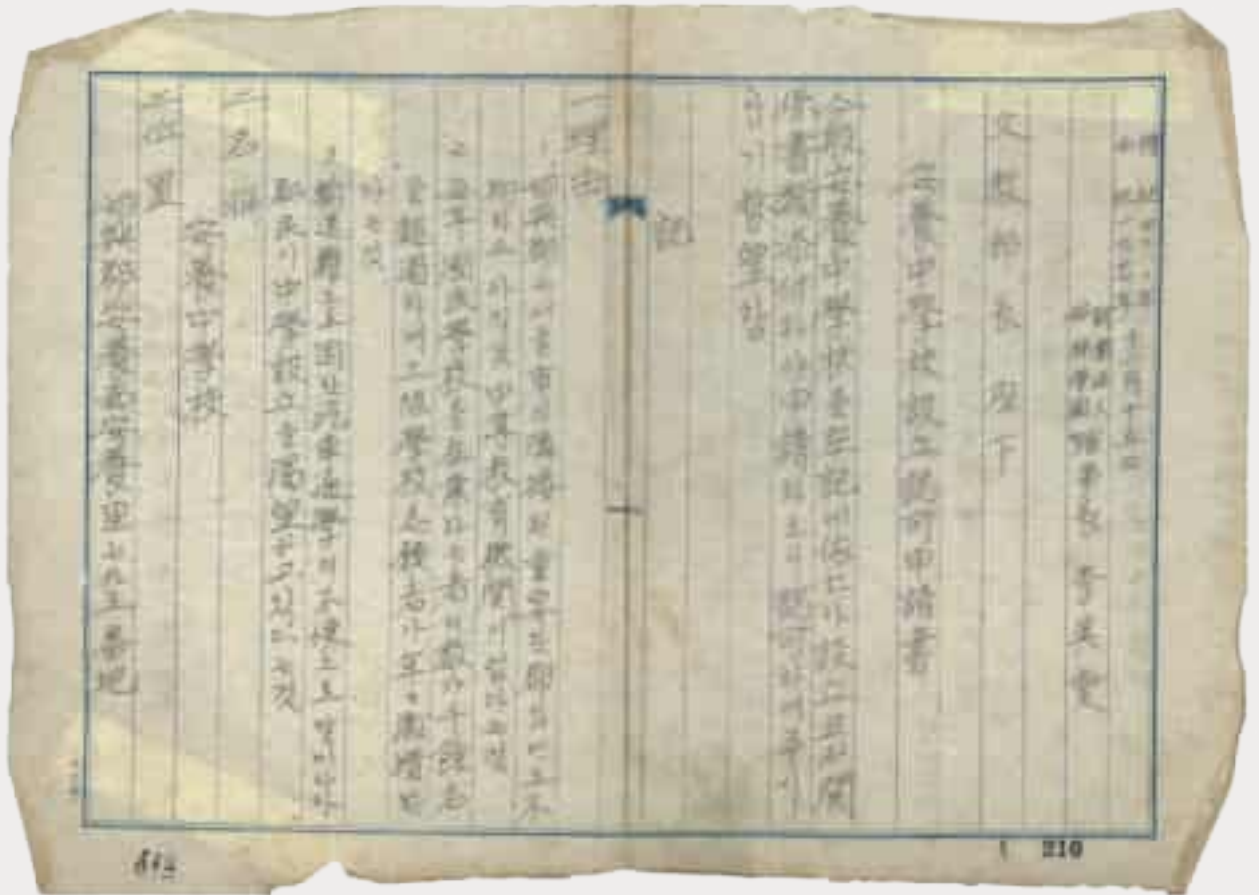
사십년 와신상담의 치욕을 신설(伸雪)하고 반만년 조국중흥의 건설을 촉진하는 차제(此際)에 위촉하여
진 산업진흥에도 지대한 노력을 대(待)하면 퇴폐하여진 문물제도에도 시급한 정돈을 요할 것은 물론이
어니와 국가만년의 대계를 수립하여 방본(邦本)을 태산반석에 안전(安奠)함에는, 모름즉이 장래의 휴척
(休戚)을 양견(兩肩)에 담부(擔負)할 영재를 양육하여 ……

〈안양중학교설립기성회, 『안양중학교설립취의』, 1946년 11월〉

안양중 설립을 위한 노력은 마침내 1947년 말에 결실을 맺었다. 시흥군수 한창수(韓昶洙)를 비롯해 안정호·서병선·이영섭·곽영근(郭榮根) 등이 기부한 토지 및 임야 1만 6,150평과 25만 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안양중의 경영을 맡을 재단법인 시흥학원을 조직하였다. 시흥학원은 이영섭이 이사장을 맡았고, 한창수·안정호·곽영근·서병선·박인영(朴仁榮)·윤경섭(尹敬燮) 등이 이사에 참여하였다. 안양중 설립을 추진했던 이들이 거의 그대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흥학원은 1947년 11월 15일, 6년 과정의 중등교육기관인 안양중의 설립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 문교부로부터 최종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안양중은 1948년 신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고, 시흥군청 내 임시교사에서 첫 수업을 진행하였다.¹⁵ 안양 지역의 오랜 염원이었던 중등교육기관의 설립이 비로소 열매를 맺은 것이다.



『안양중학교설립취의』(1946년, 박인재 제공)



안양중학교 설립인가신청서(1947년 11월 15일, 안양시청 제공)

3. 안양중학교의 공립 전환과 고등학교 과정 분리

개교 당시 안양중이 자리를 잡은 곳은 경기도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 795번지였다. 입학 자격은 국민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정도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였다. 정원은 300명으로, 학년당 1학급, 학급당 50명씩, 총 6개 학급을 개설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처음부터 6개 학급을 모두 개설한 것은 아니고, 개교 첫해에는 1·2학년 총 10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1개 학년씩 늘려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개교 직후부터 안양중의 운영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개교하고 채 한 학기가 지나지 않은 1948년 6월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인상하겠다고 당국에 신청했기 때문이다. 1947년 말에 만들어진 학칙에 따르면 안양중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각각 50원과 180원이었고, 이와 별도로 입학시험 응시를 위한 수험료가 20원이었다. 그런데 입학금과 수업료를 각각 500원과 25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수험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1948년 당시 중등학교의 수업료가 매월 150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¹⁶ 지나치게 크게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 지역 중등학교의 경우 수업료 외에 후원회비 명목으로 300원 정도를 내야 했고 여기에 입학회까지 따로 있었으며, 심한 경우 그 외의 여러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¹⁷ 안양중의 학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특별히 더 비싼 것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인상이 안양중의 운영난이 원인이라는 점이다. 재단법인 시흥학원은 1948년의 수입으로 약 460만 원을 예상했으나 실제 수입은 약 75만 원에 불과했다. 수입은 학생이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재단 소유의 토지에서 나오는 소작료, 기부금 등 크게 3개 항목이었는데, 이들 모두 예상보다 크게 부족하였다. 특히 약 300만 원으로 예상된 기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기부금을 통한 예상 수입은 시흥학원의 이사 중 일부가 밝혔던 기부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실제로 이를 위한 각서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안양중은 지역 유지들의 기부 덕분에 당장의 학교 부지와 시설을 마련하고 학교를 개교하는 데까지는 이를 수 있었지만, 학교 운영을 위한 경상비(經常費)를 조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수입의 대부분을 기부에 의존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이 이미 근본적으로 안양중의 재정이 취약한 구조였음을 보여주지만, 공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유지의 기부를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던 사립학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한편 입학시험 응시를 위한 수험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더 많은 학생이 입학시험에



안양중학교 제1학년 열불암 소풍(1951년, 최인용 제공)

응시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사실 안양중은 1년 차에 모집된 학생 수가 기대에 비해 적었다. 당초 계획(2개 학년 100명의 학생 모집)과 달리 실제로는 1학년 1개 학급에 72명의 학생만 모집할 수 있었다. 물론 1학년에 정원을 초과하는 학생이 입학한 것은 안양 지역의 높은 교육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기대보다는 적은 숫자였다.

이처럼 재정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해방 직후 한국은 미국의 원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대한(對韓) 원조에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정은 재정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렸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해방 직후부터 한국은 인플레이션과 고물가에 시달렸다. 특히 1948년을 전후해서는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진압 등을 위해 국방비와 치안유지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다.¹⁸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1950년 3월 4일 ‘경제 안정 15원칙’을 발표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과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950년 상반기부

〈표 1〉 1945년~1949년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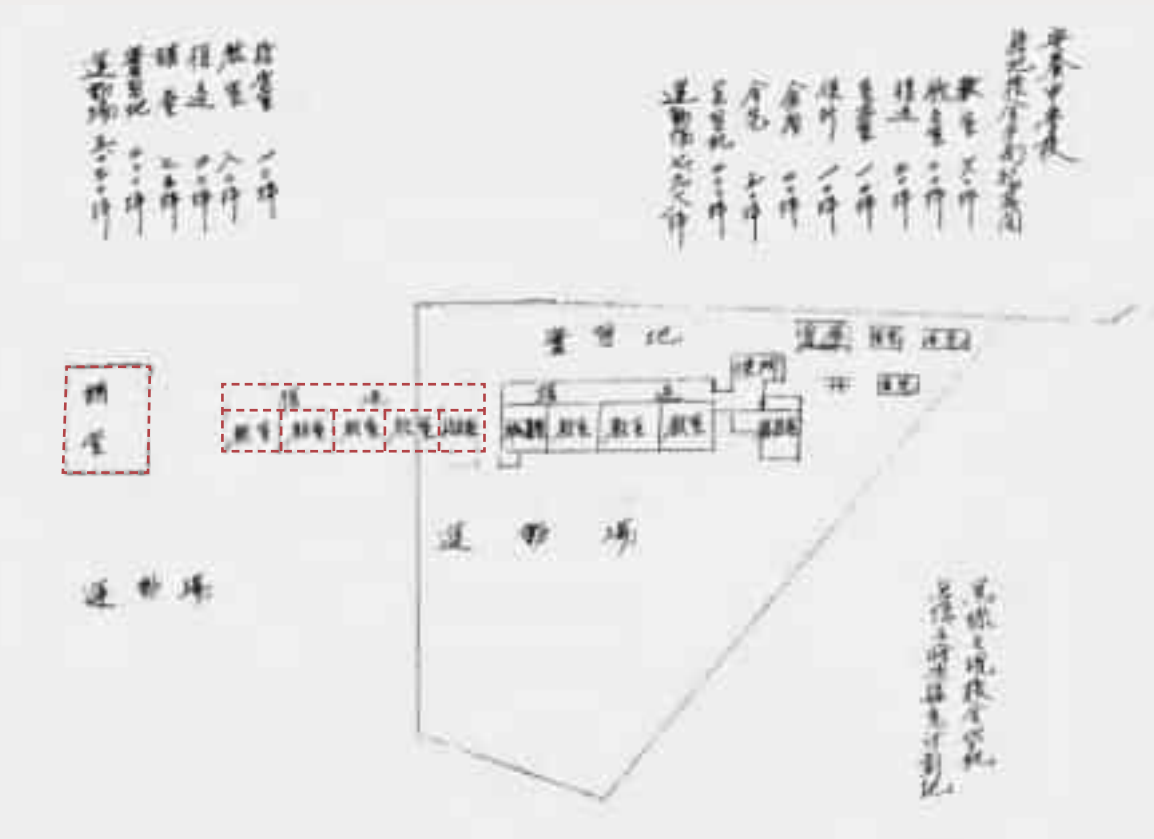
구분	물가 지수	통화발행고 지수
1945년 6월	2.5	52.6
1945년 8월	100.0	100.0
1946년 1월	116.5	111.5
1947년 3월	527.1	215.3
1948년 6월	957.1	376.0
1948년 9월	1059.4	387.4
1949년 6월	1185.9	494.7
1949년 9월	1527.1	597.0
1949년 12월	1705.3	893.6

출처 : 김동욱, 『1940~1950년대 한국의 인플레이션과 안정화정책』,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52쪽,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2014, 74쪽.

비고 : 1945년 8월 물가 지수를 100으로 설정한 경우의 지수.

터 인플레이션은 차츰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개교 직후의 안양중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1948년 6월 15일 개최된 시흥학원 이사회 회의에서도 안양중 재정난의 원인으로 급격한 물가 인상을 언급하였다.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원조에 나서지 않은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다. 대한 원조의 책임 기관이었던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이하 ECA)의 원조 계획은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회적 안정과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둔 제한적 지원에 그쳤다. 심지어는 ECA조차도 한국의 자립경제 달성에 회의적인 입장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강조된 ‘부흥’과 ‘자립’은 경제 현실보다는, 소련의 영향으로 북한이 공산주의화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여타 비공산 국가에 대해 가지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효과 때문이었다.¹⁹ 물론 ECA는 대한 원조의 목표를 ‘구호(relief)’가 아닌 ‘재건(rehabilitation)’에 두었다. 그러나 그 원조계획이 실제로 한국의 자립적 경제구조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안양중의 입학금과 수업료 인상 요청은 받아들여졌지만 그럼에도 학교의 운영난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8년 12월 17일, 재단법인 시흥학원은 설립 허가를 받은 지 1년 만에 안양중을 공립으로 전환해줄 것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1948년 11월 안양경찰서장 서리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면장과 학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연서명한 안양중의 공립 전환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이어 12월에 시흥학



안양중학교 건물배치도(「사립중학교를 공립중학교로 전환하는 인가신청의 건」, 1948, 국가기록원 제공)
 왼쪽의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신축 예정 시설로, 교장실 1개, 교실 4개, 강당 1개가 신축 예정임을 알 수 있다.

원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에는 재정난과 열악한 학교 시설, 그리고 이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공립 전환에 주된 필요성으로 들고 있다.

안양중은 개교 직후부터 재정난에 시달려 왔다. 당시 안양중은 교사(校舍) 등 학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공립화 당시 현황을 보면 학생 수는 2학급 총 122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교직원원은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3명, 강사 1명, 서무 1명뿐이었고, 학교 시설은 교무실 1개와 교실 3개에 불과하였다. 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원 수가 확보되지 않아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임은 물론이고, 매년 학생과 학급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와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교사를 증축하여 교장실 1개·교실 4개·강당 1개를 확보할 계획이 있었지만, 경상비 조차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과 인력의 확충은 요원한 일이었다. 특히 학급 수가 4개로 늘어나는 개교 4년 차부터는 최소한 4개의 교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사의 신축이 매우 시급한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양중으로 진학하려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시흥학원이 1947년 11월 15일 제출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따르면, 안양중은 1년 차에 2학년까지 2개 학급, 총 100명의 학생을 모집한 뒤 매년 1개 학년씩 증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48년 신학기 개교 당시에는 1학년에만 1학급이 개설되어 72명의 학생이 입학하였고, 공립화가 결정된 1949년 신학기에는 1학년 입학생이 51명으로 줄었고, 2학년은 71명이 재학 중이었다. 이처럼 학생의 규모가 기대보다 적고, 심지어 입학생의 수가 감소하기까지 한 이유에 대해 “서울·인천·수원(…)에 인접한 관계로 시설이 완비(完備)한 공립중학교가 많이고서는 우수한 아동은 물론 기타 다대수(多大數)의 아동까지라도 전기(前記) 도시의 일류 중학에 흡수”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1949년까지의 경상비 및 임시비를 지방민의 기부와 재단법인 시흥학원의 기본재산으로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949년 1월 31일 안양중을 공립으로 전환하였다. 안양중이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학교의 운영을 맡았던 재단법인 시흥학원은 해산 절차를 밟았고, 시흥학원의 재산을 안양중이 인수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안양중을 괴롭혔던 문제들도 해결되었다. 무엇보다 2,5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교사를 증축하면서 고질적인 시



안양중학교 제3회 졸업 기념(1953년, 이석호 제공)



1952년 안양여자중학교 제1회 졸업 기념(제1회 안양여자중학교 졸업앨범, 안양여중 제공)

설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어 안양중은 1950년에 공업중학교로 학교 과정을 개편하여 염직과와 전기과를 두도록 하였다.²⁰ 그리고 1951년 학제 개편으로 6년제 중학교가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로 분리되면서 안양공업중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3학년 과정은 안양중이 되었고, 4~6학년은 염직과와 전기과의 2개 과를 갖춘 안양공업고등학교로 분리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4. 안양여자중학교의 설립

안양중이 설립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안양 지역의 중등교육 수요는 다소간 충족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을 위한 중등학교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중등학교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은 아직 남아있었다. 안양중 설립 이전의 남학생들처럼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여학생은 여전히 인근 지역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감

수해야 했다.

안양 지역에 여자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들은, 시흥군수 김건렬을 중심으로 1950년 5월 안양여자중학교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여자중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²¹ 곧이어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여학생을 위한 중등학교 설립 움직임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 측면도 있었고,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전선(戰線)이 다소 안정된 1951년 8월, 안양여자중학원이라는 이름의 중등교육기관이 우선 문을 열게 되었다.²² 하지만 이는 정식과정을 갖춘 학교가 아니었다. 이에 재단법인 훈세사(勳世社)가 나서서 1951년 12월 안양여중 설립을 신청하였다. 훈세사는 1951년 2월 경남 함안 출신의 기업가 구진현(具璣鉉)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안양여중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교사의 신축 및 개·보수, 학교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시흥군 지역구 국회의원 이재형(李載滢)도 매년 2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여 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은 거의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이듬해인 1952년 3월 25일에 안양여중 설립을 인가받았다. 개교일은 1952년 4월 1일로 하였고, 기존의 안양여자중학원 재학생은 시험을 거쳐 안양여중에 편입하도록 하였다.

안양여중은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 872번지에 자리를 잡았다. 본디 조선직물 주식회사 안양공장 부지였던 곳을 안양여중이 허가를 얻어 일단 사용하게 된 것이었다. 공장 과 사택이 있던 공장 부지 한쪽을 사용하는 것이라 운동장으로 쓸만한 공간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문교부의 학교 설립 허가에 훈세사가 학교 교사의 신축과 보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현재의 학교 터로 이전하여 교사를 신축할 때도 학생들이 직접 돌을 날라다 건물을 지어야 할 정도로 형편이 곤궁하였다.²³ 하



안양여중 전경(제3회 안양여자중학교 졸업앨범, 안양여중 제공)

지만 국회의원 이재형과 그의 모친 양남옥(梁南玉), 그리고 초대 교장 김완중 등의 기부에 힘입어 차차 공간을 늘려갈 수 있었다.

안양여중의 수료 연한은 3년으로 하였고 학년당 2학급을 설치하여, 정원은 총 300명으로 구성되었다. 1951년의 학제 변경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분리되면서, 6년제로 시작한 안양중과 달리 안양여중은 처음부터 3년제 중학교로 출발할 수 있었다. 훈세사가 제출한 설립계획에 따르면 안양여중은 설립 첫해부터 3학년까지 전 학년을 설치



안양여중 학생들(제3회 안양여자중학교 졸업앨범, 안양여중 제공)

하도록 하였다. 안양중이 1학년부터 점차 학년과 학급을 늘려갈 계획이었던 것과 달리 안양여중이 개교 첫해부터 전 학년에 학급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안양 지역에서 여학생의 중등교육 수요가 높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6·25전쟁으로 인해 경기여중·이화여중 등 서울 소재 중학교 학생들을 위탁 교육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²⁴ 안양여중의 첫 졸업생은 이들 위탁생이었고, 이 때문에 동문 기수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안양여중의 설립에 나섰던 이들이 학교를 통해 구현하자 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학생에게도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였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문교부에 제출한 설립계획서의 ‘설립이유’에는 안양여중 설립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그 취지에 있어서는 농촌을 근거로 하는 여성교육에 치중하여 도회지의 인문편중(人文偏重)적인 교육을 모방치 않고 장래 농촌의 주부로서 건실성 있는 부덕(婦德)을 함양하기 위하여 합숙생활과 훈련에 의하여 농업과 축산에 애착을 갖을 수 있게 교도(敎導)하며 나아가 농업국의 여성으로서 손색이 없을 교양과 인격을 구비케 하며 아울러 아국(我國)의 입체(立體) 농업 장래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질소검박(質素儉朴)하고 건전한 여성의 정신을 함양하여……

〈안양여중 설립이유, 「안양여자중학교 설립인가신청의 건」〉



현재의 교지 624평이 머니 위내양중 부지 2,500평
 땅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다행히 인근지(地)
 2,500평의 사리항무지를 매수하여 사용코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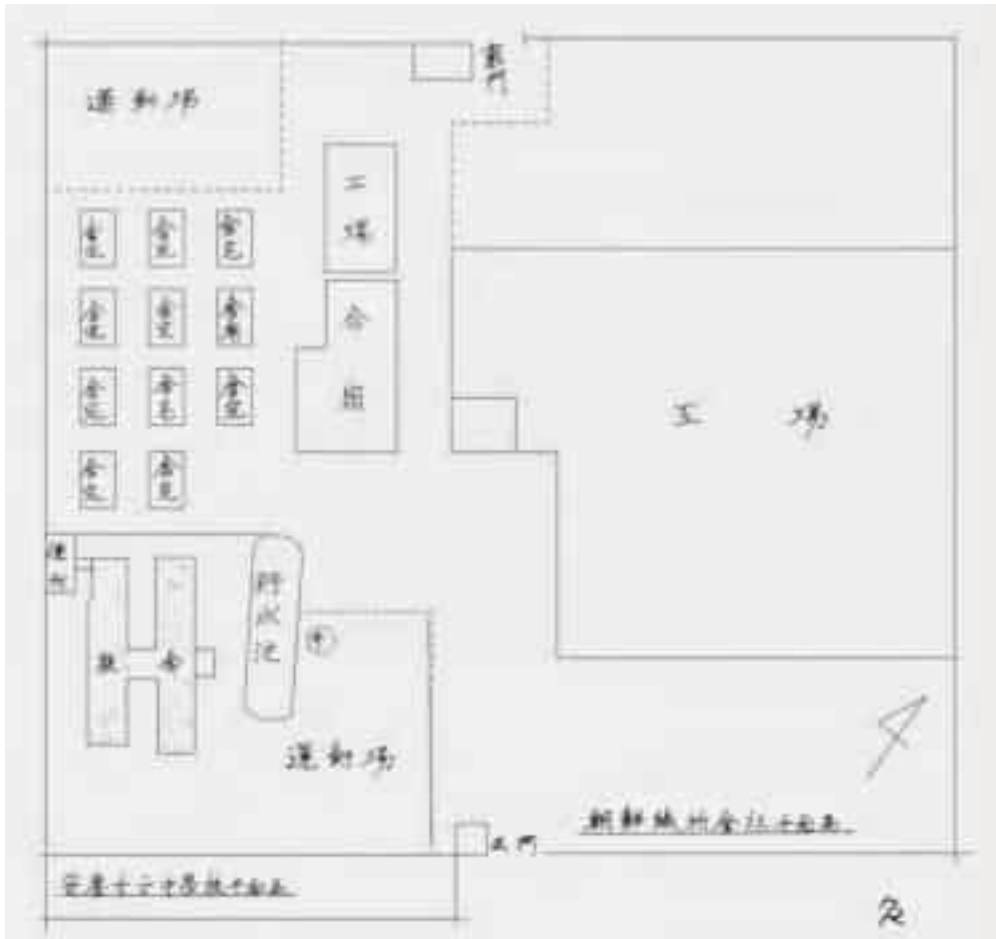
建校確切計劃書

現在、校地六十坪、井水地一坪、
 安陽女子中學校建校地確切計劃圖、
 井水地、砂所、安陽女子中學校建校地、
 安陽女子中學校建校地、
 安陽女子中學校建校地、

안양여중 교지(校地) 및 확충계획도(「안양여자중학교 설립인가신청의 건」, 1952년, 경기도청 제공)
 확충 계획 부지가 아래쪽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건설성 있는 부덕(婦德)”이나 “질소검박(質素儉朴)하고 건전한 여성의 정신” 같은 표현에서 당시의 여성관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인문편중적인 교육”)보다는 농업과 축산 같은 기능적인 측면의 교육을 보다 강조했다라는 사실이다. 안양이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공업지대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의외로 느껴진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한국이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는 점이나 한국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당대의 엄혹한 현실적 속에서 실용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다는 인식과 연관 지어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립·운영 주체였던 인물들의 이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안양여중의 운영을 맡은 구진현은 1909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농업지도원, 조선농업개량주식회사 취체역 사장 등 주로 농업 경영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해방 이후에는 동양공사(韓洋公司)를 창립하여 토목건축업에 주력하였다. 그러



안양여중 평면도(「안양여자중학교 설립인가신청의 건」, 1952년, 국가기록원 제공)
조선직물회사 안양공장 부지 한쪽에 교사와 운동장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던 중 1946년 운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남자동차학원(慶南自動車學院)을 설립하고 원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1951년 2월, 그는 재단법인 훈세사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재단은 이후 한국안보화재해상재보험 주식회사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인수와 합병을 거쳐 현재의 삼성화재가 되었다. 안양여중이 농업 위주의 실용 교육을 강조했던 것은 재단법인 훈세사와 구진현의 이러한 이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⁵

안양여중이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훈세사와 함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는 시흥군 지역구 국회의원 이재형이다. 그는 경기도 시흥군 출생으로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제강점기에는 금융조합 이사와 금융조합연합회 사업부장과 고문 등을 지냈다. 1948년 총선거에서 경기도 시흥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래로 이승만 정권에서는 상공부장관을 지냈고, 196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신민당과 민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그가 안양여중의 설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흥군 태생으로 시흥군을 지역 기반으로 활동한 정치인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안양여중의 초대 교장으로는 김완중(金完鍾)이 취임하였다. 그는 1916년 시흥군 수암면 장상리(현재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서 태어나, 서울 중동학교를 거쳐 일본 니혼대학(日本大學) 법문학부를 졸업하였다. 이후 1941년부터 만주 간도성(間島省)에 위치한 석현농림학교(石峴農林學校)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귀향 후에는 안산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였고 1951년부터는 안양여자중학원의 원장으로 재

안양여중 제1회 예술제(1954년, 제3회 안양여자중학교 졸업앨범, 안양여중 제공)





안양중 봉은사 소풍(1955년, 김종수 제공)



1957년 안양여중 신입생 환영 소풍(안양2동주민센터,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미술부원



배구부원



구 교사의 모습



제4회 안양여자중학교 졸업앨범(1955년, 안양여중 제공)

임 중이었다. 김완중 외에도 초대 교감으로 부임한 정귀영(鄭貴永)을²⁶ 비롯하여 대부분의 교사와 교직원이 안양여자중학원에서 근무하던 이들이었다. 정귀영은 안양여자중학원 부임 전 안양고등공민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안양고등공민학교는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3년제 학교로, 정규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해방 직후 안양중과 함께 안양 지역 중등교육을 일부 담당하였다.

5. 안양중학교와 안양여자중학교의 교과과정

안양중과 안양여중의 교과과정은 대체로 1946년 9월에 발표된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의거하였다. 1946년의 교과과정은 이전까지 4년이었던 중등 과정을 6년으로 확대하였고, 주당 수업 시간도 32~35시간에서 39시간으로 늘렸다.²⁷ 흔히 교수요목기(教授要目期, 1946년 9월부터 1954년 4월 20일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이 발표되기까지의 시기)로 통칭하는²⁸ 이 시기의 교과과정은 수료 연한과 주당 수업 시간 외에도 역사·지리·공민 과목이 포함된 ‘사회생활과’가 도입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수요목’이란 일제강점기의 ‘교육과정’을 뜻하는 용어로,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사용하였다. 당시 교육의 목표는 일제강점기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사회를 끌고 나갈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었는데 사회생활과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다. 38선 이남에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던 미군정 역시 사회생활과는 민주주의를 이해시키고 습득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교수요목기 교과과정의 이러한 목표는 신생 독립국을 책임질 새로운 세대의 양성을 목표로 천명한 안양중학교의 설립취의와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또한 안양중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이가 유병민(劉秉敏)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게 보인다. 1884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병민은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東京高等師範學校)를 졸업한 후 배재중학교·보성중학교·중동중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특히 역사와 지리, 수신(修身) 등 세 과목에 대해 모두 교원 자격을 가진 흔치 않은 인물이었다.²⁹ 안양중학교 설립 당시에는 한국역사지리협회 회장을 지내기까지 했기 때문에, 유병민은 역사·지리·공민으로 구성된 사회생활 과목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았다.

매우 당연하게도 교수요목기의 교과과정은 안양중의 교과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47년 최초로 만들어진 학칙에 규정된 안양중의 교과과정은 위 표와 같은데,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을 합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생활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양중은 보유도서 목록이 남아 있어 당시 사용된 교과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회생활 과목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민 과목에서는 미군정이 간행한 국정 교과서인 『중등공민(中等公民)』을 사용하였다. 상권과 하권으로 나뉜 『중등공민』에서 중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상권은 ‘자유’, ‘규율’, ‘민주정치’, ‘우리 말과 글’, ‘화랑도’, ‘우리 민족성’ 등으로 목차를 구성하였다.³⁰ 즉 민주주의적 가치를 학습하는 동시에 민족적 주체성도 함께 강조하는 내용으로 교과를 구성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수학과 외국어, 실업(농업) 과목이었다. 또한 이 시기는 아직 본격적인 교과서 검인정 체제가 갖춰지기 전이었기에 노골적인 좌파 이념을 설파하지 않는 이상 큰 제약 없이 출판이 가능하였고,³¹ 이에 따라 다른 과목에서는 『초중등일반과학』, 『중등국사』, 『신중등수학』, 『중등영어』, 『중등국어교본』, 『조선지리』 등 다양한 교과서가 활용되었다.

안양중의 교칙이 주당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교과과정을 규정한 것에 비해, 안양여중의 교칙은 연간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선택과목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두 학교의 교과과정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또한 안양중과 달리 도서목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안양여중의 교과내용 역시 상세히 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은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안양여중의 교과과정 역시 교수요목기 교과과정의 목표를 반영하여 사회생활과의 수업시수가 가장 많았다. 국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비해서도 30%가량 수업시수가 많다.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적 교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한다는 교육목표는 여학생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둘째, 실업과 외국어의 시수 역시 많아서, 사회생활과 수업시수가 동일하였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교육을 강조했던 설립이유가 교과과정에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양중과 안양여중으로 시작된 안양 중등교육의 역사는 해방 직후의 혼란한 정세와 한국전쟁의 참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다음 세대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던 안양 시민의 열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덧 개교한 지 80년을 바라보는 안양중과 안양여중, 그리고 안양공고는 지금까지 각각 3만 475명과 18,782명, 33,68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안양의 중등교육을 책임져 왔다. 2024년 기준 이들 학교가 지난 80년간 거둔 성취는 놀라운 수준이다. 신입생 모집에 고심하던 안양중학교는 2024년 현재 17개 학급 417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공간이 되었고, 공장부지 한편의 작은 교사에서 출발한 안양여중은 학교법인이 변경되는 등의 변화를 거쳐 2024년 현재 401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성장하였다. 2개 과로 출발한 안양공

고는 학과 개편을 거쳐 현재는 화학공업·전기제어시스템·건축디자인 등의 전통적 분야부터 스마트팩토리·드론 등의 최신 기술에 대한 대응능력까지 갖춘 교육 현장으로 끊임 없이 자기혁신 중이다.

〈표 2〉 안양중 교과과정(1947년 학칙)

(단위 : 시간)

구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제6학년	
필수과목	국어	5	5	5	3	3	2
	사회생활	5	5	5	5	5	5
	수학	5	5	0	5	0	0
	과학	5	5	5	5	5	0
	체육보건	5	5	5	5	5	5
	실과	2	2	2			
	음악	2	2	2			
	외국어				3	3	3
	소계	29	29	24	26	21	16
	선택과목	수학			5		5
외국어		5	5	5	5	5	5
미술		1	1	1	1	1	
국어(한문)							3
실업(농업)		4	4	4	4	5	
사회생활					3	2	5
과학							5
심리							
총계	39	39	39	39	39	39	

〈표 3〉 안양여중 교과과정(1951년 학칙)

(단위 : 시간)

구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구분
국어	140~152	140~152	140~152	필수과목
수학	140~152	140~152	140~152	"
사회생활	175~190	175~190	175~190	"
과학	140~152	140~152	140~152	"
보건	105~114	105~114	105~114	"
음악	35~38	35~38	35~38	"
미술	70~76	35~38	35~38	"
실업	175~190	175~190	175~190	"
외국어	175~190	175~190	175~190	"

참고자료

- 생산기관 미상, 『신청및인가관계서류(재단법인시흥학원)』, 1947.
- 경기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관리과, 『공립중학교설폐(학교행정)』, 1949.
- 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 『훈세사(경기)』, 1952.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학교법인훈세사(5-1)』, 1952.
- 안양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 『안양공고오십년사』, 2002.
-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2014.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註

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https://www.goeay.kr/goeay/>) '관내학교현황' 항목(검색일: 2024년 10월 13일).
2. 안기영, 「안양교육의 역사」, 『안양학논총』 1,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2001, 177쪽.
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5』, 2008, 13쪽.
4. 안기영, 「안양교육의 역사」, 『안양학논총』 1,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2001, 177쪽.
5. 박찬승 이승일·김지형 편, 『세계사 속의 한국근현대사』, 경인문화사, 2024, 189~190쪽.
6. 「安養中學校 設立에 曙光」, 『독립신문』, 1947년 3월 15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회사조합자료'에는 서병선이 조선파일공장의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7. 「中學創設에 三百萬圓 特家徐丙瑄氏가 快擧」, 『동아일보』, 1946년 11월 12일.
8. 「安養中學 基金 一千萬圓, 安正浩氏 外 二氏 土地를 喜捨」, 『자유신문』, 1947년 3월 6일.
9. 안상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이정은, 「최초의 근대 開業醫 安尙浩의 생애와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오선실, 「근대전환기 서구 근대 생리학의 수용과 변용」, 『한국학연구』 6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10. 안진수·안병근, 「한국 최초의 개업의와 치의학 '최초의 근대 기업'의 안상호의 생애와 그 아들의 이야기」, 『대한치과의사학회지』 40(1), 대한치과의사학회, 2021.
11. 이정은, 「최초의 근대 開業醫 安尙浩의 생애와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86쪽.
12. 「國民校 만들라고 安氏 五萬圓 寄附」, 『자유신문』, 1946년 3월 13일; 「安養 安正浩氏 特志」, 『자유신문』, 1946년 4월 14일; 「安正浩氏의 美擧」, 『자유신문』, 1947년 2월 24일; 「安正浩氏 教育界에 喜捨」, 『동아일보』, 1947년 2월 26일; 「安養中學 基金 一千萬圓, 安正浩氏 外 二氏 土地를 喜捨」, 『자유신문』, 1947년 3월 6일; 「始興 安正浩氏 教育界에 喜捨」, 『독립신문』, 1947년 3월 7일.
13. 「國際語大講演」, 『조선일보』 1925년 6월 14일; 「『에스페란토』에 對하여 (四) : 卍博士 第七十回 誕生을 紀念하는 意味의 紹介文」, 『조선일보』, 1929년 12월 20일; 「에스페란토語 創案者 자멘호부博士의 生日을 맞아」, 『동아일보』, 1952년 12월 16일.
14. 이정란의 구술 (2024년 3월 18일).
15. 「安養中學校 廿五日 開校」, 『동아일보』, 1948년 2월 28일.
16. 「國民校生의 授業料 廢止 三年生까지는 義務教育」, 『경향신문』, 1948년 3월 5일.
17. 「中等 千圓 以下 後援會費 等の 最高額을 規定」, 『조선일보』, 1948년 6월 26일; 「過重한 負擔」, 『조선일보』, 1948년 12월 25일.
18. 정진아,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국가 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52쪽.
19.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해인, 2009, 89~90쪽.
20. 「安養公立中學校 工業校로 新發足」, 『조선일보』, 1949년 9월 1일; 「安養工業中學校 開校紀念式 舉行」, 『동아일보』, 1950년 4월 24일.
21. 『안양여중고50년사』, 2002, 33쪽. 『안양시사 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14쪽에서 재인용.
22. 『안양시사 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14쪽.
23. 이정란의 구술 (2024년 3월 18일).
24. 『안양시사 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14쪽.
25. 다만 부산에 주소를 둔 훈세사가 안양에 있는 어떤 경위로 안양여자중학교의 설립에 관여하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26. 『안양시사 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14쪽.
27. 「중등학교 교과과정 결정」, 『매일신보』, 1945년 9월 30일.
28. 김상훈, 「해방 전후 중등 교육과정의 변화」, 『역사와교육』 21, 역사와교육학회, 2015, 10쪽.
29. 「京城 各學校의 名物先生 觀相記(其三) 마와리先生 劉秉敏氏」, 『별건곤』 1927년 3월호.
30. 김동선, 「미군정기 국정 공민교과서의 성격과 집필진의 구성」,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132~133쪽.
31. 김동선, 「교수요목기 검정 중등공민 교과서의 편찬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0, 103쪽. 다음 백과(<https://100.daum.net>) 참조.

동아리
or
탐구대회

꿈과 열정을 그려 보고서

진로체험
or
자유학기제



가야금 동아리 '미리내'



시화전 '시시각각'



친구사랑 주간



합창반 '애그놀리아'



밴드부 '엘리 플루어스'



목련 피구반



목련 체육대회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2025학년도 신입생 대상 홍보 리플릿인양여중 제공

제4장

만안구 북부권 교육의 기틀을 세운 만안초등학교

김산옥 안양시 문인협회 회원



2024년 7월 초에 만안초등학교를 찾았다. 만안초등학교는 ‘북부동’이라 불리던 안양 2동에 자리 잡고 있다. 남쪽을 향해 자리 잡은 만안초등학교는 아늑하고 쾌적해 보였다. 정문을 들어서니 넓은 운동장이 반겨준다. 백사장 흰 모래를 깔아놓은 듯, 풀 한 포기 없이 잘 정돈된 운동장이 한순간 마음을 빼앗는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큰 꿈을 내어주고 있다. 운동장을 빙 둘러 쳐놓은 빨간 장미꽃 문양의 철재로 된 울타리도 남다르게 정겹고 아름답다. 큰 버드나무 두 그루가 반긴다. 두툼두툼한 수피가 오랜 세월을 가늠해 준다. 버드나무 옆에는 ‘개교기념일 식수. 1962.3.10. 만안초등학교 1회 동문 일동’이라고 새긴 표지석이 있다. 오랜 풍화작용으로 까맣던 글씨는 반쯤 지워지고 돌에 새긴 글자만 또렷이 남아 긴 세월을 보여 준다. 두 그루의 버드나무는 오랜 세월 이 교정을 지키며 서 있다. 이곳에 심어질 때의 나이테를 합하면 70~80년은 족히 되어 보이는 노목이다. 세 아름이나 됴직한 나무등치는 속이 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푸르게 교정을 품고 섰다. 이 버드나무는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그 많은 꿈나무의 발자취를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만안초등학교는 2006년에 역사관을 개관하였다. 역사관에 전시된 빛바랜 사진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책갈피처럼 켜켜이 쌓여 만안초등학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모습에서부터 되돌아가다 보면, 만안초등학교가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 역사를 더듬어 본다.

1. '북부동'에 생긴 학교

만안초등학교는 1961년 11월 27일 '만안국민학교'로 인가를 받고 1962년 3월 2일 개교하였다. 『만안초등학교 연혁지』를 보면, 학교가 개교하기까지 1961년 하반기 내내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우선 1961년 7월 27일 안양초등학교 만안분교의 교사(校舍) 건축이 첫 삽을 떴다. 11월 10일 착공한 지 100여 일 만에 10개의 교실을 갖춘 2층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식을 거행하였고, 곧바로 안양국민학교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1학급 825명이 만안분교장으로 전학을 왔다. 교실 수에 맞추다 보니 전 학년이 옮겨오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11월 27일 만안국민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만안초등학교가 들어선 동네는 '북부동'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안양역·중앙시장·관공서 등이 있는 지금의 안양일변가 일대를 안양시가지의 중앙에 있다고 하여 '중앙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래서 중앙동의 북쪽 지역, 현재 안양2동 일대를 '북부동', 중앙동의 남쪽 지역, 현재 남부시장 일대를 '남부동'이라고 불렀다. 남부시장의 이름도 남부동에 개설한 시장이라고 붙여진 것이다.

1950년대까지 안양 지역에는 안양동의 안양초등학교, 석수동의 삼성초등학교, 관양동의 관양초등학교, 평촌의 흥안초등학교(현재 안양남초등학교) 등 4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다. 그런데 공업도시 안양으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학생 수도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큰 기업체가 모여 있던 안양동은 끊임없이 인구가 유입되었고 안양초등학교는 과포화 상태가 되었다. 결국 안양동의 북쪽 지역과 박달동 일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북부동에 만안초등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다. 이로써 안양동의 남쪽은 안양초등학교가, 안양동의 북쪽은 만안초등학교가 초등교육을 담당하게 된 셈이다.

안양초등학교 만안분교로 시작했기에 만안초등학교 1회 입학생은 1962년 3월에 입학한 4학급 365명이다. 안양초등학교에서 전학을 온 학생들은 2학년~5학년으로 진급하여 개교 당시 만안초등학교는 학급 수가 총 15개였다. 그러나 개교 당시 교실은 10개였으니 저학년은 2부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곧바로 교사 증축에 들어가 1963년부터는 교실 수가 20개로 늘어나고 학급 수도 23학급으로 늘어났다. 교문도 생겼다. 1964년 1월 29일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1965년 2월 9일 제2회 졸업식 당시 「학사보고」에 의하면, 재학생 수가 남학생 1,033명과 여학생 929명을 합쳐 1,962명이었다. 개교한 지 3년 만에 학생 수 2,000

명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한 반의 인원은 70명을 훌쩍 넘는 과밀학급이었다. 1회 졸업생 수가 151명이던 것에 비해 2회 졸업생 수는 288명으로 2배나 늘어 있었다. 만안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10년 만에 57개 학급으로 성장하였고, 1972년 3월 안양3리에 안양서초등학교가 신설되면서 만안초등학교에서 분리 개교하였다.

개교 직후부터 만안초등학교의 교실은 학생 수에 맞추기 위해 매년 증축되었다. 중앙현관과 교실 10개짜리 한쪽 부분만 준공한 채로 개교하였다가, 1963년 신입생이 들어 오기 전에 나머지 한쪽 부분도 준공되어 비로소 교실 20개 규모의 좌우대칭 건물이 완성되었다. 1963년 12월에 12평짜리 급식소도 지었는데,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자 2년 후에 가교실로 변경하였다. 교실은 20개인데 학급 수는 27개였으니 당장 부족한 교실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것이다. 곧바로 강당 겸 교실 신축에 들어가서 1층은 강당 겸용 교실 3개, 2층은 일반 교실 3개를 갖춘 교사가 완공되었고 본관 건물과 통로로 연결되었다. 이 연결 통로는 금성방직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학생들은 이 연결 통로를 '구름다리'라 불렀다고 한다.

만안초등학교 교사 준공식(1961년, 경기도청 제공)
좌우대칭 본관 건물이 한쪽만 완공되었다.





만안초등학교 준공식에 참석한 경기도지사를 배웅하는 교사들(1961년, 경기도청 제공)
차가 서 있는 곳이 당시 1번 국도였던 지금의 만안로이다.

2. 졸업생이 기억하는 1960년대 학교생활

만안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 임정권과 제5회 졸업생 서동욱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임정권은 안양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마치고 만안초등학교로 전학 가서 6학년을 다니고 졸업한 제1회 졸업생이다. 만안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은 안양초등학교 제32회 졸업생과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입학했는데, 서로 다른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였다. 제5회 졸업생 서동욱은 만안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 졸업했으니 온전히 만안초등학교를 나온 셈이다. 그들이 기억하는 만안초등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임정권은 6학년 때 5개 반 중에서 2개 반이 만안초등학교로 옮겼다고 기억한다. 한 학급이 70여 명 되니까 2학급이면 약 150명 정도 되었다. 당시 초등학생이 정확한 행정 사항에 대해 알았을 리 없지만, 듣기로는 지금의 안양로292번길을 경계로 학구가 나뉘었다

고 한다. 당시 안양경찰서와 안양읍사무소·시흥군청이 지금의 안양로292번길을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안양경찰서 쪽은 만안초등학교, 시흥군청 쪽은 안양초등학교로 나뉘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시장과 중앙성당 사이의 장내로가 또 하나의 경계였다고 한다.

뚜렷한 역사를 지닌 안양초등학교에서 분교로 전학 간다는 것은 억울하기도 하고 싫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만안초등학교가 분교였으니까 아무래도 분교는 좀 인정을 못 받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였는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만안초등학교 학구인 장내동에 사는데도 안양초등학교를 계속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안양초등학교 분교장으로 시작한 만안초등학교는 곧 만안초등학교로 인가를 받아 지금껏 성장해 오고 있다. 개교 62년, 역사는 짧지만, 어느 학교보다도 더 빛나는 학교로 자리 잡고 있다.

만안초등학교 건립 당시 학교 주변은 허허벌판으로 대부분 밭이었다. 학교 정문은 만안로 쪽으로 나 있었다. 현재의 자리로 교문을 옮긴 것은 1972년에 운동장 전면 구획정리를 하고 전면 울타리 조정을 하면서였다. 학교 남쪽으로는 수암천이 흘렀다. 평상시에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구멍이 뚫린 천공 강철판(아나방) 다리를 놓고 건너다녔다. 그러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수암천을 복개하고 도로를 만들었다. 그런데, 1977년 대홍수로 때 도로 아래를 흐르는 수암천의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복개되었던 것이 터지면서 집이 무너지고 인명피해도 있었다고 한다.

임정권은 안양초등학교에서 대부분의 학년을 보내고 졸업을 만안초등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만안초등학교에서 추억이나 기억은 많지 않다. 오히려 안양초등학교 등하교 때 논둑길을 따라 걸으며 메뚜기도 잡고 쫓드기도 파먹으며 다녔던 기억이 선명하다. 안양초등학교에서 중앙시장이나 안양역 쪽으로 가는 길은 모두 논이었다고 한다. 그때는 지금의 안양로가 없어서 논 사이로 난 길을 걸어 다녔다. 지금의 남부시장 자리도 논이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안양초등학교가 있는 곳이 빨간 언덕이었다고 한다. 그 붉은 황토에서 ‘쫓드기’라고 하는 까만 흙을 파먹고 다녔다. 빨간 흙 가운데 힘줄처럼 검은 줄이 있는데 그걸 파서 씹으면 쫓득쫓득하니까 쫓드기라고 했다는 것이다. 흙냄새가 나긴 했어도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으며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그때 어린이에게 점심으로 급식 제공이 있었다. 만안초등학교 뒤 빈 창고에 가마솥 2개를 걸고 옥수수죽을 끓이면 애들은 빈 통을 가지고 와서 급식을 타 먹었다. 3~4학년 때까지는 죽으로 급식을 받다가 5~6학년 때는 옥수수빵으로 급식을 받았다고 서동욱은 기억한다. 1회 졸업생 임정권은 빵 먹은 기억은 없고, 옥수수죽을 먹은 기억만 있다고



1966년 만안초등학교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교사는 본관 중앙현관과 오른쪽 건물이 가장 먼저 완공되고, 이어서 본관 왼쪽 건물이 완공되어 완전한 좌우대칭 형태를 갖추었다. 본관 왼쪽의 강당 겸용 교실을 신축한 후 두 건물 사이에 '구름다리'가 설치되어 통로로 이용했다고 한다. 본관은 1990년에 철거하고 신축하였다. 정문은 본관 오른쪽 현재 만안로 쪽으로 나 있고, 운동장 아래로 수암천이 흐르고 있다. 수암천은 1970년대 안양시 제2차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복개되었다.

한다. 서동욱이 빵을 급식으로 받을 때쯤에는 입정권은 졸업했을 테니까 기억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 가난한 집안 어린이들이 도시락을 싸갈 형편이 안 되니까 미군 부대에서 지원한 옥수수가루로 죽을 쑤어 급식 제공을 했다고 한다. 1960년대 뼈저리게 가난했던 시절을 눈으로 보듯이 증언해 준다.

학생들을 동원해서 도로변에 코스모스 심고, 소나무에 붙어 있는 송충이 잡으러 다니고, 눈에 물이 없으니까 눈에 물 대고, 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고, 밭목에 거머리가 붙고,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청초한 하늘빛을 닮은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잠시 함께 걸어본다.

만안초등학교 4회 졸업생 권용준은 여주가 고향으로, 장남은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안양으로 유학을 왔다. 당시 양지말(현재 안양3동)에 고모가 살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안양으로 오게 된 것이다. 권용준은 1965년 5학년 말에 만안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동기들은 1961년 안양초등학교에 입학했다가 1962년에 만안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전학을 왔다.

그 시절 만안초등학교는 2층 건물 2개 동이 있었고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소위 '구름다리'가 있었으며, 운동장도 넓고 좋았다고 한다. 한 학급에 학생 수가 80명 정도였고 학년 당 대략 4학급이었다고 하니, 만안초등학교 학생 수가 2,00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기억한다.

1960년대 안양은 공업도시로 막 성장하던 시기였다. 직장을 안양에 잡은 부모님을 따라 고향을 등지고 이곳으로 온 학생들이 많았다. 공부하기 위해 유학 온 학생도 있지만, 부모님 직장 때문에 이사 온 학생이 대부분일 것이다. 여러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라 보니 성향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다. 지역 사투리를 쓰는 학생도 있었다. 씨름을 잘하던 권용준은 씨름대회도 출전하였다. 1960년대 만안초등학교에는 축구부·씨름부·육상부·탁구부 등 여러 운동부가 있었다. 만안초등학교 역사관에는 당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트로피와 상장 등 만안초등학교 옆을 흐르던 수암천은 수량이 많지 않아서 졸업생들은 수암천에서 놀았던 기억은 없다고 말하였다. 그 대신 학교 근처의 안양천에서 놀았던 기억은 가득하다. 그때는 안양천이 물이 맑아 어항 놓고 물고기 잡고 수영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 썰매도 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당시 소풍은 해마다 안양예술공원(유원지)으로 갔다고 한다. 그때는 비포장도로에다 예술공원 올라가는 길이 모두 포도밭이었다. 재 정비되지 않은 예술공원은 자연 그대로 모습이었다. 계곡에 물도 많이 흐르고 풀도 많았다. 그곳에서 천등별거숭이처럼 소풍을



만안초등학교 역사관에 전시된 각종 대회 수상 트로피 · 우승기 · 상패

즐겼던 그 많은 학생은 지금 모두 그 무엇이 되어 어느 하늘 아래에서 멋지게 늙어가고 있을 것이다. 만안초등학교를 빛내는 별들이 되었을 것이다.

만안초등학교 3회 졸업사진을 보면 모두 단체교복처럼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복처럼, 흰 카라에 검은 옷을 입고 있다. 교복은 아닌데, 마치 교복처럼 많은 학생이 한 벌씩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임정권도, 서동욱도, 권용준도 모두 이 옷에 대해 어렵풋하게나마 기억한다.

권용준 : 나도 이 옷 있는데. 이 옷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고모가 방직공장에 있으니까는 직접 만들어서 나를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나도 이 옷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방직공장이 있다 보니까 재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재단하고 좀 솜씨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서 준 것 같아요. 나도 이게 있거든요. 우리 고모가 저 금성방직 다니셨는데 내 동생하고 나하고 이 옷 두 벌 해다 줬어요.

1960년대는 중학교 입시제도가 있었다.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다. 시험점수 1점 차이가 학생의 진로를 좌우하기에 입시 경쟁이 치열했다. 만안초등학교 『학사보고철』에 의하면, 1967년도 중학교 진학을 한 학생은 남자 150명, 여학생 104명이었다. 1968년도 진학자 수

는 남자 198명, 여자 145명이었고 진학하지 않은 졸업생은 남자 18명, 여자 45명이었다. 1969년도에는 남자 65명, 여자 131명 총 446명이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명문교에 진학하였다.

시험제도로 인해 예민해 있던 당시 복수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1964년 12월 7일 시행된 서울시 전기 중학 필답고사 정답 발표 이후 이른바 ‘무즙 파동’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국어, 산수(수학), 사회, 자연(과학), 과목 모두 합쳐 20개의 문제에서 복수정답이 나왔는데 특히 자연(과학)과목 18번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참고로 당시 문제는 모두 배점이 1점이었지만, 명문교를 목표로 하는 입시에서는 1점의 차이도 합격 여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기에 예민했다. 무엇보다 무즙 파동이 더욱 심해졌던 까닭은 해당 문항의 의미를 엄밀히 따져보면 정답보다 오히려 다른 답이 더 정답으로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1965년 3월 3일 해당 중학교가 내린 입학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



만안초등학교 준공식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학생들(1961년, 경기도청 제공)
1960년대 흰색 카라의 검은색 상의는 사복과 구별되는 성격의 옷이었다고 졸업생들은 기억한다.



만안초등학교 씨름부(1970년대, 만안초등학교 제공)



만안초등학교 탁구부(1970년대, 만안초등학교 제공)



안양유원지 소풍(1960년대, 만안초등학교 제공)



안양유원지 소풍 기념사진(1960년대, 최병렬 제공)



1960년대 만안초등학교 운동회 공굴리기(만안초등학교 제공)





1970년대 만안초등학교 운동회 매스게임(만안초등학교 제공)



만안초등학교 통학로(1970년대, 만안초등학교 제공)



국기에 대한 경례(1970년대, 만안초등학교 제공)



만안초등학교 수업 시간(1970년대, 만안초등학교 제공)



만안초등학교 학생 신체검사(1970년대, 만안초등학교 제공)

홍수는 없었다.

만안초등학교도 담장이 완전히 파괴되고, 1층 30개 교실이 침수 피해를 보았다. 교실 바닥에 토사가 쌓이고 운동장은 저수지를 방불케 했다. 학교 놀이터의 기구들도 유실되고 파묻혔다. 만안초등학교 역사관에 보관된 빛바랜 사진첩에는 당시 처참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1977년 대홍수 당시 만안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이던 채광석과 윤승규는 지금도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채광석은 1977년에 충남 당진에서 부모를 따라 안양으로 올라왔는데, 고향에서 쌀가게를 하던 아버지가 만안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쌀가게를 차렸다고 한다. 이사 올 때 가지고 온 쌀이 가게에 잔뜩 쌓여 있었는데, 느닷없이 물난리를 만났다. 만안초등학교 담장이 견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물살에 지탱하지 못하고 맥없이 넘어가자, 그 많은 물이 순식간에 채광석네 집으로 밀려들었다. 쌀가마니며 가재도구며 모두 침수되었다. 채광석과 윤승규는 어디선가 떠내려온 시신이 학교 뒤쪽에 있던 큰 향나무에 걸려 있는 장면과, 거친 물살에 휩쓸려 안양대교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도 직접 보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여전히 생생하게 증언할 정도로 안양 대홍수가 강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밤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 없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는 완전히 침수되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날마다 청소하느라 힘들었다. 그때는 집마다 재래식 인분통이 저장되어 있었다. 온통 물바다가 되자 공장폐수와 인분 더미가 밀려와 범벅이 되어 악취가 심했으며, 치위도 치위도 끝이 없었다고 한다. 수업 내용은 학교 청소였다. 만안초등학교는 그해 12월에 침수 피해를 완전히 복구했지만, 수마가 쓸고 간 상처는 깊었다.

안양 대홍수 소식은 서해의 선감초등학교에도 전해졌다. 인천에서 30여 km 떨어진 경기도 용진군 대부분의 선감초등학교는 당시 교장을 포함하여 교사가 7명, 전교생이 99명인 작은 학교였다. 이 중 10명의 학생은 본교가 있는 선감도에서 2km 떨어진 불도분교에서 다니고, 다시 불도분교에서 1km 떨어진 탄도분교에는 23명의 학생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 세 개의 섬을 이어줄 뱃길이 없어, 본교와 두 분교 학생들은 같은 학교 학생이면서도 서로 만날 수 없었다.

이같이 딱한 사정이 만안초등학교에 알려진 것은 1977년 4월, 만안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선감초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한 교사에 의해서였다. 만안초등학교 학생들은 회의를 열어 선감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뱃들을 돕기로 하였다. 1차로 세 섬의 어린이



수해로 무너져 버린 만안초등학교 담장(1977년, 만안초등학교 제공)



수해복구에 나선 만안초등학교 학생들(1977년, 만안초등학교 제공)



선감초등학교에 전마선을 전달한 만안초등학교 미담 기사(『조선일보』, 1977년 6월 14일)

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전마선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다. 한순간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30여만 원이 모였다. 이 중 20만 원으로 전마선을 구입하여 6월에 선감초등학교로 전달하였다. 전마선은 큰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를 다니며 연락하거나 짐을 나르는 작은 배로, 학생들이 섬을 왕래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다.

전마선을 전해 받던 날, 선감초등학교 학생들은 배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만안초등학교 학생회장단을 둘러싸고 물에 있는筏들에게 우리의 고마움을 전해달라면서 즉석에서 전마선의 이름을 '만안호'라고 지었다. 선착장에서 서로 만나 기뻐하는 섬 친구들을 지켜본 만안초등학교 학생회장 최재영은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을 변치 말자고 했다. 돌아가면 눈비가 와도 걱정 없이 오갈 수 있도록 동력선을 마련해 보겠다고 다짐하였다.

전마선을 전해준 지 1개월 후, 1977년 7월 8일 안양의 대홍수로 인해 만안초등학교가 큰 수해를 입자 이 소식을 들은 선감도 학생들이 만안초등학교로 격려의 전보를 보내

水魔할 켜 廢墟에 落島友情의 꽃 활짝

우리도 돕겠다 西海仙甘어린이들, 安養萬安國校에 越려電報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보아도 20년째 70여명의 아이들
보./ 불 만의 어린이들의 생활에 대한 7월의 사진이다.

失意에 찬 교실에 환호성 빛속 너도나도 힘찬 삽질

안양시 서남면 안양초등학교 70여명의 아이들이
이제 20년째 70여명의 아이들 보./ 불 만의 어린이들의
생활에 대한 7월의 사진이다.

안양시 서남면 안양초등학교 70여명의 아이들이
이제 20년째 70여명의 아이들 보./ 불 만의 어린이들의
생활에 대한 7월의 사진이다.

안양시 서남면 안양초등학교 70여명의 아이들이
이제 20년째 70여명의 아이들 보./ 불 만의 어린이들의
생활에 대한 7월의 사진이다.

왔다. 선감초등학교 학생회장이 만안초등학교 학생회장 앞으로 보낸 이 전보는 마침 비를 맞으며 운동장 복구작업을 하던 20여 명의 학생에게 전달되었다. 황토물에 밀려온 책걸상이 어지럽게 흩어진 교실에서 전보를 읽은 학생들은 친구들의 위로에 힘입어 빗속에서도 힘차게 삽질을 했다고 한다. 서해의 외딴섬에 피었던 우정의 꽃이 수마가 휩쓸고 간 만안초등학교에서도 활짝 피어났다.

수해복구로 한창인 7월 20일 선감초등학교 학생들은 바지락을 캐서 마련한 수해 성금 2만 원을 만안초등학교에 보내왔다. 성금과 함께 보내온 선감초등학교 학생회장의 편지에는 “수해 복구작업에 용기를 내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외딴섬에서 수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바지락조개 따기를 벌여 또 성금이 모아지는 대로 직접 현지에 나가 돕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전마선을 마련해 준 보답으로 사랑의 손길은 계속 이어졌다. 이어 2만 5천 원의 성금을 보내왔으며 만안초등학교 학생회장 최재영 앞으로 김수명의 격려 편지도 함께 배달되었다. 편지에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교생 99명이 바닷가에 나가 바지락을 주워 이 돈을 마련했어요. 조그만 정성이지만 학교가 빨리 복구되고 친구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수해복구를 돕고 싶지만 너무나 먼 거리여서 안타깝기만 하다. 하루속히 명랑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였다.

만안초등학교 학생회장은 선감초등학교에 전마선을 보낸 뒤 동력선으로 바꿔주기 위해 계속 모금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느닷없이 수해를 당한 학생들이 많아 당분간은 돈을 더 거둘 수가 없어 미안한데, 성금까지 받게 되어 낙도 친구들에게 더욱 미안하게 됐다고 소식을 듣고 취재하러 온 기자에게 소감을 밝혔다. 당시 외딴섬 어린이들과 만안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나눈 우정의 손길은, 매일경제신문·조선일보·경향신문 등에 자세히 보도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4. 힘차게 달려온 만안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에서 분리되어 개교한 만안초등학교는 계속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자 1972년에 학구 조정을 통해 안양서초등학교가 분리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만안초등학교 학구는 북부동(현재 안양2동), 중앙동(현재 안양1동), 박달리(현재 박달동), 신안양3리(현재 충훈동)로 줄어들었다. 이어서 1981년에는 석수초등학교가 분리하였고, 1983년에는 박달초등학교가 분리하였다.

만안초등학교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축과 신축공사로 학교의 품이 넓어졌으며, 학생들은 더욱 쾌적하게 수업할 수 있었다. 1992년 8월 12일에는 방송실이 설치되었다. 1993년 3월 18일은 본관 8개 교실이 개축 준공되었다. 과학실 실험대 6조를 설치했다. 12월 10일 노후 된 책상 350조를 교체했다. 문명의 시대에 발맞추어 컴퓨터 31대를 설치했다. 교육용 컴퓨터 26대를 구매 했으며, 9월 25일 행정용 컴퓨터 9대를 구매했다. 12월 13일에는 급식소 설치 공사를 했고, 12월 20일 VTR 28대를 구매했다. 이렇듯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만안초등학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향해 무한한 변화를 거듭했다. 1990년대 만안초등학교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발달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했고 새로움을 추구하였다. 10월 5일 동관 3층 컴퓨터실을 개관했고, 각 교실에는 에어컨 설치를 하였다. 60년대는 생각도 꿈도 꿀 수 없던 일이다. 더워도 참고, 추워도 발을 동동거리며 참아야 했던 것이 문명에 발맞추어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2월 15일 만안초등학교 제50회 졸업식이 있었다. 만안초등학교가 어느새 50살이라는 나이를 먹었다. 50년 동안 만안초등학교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변화해 왔다. 첨단기술 문명에 발맞추어 나날이 새로움을 거듭하였다. 1962년 개교 당시 10개 교실밖에 없던, 작고 초라했던 학교가 증축되고 개축되고 새로 지어지면서 새로운 문명에 발맞추어 함께 걸어오는 동안 어느새 50회가 되었다.

만안초등학교는 2024년 현재까지 2만 7,95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현재는 특수 4학급 포함해서 23학급으로 편성되어 400여 명의 학생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동안 만안초등학교는 끊임없이 변모해 왔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온통 허허벌판이었던 만안초등학교 주변이 지금은 발들여놓을 틈 없이 촘촘히 건축물로 둘러싸였다. 흰 저고리 검은 치마에 아기를 업고 입학식에 참여했던 어머니들, 군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개교기념 축사를 하던 군인들, 지금은 아련히 역사 속에 잠들었다.



만안초등학교 역사관



만안초등학교 역사관에 전시된 학교의 역사



옛날은 돌아오지 않는다. 진행형만 있을 뿐이다. 만안초등학교는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변천과 더불어 낡은 질서는 버리고 새로운 질서로 희망찬 꿈을 꾸는 교정으로 우뚝 서 있다. 꿈나무들이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빛나는 만안초등학교가 되었다. 만안초등



학교가 이렇듯 빛나게 자리 잡기까지는 1대부터 22대까지 만안초등학교를 위해 무한하게 애써온 교장선생님들과 교사님들, 그리고 재학생과 동문이 힘써 이바지한 사랑일 것이다.

제5장

안양 유아교육의 출발지, 안양유치원

김재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1. 안양 유아교육의 시작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심신 발달뿐 아니라 사회관계 형성 및 자아 개발을 돕는 유아교육기관이다.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둔 기관이지만 최근에는 교육뿐 아니라 돌봄의 차원에서도 대부분의 아동이 다니는 ‘필수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유치원은 소수의 아동만 다닐 수 있었던 경제적 여유를 상징하는 특정 집단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유치원이 등장하였지만, 일본인을 위한 기관이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 유치원은 1914년 개원한 이화학당의 이화유치원으로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유치원이다.¹ 당시 식민지 교육정책에서 유치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민족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이들이 사립 유치원을 설립·육성하였다. 그 결과 1921년 전국에 존재했던 47개 유치원 중 32개가 한국 어린이를 위한 곳이었다. 일제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유치원은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수호하며 민족교육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1956년, 안양 지역에는 ‘안양유치원’이 개원하여 안양 지역 최초의 유치원으로 유아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당시 안양은 경기도 시흥군에 속한 읍이었으며, 안양유치원은 현재 안양4동 중앙성당 경내에 있다. 개원 70주년을 앞둔 현재에도 안양유치원은 가톨릭 종교에 기초한 하느님 말씀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안양유치원과 안양중앙성당(이정범 제공)
왼쪽 놀이터 건물이 안양유치원이다.

2. 성당 마당에서 시작한 안양유치원

안양 최초의 유치원인 안양유치원은, 1956년 5월 4일 안양성당(현재 중앙성당) 부설 유치원으로 개원하였다.² 안양성당은 1954년 9월 하우현성당에서 분리되어, 유치원 개원 당시에도 아직 본당은 건립되지 않아 현재 안양가톨릭회관 자리의 목조건물을 임시 성전으로 사용하던 초창기 선교 시기였다.

안양성당은 유치원을 운영할 재정이 부족하고 준비 또한 전무한 상황이었으나, 열성적인 신자들의 헌신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안양유치원 설립은 안양 지역 유아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음화와 교육사업의 초석을 놓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초대 주임신부 구천우는 유치원 설립 동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안양에 부임한 그해(1954년) 가을 판공 시기였다. 최말지나 자매가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 왔다. 안양 읍내에 유치원이 한 군데도 없으므로 성당에서 아이들을 모아 유치원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보람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본당에 유치원을 설립할 재정이 없으니 말지나가 알아서 전교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라고 말했다. 사실 번듯한 성당도 없는 본당 형편³으로는 유치원은 사치가 아닌가 싶어 나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공소 방문을 마치고 본당에 돌아오니 정말 최말지나 자매가 성당 마당에 50~60명이나 뒹직한 동네 아이들을 모아 놓고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알고 보니 유치원 흥내를 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된 마당에야 만류할 수도 없는 일이라, 부랴부랴 미끄럼틀 한 대를 성당 마당에 들여놓고 교실은 성당 안을 가운데에 휘장을 치고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안양유치원은 인가도 없이 시작했다.

〈『천주교 장내동교회사』, 1989〉

유치원을 태동시킨 최순금(말지나)은 과거 수녀회에 입회하여 수도생활을 하였고, 수녀 시절에 유치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그 무렵 그는 안양성당에서 주일학교와 예비자 교리교육에 협력하고 있었다. 유치원은 많은 투자가 필요했지만, 간접 전교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기왕에 시작된 일인 만큼 성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하여, 안양일번가에 있던 당시 안양경찰서의 철거된 담장 벽돌을 옮겨다가 보리밭 한가운데였던 현재 전진상복지관(구 근로자회관) 뒤편에 유치원 원사를 신축하였다.



안양성당 초창기 모습(1950년대, 중앙성당 제공)

성당 사목회 총회장은 수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사 오고, 관계 당국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3일 만에 인가가 나서 ‘안양유치원’이란 이름으로 정식 개원하게 되었다. 유치원 원장은 주임신부가 맡았고, 1학급을 운영하였는데 원감을 포함하여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3명이었다. 주임신부의 회고와 중앙성당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 어려운 현실이었음에도 유치원의 설립은 다양한 사목활동을 펼쳤던 성당의 전교 방법의 하나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안양 지역 유아교육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안양유치원은 현재까지 가톨릭 신앙에 기초하여 유아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1956년 안양유치원이 작성한 「유치원 설립인가신청서」에는 설립 목적, 명칭, 위치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교원 정원표에는 1956년도 교사 현황이 보모 2명 조수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채용 예정 교원 2명(최순금, 김보옥)의 이력이 첨부되어 있다.

谷教庶事...
 安養以推開設立認用申請の件
 前題ニ件ケ南ハキニ養童育養里在天主教育養最
 會神又具天祐로우러別紙ト如市請イ有カ是ト
 本團ニ管内最初唯一の養童保育機關イ成ルことニ
 幾度モ言盡カ面州長ハ雖亦認用許可支障イ無ク
 こと思料ト云キ必要ナリト認定ハスニ認可セ
 ず事云キ 養童育養里 認用
 京武道知事 養童育養里
 安養教育區教育



98 683

안양유치원 설립인가신청 문서(국가기록원 제공)
 안양유치원에서 제출한 신청 서류로 작성일은 단기 4289년 4월 21일(1956년 4월 21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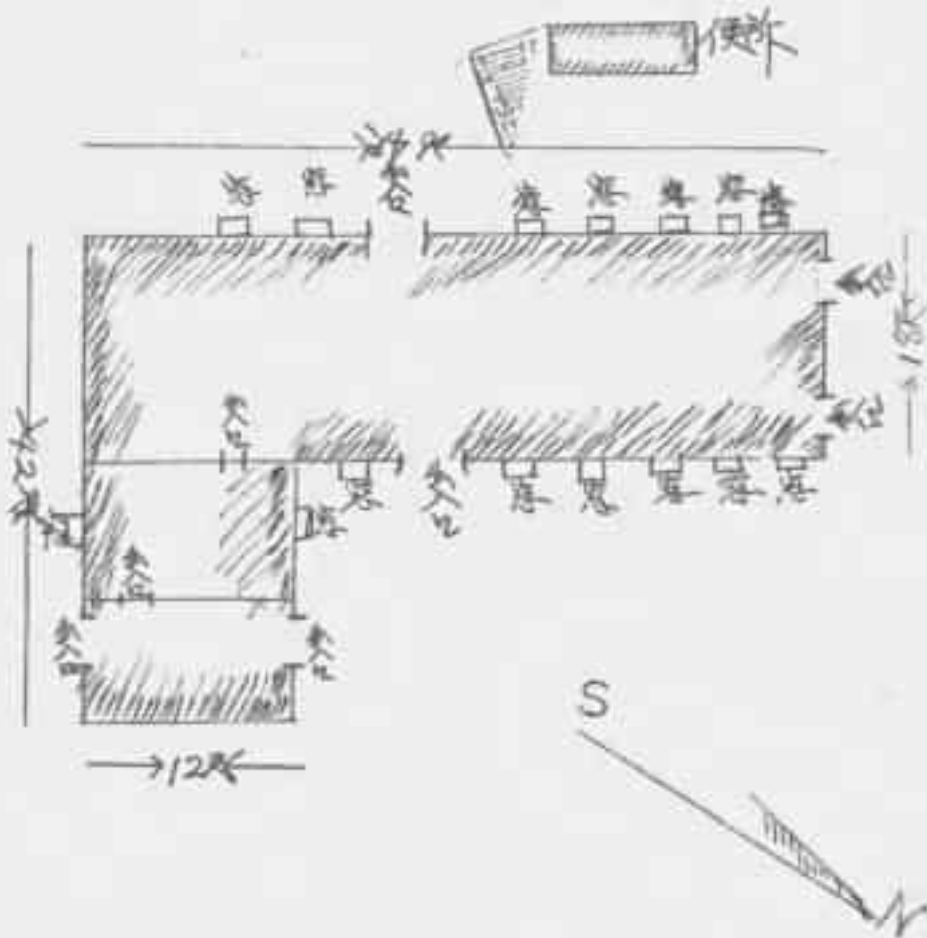


유치원 설립인가신청서(「안양유치원 설립인가신청의 건」, 국가기록원 제공)

구분	품명	수량	비고
1	책	10	
2	종이	50	
3	연필	20	
4	색연필	10	
5	가위	1	
6	물감	1	
7	색종이	1	
8	가위	1	
9	물감	1	
10	색종이	1	
합계		114	

설비 및 비품조사서(「안양유치원 설립인가신청의 건」, 국가기록원 제공)
주임신부 구천우 소유인 비품을 이동 보육을 위해 사용할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團舍平面略圖



112
No. 69A

안양유치원 평면도(『안양유치원 설립인가신청의 건』, 국가기록원 제공)

〈표 1〉 안양유치원 연혁

일자	내용	입학·졸업	졸업생수	졸업생합계
1956년 5월 4일	안양유치원 설립 인가(원장 : 주임신부)	1회 입학(40명)		
1957년 2월		1회 졸업	40명	40명
1961년 3월 31일	유치원 사정으로 폐원	5회 졸업	45명	204명
1963년 3월 14일	유치원 재인가	6회 입학(67명)		
1964년 2월		6회 졸업	67명	271명
1966년 2월	유치원 원감(평신도→수녀)	8회 졸업	82명	433명
1979년 2월	3학급 증반 승인	21회 졸업	86명	1,636명
1982년 2월	모범유치원 표창	24회 졸업	94명	1,875명
1985년 2월	유치원 버스 구입 4학급 증반 승인	27회 졸업	153명	2,210명
1988년 2월	5학급 증반 승인 모범유치원 표창	30회 졸업	171명	2,647명
1992년 2월	수원교구유치재단 설립자 명의 변경(천주교 수원교구 법인 유치원으로 주교님 부임 변경 시 설립자 변경)	34회 졸업	140명	3,278명
1995년 2월	유치원 원장(주임신부→수녀)	37회 졸업	153명	3,689명
1999년 2월	건물 철거 시작	41회 졸업	66명	3,982명
1999년 11월	건물 신축 시작			
2000년 12월	신축 건물로 이전(5학급 : 190명 인가)			
2008년 2월	1학급 증설(6학급 : 198명)	50회 졸업	53명	4,564명
2008년 12월	경기도 선정 '운영우수교' ⁵			
2010년 2월 18일	종일반 1학급 인가 (1월 7일 : 20명) 놀이터 리모델링 공사(9월)	52회 졸업	51명	4,658명
2013년 3월	교육과정 6개 반, 방과후과정 2개 반 운영			
2018년 2월 19일		60회 졸업	41명	5,046명
2018년 3월 2일	놀이터 이전 재설치 공사			
2020년 2월 18일		62회 졸업	47명	5,139명
2020년 3월	교육과정 5개 반, 방과후과정 2개 반 운영			
2021년 2월 16일		63회 졸업	25명	5,164명
2021년 3월	교육과정 6개 반, 방과후과정 4개 반 운영			
2022년 2월 16일		64회 졸업	32명	5,196명
2022년 3월	교육과정 6개 반, 방과후과정 6개 반 운영			
2023년 2월 17일		65회 졸업	22명	5,303명*
2024년 3월 1일	교육과정 6개 반, 방과후과정 6개 반 운영			

자료 : 안양유치원 제공.

비고 : 2023년 2월 졸업생 합계는 5,303명이나 1957년 1회 졸업생 수에서 2023년 2월 졸업생 수까지 더한 수는 5,218명으로 85명의 오차가 있음.

3. 개원 초기의 안양유치원

유치원 원사(園舍)도 없이 성당을 임시로 활용하여 유아들을 모아 유치원을 시작한 안양유치원은, 사후에 유치원 설립을 인가받았다. 1961년 3월 유치원 사정으로 폐원하여 1963년 3월 재개원할 때까지 2년간 원아모집을 중단한 공백기도 있었다.⁶ 1963년도에 안양유치원생이었던 최병렬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들 사이에서 안양 지역의 유일한 유치원이었던 안양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였다고 한다.

최병렬 : 제1호 유치원이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그 당시 소위 말해서 좀 잘 살던가 치맛바람이 좀 있던가 또 교육열이 좀 있던가 셋 중에 하나면은 유치원을 보내려고 했죠. 그 당시에.

당시 안양 지역에는 유치원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100여 명의 아동이 함께 다녔을 정도였다. 성당 부속유치원이었지만 신자와 비신자 구별 없이 입학할 수 있었다. 최병렬도 신자는 아니었으나 유치원에 다니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후 영세를 받게 되

초창기 안양유치원생들과 초대 주임신부 구천우(중앙성당 제공)





1981년 안양시 새마을유아원 설명회(안양시청 제공)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여준다.

었다고 하였다. 안양유치원은 현재 중앙성당 맞은편 가톨릭회관의 뒤쪽 운동장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 유치원에 다닐 수 있었던 아동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유치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교육열이 높은 일부 계층만이 유치원 등록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전후 출생률 증가로 아동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실제로 유치원에 다녔던 아동은 안양 전체 아동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한다. 이는 안양유치원이 유아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시대적 한계를 보여준다. 당시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 유치원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초기 유치원 교육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60년 안양유치원 제4회 졸업 기념(중앙성당 제공)



1972년 안양유치원 졸업식(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008.)

졸업앨범 속 1960년대 안양유치원



생일잔치



생일잔치



수업시간



수업시간



시흥향교 소풍



운동회에 초청된 안양유치원

안양을 유일의 유치원이었던 안양유치원은 그 상징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시흥군 초등학교 대항 운동회에 특별히 초청되었다. 운동회는 학교별로 순회하며 열린 큰 행사로, 이 해에는 안양초등학교에서 열렸다.

1964년 안양유치원 졸업앨범(최병렬 제공)

4. 안양유치원의 현재

안양유치원은 신부님과 수녀님이 있는 유치원이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다니는 유치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한 곳으로 기억된다.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교육과 인성교육, 몬테소리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⁷

안양유치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가톨릭 종교가 지닌 영성적 요소가 아이들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치원 졸업생인 명성연의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명성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형과 동생 모두 안양유치원 졸업생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이사로 인해 원래 다니던 유치원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그 유치원이 폐원하면서 안양유치원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입학 기회를 얻어 안양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3년 동안의 유치원 생활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가톨릭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유치원 경험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호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명성연은 수녀님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인성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의 자녀도 안양유치원에 보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졸업생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지인과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으며, 이러한 입소문은 안양유치원의 홍보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23 수원교구 통계에 따르면 안양유치원은 119명이 재원 중이며, 그 중 가톨릭 신자는 34명, 비신자는 85명이다. 수도자 1명을 포함한 교사는 17명으로, 신자가 10명이고 비신자가 6명이다. 유치원 알리미⁸에 공시된 2024년 현황은 86명의 아동이 재원 중이며, 교사는 14명이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안양유치원은 5세~7세반을 운영하며, 각 2학급씩 총 6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원 중인 학생은 5세 반 21명, 6세 반 27명, 7세 반 38명이며, 2024학년도 신입생은 35명이었다. 입학은 유치원 입소·입학시스템 홈페이지의 추첨으로 이루어진다. 유치원의 정원은 198명이다.

안양유치원의 원훈은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여는 아이들, 기도하는 어린이, 사랑하는 어린이, 예의 바른 어린이”로 가톨릭에 기반한 인성 중심 교육의 지향성을 담고 있다. 교육 방향은 행복하고 긍정적이며 호기심 많은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의 삼위일체가 존중하는 어린이 공동체의 형성이다.

안양유치원 교육철학은 자연에서 삶에 대한 인식과 감성의 발달로 자연 세계의 생태

에 대한 개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가톨릭 철학에 근거하여 자율적, 창의적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기반은 안양유치원의 가장 큰 장점과 연결할 수 있는데, 안양유치원은 원장 수녀님과 인성을 갖춘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부모님과 유아가 삼위일체가 되어 가정연계 학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식생활에 급식 가정과 유치원이 일원화 되도록 환경 녹색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톨릭 교리에 기반한 영성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이 이뤄진다. ‘행복한 어린이, 긍정적인 어린이, 호기심 많은 어린이’를 목표로 하여 유아들의 꿈과 가능성이 열리는 유치원, 학부모가 신뢰하며 모두가 감동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유치원을 교육 방향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몬테소리를 기반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며, 숲활동, 주제별 체험학습, 연령별 특색수업으로 구성된다. 신앙 수업은 수녀님이 직접 지도하며, 인성 수업은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1957년 2월 제1회 졸업생 31명을 배출한 이후 현재까지 가톨릭 수원교구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안양유치원은 종교를 기반으로 한 유치원으로 2026년 7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안양시가 시흥군에서 분리되기 이전부터 터를 잡고 안양 최초의 유치원이라는 전통을 오랜 기간 이어온 안양유치원은 안양 지역 유아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안양유치원을 졸업한 수천 명이 성장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대표적인 교육



안양유치원과 셔틀버스



부활절 종교 행사(안양유치원 제공)



성모성월 종교행사(안양유치원 제공)



숲놀이 체험학습(안양유치원 제공)



몬테소리 수업(안양유치원 제공)



안양유치원 입학식(안양유치원 제공)



안양유치원 졸업식(안양유치원 제공)

의 산실이였다. 70년간 지역사회 유아교육을 선도해 온 안양유치원은 유아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자연을 탐색하며 삶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형성하는 ‘모두가 행복한 유치원’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註

1. 다음백과(<https://100.daum.net>)참조.
2. 『중앙본당 60년사(1954-2014)』, 2015, 천주교 수원교구 디지털 기록관(<https://archive.casuwon.or.kr>)에서 안양유치원 부분을 정리하였다.
3. 안양 중앙성당은 1954년 목조성당으로 시작하였고, 1959년이 되어서 고딕식 건축물의 성당으로 완공되었다.
4. 「교구 본당의 역사를 따라-안양대리구 중앙본당」, 『가톨릭신문』, 2016년 12월 24일.
5. 「법계 안양 중앙본당 부설 유치원 경기도 선정 '운영우수교'에」, 『가톨릭신문』, 2008년 12월 21일.
6. 『천주교 장내동교회사』, 1989, 85쪽.
7. 안양유치원 현재와 관련한 내용은 안양유치원 원감선생님이 제공한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8.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유치원알리미)를 개통하여 유치원의 전반적인 주요 정보(유아, 교직원 현황, 회계 현황,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등)를 공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참조.

04

다채로운 삶의 경로 읽는 안양동의 도시 풍경

- 제1장 안양 최고(最古) 안양병원의 자리매김
- 제2장 어쩌다 주상복합, 명학시장 아파트
- 제3장 삼덕제지 공장 터에서 열리는 종이축제
- 제4장 '6동 밧데리 골목'을 아시나요
- 제5장 생태 힐링 공간을 꿈꾸는 수암천을 따라 걷다



제1장

안양 최고(最古) 안양병원의 자리매김

서종원 한국민속예술연구원 학술원장



1. 시 승격 이전 안양 지역의 의료 환경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안양시는 해방 직전까지 과천군과 시흥군에 속한 면 단위 지역이었으나, 1949년 읍으로, 1973년 시로 승격하며 본격적인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안양은 서울의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거주 기능까지 분담하는 인구 56만여 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 초반, 안양을 비롯한 서울 외곽 도시들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격한 흐름 속에서 빠르게 팽창하였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도로망 확충, 공장과 주택 건설, 인구 증가로 이어졌으며,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 승격을 앞둔 안양시는 주택난 해소, 공해 문제 대응, 유원지 개발 등 복지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3년 시 승격 당시 안양시의 보건 및 의료 체계 또한 점점이 필요한 분야로 대두되었으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대 안양의 도시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평범한 농촌 지역이었던 안양이 오늘날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단순히 제조시설이 생기고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늘어난 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¹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통·교육 시설 등 다양한 제반 사항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보건 및 의료시설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소는 물론이거니와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건 및



1970년대 안양5동 일대(이정범 제공)

의료시설에 관한 내용은 도시의 발전과 팽창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과 생활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다뤄져야 할 요소이다. 1970년대 초반의 신문 기사를 통해 당시의 안양 지역 실상은 물론, 의료 현황을 엿볼 수 있다.

독감(A영국 42~72형) 환자가 전국에 번지고 있다. 국민학교 어린이에게 번지고 있는 독감으로 20일 현재 결석하는 어린이가 늘어나 일부에서는 휴교를 건의하고 있다. (중략) 안양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국민학교 어린이 가운데 1천 5백 명의 환자가 발생, 19일에는 6백여 명이 결석했다. 시내 각 학교에서 발생한 독감환자는 안양국교 4천 7백 74명(63학급) 가운데 470명을 비롯해 동국교 1천 2백 91명 중 70명, 서국교 2천 2백 1명 중 220명, 남국교 1천 1백 57명 중 1백 10명, 만안국교 3천 8백 40명 중 3백 80명, 삼성국교 1천 9백 24명 중 1백 90명, 관양국교 6백 80명 중 60명으로 모두 1천 5백여 명이 독감에 걸려 한 학급당 평균 3명이 결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 시내 52개소의 병원, 의원을 비롯해 약방 등에는 하루 3천여 명의 독감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毒感, 全國서 猛威」, 『경향신문』, 1974년 3월 20일〉

1973년에 시로 승격되기는 했지만, 1950~1960년대와 1970년대의 안양 지역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여러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변변한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자원들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1964년도 『시흥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당시 안양 지역(안양읍)에 있었던 승용차의 대수는 41대(관용 3, 자가용 3, 영업용 35)에 불과했으며, 안양우편국에 가입된 전화는 306대(관공서 31, 사설 단체 39, 일반 236)였고, 문화와 관련된 전축식 라디오가 115대, 전기식 라디오 1,040대, 텔레비전은 42대뿐이었다. 안양읍에 근무하던 공무원 숫자는 읍장을 포함하여 26명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안양이 시흥군의 핵심 지역은 분명했으나, 도시로서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한 것을 앞서 소개한 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당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보건 및 의료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시흥군 의료 및 보건시설 현황과 함께 의료의사면허등록증 현황을 보면, 시흥군 전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안양 지역에만 남자 2명이 있었다. 그리고 한의사·조산원·간호원 면허는 시흥군 전체가 1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안양 지역에 8명(한의원 6, 조산원 2)이 있었다.

1970년대 안양병원 주변(이정범 제공)



〈표 1〉 시흥군 의료 및 보건시설 현황

(1964년 1월 1일 기준, 단위: 개)

구분	총수	안양읍	과천면	서면	남면	의왕면	수암면	군자면
	37	23	2	2	1	3	2	4
병·의원	계	11	1	1	1	1	1	2
	병원							
	의원	11	1			1		1
	지한병원			1			1	1
치과 의원	계	2						
	의료원	2						
	지한병원							
한의원	계	6	1	1		2	1	1
	의원	6				1		
	지한의원		1	1		1	1	1
의무실		1						
조산원개원		2						1
보건소		1						

자료: 『시흥군 제4회 통계연보』, 1964.

〈표 2〉 1966~1969년 시흥군 의료기관 분포 현황

(단위: 개)

연도	총수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무실	조산원	보건소
		계	병원 의지원	의원	계	의원	근지 의원	계	의원	근지 의원			
1966	44	21	17		3	3		12	10	2	2	5	
1967	46	19	19		3	3		15	13	2	3	5	1
1968	52	22	17	5	5	5		15	13	2	3	6	1
1969	54	23	18	5	5	5		16	13	3	3	6	1

자료: 『시흥군 제10회 통계연보』, 1970.

이와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지긴 했지만, 1960년대 후반 역시 1964년에 비해 월등히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1966년~1969년의 시흥군 전체 의료기관 분포 현황에 따르면, 1969년 당시 안양 지역에는 병·의원이 17개소, 치과의원이 5개소, 한의원이 10개소, 조산원 3개소, 보건소 1개소가 운영 중이었다. 1969년도 안양을 포함한 시흥군 전체 지역에 거주했던 인구가 15만 4,327명(안양 지역 7만 6,277명)임을 감안한다면 의료 및 보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교통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관계로 병원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 장내동에 문을 연 안양의원

안양시로 승격될 무렵인 1970년대 초에 이르면 의료시설의 증가 폭이 이전에 비해 커지게 된다. 특히 시로 승격이 된 1973년에 들어서면서 31개(1972년)에 불과했던 의료시설이 42개(1973년), 44개(1974년)로 늘어난다. 병·의원의 경우는 12개였던 것이 16개(1973년), 17개(1974년)로 증가하게 된다.²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매우 적은 편이었다. 1974년 안양시 병·의원 현황을 보면, 병원(2개)보다 의원(15개)이 훨씬 더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의료 환경은 시 승격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1966년 황영희·이상택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사진
(안양샘병원 제공)

1950년 이전 안양읍 관내에는 현 안양일번가 일대에 개원한 ‘삼성의원(이형래 원장)’과 ‘회생의원(이쌍용 원장)’이 있었다. 6·25전쟁이 지나고 현 롯데시네마 안양일번가점 자리에서 개원한 중앙의원(조진상 원장)을 비롯하여 7~8곳의 의원이 개원하였다고 한다.³

1972년 7월 1일, 안양읍에 ‘안양병원’과 ‘안양기독병원(이진범 원장)’이 병원급으로 처음 문을 열었고, 12월 1일에는 ‘서울병원(정규숙 원장)’이 개원하였다.⁴ 그러나 안양기독병원은 개원한 지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황영희·이상택 부부가 설립한 안양병원은 ‘안양샘병원’의 전신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안양병원은 1972년에 개원했지만, 황영희·이상택 부부가 안양 지역에 의료시설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의사로서 진료를 시작한 것은 1967년의 일이다. 부부는 안양 지역에 작은 규모의 ‘안양의원’을 개원하여 안양병원을 거쳐, 안양샘병원이라는 종합병원으로 발전시켰다. 안양 지역에서 5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셈인데, 그런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두 사람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동기생으로 만나 1967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에 안양의원을 개원하였다. 안양과 특별한 연고가 없던 이들이 이 지역에 의원을 개원하게

된 데에는 이상택의 군복무 경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꿈꾸던 유학을 포기하고, 1966년부터 최전방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1년여간 군생활을 하던 중, 이상택은 당시 안양에 위치한 제1군 부대 탄약대대로 전보되었고, 1967년 아내 황영희가 부산에서 안양으로 이주하였다. 이상택은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었던 관계로 안양위원의 개원 준비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부부가 상의 끝에 의원의 문을 열었지만, 그의 역할은 주로 야간에 부인을 도와 환자를 돌보는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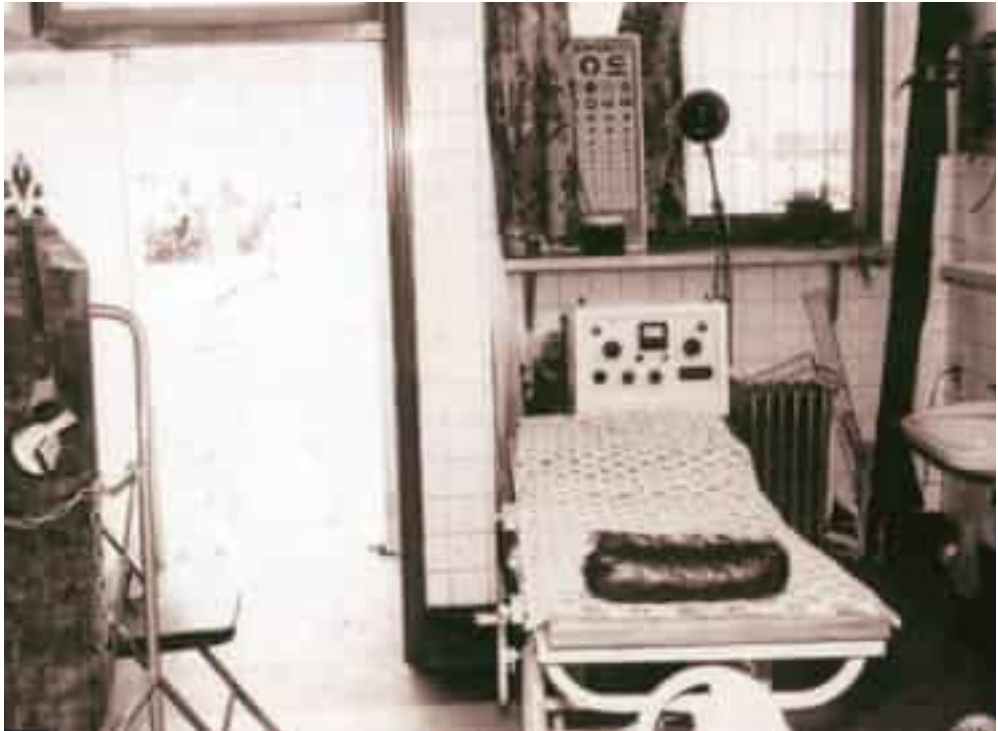
안양위원이 처음 문을 열 당시만 해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상택의 회고록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에는 개원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 당시의 사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안양의원’이 들어선 곳은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장내동(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이었다. 당시는 안양이 시로 독립하지 못한 곳으로 시흥군의 한 읍에 해당하였다. 당시 개인 의원은 신고제였는데 나는 군복무 중인 관계로 부인인 황영희 씨의 이름으로 의원을 등록했다. 간판은 아내가 직접 써서 달았으며, 병원 입구에 설치한 나무 입간판도 아내가 작성했다. 병원에는 방이 네 개 있었다. 하나는 부부 의사가 사용하고 또 하나는 간호사가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입원실로 사용했다. 나는 내과와 소아과를 맡았고 아내는 산부인과를 맡아 진료했다. 낮에는 군에서 군의관으로 장병들을 돌보고 퇴근 후 병원에 와서 야간 진료를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병원은 창립 초기부터 24시간 상시 진료 체제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상택,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 창초문예사, 2023, 162~164쪽〉



장내동 안양위원을 배경으로 황영희 · 이상택의 이들을 안고 서 있는 간호사(안양샘병원 제공)



장내동 안양의원 당시 진료실(안양샘병원 제공)

황영희·이상택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탓에, 의원 개설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손수 해결하고 준비해야 했다. 의료 집기와 진찰대는 물론, 약장 또한 직접 제작하였으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만 했다. 초창기에 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두 사람이 진료를 이어간 것은 경제적인 사정도 한몫하였다.

1967년에 안양의학원이 개원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의원을 찾기 시작하였다. 안양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인 과천·시흥·안산·군포·의왕 지역 그리고 수원에서까지 환자들이 내원하였다. 해당 지역에도 병원이 있었지만 젊은 부부 의사가 사랑과 헌신으로 환자를 진료한다는 소문이 난 덕에 연일 환자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안양의원 개원 초창기, 부부는 병원을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왕진을 다녔다. 밤이 되면 안양 인근 지역은 물론, 때로는 비교적 먼 거리인 대부도까지도 다녀왔다. 한밤중에도 왕진 요청이 오면 왕진 가방을 들고 먼 길을 나서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거나 가정집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려 한다는 연락이



안양의원 진료실(안양샘병원 제공)

오면 외면할 수가 없었다. 당시는 의료시설이 많지 않았던 시기였던 만큼, 병원 내에서도 돌봐야 하는 환자들이 많아 왕진을 다니는 일이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고통 중에 의사의 손길이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외면할 수 없었다.⁵

의사 부부를 더욱 안타깝게 했던 것은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보낸 부분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병원을 찾아오지 못하고 집에서 출산하다 산모와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산부인과를 담당했던 황영희는 그런 상황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돌이켜보면 마음이 무척 아프다고 하였다.

이상택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절이었기에 낮에는 부대 안에서 군의관으로서 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는 잠을 줄여가며 환자를 만났다. 황영희는 임신 중에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왕진을 다녀야 했다. 두 사람은 바쁜 진료 활동 속에서도 무의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초창기 안양의원은 소아과와 내과 그리고 산부인과로 나뉘어 있었다. 이상택이 소아과와 내과를 담당했으며, 황영희는 산부인과를 전담하였다. 그리고 부부를 도와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모두 네 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던 탓에 어려움이 많았다. 남부시

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1970년대에 적지 않은 임산부들이 안양의원에서 출산하였는데, 워낙 친절하고 진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퍼져 출산을 앞둔 여성들 상당수가 이 의원을 찾았다고 한다.⁶

3. 안양병원의 개원 과정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안양의원은 지역의 의료시설로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비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환자를 진료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황영희·이상택 부부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였다. 부부는 수도권 팽창으로 안양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주목하며, 규모 있는 의료시설의 필요성에 서로가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으로 인해 자신들의 고민과 해결책을 과감하게 해소하거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미비한 의료시설과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다른 지역의 의료시설로 보내야 하는 부분이었다. 제대로 된 의료 환경을 갖춰놓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서울 등의 대도시로 보내지 않고 지역 내에서 진료했으면 하는 갈망을 개원 초창기부터 가지고 있었다.

안양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고민과 간절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회사 대표가 안양의원을 찾아왔다. 건설회사 대표는 부부를 사방이 환 트인 공터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도와줄 테니 여기에 좀 더 큰 병원을 짓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다. 건설회사 대표가 보여준 공터⁷는 한눈에 보아도 제법 규모가 있는 병원을 짓기에 적합한 부지였다. 이런 곳에 큰 병원을 지으면 좋겠지만 자신들의 형편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건설회사 대표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부부의 사정을 들은 건설회사 대표는 우선 땅만 매입하고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천천히 갚으면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안양에 애정이 있는 건설회사 대표의 도움으로, 안양 5동 613-8번지에 병원을 신축할 수 있었다. 신축한 병원은 시설을 갖추고 ‘안양병원’으로 개원하였다. 안양병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건설회사 대표는 고인이 된 정춘용이다.

정춘용 사장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병원 부지를 마련한 부부는 1972년 3월에 본격



안양5동 현재 위치에 신축한 안양병원(이정범 제공)

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병원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병원 주변을 정비하는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건축 당시 안양병원 부지와 안양우체국 사이에 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비가 오면 인근이 온통 흙탕물로 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랑 길을 정상적인 도로로 만드는 한편, 병원으로 들어오는 큰길에는 복개 공사를 하였으며, 작은 도랑에는 토관을 묻고 자비로 아스팔트를 깔았다.⁸ 첫 삽을 뜬 지 3개월 뒤인 1972년 7월 1일에 부부가 그토록 염원하던 병원을 마주하게 된다. 대형 병원이 많은 현재 시각으로 보면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연건평 271평의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에 병상 25개를 갖춘 병원급 의료시설이 안양 지역에 문을 연 것이다.

의원과 병원은 모두 의료시설이긴 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시설의 규모와 종사자 수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 의원보다는 병원이 훨씬 규모가 큰 편이다. 하지만 지역의 의료시설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의원과 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일상적인 질병 및 부상만 진료를 할 수 있는 반면, 병원은 수술은 물론이거니와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검사와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안양병원 내부(1973년, 안양샘병원 제공)



안양병원 앰블런스 Ford M20(안양샘병원 제공)

그런 차원에서 1972년 여름에 개원한 안양병원은 안양 지역의 의료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분명하다. 당시 안양 지역에 10여 개 넘는 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의원의 주인인 황영희·이상택 부부가 가장 먼저 병원으로 확장 및 발전시킨 부분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안양이 시가 아닌 읍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안양 병원이 지역에 들어선 것은 대단한 이슈였다. 오늘날의 병원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당시로선 대도시의 병원과 겨루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의료시설과 환경을 갖출 수 있었다. 안양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도 거리가 먼 서울이나 수원외의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척 반가운 일이었다.

당시 안양병원은 진료과목이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였는데, 안양의원 시절보다 전문의가 늘어나면서 내원하는 환자가 더 많아져 북새통을 이루었다. 소규모 형태의 의원이 있었지만,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새로 생긴 안양병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한 부부 덕분에 안양 지역의 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된 셈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서남부 지역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허가해 준 병원으로 승격하게 된다.

지금은 효산의료문화재단 안양샘병원으로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1972년에 문을 연 안양병원은 이듬해인 1973년 안양이 시로 승격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료 시설로 자리매김하였다. 초대 병원장 이상택과 그의 부인 황영희는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발전과 팽창에 부응하는 병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원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안양 지역 의료시설 가운데 최초로, 치과를 비롯해 정형외과·마취과·영상의학과·신경외과 전문의를 영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974년 8월 15일에 치과 병원을 개설한 것은 당시로선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4. 안양병원의 지역 활동

안양병원 창립자 부부는 전인적(全人的) 치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이것은 안양의원 시절부터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의료진이 환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철학은 황영희·이상택 부부의 종교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두 귀하다는



1976년 10월 안양병원 1차 증축(안양생병원 제공)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안양병원은 민간 병원이었지만, 개원 이후 시립병원의 기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었던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응급한 상황이거나 심하게 몸이 아픈 경우 안양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군포 지역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 방문했던 사람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 왔다. 환자는 복강 내 출혈로 배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다. 개복을 해보니, 간암과 동맥 출혈이 확인되어 응급수술 후 서울 인제백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아직 의료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진료비를 받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다. 안타깝게도 당시 안양에는 행려병자도 많았고 길에 쓰러져 있는 환자들도 많았는데, 안양병원은 가장 적극적으로 이들을 진료하였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던 창립자 부부의 철학에서 비롯한 것이었다.⁹

1977년 7월 8일, 4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할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해 안양시의 많은 지역이 심각한 수해를 입었다. 당시 안양병원은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이 비상대기하면서 응급환자를 돌보았다. 의사들은 자신의 전공을 가리지 않고 병원으로 실려 오



새로 시설을 갖춘 수술실(1976년, 안양생병원 제공)

는 환자를 보살폈다. 폭우가 잦아진 다음 날 아침 어느 일간 신문에 안양병원 병원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아이들 셋을 구조하는 사진이 크게 실렸다고 한다. 조간신문을 읽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진을 보고 감동해서 저런 희생적인 의사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해로 인해 단전·단수가 되자, 안양 시민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안양병원으로 몰려들었다. 병원은 자가발전기가 있어서 그나마 우물물을 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영희·이상택 부부를 포함한 안양병원 의료진은 물을 길으러 온 주민들에게 간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렇듯 안양병원은 안양시에 시립병원이 없던 시절 재난을 겪은 시민들에게 시립병원 역할을 톡톡히 하였는데, 그때의 작은 봉사로 시민들은 안양병원에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병원이라는 신뢰를 얻게 되었다.¹⁰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안양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병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74년 8월에는 산재병원 및 자동차보험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76년에는 병원장 이상택이 안양시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다음 해인 1977년에는 의료보호 기관·의료보험 요양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7월에는 안양 지



안양병원 증축공사 기공식에 참석한 사람들(1988년, 안양샘병원 제공)

역 수해 복구를 위한 의료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78년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의 일환으로 병원 장학회를 설립하여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한편, 안양병원의 역사와 지역사회의 연관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양교도소와 관련된 부분이다.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하긴 어렵지만, 안양교도소 재소자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안양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였다.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또한 안양교도소 수감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안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1972년에 개원한 안양병원은 안양시의 발전과 팽창에 발맞추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973년 안양이 ‘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25개의 병상이었던 병원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1976년의 1차 증축을 통해 병상을 80개로 늘렸고, 1980년에는 2차 증축을 통해 6층 건물에 100개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어 1984년에 다시 증축하여 130개 병상을 확보하였다. 마취과·가정의학과·성형외과·피부비뇨기과·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 등의 진료과목을 꾸준히 확대하였고, 1991년에는 한방병원을 개원하였다.

안양병원은 더 나은 의료시설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창립자

인 황영희·이상택 부부는 과감한 투자와 함께 좋은 의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안양병원은 1990년에 종합병원으로 승격하였고, 1991년에는 경기도 지역 응급진료 지정병원과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아무런 연고도 없던 안양 지역에서 6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의료 활동을 이어온 황영희·이상택 부부의 의료 철학은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병원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해왔다. 경기도 의사회와 안양시 여의사회의 회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하였다.

안양병원은 1998년에 더욱 큰 규모의 안양샘병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양샘병원 (2024년, 이정범 제공)





효산의료재단 창립 및 안양병원 개원 26주년 기념식(199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랑의 진료소 개소(2002년, 안양샘병원 제공)

효산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공익성을 갖춘 의료 법인으로 도약하였다. 황영희·이상택 부부가 안양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안양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한 지 31년 만의 일이었다. 안양 최고(最古)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안양샘병원은 부부가 처음 개원한 안양의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에도 그러했듯이 지금까지도 안양시를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의료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안양과 인근 지역 지역의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돌봐온 두 사람은 의료재단 경영에서 물러나 기도와 명상 등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

註

1. 안양시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 이후부터이며 공업기능의 확대와 1963년 서면 박달리와 동면 안양리의 편입이 시발점이 되어 서울의 과대도시화기인 1960년대 후반부터 높은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다. 현저하게 두드러진 인구 증가율은 1975년 이후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은 1973년 시 승격과 1974년 전철 개통으로 인한 서울과의 접근성 증대로 인하며 또한 공업 기능이 최고로 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 구조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4쪽.)
2. 『제2회 안양시 통계연보』, 1975, 158쪽.
3. 『안양시의사회40년사』, 2014, 22쪽.
4. 『안양시의사회40년사』, 2014, 23쪽.
5. 이상택,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 창조문예사, 2023, 165~168쪽 정리.
6. 서울에서 출생하여 4살 때 안양으로 이주한 여성의 증언
7. 주변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난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공터는 본래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을 도살하던 도축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이상택,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 창조문예사, 2023, 183쪽.
9. 이상택,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 창조문예사, 2023, 182쪽.
10. 이상택,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 창조문예사, 2023, 197~199쪽.

제2장

어찌다 주상복합, 명학시장아파트

정아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석사수료



1. 시장과 아파트가 만나는 주상복합 공간

명학시장은 안양6동에 있는, 소매점·사무실·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주상복합 건물이다. 현재 시장의 정식명칭은 ‘육동시장’이다. 시장이 처음 개설할 당시는 명학시장이었으나, 1996년 시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면서 시장 이름도 육동시장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의 시장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안양6동에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명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도 주변 사람들은 명학시장이라 부른다. 건물 외벽에도 ‘명학시장’이라고 붙어 있다.

명학시장의 또 다른 이름은 ‘명학시장아파트’이다. 이는 건물의 구조에서 기인하는데, 1층은 다양한 점포들이 입점한 시장이고, 2층은 임대용 사무실, 3층과 4층은 주거용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가와 주거 공간을 결합한 형태인 상가아파트는 1960년대부터 서울 등에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소위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발전해 온 건축 양식으로, 명학시장아파트는 비교적 초기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안양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1970년대 초반까지 식료품 제조업·섬유업·제지업·화학업·의약업 등의 제조업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공장 이전은 노동자의 유입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안양은 1973년 7월 시로 승격하였다. 농촌보다 도시에서 먹고살기가 더 낫겠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하였다.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서울시의 이촌향도민이 증가하면서 서울 인근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주가 일어났고 안양도 그중 하나였다. 거주민의 증가로 인해, 주거지역이 확장되고 주택 수도 증가하였다. 이때 많이 건설된 주택



상가아파트 형태의 세운상가(1971년,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미당 제공)

형식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아파트가 등장하였다. 아래층에 상가가, 위층에는 주거 공간으로서 아파트가 결합한 형태이다. 주택의 부족을 해소하고 도심 상업의 기능을 충당하기 위한 복합 주거 유형이었다.¹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알려진 세운상가는 대표적인 초기의 상가아파트이다. 서울 종묘에서 필동 방향으로 50m 정도로 난 소개도로의 무허가 판자촌²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빈민들의 삶의 표정을 지우고, 근대 산업화의 표정으로 바꿔 놓은 건물이었다.

안양시에서도 상가아파트가 등장하였다. 안양2동 청원시장(1976년), 안양6동 명학시장(1980년), 호계동 호계시장(1980년) 등은 모두 상가형 시장 위에 주거 공간으로서 아파트가 지어진 형태이다. 반면에, 안양5동 장미아파트나 안양6동 삼익아파트처럼 1층에 점포를 배치한 형태의 아파트도 등장하였다. 형태는 다르지만, 1970년대에 지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어, 시기적 건축 특성을 반영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다.

명학시장아파트는 명학시장으로서 상가건물이 완공된 이후 시기인 1982년 3월 13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3층 1,258㎡와 4층 598.3㎡에 16평형과 18평형 3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983년 11월 18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상복합 형태



명학시장(2024년, 이정범 제공)

로 설계된 건물은 아니었다. 명학시장이 개설된 안양6동은 1975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안양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역에 속한다. 안양시는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안양6동을 안양6동과 안양7동으로 분동하였다. 이후에도 안양6동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985년에 안양6동을 다시 안양6동과 안양8동으로 분동하였다. 잠재적 수요층이 꾸준히 늘어나던 안양6동은 시장의 입지로서는 괜찮은 조건을 갖춘 곳이었을 뿐 아니라 주택 수요도 많은 곳이었다. 명학시장 위에 아파트를 지은 것은, 당시의 이러한 입지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2. 명학시장의 개설

명학시장은 1980년 8월에 개설이 허가되었으니 2024년 현재 45년의 역사를 간직한 시장이다. 그러나 이곳에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그보다 몇 년 전이다. 명학시장의 역사는 안양4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명학시장의 전사(前史)인 셈이다.

중앙시장 맞은편으로, 중앙성당과 고려석면(현재 벽산아파트) 사이 골목에 당시 안양



안양시청 단속반에 의해 철거되는 노점 시설(1977년 9월, 안양시청 제공)



안양4동 유치원 골목 노점 철거(1977년 9월, 안양시청 제공)
트럭에 올라 자신의 작편을 챙기는 노점상의 모습이 보인다.



지키려는 자와 없애려는 자의 싸움(1977년 9월, 안양시청 제공)



노점 철거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노점상들(1977년 9월, 안양시청 제공)

에서는 유명했던 노점 밀집 지역이 형성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 골목을 ‘성당골목’ 또는 ‘유치원골목’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골목에 언제부터 노점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1977년 7월 안양 지역을 휩쓸었던 수해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 가운데 일부가 이 골목에서 노점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문서나 구술을 통해 확인된다. 한 노점상의 구술에 의하면, 당시 200명 정도 되는 노점상이 있었다고 한다.

안양시는 1977년 9월 이 골목의 노점을 철거하였다. 노점상과 철거반의 밀고 밀리는 실랑이 끝에 노점이 철거되었지만,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은 노점상인들의 저항은 필사적이었다. 결국 노점상인들은 안양시로부터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받았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명학시장 부지였다.

명학시장 부지는 안양시의 3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안양시 소유 잡종지였다. 2,360㎡(약 713평) 규모의 땅을 200개로 나누어 새끼줄로 구획선을 그었는데, 하나의 크기가 3평 정도 되었다. 안양4동에서 이전한 노점상들은 이곳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안양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는지, 소액이라도 사용료를 받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상인을 찾을 수 없었다. 현재 명학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은 벌써 50년 지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

상인들은 흙바닥에 쇠말뚝을 박고서 파란색 비닐 천막을 치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자리 배정은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 정해졌다고 한다. 시장 더 앞으로 나 있던 골목 쪽으로는 채소·생선·과일 같은 손님이 자주 많이 찾는 품목이 자리하고 뒤편으로는 술과 음식을 파는 가게가 자리하는 식이었다.

상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시장을 공식적인 시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리더십이 강한 상인들 중심으로 일을 진행해 나갔다. 우선 상인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명학상사를 만들고 1978년 10월에 안양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지어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내용은 (주)명학상사가 안양시에 시장개설 허가를 요청하는 문서에 담겨 있다. 명학시장 사업계획서³⁾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요약하였다.

1977년 수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많이 생기므로 생계의 위협을 받아 안양4동 천주교 부지에 이재민이 모여 임시 시장을 형성, 생업을 이어오던 중 시장님의 따뜻한 배려를 받아 안양6동 434-3번지에 대지 2359.70 평방미터에 도시계획상 시장부지로 책정해 놓은 부지에 입주시켜 임시 시장으로 형성하여 오던 중 안양시로부터 동부지를 매입하여 현대식 시설을 갖춘 종합시장으로 육성시키려는 이때 건설이 시

급함에 따라 본회사는 동부지를 즉시 매입하여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완벽한 종합시장으로 개설하여 소비자 위주로 “상도덕 확립”과 “보다 친절하고” “보다 명랑하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저렴하게” “서로가 믿고 웃으며 사고파는 소비자의 시장으로” 지역사회에 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에 적극 공헌코저 심혈을倾注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관의 후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시장)시행승인신청」내용 중, 1979년, 안양시청 제공〉

변듯한 상가형 시장이 개설되면 상인들은 점포를 분양받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었지만, 돈이 필요하였다. 결국 돈 없는 상인들은 자신의 점포 자리, 소위 ‘딱지’를 웃돈 받고 팔았다. 당시 지인의 권유로 웃돈을 얹어 딱지를 샀던 한 상인은 딱지 하나에 1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는 2명의 기존 상인에게서 2자리씩 총 12평을 매입하였다. 기존 상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 터를 매입한 사람은 점포를 운영하여야 했다. 안양시에서 명학시장 부지 사용을 허락할 때, 영업을 안 하는 경우는 자리를 회수한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웃돈을 주고 딱지를 매입한 상인은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소꿉놀이하듯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명학시장을 짓는 동안 상인들은 현재 명학지구대 일대에서 한시적으로 장사하였다고 한다.

명학시장은 대지면적 2,359.70㎡(713평),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면적 7,285.45㎡(1,700평) 규모의 시장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갔다. 1979년 8월부터 약 1년 간 공사를 진행하고, 1980년 8월 23일 시장개설 허가를 받았다. 안양6동과 안양7동 주민의 상거래의 원활을 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3평형 264개, 5평형 99개, 총 363개 점포를 갖춘 명학시장이 개장하였다.

1979년 9월, 명학시장은 “초현대식(백화점식) 점포”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신문에 실린 광고는 명학시장을 안양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망 좋고 위치 좋은” 상업 공간으로 강조하며, 도시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부각하였다. 특히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 반월공업단지·군포·과천 등의 인근 산업·행정 거점과의 연결성, 그리고 약 50만 명에 이르는 유동 인구를 내세워 명학시장의 입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분양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양이다. 시장 개장을 앞두고서 잔여 점포 분양과 임대를 알리는 신문 광고를 낸 것이다. 지하층부터 3층까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명시하였다. 특이한 점은, 예식장·당구장·사무실 등으로 용도를 밝힌 3층은 증축 예정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준공검사서」에도 건축 연면적이 5,626.21㎡이며, 지하~2층까지 시공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명학시장 전경(201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즉, 명학시장은 2층 상가건물로 개장한 것이다. 점포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축 예산 부족으로 인해 3층이 미시공된 것으로 짐작된다. 3층 평면도에는 사무실만 보인다. 어쨌든 신문 광고에서 명학시장은 단순한 재래시장을 넘어, 당시 안양 시민들에게 ‘현대적인 소비 공간’으로 기능할 것을 예고하였다.

안양시와 ㈜명학상사 간 「명학시장 부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시장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현대식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어야 함을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1978년 당시 건축법은 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내화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장 건물은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로 간주되어, 철근콘크리트조와 같은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되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건축법에는 시장 건물이 반드시 2층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 당시의 도시계획·경제성·공간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2층 이상의 현대식 건물이 일반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허가권자의 행정지도와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었다(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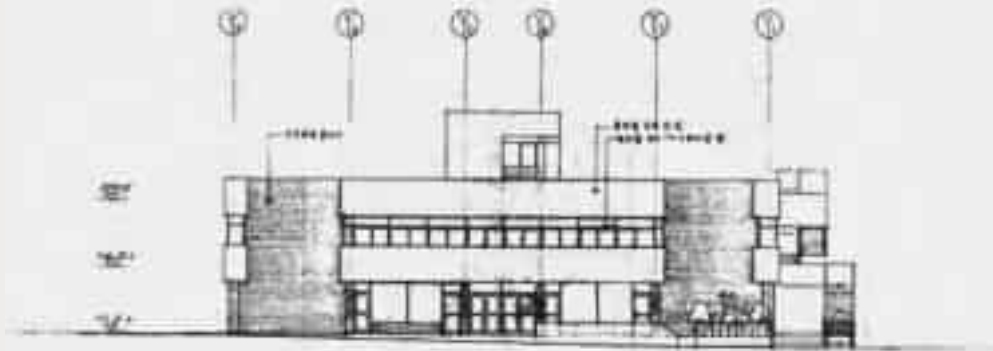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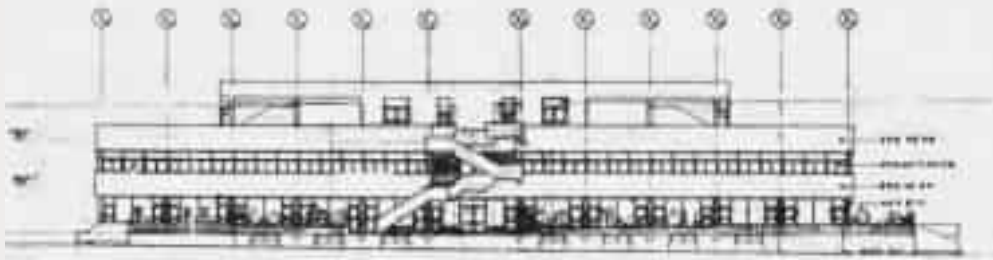
명학시장 분양을 홍보하는 신문 광고(『동아일보』, 1979년 9월 1일)

법 제6조). 이러한 제도적 배경 속에서 1970년대 후반 안양을 포함한 수도권 신흥도시 지역에는 2층 이상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갖춘 현대식 시장 건물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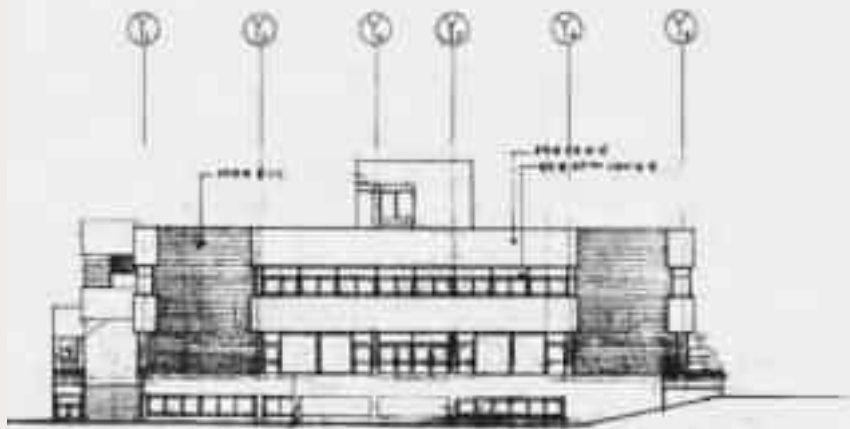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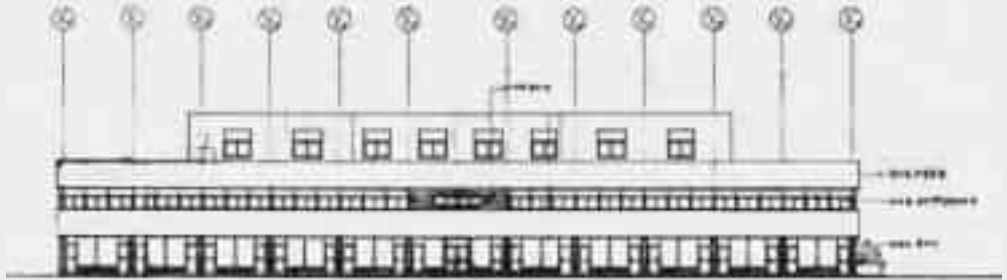
명학시장은 1991년에 매장면적 축소 변경 신고를 하고 매장 수를 363개에서 165개로 축소하였다.⁴ 기존 3층까지이던 것을 2층까지 시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개장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3층에 입점하는 점포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는 본 시장의 매장면적 5,430㎡를 보유하고 시장 형성에 가진 노력을 경주하여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전 면적의 형성은 도저히 불가능한 바, 입주상인이 없을뿐더러 소비자들은 안양 중심가로 집중하는 실정이라서 상가 운영의 난관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임으로, 매장면적 3,834㎡를 축소시켜 1층 1,596㎡이나마 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주주의 자문을 구한 바, 본 시장이 십여 년이 되도록 현재 형성되지 않고 있으니 그 문제의 축소는 앞으로 착실한 시장을 형성하여 운영하라는 것이므로 매장면적의 축소는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참석인 전원이 찬성 가결하다.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1991년 9월 17일 개최>



명학시장 개설 허가 문서 내 명학시장 배면도·우측면도(안양시청 제공)



명학시장 개설 허가 문서 내 명학시장 정면도 · 좌측면도(안양시청 제공)

안양시청

로

시장개설허가증

1. 시장명칭 : 명학시장
2. 소재지 : 안양시 안양동 494-3
3. 대지면적 : 명학삼거리 상대면적
4. 허가면적 : 1920. 8.
5. 취급상품 : 생활필수품, 농산물, 수산물, 의류, 선반류
6. 시장면적 : 대지: 2319[㎡] 건물: 5626[㎡] 주차: 263

위시장은 시장법제 3조 1항에 따라 등본이행경리제로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시장개설을
허가함.

구 조

- 가. 시장법제 3조 1항에 의한 시설도가 될 것
- 나.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적격표시제를 실시할 것
- 다. 시장이 별도로 필요한 행정시설을 엄할성이 없을 것
- 라. 시장개설에 관한 조항을 적수 관계 할 것
- 마. 위 각항을 이행치 않을시 시장업무를 겸수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980. 8.

안 양 시 청

0062

명학시장 개설 허가 문서 내 시장개설허가증(1980년 8월 4일, 안양시청 제공)



명학시장 개점 홍보 신문 광고(『동아일보』, 1980년 4월 5일)
점포 분양률이 높지 않았고, 상가는 2층까지만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임시주주총회 회의자료에 첨부된 명학시장 1층 품목 현황

품목순번	품목명	개소	품목순번	품목명	개소
1	슈퍼(식품류)	1	15	이불류·기타	1
2	식품-잡화점	1	16	의상실	2
3	쌀집(곡물류)	1	17	화장품류	2
4	신발류	1	18	지물포	1
5	생선류	2	19	철물·기물	1
6	육계(통닭류)	2	20	식기점	1
7	빵집	1	21	채소류	9
8	해산물	1	22	방앗간	2
9	건어물	2	23	가전제품 수리센터	1
10	간이음식점	3	24	전기·모터 수리센터	1
11	과일류	3	25	광고사	1
12	떡집	1	26	의류점	3
14	비디오	1		점포수	46

비고 : 1층 매장면적은 1,596㎡임.

3. 명학시장 터줏대감

명학시장에는 개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사를 지속하는 터줏대감들이 있다. ‘동아 문구팬시’, ‘광성그릇양품과일’ 사장을 비롯한 몇몇 점포 사장들이다. 「명학시장 부지 매매계약서」 제11조에 ‘을’은 시장현대화의 의무를 지고 시장현대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 2년 이내에 1층의 시설을 우선 착수하여야 하며 기존 상인을 인정하고 우선 수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기존 상인’은 안양4동에서 이주하여 장사하던 상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학시장 전면부의 도로변 점포에서 ‘광성’이라는 상호를 달고 채소를 파는 상인은 바로 그 ‘기존 상인’이다. ‘유치원 골목’에서 리어카를 세워두고 과일 장사를 하였다.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던 남편을 대신해서 어린 딸을 데리고 노점에서 과일을 팔았다. 장사는 처음이었다. ‘밥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닥치는 대로 시작한 게 장사였다. 식구들과 먹고 살아야 한다는 위급함으로, “그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중앙시장이 자리한 곳에서 리어카에 별이의 꿈을 실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천주교(성당) 있고 한 데”인 “유치원 골목” 양편 “길가에 다 할” 정도로 노점상이 즐비하였다. 당시 노점상 회원은 200여 명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만 해도 통행 차량이 많지 않아 사람들의 접근이 수월하였다. 중앙시장은 당시에 안양시에서 유일한 대형 시장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1977년 9월 안양시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노점이 철거되었다. 생계 수단을 잃게 된 노점상들은 안양시청으로 가서 “막 그냥 난리를 부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때 안양시는 사업이 완료된 3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유지로 일단 노점상들을 이주시켰다. 그곳이 현재 명학시장 자리이다.

안양6동으로 이전한 노점상 가운데는 입심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주로 요식업종 상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상인 대표로 나서서 안양시를 상대했다고 한다. 그리고 상인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명학상사를 설립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부지 매입, 상가 건설 및 분양 등을 추진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장사하는 동안 판매 품목을 여러 번 바꿨다. 취급할 수 있는 건 이것저것 모두 시도했다고 한다. 채소나 과일을 팔기 어려운 겨울에도 장사는 해야 했는데, 중앙시장 주변에서 장사하는 호떡 노점상에게 호떡 장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파란색 비닐 천막만 치고 겨울을 나기에는 계절이 너무 가혹하였다. 얼굴에 얼음이 배겨 빨갛게

부풀어서 약썩을 다려 겨우 치료하기도 했다. 홀로 둘 수 없어 데리고 나온 아이들도 새파랗게 차가워진 몸에 소금을 먹여 살렸다. 그렇게 계절을 돌며 호떡 장사를 하다가 채소 장사도 하고, 과일 장사도 하다가 이불 가게도 하고, 그릇 가게도 하고 양말도 팔았다.

명학시장에서 여전히 문을 열고 있는 문구점 사장은, 명학시장 부지로 노점상들이 이전한 후 그 상인에게 자리를 사서 장사를 시작한 상인이다. 그는 40여 년 전, 시장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의 풍경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곳은 '완전 흙바닥'이었다. 흙바닥 위에 하얀 가루와 빨간 가루로 선을 그었고, 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의 호수에 해당하는 공간이 생겼다. 그 당시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고 남은 땅을 관리사무소에서 권리금을 받고 판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란 안양4동 유치원 골목에서 장사하던 노점상들을 가리킨다. "저 밑(안양4동)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이리(명학시장 부지)로 올려 보낸다"는 것이었다. 200여 명의 노점상이 자리 이동하는 대목을 회고하며 그는 어수선했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대규모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은 결코 조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명학시장(2024년, 이정범 제공)





명학시장 건설 전 천막 점포 시절의 임시 시장(1970년대 후반, 이정범 제공)

처음엔 맨땅에 쇠말뚝을 박고 포장을 씌웠다. 이는 점포별로 자리를 배정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였다. 안양4동에서 이주한 노점상들에게 그렇게 자리가 할당된 후, 남은 자리에 다른 상인들을 입주시켰다. 문구점 대표는 당시 남편이 중동으로 파견된 상황이라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이 자리를 사서 장사를 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일단 자리를 사긴 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장사할 엄두나 나지 않아 그냥 둔 채로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관리사무실에서는 매입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회수한다고 하였다. 명색이 시장인데 군데군데 빈 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물품을 장만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문구점의 시작은 단출하였다. 파란 비닐 천막 점포 안에 사과 껌 하나를 놓고, 소량의 완구들을 담아 팔았다. 그러다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완구 종류를 하나씩 늘려갔다. 완구는 종로5가의 도매시장에서 떼어 왔다. 처음에는 문구보다는 장난감을 많이 팔았다. 보행기·유모차·유아용 변기·흔들의자·발육기·장난감 자동차 등 유아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아가방’ 같은 유아용품 브랜드 영업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문을 대신 받은 것이다.

그래서 문구점은 처음엔 장난감 가게로 시작하였다. 그러다 사람들이 문구류를 찾으니까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 문구를 들여놓았다. 여름에는 물놀이용품 튜브도 팔았다. 사과 껌으로 시작해, 진열장을 늘어놓을 만큼 물건을 많이 취급하게 되었다.

4. 명학시장의 부침(浮沈)

문구점 사장의 기억에 의하면, 1980년대 초반, 명학시장아파트는 빈집 없이 33세대 모두 거주하고 있었다. 그 무렵 아파트 거주자들이 1층 시장으로 내려오면 장사가 더 잘 된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1984~1985년 무렵에는 아직 분양되지 않았던 점포들도 상인들이 입점하기 시작하였다. 1층에는 방앗간·떡집·고추 방앗간·기름집 등이 들어왔고, 완구점도 하나가 더 있었다. 2층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왔다. 남성 양복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주문을 따 와서 운영하던 봉제공장, 전자 부품 공장 등이 있었다. 지하층에는 오토바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성 근로자들이 10여 명쯤 있었다고 한다. 1980년대 유명했던 두부 브랜드 ‘크로바’도 입점하였다. 이렇게 명학시장아파트는 상인, 소규모 공장, 아파트 입주자로 채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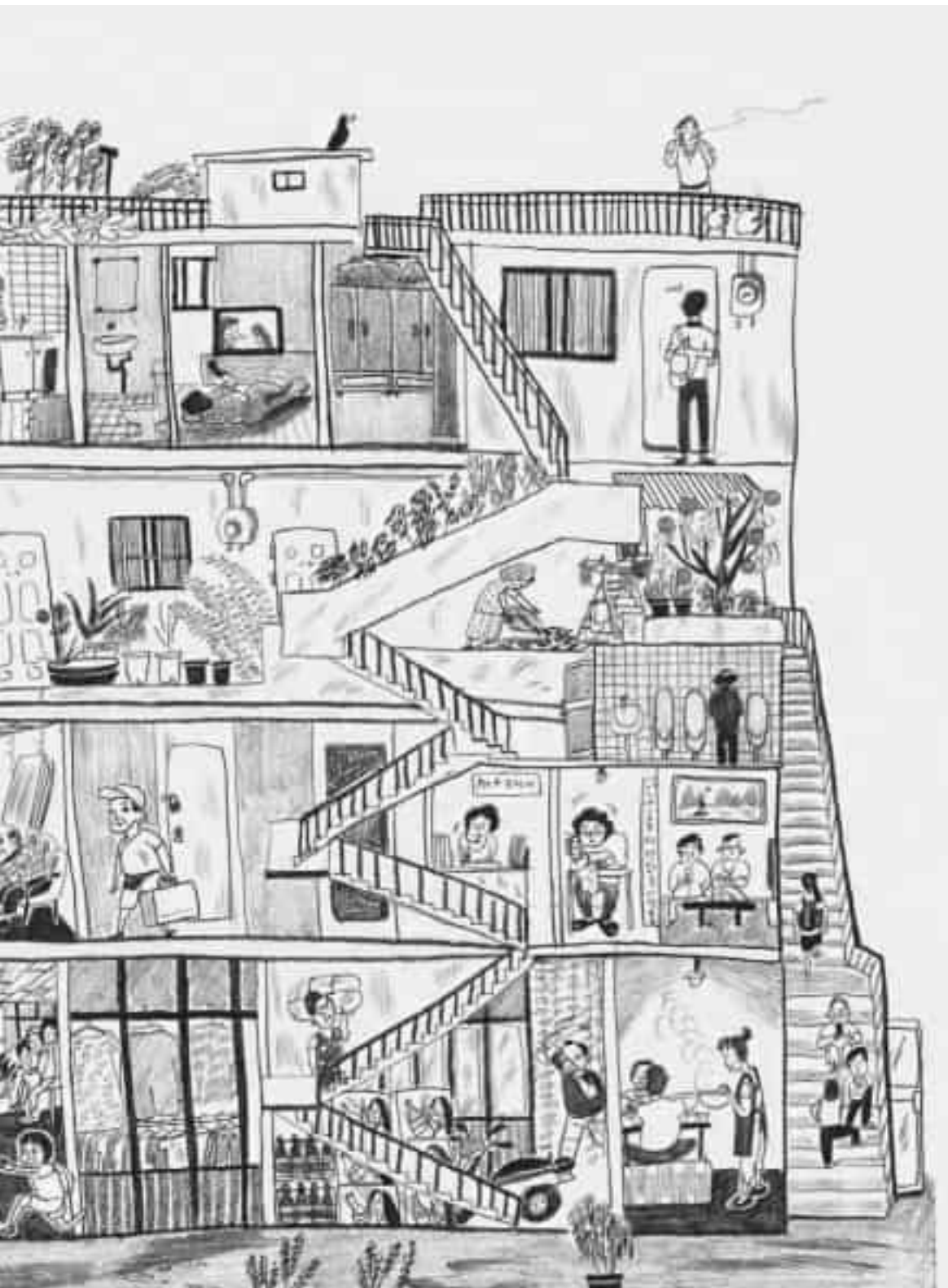
명학시장은 안양6동과 인근의 안양7동 주민들에게 중앙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이었다. 문구점 사장이 기억하기로, 명학시장 초창기에는 중앙시장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이었다고 한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안양에 제대로 된 백화점이 없었고, 남부시장도 지금만큼 규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학시장은 3평짜리 한 자리를 두 개 합쳐서 운영하는 점포가 많았는데도, 장사가 될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고 한다. 채소가게를 찾는 손님도 대부분 주변에서 오는 단골들이었다. 1980년대 초반 명학시장 주변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었다. 1984년 미주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주변으로 빌라가 생기고 부터는 손님이 더 늘었다. 명학역 근처 주택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그런데 명학시장 상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안양 중심 상권에 본백화점과 벽산쇼핑이 개점하면서 중앙시장 일대 중심 상권으로 수요가 몰렸을 것이고, 중심 상권에서 살짝 벗어난 동네 상권 명학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명학시장을 분양받아 입점한 채소가게 대표는 입점 초기에 과일 장사를 하였다. 그러다가 장사가 시들해져 품목을 그릇으로 바꿨다. 양품점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상황에 따라 판매하는 품목을 변경하며 대처한 것이, 그가 명학시장에서 50년을 버텨온 수완인



명학시장아파트 사람들(2015년, © 전지)



셈이다. 한 가지만 팔아서는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그래서 두세 가지 품목을 함께 판매하였다고 한다. 품목을 바꾸면서도 이어갈 수 있었던 동력은 끈기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릇이 더 이상 손님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손님에게 좋은 물품을 파는 상인으로 신뢰를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좋은 물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를 팔기 시작하면 10년은 해봐야 한다는 지론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가 손님들을 반가운 인사로 맞이하는 건 기본이다. 조금은 싸게 값을 쳐주는 건 서비스이다. 그러나 절대 외상은 주지 않는다. 그는 시골에서 직접 재배해 갖고 온 채소를 판다. 고향인 청양에서 고추를 갖고 오고, 시댁 친척이 사는 서산에서 고사리를 꺾어 와 손님들에게 선보인다. 그렇게 오랜 세월 만난 만큼 사람들도 사장님의 신용을 알고 찾아 온다. 서울로 이사한 사람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한다. “아주 좋은 것만 팔고 사람을 속이지 않으니까 장사를 오래 한 거”라고 자부한다.

명학시장 문구점은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기도 하였다. 단독주택에 사는 이웃들이 아이들과 함께 문구점에 오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다. 문구점 사장은 1980~1990년대 경기 호황을 회상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형편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1985년 무렵부터는 전과, 수련장, 이달의 학습지 등이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높은 판매량을 차지했던 학습교재가 IMF 이후 판매량이 줄기 시작하였고, 수업준비물도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학교 앞이나 동네 문구점들이 점차로 문을 닫게 되었다. 다. 안양에서 오래 운영한 문구 도매상 두어 곳도 문을 닫았다고 한다.

현재 명학시장의 문구점은 한때 많이 찾던 문구류와 크고 작은 장난감들이 재고로 남아 여전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40년 넘게 한 곳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어릴 적 이곳에서 문구류를 사 갔던 꼬마 손님이 어른이 되어 다시 찾아온 일도 있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장난감을 고르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아직도 주인장의 기억 속에 선명하다.

개장한 지 40년이 지난 2024년 현재, 명학시장은 시대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쇠락하고 있어 전성기의 활기를 보여주지 못한다. 1층의 내부 점포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외부의 점포들은 20~40대의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카페와 국숫집 등이 과일·채소가게·수선집·방앗간 등의 노포와 공존하고 있다. 아파트 공간 역시 매우 쇠락한 모습이며, 거주자도 노년층이 많은 편이다.

채소가게 사장과 문구점 사장은 명학시장 건물이 들어서기 전, 땅에 선을 긋고 물건



명학시장 1층 내부

을 펼쳐 팔던 이들도. 이들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물품을 준비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단골을 만들었고, 이웃들의 기억 속에도 자리 잡았다. 동시에 명학시장은 이들에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 삶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처럼 장소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의 기억과 꿈으로 가꿔지게 마련이다.

5. 텃밭에 담긴 매일의 기대

명학시장 2층에서 내부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오르니 하늘이 뽕 뚫린 옥상이 나타났다. 중앙에는 아담한 정원이 보였다. 명학시장 3층은 주거 공간인 아파트로, 중정 양쪽으로 가동과 나동이 출입문을 마주하고 있다. 중정에는 3층 주민들이 가구는 화분 텃밭이 있다. 필자가 찾아간 무더운 한낮에도 이웃들은 현관문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 부채를 살랑살랑 부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한 이웃의 이야기를 청하여 들었다.

정씨는 경남 거창군이 고향인데, 시골에서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안양에 사는 친척을 믿고 이주했다고 한다. 건축일을 하는 남편은 겨울에 일이 없고 여름에도 쉬는 날



3층 주민들이 가꾸는 중정 화단

이 많았다. 아이들 가르치고 먹여 살리기 위해 그는 장사를 시작하였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서울의 가락동시장과 노량진시장에서 어패류를 떼다가 중앙시장에서 팔았다. 30대 중반에 시작해 60대 접어들어 일을 그만두었고, 은퇴한 지 10여 년이 되어간다.

안양7동에서 셋방살이를 하면서 돈을 모아 장만한 집이 현재 거주하는 명학시장아파트이다. 아파트에 이사를 온 건 1990년대 초반으로, 당시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주택들 가운데 명학시장아파트는 최신 건물이었다고 한다. 1,200만 원의 매매가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하면 크지 않은 가격대였다. 부부가 5남매를 데리고 살기에 셋방은 비좁았는데, 이

아파트로 이사 와서 현관문을 딱 열어 보니, 그야말로 ‘대궐’ 같았다고 한다. 집 안이 아주 밝고 넓은 것이 썩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다.

명학시장아파트의 생활환경은 만족할 만큼 편했다. 서울 가는 버스들이 많고, 지하철 명학역도 가까운 편이다. 중앙시장·남부시장 등 다채로운 시장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2020~2021년 명학시장 앞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신축되었다. 그전까지 이곳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옛 가축위생연구소) 등이 있던 곳이다. 정씨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니 공공기관이 있는 것보다는 오가고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져 생기가 돌아 좋다고 하였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고층 아파트가 주방 쪽 창을 막아서는 바람에, 안양로까지 내다볼 수 있었던 탁 트인 시야가 가로막혀버린 것이다. 처음 현관문을 열었던 순간 눈앞을 환하게 했던 밝은 빛이 이제는 부엌 유리창으로 겨우 스며드는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면 그가 이웃들과 함께 가꾸는 텃밭을 볼 수 있다. 각자 기르고 싶은 꽃과 열매를 맺는 식물을 화분에 심고 매일매일 가꾼다. 나란히 앉아 식물을 마주 보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눈다. 고추는 봄에 씨를 뿌려 여름 내내 자랐다. 김장에 쓸 정도는 아니지만, 이웃과 나눠 먹을 만큼 풍족하게 수확했다. 가을엔 무씨를 심으려고 준비 중이다. 꽃을 좋아해서 꽃씨도 많이 심었다. 필자 눈앞에 있는 분홍색 꽃의 이름은 ‘피고지



명학시장아파트 3층 중정(2024년, 이정범 제공)

고'라고 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 꽃으로, 여름에 한창 예쁘게 필 시기다. 봉숭아는 벌써 씨를 받아두었다. 내년에도 흙에 묻어 꽃을 피우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에게 명학시장아파트의 증정은 잘 다스려진 일상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어 텃밭을 내다보고 식물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한다. 꽃이 얼마나 자라고 피었는지를 살피면 다음 날엔 또 얼마나 자랄지 기대하게 된다. 꽃은 지지만 씨앗을 남기고, 그 씨앗은 내년의 꽃을 예비한다. 그러니 화단은 오늘로부터 내일과 내년이 시작하는 미래이다. 미래는 반복되는 매일을 거듭하며 가까워진다. 오늘과 미래를 잇는 것은 소박한 기대이다. 채소들이 잘 여물겠다는 기대, 정원처럼 평온하게 시간이 흘러가리라는 기대들이다.

명학시장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씨는 명학시장아파트가 재건축되더라도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는 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지을 아파트 구조에서는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꿀 공간도 사라진다. 그는 명학시장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집에서 자란 그의 자녀들은 엄마의 노력 덕분에 고등교육을 받고 제 삶을 꾸려나갔고, 성인이 되어 제 살림을 일구었다. 집 안 벽마다 걸린 가족사진들이 집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듯했다. 정씨의 자녀와 손주들까지 함께 한 사진이 이 집에 살아온 이유를 말해 주는 듯했다. 이렇게 장소는 오랜 세월 그곳에 존재한 이들의 기억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

명학시장아파트는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지로 지정되어, 지하를 포함해 3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의 근린생활시설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획은 이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기대나 일상의 꿈을 넘어선 큰 힘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과거 현대적인 상품이었던 건축물은 현재의 비싼 침단을 좇는 현대적 조감도에 밀려난다. 이 조감도 또한 먼 훗날의 현대적 건물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곳이 남아 있는 한, 사람들은 어제의 기대를 품고 오늘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註

1. 강승현·심우갑, 「1960-1970년대 상가아파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29(1), 2009, 404쪽.
2. 위와 같음.
3.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시장)시행승인신청」, 1979.
4.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0006_명학시장매장면적축소변경신고서수리」, 1991.
5. 현장조사에서 필자의 인터뷰에 응했으나 실명은 밝히기를 꺼려, 이 글에서는 '정씨'로 지칭하였다.

제3장

삼덕제지 공장 터에서 열리는 종이 축제

서종원 한국민속예술연구원 학술원장



1. 안양 최초의 제지회사 삼덕제지

안양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2012년에 시작된 안양시의 대표 축제이다. 축제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 이 행사는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안양동)에 위치한 삼덕공원에서 ‘종이’를 소재로 펼쳐진다. 2024년, 13번째 맞이하게 될 이번 축제는 안양시 관내 교원과 학생,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삼덕공원의 푸른 잔디 위에서 열리는 소중한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예술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에서 종이를 소재로 한 축제가 1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축제가 펼쳐지는 삼덕공원과 관련이 깊다. 삼덕공원은 안양시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으며, 바닥분수를 비롯해 체력단련장·놀이터·피크닉 광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삼덕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은 종이를 생산하던 삼덕제지 공장이 있던 곳이다. 삼덕제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제지회사이며, 안양 지역 산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기업이었다. 현재는 ‘삼정 펄프’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삼덕제지가 해방 직후 안양 지역에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다.

남로 평창일로에 있는 공도(工都) 안양은 총인구 이만 삼천 여명을 포용하고 공상방면으로 실로 경이적 발전을 다하고 있다. 현재 안양에는 조선직물공장을 비롯하여 삼덕제지 조선견직 고려석면 제일방직 금성방직 안양직물 남해산업 바이루직물 조선특수자기 등 십대 공장이 전력난 자재난 입수난 등 모든 난관을 돌



1954년 삼덕제지 공장 내부(국가기록원 제공)

파하고 '엔진' 소리도 높이 한국공업 건설에 일로 매진하고 있어 공도로써의 만장기염을 토하고 있다.

〈공도안양의 기염 16공장 모두 조업〉, 『경향신문』, 1949년 4월 21일

비록 삼덕제지가 정확히 언제부터 안양 지역에 자리 잡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신문 기사를 통해 해방 이후 공업·제조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한 과정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국내의 경제 및 자본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다른 나라(우크라이나)에서 빌려온 외자(外資)가 삼덕제지를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투입된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또한, 1956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안양 지역의 공장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삼덕제지를 방문한 기록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 삼덕제지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상오 11시 <수도영화주식회사안양촬영소> 정초식에 참석한 후 귀로 <안양브리스트 콘크리트공장>, <삼덕제지공장> 및 <금성방직공장>을 시찰하고 하오 2시 20분 귀저하였다.

〔「안양공장시찰이대통령」, 『조선일보』, 1956년 10월 18일〕

안양은 1970년 이전부터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발전해 왔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서울의 공업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서울과 인접한 안양에는 다양한 형태의 제조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공업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제지, 섬유 관련 공장이 많았으나 점차 넓은 용지의 확보가 쉬우면서 지가가 낮고 원료나 제품의 운송이 용이한 경부선이나 경수산업도로 인근으로 입지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모습이 서울의 다른 주변 도시에 비해 안양에서 매우 두드러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¹

2000년대 초반까지 안양 지역에서 운영되었던 삼덕제지는 우리나라 제지업 특히, 백상지(白上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회사이다. 우리나라 제지산업이 호황기를 누리던 1974년 신문 자료에는 주목해서 볼 8개의 제지 업체가 소개되어 있는데, 삼덕제지를 비롯해, 계성(啓星)·남한(南韓)·무림(武林)·창동(倉洞)·풍만(豐滿)·한국(韓國)·홍원(洪元) 등이다. 또한 이 자료에는 6·25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삼덕제지 한 개뿐이었으나 경제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 성년 기업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라 적고 있다.²

삼덕제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첫 번째 백상지 제조업체이자, 오랫동안 안양 산업계의 주축으로 있던 기업이다. 설립자는 조경묵(曹庚默)으로, 그는 일제강점기 설립된 삼왕제지(三王製紙)를 불하받아 양지(洋紙) 생산 시설로 바꾸고 동향인(同鄉人) 안중희(安鍾熙)를 동업자로 불러들였다. 안중희는 월남하기 이전까지 북한에서 손수 제지회사를 경영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조경묵은 부사장으로 안중희를 도와 회사를 운영하였다. 월남한 이후 조경묵과 안중희는 위치가 바뀌게 되어 조경묵은 제지연합회 전신인 제지협회 창업 역군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³

이러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 삼덕제지는 해방 이후 월남한 조경묵이 삼왕제지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삼덕제지의 전신인 삼왕제지는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회사로 해방 직후에는 여러 종류의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실험장으로도 이용되었다. 특히 지금처럼 종이 생산 기술이 뛰어나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삼왕제지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종이는 제지산업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었다.



1970년대 삼덕제지 공장과 수암천(이정범 제공)

남조선의 제지공업 14공장은 원료 부족으로 조업난에 빠진 지 이미 오래되어 국산 지류(紙類)의 공급이 꺾박한 요즈음 이 용지난 문제 해결의 서광이 보이는 희소식이 있다. 즉 상무부 공업국에서는 금년 이월 부터 짚(藁)으로부터 펄프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안양 삼왕제지회사에서 시험 제작한 결과 우량한 성적을 얻었으므로 금 10월부터 펄프 제조기계를 제작하여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11공장에 배치되리라 한다. 이 설비가 완전 운전을 하면 1년 내에 일만 톤의 펄프를 만들 수 있다 하며 당분간의 목표는 연간 6천 톤 종이로 해서 약 2만 톤이라 한다. 생산원가도 현시가보다 저렴하다 하며 화학펄프를 약 2할 혼용할 때에는 지질도 우량하다 하여 생산개시에 기대되는 바 크다 한다.

〈용지난 타개에 희보〉, 『동아일보』, 1947년 10월 3일

삼왕제지의 이러한 기능은 삼덕제지로 이름을 변경한 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삼왕제지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삼덕제지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였다는 기록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⁴



1980년대 삼덕제지 공장과 수암천(이정범 제공)

2.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의 태동

1961년부터 삼덕제지의 회장을 맡아온 전재준은, 2003년에 안양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안양동 782-19번지 일원 16만㎡의 공장 부지를 사회 환원 차원으로 안양시에 기부하였다. 그는 그동안 공장 가동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만큼 이곳에 녹지를 조성하여 보상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양시는 순수 녹지공간이 아닌 지하주차장 건설까지 추진하였고, 이에 기증자 전재준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대운동을 벌였다. 결국 안양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공원 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2009년 4월 22일 ‘삼덕공원’ 개장식이 열렸다.

2023년 가을, 12번째 행사를 마친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는 삼덕공원이 생겨나기 직전에 있었던 삼덕제지라는 종이를 만드는 회사를 모티브로 기획된 행사이다. 2012년 10월 20일에 안양여성포럼 주최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 축제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기까지 지역의 많은 단체가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초창

기 이 축제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핵심 구성원들은 안양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제를 모색하였다. 또한 재산의 사회 환원으로 조성된 삼덕공원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축제는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고, 이에 걸맞은 축제의 방향성과 목적을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초창기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안양시 건축사협회와 미술협회이다. 두 단체에 속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발전소’라는 별도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당시 모임을 주도했던 이재옥(현 안양예총 회장)은 당시의 사정을 아래와 같이 회고하였다.

이재옥 : 당시 제가 미술협회 회장이었는데 안양시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적이 있어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양시에 어떤 공간이 생겨나거나 무슨 사업(주거환경 등)을 할 경우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이나 건축가들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강했었죠. 안양시가 갑작스레 팽창하는 시기였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시의 발전에 있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음에도 배제되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안양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어느 누구보다 지역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문화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이 함께 만나 ‘문화예술발전소’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 모임의 회원들은 사비를 털어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해 나갔으며, 안양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련 전문가를 초대하여 여러 차례 포럼을 개최하며 회원들의 시야를 넓히는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이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은 이재옥을 비롯해 권주홍·우보형·조운희·박신자·소명식·이영세·이강희·황휘 등이다.

당시 모임에 참여한 시민들이 처음부터 종이를 소재로 한 축제를 구상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만남은 삼덕제지 공장 부지에 조성될 삼덕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안양시에 제안하기 위한 데서 출발하였다. 당시 모임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존의 공원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공원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삼덕공원을 테마파크 형식의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안양시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2008년에는 시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인 공원을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6월 4일에는 안양시장과 면담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피력하였다. 2009년에 문을 열게 될 삼덕공원의 전체적인 콘셉트와 설치 시설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어졌다. 당시 모임을 주도했던 구성원들 각자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게 된다.

2009년 3월 6일 안양3동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 ‘아름다운 A+리턴_삼덕공원문화예술교육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회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러한 논의와 포럼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졌다. 2009년 7월 3일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아름다운 A+리턴_삼덕공원과 종이문화예술교육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포럼을 통해 축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이 포럼의 주최는 안양여성포럼이었고, 주관은 안양여성포럼 문화예술분과와 문화예술발전소였다. 여러 차례 논의와 포럼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앞서 소개한 포럼은 무척 의미 있는 행사였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삼덕공원에서 종이를 소재로 문화예술교육행사를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안양시의 문화정체성을 담보하고 삼덕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종합하여 행사의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한 부분도 반드시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

공장이 이전한 후 터만 남은 삼덕제지(2007년, 안양시청 제공)





삼덕공원 분수대(2024년, 이정범 제공)
삼덕제지의 굴뚝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서 있다.

〈표 1〉 아름다운 A+리턴_삼덕공원과 종이문화예술교육 운영방안 모색 포럼(2009.7.3.)

구분	제목	발제자
발제1	아름다운 기부, 아름다운 환원, 그리고 아름다운 창조적 삶	문화예술발전소
발제2	종이의 문한 가능성 탐색	김대규
발제3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 : 삼덕공원의 관리사무소 2층의 문화예술센터의 허브 역할 기대	소명식
발제4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삼덕공원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모인순

〈표 2〉 아름다운 기부, 아름다운 환원_삼덕공원과 종이축제 포럼(2010.11.)

구분	제목	발제자
발제1	기부 문화 연계 안양지역의 종이문화, 축제, 교육 가능성	이재욱
발제2	종이문화 : 시대에 부응하는 창조적 종이문화	조윤희
발제3	성공한 지역 축제 : 지역 문화 축제 관련 전문가(민간주도 중심의 성공적 축제 중심)	조정국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서 활동해 온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논의와 포럼은 2010년에 오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0년 9월에는 안양시장에게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

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아름다운 기부, 아름다운 환원_삼덕공원과 종이축제’, 2011년 6월에는 ‘삼덕공원_주민 주도적 종이페스티벌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모색’이라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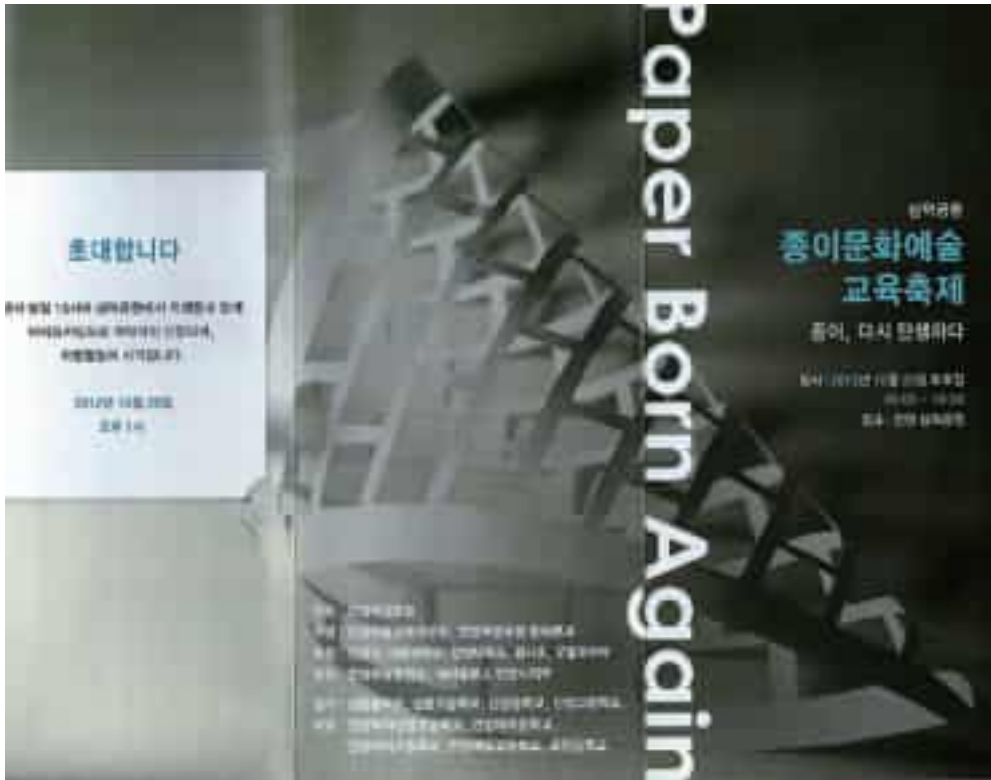
3.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의 주요 내용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는 안양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축제로 자리 잡았다. 축제의 기획과 준비 단계에서 주최 측이 고려한 핵심 가치는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원 부지를 기부한 전재준 회장을 기리기 위한 ‘기부’, 두 번째는 공원 부지에 있었던 삼덕제지와 관련이 깊은 ‘종이’, 세 번째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교육’, 마지막은 관(官)이 아닌 민간(民間)이 주도하는 행사이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안양예총 회장 이재옥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재옥 : 과거 삼덕공원 자리는 종이 공장이었어요. 그 기부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재준 회장님에 대한 기리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재능 기부도 기부 아니냐, 돈만 기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종이를 모티브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재준 회장님의 그런 기부 정신을 받아 아이들이 거기서 실천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종이 축제가 우리나라도 많고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다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한지 위주로. 한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의적인 발상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종이 예술교육 축제로 가자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와는 별도로 당시 안양시의 지역 간 문화적 편차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삼덕공원이 자리한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 축제 기획자들과 구성원들은 더욱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초기부터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해 온 이재옥은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재옥 : 지금도 그렇지만 축제를 준비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만안구와 동안구 간의 문화적 격차가 무척 심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근무하던 안양여고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제1회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리플렛(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제공)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평촌 아이들이 이 학교로 배정을 받았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전에는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알아주는 명문학교였는데요. 저의 모교인데 부임을 받고 나니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조윤희 선생님하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 만안구의 이미지를 좀 바꿔 보자는 생각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고민을 한 거죠.

2012년 10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이 함께 준비한 제1회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가 첫선을 보였다. ‘종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행사는 기획 당시의 철학과 취지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오랜 기간 착실하게 준비한 덕분에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제1회 행사가 끝난 뒤에는 축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지역의 단체들이 추후 동참하고자 하였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제2회 축제부터는 많은 단체가 협력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표 3〉 제1회 삼덕공원중이문화예술교육축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시	2012년 10월 20일(토) 10:00~18:00
장소	안양 삼덕공원
주최	안양여성포럼
주관	안양미술교육연구회 / 안양여성포럼 문화분과
후원	안양시, 대림대학교, 안양대학교, 평사초, 굿필코리아
협찬	문화예술발전소,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
참여 학교 및 단체, 작가	중학교 : 과천중학교, 성문중학교, 신성중학교, 안양여자중학교 고등학교 : 성문고등학교, 신성고등학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안양여자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단체 및 작가 : 새마을안양시지부, 안양실버나눔봉사대, 정미영 작가
행사 내용	작품 전시 : 참가학교 학생 작품 체험마당 : 학생들 체험 부스 운영, 글이 있는 그림대회, 이동도서관(새마을금고 안양시지부) 공연 : 특별공연, 종합예술공연 특별 코너 : 바리스타 코너, 사진학과 현장 스케치

또한 관내 초등학교에서 축제에 참여하였으며, 제3회 축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주관 단체로 함께 하게 된다. 순조롭게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행사가 거듭 진행하면서 행사 내용 또한 풍부하고 다양해졌다. 참여하는 학교와 단체, 그리고 작가들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 2017년 제6회 축제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4곳, 대학교 2곳과 5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2023년에 개최된 12번째 축제는 ‘종이, 열두 번째 희망을 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안양시 관내 초·중·고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 예술가 300여 명이 참여하여, 종이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 전시 및 체험 부스 운영,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꾸미는 버스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 부스는 학생·교사·학부모 19팀, 지역 예술가 14팀이 운영하였다. 책 만들기, 명화 팝업카드 만들기, 한지에 그리는 우리 동네와 우리들의 이야기, 메이크업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펼침 만화 그리기,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수묵담채와 캘리그라피, 먹그림, 한지 공예 켄반침 만들기, 골판지로 꽃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체험 부스는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부대행사 성격으로 진행된 공연은 사제동행 버스킹 5팀이 무대를 꾸몄고, 오프닝 공연으로 안양서중학교 사물놀이팀 ‘하늘소리’가 축제의 막을 신명나게 열어주었다. 이어서 박달초등학교 합창팀 ‘꿈꾸는 하모니’와 기타합주팀 ‘All For You’의 공연은 가을 감성을 자아내는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여 관객의 큰 호응이 이어졌다. 오후 무대는 신안

제1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2012년)





중학교 밴드 ‘미라클’과 안양과천학교예술교육연구회의 모모판 프로젝트 밴드팀 ‘시나브로’가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⁵

〈표 4〉 2017년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참가학교 동아리별 전시 및 체험 내용

구분	학교명	전시 및 체험 내용
초등학교 (5곳)	귀인	하늘거리는 종이의 무한 변신/ Yes! 귀인 종이로 표현하는 동화나라
	신안	신나는 종이세상
	안양서	오색빛깔 전통한지공예/ 전통 양궁 체험
	안양양지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화창	꽃으로 사랑을 전해요
중학교 (5곳)	과천문원	먹의 향기를 담은 한지(두방지 그림)
	귀인	페이스페인팅/ 발상과 표현 그리고 점묘화
	신안	인성 up! 행복 up!, 인성나눔 봉사 svc/ 종이로 생명 살리기
	성문	캐릭터 그리기 및 판화
	신성	종이엽서 색칠, 종이모자 제작/ 가면 만들기, 캘리그라피 부채
고등학교 (11곳)	관양	와당 만들기와 탁본 체험/ 종이로 만드는 한국사/ 책갈피 만들기/ 나를 표현하는 자화상 : 우리들의 일상 드로잉, 전통탈 만들기
	근명여자 정보	압화를 이용한 나만의 편지지(봉투) 만들기
	동안	종이로 표현하는 미술의 세계(소묘, 일러스트, 디자인, 종이공예, 의상디자인)
	백영	입체 도형 만들기
	부흥	복주머니·보석함 만들기
	성문	패턴으로 표현한 세상/ 목걸이 그리기
	신성	반짝반짝 아이들 Dream & Art 타임캡슐
	안양여자	책표지의 재탄생, 책갈피 만들기/ 영미문학도서 전시 및 구연동화 설명/ 3D 뷰어 만들기/ 탁본체험/ 드림캐쳐/ 책갈피를 통한 순우리말 알기/ 눈과 코가 즐거운 생활용품 만들기/ 종이로 만드는 프랙탈/ 종이속으로 떠나는 여행! 북아트/ 대나무춤 배우기, 섹팩타크로 공 만들기/ 종이의상, 나 미래를 건축으로 설계하다/ 사물놀이 공연
	안양여자 상업	종이로 그리는 나라/ 커피 내 마음속에 저장/ 핸드폰 사진 인화/ 예쁜 손글씨-내 마음을 적어봐/ In My heart-종이 위에 마음을 담다/ 신문지의 무한한 변신의 끝은?/ 질서 봉사
	양명	달리는 거북이 만들기/ 사랑의 그림책 나누기/ 영상 촬영
	양명여자	나만의 펫 만들기

안양 제지업의 본산(本山)이라 할 있는 삼덕제지 부지에 조성된 삼덕공원에서 해마다 펼쳐지는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의 핵심 구성원들은 기획과 준비 단계부터 이

공간이 지니는 다양한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래 세대의 주인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역량과 창의적 사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소한 무대를 마련하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4.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의 의미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학생과 지도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처음 의도한 바와 같이 교육적으로도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축제에 참여한 학교 동아리들의 활동 보고서의 성격으로 2018년에 발간한 『학교가 지역을 바꾼다 : 지역사회 연계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에는 참여 학생과 교사들의 다양한 소감이 실려 있다. 여러 소감문 가운데 아래의 내용은 ‘종이로 표현하는 미술의 세계’로 참여한 동안고등학교 미술부 학생과 교사의 소감을 정리한 글이다.

삼덕종이문화예술 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미술작품 전시와 헤나 타투 체험을 운영하였다. 미술부 친구들 모두가 오랜 기간 정성 들여 준비한 작품들이었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우리의 솜씨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되었다. 우선 색상, 작품의 크기, 가로, 세로, 주제의 장르 등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고 어울리게 배치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친구들과 의논하면서 전시 공간을 보기 좋게 만들어 나갔다. 타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가까이까지 와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그린 거냐?”고 질문을 해 주실 때 뿌듯함을 느꼈다. 터널 북 일러스트와 종이 의상 디자인을 만들어 보면서 입체 조형과 종이 공예, 패션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새로운 분야의 경험을 통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미술의 영역에서 개념을 확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종이 의상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를 제작해 본 적이 없어서 어려웠지만 동영상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작 방법을 찾게 되었고 음식 종이 공예, 종이 그림자 일러스트, 종이 입체 가랜드 등 신기한 작품들도 접하게 되었다. 캔트지에만 익숙해 있던 나에게 한지나 머메이드지를 활용한 활동은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으며 미술 작품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전시뿐만 아니라 헤나 타투와 공예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즐거웠다.

〈동안고등학교 미술부 2학년 9반, 이수정〉

매주 운영되는 미술 방과후학교와 격주로 운영되는 학생 동아리 활동 중에 종이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종이를 활용한 탐색 활동을 계획하였다. 먼저 만안구에 위치한 삼덕공원을 소개하면서 녹지 조



1. 제5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체험 부스(2016년, 경기도청 제공)
2. 페이퍼리본(Paper Reborn)의 홍보이사 박미희와 인터뷰하는 경기도 꿈나무기자(2016년, 경기도청 제공)
3. 제5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전시 작품(2016년, 경기도청 제공)



성의 중요성과 기부 문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미술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한지를 활용한 의상 디자인과 머메이드지를 활용한 일러스트 북을 제작하였으며 주제를 정하고 종이의 특성을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미술 교과 결과물과 교내 미술 대회에서 거둔 우수 작품들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직접 체험 부스를 계획하고 운영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교내 활동에서만 그치지 않고 타 학교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지역 주민과도 작품이나 체험활동을 통하여 만남으로써 미술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⁶

〈지도교사, 김진희〉

교육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학교 수는 감소하였다. 2022년에 열린 제11회 축제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참여하였을 뿐이다. 이전에 비해 참여하는 학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의 주제들은 지속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등 관이 주도하는 축제, 다른 하나는 순수하게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 마지막으로 관



제5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2016년, 경기도청 제공)



2024년 10월 5일 제13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과 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축제의 주관 단체는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추진위원회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다. 그리고 안양시·안양시문화재단·안양예총이 후원하며, 주최는 페이퍼리본(Paper Reborn)이다. 페이퍼리본은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를 이끌었던, 문화예술발전소·안양여성포럼·안양미술교육연구회가 협의하여 2016년에서 새롭게 만든 단체이다.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여타의 축제가 그러하듯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역시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최 측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행사의 주최와 주관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1회 축제 때는 여성포럼이 주최하고, 안양미술교육연구회와 안양여성포럼 문화분과가 주관하였다. 제2회와 제3회 축제는 별도로 조직된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였으나, 제4회부터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별도의 주관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어느덧 13회를 맞이하게 된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는 처음 발을 내디딘 때부터 지금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실행했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생사인 만큼 예산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초창기에는 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주관 단체의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과 지인들로부터 후원받은 8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게 되자 주변에서 정보를 주어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일정 비용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하여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은 지속하지 않기로 하였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를 높이 평가하고 지원을 약속하였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축제 운영을 이어올 수 있었다.⁷

2012년에 시작된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는 안양 지역의 학생, 작가, 시민들이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과 예술적 경험을 만들어온 뜻깊은 행사이다. 이 축제는 공장 부지를 안양 시민에게 기증한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의 뜻을 기리는 동시에,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공동 주관 단체인 페이퍼리본은 이 축제를 통해 학생과 시민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기부를 실천하며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울러 축제는 안양시의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하고, 참여자에게 창의

적 사고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12회에 걸쳐 축제를 이어오면서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 등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점차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축제를 이끌어 온 구성원들은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를 꿈꾸며, 국제적 문화예술 축제로의 성장을 희망하고 있다. 지금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축제의 미래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안양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낸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는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없지 않다. 따라서 안양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이러한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축제의 사회적 기능은 더욱 확대되고, 그 가치 또한 널리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註

1.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 구조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52쪽.
2. 「산업인맥 139, 제지공업 (5)백상지1」, 『매일경제신문』, 1974년 6월 3일.
3. 「산업인맥 139, 제지공업 (5)백상지1」, 『매일경제신문』, 1974년 6월 3일.
4. 「해방 후 처음으로 두 편의 공학박사 논문이 통과」, 『동아일보』, 1949년 12월 22일.
5. 안양과천교육지원청(<https://blog.naver.com/goeay/223214446888>)
6. 교육부, 『학교가 지역을 바꾼다 : 지역사회 연계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2018, 138쪽.
7. 삼덕공원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가 시작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비용은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그동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해준 비용 가운데 상당수가 직접 학교 측으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2024년에는 예산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행사를 이끌고 있는 구성원들은 2023년 올해 행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제4장

‘6동 밧데리 골목’을 아시나요

우승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1. 빌바오 효과를 기대하며

안양시는 1970~1980년대 정부의 공업도시 육성 정책에 따라 급속히 성장한 수도권
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중 하나이다. 공업도시는 도시의 기능 중 공업이 주된 기반이 되
어 그 존립을 지원하는 도시를 의미한다.¹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 수도권 인
구 과밀화 등으로 안양시는 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양상이 쇠퇴하며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가 안양6동의 ‘بات데리(Battery) 골
목’이다.

쇠퇴한 공업도시가 문화도시로 전환된 사례로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라는 것
이 있다. 빌바오 효과는 스페인 빌바오에 위치한 구겐하임미술관이 도시에 가져온 변화
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문화적 또는 건축적 프로젝트가 도시나 지역의 경제, 사회, 관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현상을 의미한다. 빌바오시는 1970년대 철강산업으로 호황
을 누리던 도시였다. 그러나 1980년대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쇠락해 가던 중, 1997년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설계한 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이 개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
출되었으며, 도시의 이미지도 개선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였다. 다만, 빌
바오 효과가 모든 도시나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성공적인 결
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과 투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안양시에 빌바오 효과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공업도시로서 성장
과 쇠퇴를 경험한 도시로서 안양6동의 관공서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활용한다는 측
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노래바(Bar) 골목’으로 변한 بات데리 골목의 부정적인 이미지



안양6동 밧데리 골목 위치

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장에서는 자료와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다.

첫째, 밧데리 골목의 형성과 노래바 골목으로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안양 지역의 다양한 골목 중에서 왜 안양6동 수리산로의 일부 구간만이 밧데리 골목으로 불리게 되었고 관련 업체가 모여들게 되었는지를 기술하였다. 셋째, 실증 자료는 구지도와 현장 조사, 안양시 전화번호부 등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넷째, 기록 시점에서 밧데리 골목 내 업종을 토대로 골목의 현재 모습을 기술하였다.

밧데리 골목이라는 명칭은 공식 지명은 아니지만, 이 명칭은 안양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골목의 명칭에 비해, 역사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 확보된 관련 자료는 주로 구술 기록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산발적이고 패턴화된 자료이다. 밧데리 골목의 상세한 역사나 입주 업체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골목의 과거와 현재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2. 안양 최초의 주유소와 밧데리 골목의 상관관계

안양6동은 북쪽으로 안양5동, 남쪽으로 안양8동, 동쪽으로 안양7동, 서쪽으로는 수리산과 접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명학역이 있으며, 안양동과 석수동을 연결하는 안양로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관통하고, 명학육교삼거리에서 석수주유소사거리로 이어지는 만안로가 동의 동쪽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한다.

1966년, 현재의 만안로변에 안양 최초의 주유소 ‘안양주유소’가 문을 열었다. 같은 해 12월 기준, 시흥군에 등록된 차량 수는 81대에 불과했으며, 안양읍 자체의 차량 수는 그보다 적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안양주유소가 문을 연 것은 단지 관내 차량 수요만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주유소의 입지를 보면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안양주유소가 위치한 곳은 당시 1번국도(현재 만안로) 도로변이었고, 1974년 안양로 전 구간이 개통되기 전까지 만안로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주요 도로였다. 따라서 안양주유소는 안양 관내 차량보다는 유동 차량을 상대로 한 전략적 입지 선택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안양주유소는 관내 유일한 주유소였기 때문에, 주유를 위해 이곳을 찾는 차량과 운



안양주유소(이두섭 제공)



1966년 밧데리 골목(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주택단지 사이 도로가 밧데리 골목이며, 하얀 건물이 안양주유소이다.

전자들을 상대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안양주유소가 개업하고 나서 5~6년 뒤, 역시 현재 만안로변 청원지하차도 앞에 ‘중앙주유소’가 개업하였다. 다만, 중앙주유소의 개업은 안양주유소와 다른 경우로 볼 수 있다. 안양주유소는 안양6동 밧데리 골목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중앙주유소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안양 역전 밧데리 골목과 가까운 곳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안양6동 밧데리 골목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골목은 수리산로의 만안로와 안양로 사이 구간으로, 만안로 쪽 입구에 안양주유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골목이라는 명칭이 통상 큰길에서 안쪽으로 연결되는 좁은 길을 지칭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듯이, ‘밧데리 골목’은 안양 지역 자동차 관련 산업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밧데리 골목은 1970년대 안양이 공업도시로 발전하던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자동차 부품이나 자전거 용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자동차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특히 자동차 밧데리·유리·부품 등을 교체·수리하는 전문 점포, 정비소, 차량용품 판매점 등이 골목을 채우며, 자동차 관련 종합 서비스 공간으로 기



1991년 밧데리 골목(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안양주유소 주변에 주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차량과 수리업소 앞에 주차한 차량들이 보인다.

능하였다. 이처럼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밧데리’를 골목 이름으로 삼은 것은, 단순한 부품명이 아니라 공업도시 안양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밧데리 골목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누렸으며, 이 시기는 안양시 제조업의 발전에 힘입어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화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밧데리 골목의 흥망은 안양의 공업도시로서의 성장과 쇠퇴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밧데리 골목은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노상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안양6동 510·511·512번지, 북쪽으로는 441·508·509번지와 접하고 있다. 예전의 자동차 중심 기능은 많이 줄어들고, 현재는 유흥업소들이 이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밧데리 골목’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지역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2005년 안양시 전화번호부에서도 ‘안양밧데리골목’이 고유명사처럼 표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그 상징성을 보여준다.

안양6동 밧데리 골목의 시작이었던 안양주유소도 2008년에 영업을 종료하였다. 주요 고객이었던 택시가 LPG 차량으로 대체되며 주유 수요가 줄었고, 계절 수요가 있던

난방용 기름 역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의해 감소했기 때문이다. 40년 넘게 영업해 온 안양주유소는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을 닫게 되었다.

3. 밧데리 골목에 부는 변화의 바람

1990년대 들어서 안양시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허허벌판 농경지에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평촌신도시가 건설된 것이다. 평촌신도시 건설은 안양시의 중심축을 만안구에서 동안구로 이동시켜 버렸다. 안양6동 밧데리 골목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평촌신도시라는 거대한 고객이 등장하면서 사업장을 평촌신도시 근처로 이전하거나, 기존 고객들이 동안구에 새로 생긴 큰 규모의 카센터나 자동차용품 판매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났다. 2005년 전화번호부를 참고하면, 안양6동의 자동차 관련 업종이 밧데리 골목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밧데리 골목의 시작점인 안양동 505-10번지에는 대우자동차(주) 안양영업소, 대우자동차(주) 평촌 중앙영업소, 쌍용자동차 안양판매점, 우리자동차판매(주)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안양동 481-1번지에서는 만물오토바이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밧데리 골목과 만안로가 교차하는 길 건너편 안양동 535-20번지에는 오토월드와 자동차 부품점인 성웅산업이 있으며, 안양동 535-29번지에는 기아자동차 성산판매점이 있었다. 이러한 분포는 2005년 이후 밧데리 골목의 명성이 감소하고, 자동차 관련 업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2005년 당시 상황에 국한된다.

2008년 안양시 전화번호부에 의하면, 밧데리 골목의 자동차 관련 업종은 여전히 총 5개 업체로 유지되고 있다. 상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2005년과 비교할 때 변화가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 안양동 508-25번지에는 태성자동차유리상사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안양동 509-16번지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부품 안양대리점이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안양동 511-7번지에는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화성상사와 자동차 정비를 하는 영진카브레타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2008년에 새로 확인되는 상호로는 그린카센터(안양동 511번지)인데, 2005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동차 정비·수리점이다.



〈표 1〉 2005년 배터리 골목의 자동차 관련 업체

연번	업체명	주소
1	태성자동차유리상사(자동차 유리전문점)	안양6동 508-25
2	르노삼성자동차 부품 안양대리점	안양6동 509-16
3	화성상사(자동차 부품 취급)	안양6동 511-7
4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	안양6동 512
5	오토사운드(자동차 용품 제조·판매)	안양6동 512-1

자료 : 『한국전화번호부』 안양시 업종편, 2005년.

배터리 골목은 초기에는 주로 자동차 관련 상점들이 밀집해 형성되었으나, 이와 함께 다양한 음식점들도 들어선 지역이다. 골목이 형성된 초기에는 자동차 정비 및 수리와 관련된 상점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와 동시에 다양한 음식점들도 존재하여 지역 주민과 관가를 비롯하여 자동차 정비 및 수리와 관련한 근무자가 이용하였다.

안양6동은 배터리 골목 외에 여러 기관이 자리잡고 있던 지역이기도 하다.

〈표 2〉 안양6동에 설치되었던 주요 관공서

연번	관공서명	주소	설치 시기	비고
1	경기도임업시험장	만안구청 일대	1939년	이전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양6동 480	1942년	이전
3	국립식물검역소	안양6동 433-1	1978년	이전
4	국립농산물검사소	안양6동 433-2	1986년	유지
5	국립종자공급소	안양6동 433	1975년	이전
6	시흥군청	안양6동 477-1	1977년	시흥군 해체
7	안양시청	안양6동 530	1975년	현 만안구청
8	안양세무서	안양6동 582-4	1975년	유지
9	안양상공회의소	안양6동 505-2	1982년	유지

안양이 도시로 발전하기 전부터 현재의 안양로 양쪽으로 중앙부처와 경기도 산하 기관들이 자리하였고, 1973년 안양시 승격 전후로 안양경찰서·안양시청·시흥군청 등 안양일변가에 있던 관공서가 이전하여 새로운 관가(官街)가 형성되었다. 이 일대의 유동 인구도 증가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이들을 상대로 하는 상권이 형성되면서 음식점도 활기를 띤 것으로 보인다. 점심시간에는 수리점과 관공서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수리점과 관공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1990년대 초반, 밧데리 골목이 명성을 떨치던 시기에는 순대와 막걸리 등을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과 술집들이 골목을 채웠다고 한다. 지역 주민, 관공서 직원과 이용자, 밧데리 골목 관련자 등이 주요 고객이었다. 저녁에는 다양한 식당과 술집이 활발히 운영되었으며, 이는 밧데리 골목이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누리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평촌신도시로 안양시 관공서가 이전하고, 2000년대 이후 수도권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안양6동 밧데리 골목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골목의 음식점들은 점차 야간 유흥업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낮보다는 저녁과 야간에 문을 여는 유흥업종이 늘어나면서 골목의 모습이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몇몇 음식점들은 밧데리 골목의 전통과 명성을 이어가며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음식점들은 지역사회와의 깊은 연관성을 유지하며 과거의 명성을 일부나마 유지하고 있다. 밧데리 골목은 자동차 관련 상점과 음식점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지역으로서, 시간이 흐르면서도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1970년대에 형성된 밧데리 골목은 당시 단층 건물과 차량 작업에 적합한 구조로 설



2007년 안양6동 밧데리 골목 저녁 풍경(안양시청 제공)

계된 업소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자동차 관련 상점들과 함께 다양한 음식점과 술집이 존재하였다. 밧데리 골목의 건물들은 현재까지도 단층 건물과 1~2층에 편의시설을 갖춘 5층 내외의 건물들이 혼재해 있다. 구술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점들은 차량의 이동과 작업의 편의를 위해 대체로 전면부와 측면부가 개방된 구조의 단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오늘날 자동차 정비·수리업체와 유사하다. 따라서 밧데리 골목이 자동차 정비·수리점으로 번창하던 시절, 이들 업체는 주로 단독 건물이나 가건물 형태로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도 단층 건물이 있던 자리는 자동차 정비·수리업체가 위치했던 곳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까지도 밧데리 골목에는 호남식당, 감자소주한잔, 배이모포차, 신림 곱창순대 등 다양한 음식점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음식점들은 밧데리 골목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밧데리 골목은 2024년 현재에도 여전히 자동차 관련 상점 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밧데리 골목과 만안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2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가 자리 잡고 있는데, 브이쿨과 기아오토큐는 각각 차량의 외부 처리 및 기아자동차의 공식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지점으로, 오늘날에도 밧데리 골목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표 3〉 2024년 배터리 골목의 자동차 관련 업체

연번	업체명	주소
1	카마스	수리산로 46(인양동 510-17)
2	과천자동차공업사	수리산로 50(인양동 511)
3	골든모터스	수리산로 55(인양동 508-26)
4	बी이클(자동차 씀팅 및 광택 전문 업체)	만안로 72(인양동 535-20)
5	기아오토큐(기아자동차 전문 정비업체)	만안로 72(인양동 535-20)

배터리 골목의 자동차 정비·수리업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화된 서비스 센터의 확산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사 브랜드 차량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면서, 자사 차량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센터들은 최신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고객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자동차 기능의 고도화이다. 자동차 기능이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전문적인 수리가 요구되고 있다. 복잡한 전자 시스템과 고급 기능을 갖춘 현대의 자동차는 일반 정비소에서 수리하기 어렵다. 셋째, 대기업 서비스 네트워크의 확대이다. 대기업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네트워크가 점차 확장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규모 자영업체들은 고객 감소와 함께 고도화된 자동차 기능을 수리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골목은 자동차 정비·수리점으로서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전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배터리 골목에서는 여전히 일부 자동차 관련 업체와 음식점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다.

배터리 골목이 변화하기 시작한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초까지 배터리 골목에는 15~20개의 자동차 정비업소와 부품 가게가 운영되었는데, 이는 골목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점차 자동차 관련 업소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사 차량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 센터를 확대하면서 일반 자동차 정비센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즉,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차량 기능의 고도화는 대기업의 전문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이는 골목의 업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4. 낮보다 밝은 골목의 밤

2008년 안양시 전화번호부에 따르면, 당시 밧데리 골목에는 4곳의 노래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포털사이트의 거리뷰 자료를 통해 노래주점이 20곳 가까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밧데리 골목이 자동차 정비·수리 중심 지역에서 유흥업소 중심의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명칭 또한 ‘밧데리 골목’에서 ‘노래바 골목’으로 변경되었음을 보여준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골목 내에 자동차 정비·수리업체와 함께 다양한 유흥업소(노래방, 술집 등)와 음식점(포차, 선술집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밧데리 골목의 정체성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부터 점진적으로 유흥업소 중심으로 변화하며, 2010년에는 노래바 골목으로의 전환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 시점에는 자동차 정비업체는 줄어들고, 유흥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골목의 정체성이 변화하였다. 2010년 이후, 밧데리 골목은 노래바 골목으로 불리기에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체들이 밀집하여 낮과 밤 모두 활기찬 분위기를 자랑했던 이 골목은,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낮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였다가 밤이 되면 유흥업소들의 불빛으로 가득 찬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밧데리 골목의 명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정비·수리업체들이 사라지고 유흥업소들이 자리 잡으면서, 골목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기능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노래주점과 유흥업소가 주를 이루는 현재의 밧데리 골목은 과거의 자동차 중심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 밧데리 골목을 원래의 자동차 정비 중심지로 되살리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미 유흥업소들이 자리 잡은 골목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기존 상업적 환경과 상업적 요구가 맞물려 있어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현재의 노래바 골목은 과거의 자동차 정비 중심지라는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유흥 중심지로서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공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안양6동 밧데리 골목에서 건물 간판을 중심으로 영업 업종을 조사한 결과, 총 26곳의 노래바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판이 없거나 건물 3층 이상에 위치한 업소는 파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일대를 ‘노래바 골목’이라 부르기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밧데리 골목’이라는 명칭이 기능과는 무관하게 함께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이 골목에는 여전히 5곳의 자동차 정비·수리업체가 영업 중이며, 이들 업체는





батери голмокы ныт фонд(иждывм жевон)





뱃데리 골목의 밤 풍경(이정범 제공)



안양8동 밧데리 골목 노래바 분포(2025년 5월 기준)

과거 ‘밧데리 골목’이라는 명칭이 지금의 ‘노래바 골목’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이자 골목의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골목의 명칭 변화와 업종의 전환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적 변천과 상업 구조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오늘날 밧데리 골목은 과거의 자동차 정비 중심지에서 유흥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으며, 이는 지역 정체성의 변화는 물론, 안양시가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마주하고 있는 고민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표 4〉 밧데리 골목의 수리산로 북쪽에 위치한 업종(2010년 4월 기준)

	주소	업종
안양6동 441번지	441-25	부동산, 종교시설, 노래주점
	441-26	노래주점, 숙박시설, 음식점
	441-27	음식점, 노래주점
	441-28	노래주점, 인테리어
	441-33	당구장, 병원(한의원)
	441-34	옷가게, 인테리어
	441-36	병원(치과)
	441-37	슈퍼, 부동산, 간이주점
안양6동 508번지	508-22	자동차 정비, 자동차용품점
	508-23	음식점(2곳), 다방, 노래주점
	508-24	인테리어, 철물점
	508-25	자동차 유리, 음식점, 노래주점
	508-26	자동차 수리점
안양6동 509번지	509-11	약국, 주점, 민속주점
	509-12	음식점
	509-15	음식점, 노래주점
	509-16	타이어 매장, 노래주점
	509-18	원룸

〈표 5〉 밧데리 골목의 수리산로 남쪽에 위치한 업종(2010년 4월 기준)

주소	업종	
안양6동 510번지	510	음식점, 자전거 판매점, 노래주점
	510-12	음식점, 노래주점, 슈퍼
	510-14	음식점, 노래주점
	510-15	음식점(3곳)
	510-16	음식점(2곳), 주점
	510-17	자동차 수리, 공업사
	510-18	간이주점(2), 노래주점
	안양6동 511번지	511
511-3		음식점(2곳)
511-4		종교시설
511-6		노래주점, 주점, 어린이집
511-7		자동차 판매점(GM대우), 기화기 수리점
안양 6동 512번지	512	부동산, 광고·인쇄소
	512-1	노래주점, 주점
	512-2	숙박시설, 노래주점
	512-4	노래주점(2곳), 음식점(2곳), 슈퍼, 상사, PC방
	512-10	주유소

〈표 6〉 밧데리 골목의 수리산로 북쪽에 위치한 업종(2024년 2월 기준)

주소	업종	
안양6동 441번지	441-25	지역아동센터, 음식점, 종교시설물
	441-26	노래주점(3곳)
	441-27	노래주점
	441-28	노래주점
	441-33	페인트 가게, 노래주점
	441-34	옷수선, 휴대폰매장, 네일아트샵
	441-36	병원(치과)
	441-37	슈퍼, 부동산, 간이주점
안양6동 508번지	508-22	노래주점
	508-23	음식점(2곳), 노래주점
	508-24	간이주점, 분식집, 노래주점
	508-25	자동차유리, 복권판매점, 노래주점(2곳)
	508-26	자동차 수리

	주소	업종
안양6동 509번지	509-11	노래주점(3곳), 종교시설, 음식점
	509-12	PC방, 음식점, 음식도매, 노래주점
	509-15	음식점, 노래주점
	509-16	음식점, 노래주점
	509-18	원룸

〈표 7〉 밭데리 골목의 수리산로 남쪽에 위치한 업종(2024년 2월 기준)

	주소	업종
안양6동 510번지	510	음식점, 자전거 판매점
	510-12	편의점, 종교시설, 노래주점
	510-14	음식점
	510-15	음식점, 노래주점
	510-16	음식점(2곳), 주점
	510-17	자동차 수리, 공업사
	510-18	음식점, 마트, 노래주점
안양6동 511번지	511	자동차 수리
	511-3	노래주점
	511-4	종교시설
	511-6	음식점, 노래주점
	511-7	편의점
안양6동 512번지	512	부동산, 미용실, 이발소, 회계사무소
	512-1	자동차수리, 음식점, 노래주점
	512-2	음식점, 노래주점
	512-4	음식점(2곳), 노래주점, 성인용품점, 상사
	512-10	오피스텔

5. 밭데리 골목의 새로운 모습을 고민하며

노래바 골목은 지역사회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소음 문제가 대표적인 우려 사항이다. 유흥업소에서 흘러나오는 큰 소리와 음악은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지속되는 소음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치안 역시 우려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노래바



태극기 달기 운동 (『경기신문』, 2015년 8월 12일)

가 모여 있는 골목은 주로 야간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고성방가·싸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편이다. 방문객이 무단으로 버린 담배꽂초 등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청결 문제를 초래한다. 노래바 골목이 주거지역과 가까워 주거 환경이 악화하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이처럼 노래바 골목의 변화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5년에 안양6동 주민자치위원회는 7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수리산로 일대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지역 상권과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노력은 노래바 골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지역 주민의 노력은 노래바 골목을 태극기 골목으로 변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골목의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며, 사회적으로 유대감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골목 경제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변화에는 그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다. 기존의 노래바 같은 업소들은 새로운 테마나 상업적 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상권 내에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강제성에 대한 반발이다. 강제적인 상업적 또는 테마 변경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동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비용과 지속성의 문제이다.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계획이 실행될 경우, 변화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으며, 예산 부족에 따라 계획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넷째, 문화적 단절의 우려이다. 기존 골목의 정체성을 무시한 인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과 충돌할 경우, 문화적 소외감이나 불만이 일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래바 골목의 변신 혹은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안양6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 선도 캠페인(201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수렴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골목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변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첫째, 골목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화를 통해 골목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할 몇 가지에 대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골목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골목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골목의 형성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행로 중심의 골목길을 조성하고 마을해설사를 양성하여 골목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객들이 골목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골목의 문화 행사나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와 협력하여 예술과 문화 공연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 정비·수리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

어야 한다. 경영 컨설팅으로부터 마케팅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베희시장과 야시장 등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넘어 ‘수리’라는 측면에서 청년 창업가들에게 공간과 지원을 제공하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골목의 유지 관리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양시와 협력하여 자원화 계획을 수립하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통해 골목 자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은 밧데리 골목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골목의 고유한 가치를 되살리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안양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안양,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안양시, 『안양시지』, 안양시사편찬위원회, 1992.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티스토리(<https://ngoanyang.or.kr/>).
윤경숙, 작은도서관 이야기, 『충천! 밧데리골목』, ㈜ 이야기너, 2015.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유홍가 밧데리 골목은 잊어주세요」, 『전국도민일보』, 2015년 8월 12일.
「안양시, 유홍가, 밧데리 골목은 잊어주세요」, 『뉴스뷰』, 2015년 8월 12일.

註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제어- 공업도시 참조.

제5장

생태 힐링 공간을 꿈꾸는 수암천을 따라 걷다

홍미숙 수필가, 안양문인협회 명예회장



수암천은 수리산의 수암봉 계곡을 비롯하여 여러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모여드는 지방 하천이다. 수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수암천을 만들어냈으며, 수암천을 흐르는 물은 먼저 수리산 자락 담배촌 계곡을 흘러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으로 유입되어 안양3동을 거쳐 안양2동에서 안양천과 만나게 된다.

수암천을 비롯하여 학의천, 삼성천, 삼봉천, 삼막천 등 5개의 도시하천이 안양시의 하천 중 종가라 할 수 있는 안양천으로 모여든다. 안양시의 크고 작은 하천이 모두 안양천으로 모여들어 수도 서울의 젖줄인 한강과 만난다. 그리고 서해로 흘러 흘러 세상과 소통을 시작한다.

2014년 2월, 수암천은 친환경 하천으로 다시 태어났다. 안양시는 수리산 공군부대 입구부터 안양천과 수암천이 만나는 지점까지 수암천 4.53km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였다. 풍물시장이 자리했던 복개 구간의 시멘트는 모두 걷어냈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생겼다. 안양로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길게 자리했던 공영주차장의 마지막 복개 구간을 걷어내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암천은 안양시가 꿈꾸는 '생태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안양의 명소로 꼽는 9곳의 풍경이 있다. 제1경 안양예술공원, 제2경 안양천, 제3경 평촌중앙공원, 제4경 망해암 일몰, 제5경 안양 1번가, 제6경 수리산 성지, 제7경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 제8경 병목안시민공원, 제9경 만안교 등이다. 수암천 따라 걷다 보면 이 명소들의 절반은 만날 수 있다. 그만큼 걷기 좋은 하천이 바로 수암천이다.



수암천과 삼덕공원



1. 안양천에서 시작하는 수암천 산책

안양천 합류 지점에서 시작하는 수암천 산책은 5km 남짓한 거리이지만, 오르막길이 있어 걸어서는 2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말끔히 조성된 수암천 산책길로 빠져나와 걷노라면,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백로와 물오리들과 심심치 않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 그들은 수영할 때도 있고, 수영을 끝내고 오순도순 모여 한때를 즐길 때도 있다.

수암천변 산책로는 마지막 복개 구간인 공영주차장에서 막히지만, 안양로를 건너면 다시 수암천으로 내려가 병목안시민공원 입구까지는 산책길 따라 편히 걸을 수 있다. 차도가 아닌 수암천을 따라 유유자적하며 걸을 수 있다. 자전거길까지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라이딩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띈다. 물소리도 잔잔하니 좋다. 수암천을 따라 수리산을 향해 걷노라면 그동안의 시름도 잊을 수 있다. 복잡했던 도심에서 순간 벗어날 수 있다. 금세 자연에 스며들어 자연과 동화된다. 도심에서 이렇게 단시간에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동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수암천은 가능케 한다.

안양로를 건너 옛날 풍물시장의 풍경을 잠시 떠올리며, 나는 복개(復開)되어 하늘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수암천을 따라 가끔 걷는다. 그동안 시멘트 밑에서 숨죽이고 지낸 수암천의 모습이 반갑다. 작은 하천이지만 흐르는 물은 햇빛에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린다. 햇빛과 마주한 수암천의 물결이 보석처럼 빛이 난다. 반짝이는 이 물결을 ‘윤슬’이라 하던가.

수암천을 따라 안양로에서 100m 정도 가면 수암천 건너로 안양시에서 가장 큰 중앙 시장이 보인다. 이 시장은 그 유명했던 안양일번가와 안양로를 사이에 두고



안양천과 수암천이 만나는 곳





삼덕공원(안양시청 제공)

있다. 이곳들은 언제나 손님과 상인들로 왁자지껄 활기가 넘쳐난다. 정말 있을 것 다 있으니 없는 게 없다. 근처 군포·의왕·시흥·광명 등에서도 안양일번가와 중앙시장을 찾았다고 한다. 중앙시장과 마주한 안양일번가는 안양 9경 중 제5경이다.

양지3교를 지나면 양지2교까지 공원을 건너보며 걷는다. 2003년 삼덕제지가 안양시에 기증한 공장 부지에 조성한 삼덕공원이다. 2009년 개장한 삼덕공원에서는 안양시민 축제를 비롯하여 시민가요제, 종이축제 등 여러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공원이 안양시의 구도심 주택가와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남녀 노소 만남의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어르신들도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바둑과 장기를 두시거나 이야기꽃을 피우신다.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들은 놀이터에서 우리들의 미래와 놀아주느라 여념이 없다. 반려견과 나들이 나온 주민들도 많다. 이 공원은 그 옛날 제지공장 부지였음을 상징하는 굴뚝이 인상적이다. 공장 부지를 지역 주민들의 공원 부지로 내놓은 전재준 회장의 흉상도 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삼덕공원이 끝나는 지점에는 수암천과 산책길로 연결되는 삼덕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히고 싶으면 도서관을 나와 수암천 산



양지3교



양지2교



수암천의 돌다리



수암천 산책길에 만나는 다양한 벽화

책길로 내려와 걸어도 좋다. 수암천 맑은 물에 사는 다슬기를 잡으며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그 모습에 덩달아 신이 난다.

수암천 따라 걷다 보면 작은 다리들이 곳곳에 놓여있다. 차가 다니는 다리도 여러 곳에 놓여있고, 철교도 있고, 징검다리도 많다. 아쉬운 것은 다리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양지1교·양지2교·양지3교처럼 차가 지나는 큰 다리도 수암천에서는 이름을 알 수가 없다. 굳이 도로로 올라가야 무슨 다리인지 알 수 있다. 하천의 산책길에서도 볼 수 있도록 다리 옆에도 이름을 붙여놓아야 할 일이다.

양지3교를 지나 양화로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가면 1948년 개교한 안양공업고등학교가 긴 역사를 자랑하며 우뚝 서 있다. 다시 양지2교와 양지1교를 지나면 오른쪽의 안양예술고등학교 정문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을 다수 배출한 명문 예술고등학교이다. 그 옆으로 안양서초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안양문화고등학교, 연성대학교 등 학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양지1교에서 수리산으로 시선을 돌리면, 고층아파트 숲이 시야에 들어온다. 수리산 기슭에도 신안초등학교와 신안중학교가 있다. 1979년 개교한 안양서여자중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2017년 폐교되었다. 그곳에 현재 경기도 미래 교육연수원이 들어섰다.

양지1교를 지나면서 수암천의 물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바람 또한 더 청량하다. 수리산이 수암천에 아주 가까이 내려와 있어서이다. 물소리를 들으며 양능교를 지나고, 울목아파트와 연결된 울목1교·2교·3교를 지나면 새마을교를 만나게 된다.

새마을교는 병목안로와 새마을지구를 연결하는 수암천 횡단 교량으로 오거리이다. 수암천의 교량치고는 넓은 편이다. 이곳은 교통혼잡이 문제였다. 그런데 몇 년 전 교량 확장공사로 2.5m에 불과하던 폭이 8m로 3배 이상 넓어지고 보도블록이 새로 깔리고, 캐노피와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하면서도 미관까지 갖춘 교량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아쉽게도 새마을교부터는 장마철이 아니고는 수암천이 마를 때가 많다.

안양천 합류 지점부터 수암천을 거슬러 새마을오거리까지 10개의 다리를 만났다. 그 다리들 교각에는 대부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조금은 삭막해 보일만한 교각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들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어 발길을 머물게 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그림, 시화까지. 다리 교각이 갤러리처럼 보였다. 벤치도 있어서 그림을 감상하며 쉬어가도 좋은 장소였다. ‘수암천갤러리’ 혹은 ‘수암천카페’로 불려도 손색없을 것 같다.

새마을교에서 다시 수암천 상류를 향해 올라갔다. 그런데 더 이상 물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안타까웠다. 장마철이 아니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 수암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해 하천



새마을교 주변의 수암천 바닥

유지용수가 공급되기는 하나, 물줄기가 힘이 없다.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수암천을 내려다보고 있는 주택과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발길을 계속하였다. 하천가에 꽃들이 방긋방긋 웃는다. 꽃들과 눈 맞춤을 하면서 걷다 보니 병목안시민공원 입구에 도착하였다.

2. 병목안시민공원을 만나다

병목안시민공원은 안양 9경 중 제8경이다. ‘병목안’이라는 지명은 마을 초입이 좁으나 마을에 들어서면 골이 깊고 넓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 한다. 수리산 뒤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뒤뜨미(후두미, 後頭尾)’라고도 불렸다. 이곳에 1930년대 경부선 복선화 공사에 사용할 철도용 자갈 채취를 위해 채석장이 조성되었다. 채석장은 해방 후 1980년대 초반까지 운영되었다. 채석장으로서 역할이 끝나고 오랜 세월 동안 10km²의 대규모 절개지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2006년 5월 24일 시민공원으로 개장한 것이다.

채석장의 흔적이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이었던 이곳이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지역 주민에게 크나큰 기쁨이었다. 특히, 이곳에는 65m 높이에 최대 너비 95m의 채석장 절개지에서 떨어져 내리는 인공폭포가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드넓은 잔디광장과 웰빙체력단련장, 사계절정원, 어린이 놀이 시설, 그리고 이곳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기찻길과 자갈 화물차량 등이 마련되어 있다. 언제 찾아도 사시사철 아름다운 곳이다. 도심 속에서 이런 공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산속도 산속이지만 하늘을 그대로 독차지할 수 있다.

안양천에서 병목안시민공원까지 수암천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산책길이 조성되었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러나 병목안시민공원과 연결된 공원교 아래부터 수리산 성지까지는 수암천을 따라 걸을 수 없다. 아직 수리산의 공군 부대 입구까지 완전히 산책길이 조성되지 않았다.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랄 뿐이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천 길 따라 걸어서 일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생겼다. 하천 따라 안양에서 여의도까지 연결되어 있다니 서울까지도 가능한 게 아닌가. 하천길은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시오리나 되는 학교를 걸어서 통학한 나에게 안성맞춤 길이다. 건강까지 지켜줄 길이 아닌가. 초·중·고교 12년을 개근했으니, 하천의 산책길은 내가 걸으면 내 몸이 먼저 반갑다고 할 것이다.

수암천 산책길이 끝나는 공원교 아래서부터는 계단으로 올라와 자동차 도로를 따라 걸어야 한다. 이 공원교를 건너면 병목안시민공원과 연결된다. 공원교 위로 만남의 다리도 있어 그 다리를 건너도 병목안시민공원 입구로 통한다. 병목안시민공원은 시민공원답게 항상 시민들로 북적인다. 간간이 그곳에서 축제와 행사가 열린다.

그 공원교를 공원 쪽으로 건너면 왼쪽으로 너른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도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다. 사계절 정원답게 계단으로 조성된 화단에 철철이 예쁜 꽃이 피고 진다.



병목안시민공원 전경(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벤치도 여기저기 놓여있어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이 공원의 단점이라면 계단이 너무 많고, 경사가 심해 노약자는 온 힘을 쏟아야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계단을 통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야생화들을 만나면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있어 힘을 덜 들이고 오를 수 있다. 공원 입구에는 171m의 ‘맨발로 걷는 길’도 있다. 신발장과 발을 닦을 수 있도록 수돗가도 만들어놓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병목안시민공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안양의 유명 작가를 대거 배출해 낸 전통 있는 안양백일장도 매년 봄에 이곳에서 개최된다. 평일 낮에는 야외 집필실이 될 만큼 조용하다. 밤에는 별자리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늘이 청청하다. 고향 마당에서 별자리를 찾던 그 옛날 추억이 되살아나는 곳이다. 누구나 한번 찾으면 다시 찾게 된다.

이 공원은 봄밤 소쩍새 울음소리에 괜히 슬퍼지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한여름 폭포 소리에 더위를 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인공폭포이긴 하지만 꽤 운치가 있다. 폭포에 비해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가 사시사철 이곳에서 병목안

시민공원을 지키고 있다. 아니, 안양시를 지키고 있다. 이 공원의 규모는 서울의 하늘공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제2의 하늘공원이라 할 수 있다. 달빛 찬란하고, 별빛 영



병목안 캠핑장(안양시청 제공)

롱한 공원이니 그렇다. 잔디광장도 좋고, 아이들 놀이 시설도 좋아 아이들을 대동하고 찾는 젊은 엄마들도 많다.

병목안시민공원 아래 석탑교를 건너 수리산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등산로 양옆에 캠핑장이 자리하고 있다. 주차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다.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도시 안에서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꽤 평화롭게 보인다. 삼겹살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여 군침이 도는 것도 사실이다.

캠핑장에서 등산로를 따라 잠시 올라가면 계곡을 끼고 테크가 조성되어 있고, 테크 따라 올라가면 작은 야외무대도 있다. 그리고 안양의 수리산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잘 생긴 ‘병목안석탑’ 한 쌍이 자리하고 있다. 이 탑은 불탑은 아니다. 멋진 병 모양의 석탑 한 쌍 앞 벤치에 앉아 준비해 간 간식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기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최고다. 병목안석탑으로 가는 길은 수리산의 최고봉인 해발 498m의 태을봉과 해발 426m 판모봉까지 오르는 등산로이다. 그렇기에 등산복 차림의 등산객들이 석탑 사이를 오르내린다. 그들은 언제나 활기찬 모습이다.

병목안시민공원 입구에 자리한 편의점 앞이 병목안삼거리이다. 편의점을 등지고 서



병목안 돌탑(안양시청 제공)

서 왼쪽 길은 창박골, 오른쪽 길은 담배촌, 직진하면 새마을로 향한다. 새마을오거리에서 이곳 병목안삼거리까지는 수암천 하천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 10여 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특이한 것은, 이 골짜기에는 오래전부터 한증막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까지 3곳의 여성 전용 한증막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 곳이 문을 닫았다.

3. 수암천 상류 산골 마을 담배촌을 둘러보다

수암천 따라 걷다 보면 골짜기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마을오거리에서 새마을을 만나고, 병목안삼거리에서 창박골을 만나고, 그다음에 가장 깊은 골짜기가 나타나는데 이곳이 바로 담배촌이다.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들어와 교우촌을 형성하고 담배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고 하여 붙은 마을 이름이라고 한다. 담배촌이 시작되는 입구에는 문둥바위가 있다. 실제 이곳에 문둥이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고, 담배촌에 사는 천주교인들이 일반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헛소문을 냈다는 전설도 있다.



병목안 문동바위(위)와 담배촌 도로변의 벽화

담배촌 토박이에 의하면, 예전에 천주교인들이 이 바위를 지나 현재 돌석도예박물관 근처에 있던 고욤나무가 보이면 “이제 집에 도착했구나”하고 안심했다고 한다. 그 고욤나무는 지금은 볼 수 없다. 그리고 문동바위도 원래는 크기가 지금보다 커서 손수레가 겨우 지날 정도의 좁은 길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수리산 아릅드리 별목을 위해,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군 통신부대 (현재 공군부대 자리)가 들어오면서 바위를 깎아 점점 작아졌다고 한다.

문동바위를 지나 도예교를 건너면 좁다란 골목에 예쁜 벽화마을이 나타난다. 차가 겨우 한 대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그 집들 벽에 그려진 그림이 눈길을 끈다. 오래된 마을이라 좀 칙칙해 보이는데 벽화가 그려져 있어 마을이 화사하다. 그리고 보니 수암천 산책길에는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다. 수암천 위에 놓은 다리 교각과 수암천 석축, 그리고 주택의 벽에도 그림이 있다.

예쁜 벽화마을을 지나면 원로도예가 돌석 김석환이 세운 돌석도예박물관이 있는데, 김석환의 작품과 그가 50여 년간 모은 도예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일반인이 가까이에서 도예작품들을 감상하고 직접 도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예전처럼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돌석도예박물관을 지나 성지교를 건너면 안양 9경 중 제6경



수리산 성지(안양시청 제공) 최경환 성인의 묘가 있다.

인 수리산 성지가 있다. 도예교와 성지교 밑으로도 수암천이 흐른다. 병목안시민공원에서 수암천 따라 걸을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성지교 지나 수리산 성지부터는 수암천 따라 물소리 들으며 다시 걸을 수 있다. 이곳부터 공군부대 입구까지는 힐링이 저절로 되는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다.

수리산 성지가 있는 이곳 담배촌에는 담배 농사짓는 사람은 이제 없다. 밭이 있어 들여다보면 배추와 무,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을 뿐이다. 성지교를 건너 예전의 담배밭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개고기 파는 집이 많았다는데, 현재는 닭백숙과 흑염소 등을 파는 집이 많이 들어섰다. 그뿐 아니라 예전과 달리 예쁜 카페들이 들어서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 수리산의 사계를 볼 수 있어 나도 가끔 이곳 담배촌을 찾는다.

수리산 성지는 최경환 성인의 가족들이 이웃들과 더불어 복음적 기쁨과 희망으로 살았던 신앙 선조들의 옛 신앙촌이다. 이곳에는 수리산 성지 순례자 성당, 최경환 성인의 고택과 묘소,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있다. 최경환 성인의 고택은 복원한 것이다. 수암천 상류의 수리산 성지는 천주교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곳이다.

4. 나무와 물소리가 맞이하는 길을 따라 수리산에 오르다

수리산 성지부터는 다시 수암천을 따라 기분 좋게 걸어 상류를 향해 올라갈 수 있다. 여기부터는 수암천을 따라 수리산 자락에 조성한 산책로를 이용하여 공군부대 입구까지 걸을 수 있다. 잘 조성된 산책로를 걷기 시작하자 수리교 밑으로 흐르는 수암천이 인사를 건넨다. 그야말로 힐링 구간이다. 잣나무 숲이 펼쳐있고, 수암천 물소리도 상류라 그런지 시원하게 쿵쿵 큰소리를 내며 흐른다. 새소리도 제법 경쾌하게 들린다. 다른 소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산책길이 데크 길에 이어 야자매트 길과 흙길 등이 골고루 조성되어 있다. 나이를 제법 먹은 잣나무들이 즐비하게 수리산을 지키고 있어 가을엔 잣나무 잎이 누렇게 떨어져 카펫처럼 깔린다. 그 길을 걷노라면 그냥 저절로 자연인이 된다. 1961년에 조성했다는 잣나무 숲길은 감동이 밀물처럼 몰려올 정도로 아름답다. 아름드리 잣나무가 즐비한 사잇길을 걷는다는 것은 황홀한 일이다. 이 길은 조수 보호지역으로 피꼬리, 박새, 삿구기, 땀까치, 다람쥐 등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수리산 수암봉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온 물이 병목안 공군부대 입구에서 물길 따라 흘



수암천 상류의 수리교

러 흘러 이 마을 저 마을 거쳐 흘러 내려가 안양역을 지나 안양 철교 밑을 흐르는 안양천과 합류한다. 나는 삼덕공원 뒤로 수암천을 따라 안양역 쪽으로 내려오면서 걸을 때도 있지만 병목안시민공원 쪽으로 걸어 올라갈 때가 더 많다. 다시 병목안시민공원에서 도로를 따라 수리산 공군부대까지 걸어 올라갈 때도 종종 있다. 지금은 공군부대 입구 앞의 주차장이 넓어졌고 그 아래쪽에도 주차장이 몇 군데 더 마련되어, 노약자도 수암천 상류까지 자동차로 올라가서 숲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다 내려와도 좋다. 공군부대 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숲속에서 피톤치드가 풍부해짐을 느낄 수 있다.

피톤치드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피톤치드를 마시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 누구나 숲을 찾아가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면역력을 키워갈 일이다. 피톤치드는 오직 삼림욕을 통해서만 마실 수 있다. 이 피톤치드가 바로 수암천이 흐르는 수리산에서 대량 방출되고 있다.

안양9동의 병목안삼거리부터 시작되는 병목안로가 끝난 지점인 공군부대 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더 이상 일반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다. 나는 이 차단기로부터 약 1.6km의 길을 올라가 왼쪽으로 난 콘크리트 포장의 임도를 따라 수리산을 오르곤 한다. 자동차가 아닌 등산객은 차단기 안으로 들어가 산을 오를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도에 비포장 구간이 많았으나 지금은 모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 하지만 경사가 심한 편이다.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연상하게 만드는 가파른 길이다.



수리산 등산로 아자메트 길의 이정표

공군부대 입구에서 왼쪽의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올라가면 변산바람꽃 군락지를 만날 수 있다. 꽃이 필 무렵이면 사진작가들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꽃을 향한다. 꽃은 바짝 긴장할 것이다. 현재는 안양시에서 변산바람꽃 군락지 보호를 위해 입산을 금하고 있다. 서식지 앞에 금줄을 쳐 두고, 변산바람꽃 사진을 전시해 놓았다. 공군부대 앞 주차장에서 변산바람꽃 쉼터까지는 0.4km를 올라가야 하고, 슬기봉까지는 1.6km를 올라가야 한다.

수리산의 슬기봉을 향해 올라가는 포장된 등산길과 산책로인 테크 길이 연결되어 있어 굳이 막아놓은 부대의 차단기 사이로 올라갈 이유는 없다. 이 테크 길은 최경환 성지를 지나 수리교를 건너 수암천을 따라 수리산 자락에 조성되었다. 이 편안한 길이 공군부대 입구까지 이어진다. 그러니 이 길을 걸으면서 사시사철 수암천의 물소리와 산림욕장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산새 소리를 씬 없이 들을 수 있다. 소쩍새는 봄이 왔다고 노래를 부르고, 삿갓새는 여름이 왔다고 노래한다. 때까치와 산비둘기는 계절 관계없이 수리산을 무대로 노래한다. 가끔 딱따구리 노래도 들을 수 있다. 수리산이라 그런지 수리부엉이는 제철을 맞은 채, 가을 노래를 부를 때도 가끔 있다. 내가 수리산 기슭에 살고 있어 수리산과는 가족처럼 살아간다.

2021년, 나를 설레게 한 언론 기사가 떠올라 소개한다. 안양시가 안양역에서 수리산 공군부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수암천 5.6km 구간을 2030년까지 '생태 힐링 공간'으로 조

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끊겨 있는 수암천의 산책길이 완전히 조성될 모양이다. 안양시는 차질 없는 마무리를 목표로 2020년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수리산과 수암천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함으로써 만안구 원도심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무장애 보행 동선을 연결하는 무장애길, 공중보행교, 경사 진입부 에스컬레이터, 병목 안시민공원 전망 엘리베이터 등이 제시되었다. 숲속의 무인 독서실과 카페, 자연형 물놀이 공간, 피톤치드 풍욕장 등을 통해 구도심인 안양동 주민의 일상을 케어하는 그린 복지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안양동 주민으로서 말만 들어도 많이 설렌다.



변산바람꽃

5. 수암천 산책길에 만난 것들

병목안 주차장에서 ‘똑버스’를 만났다. 그 미니버스를 거리에서도 본 적이 있어 기사에게 다가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물었다. 이용을 원하면 ‘똑타’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호출하면 인근 정류장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카카오택시를 불러도 될 텐데 이 버스가 등장한 게 신기했다. 궁금증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검색을 해보니,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똑버스’를 2021년 12월 28일에 파주시의 운정신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안양시는 안양9동 주민과 수리산도립공원, 병목안 산림욕장 등 문화·관광 시설 이용객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똑버스’를 도입했다고 한다. 안양 ‘똑버스’는 8월 22일부터 약 1주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8월 29일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호출 마감 22시 40분)이다. 차량은 13인승 쉐라티 2대가 운행되고 있다. 요금은 일반



수리산도립공원 주차장에서 만난 똑버스



수암천 산책길에 만난 물오리와 해바라기

시내버스 요금과 같고, 교통카드 태깅(Tagging) 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앞으로 ‘똑버스’로 인하여 수암천이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게 될 것 같아 기분마저 좋다.

수암천은 안양천의 합류 지점에서 안양천에게 몸을 맡기고 임무를 끝낸다. 그러나 수암천의 산책길은 너무나 소중한 다. 볼 것이 많다. 큰 공원도 두 곳이나 있고, 도심을 금세 벗어날 수 있다. 봄이 오면 어릴 때 고향에서 만났던 능수버들이 가장 먼저 새싹을 내밀고서 상춘객을 불러대고, 땅을 비집고 나온 노란빛 민들레와 연보랏빛 제비꽃이 방글방글 길손들을 반긴다. 여름이면 진분홍빛·진보랏

빛 나팔꽃이 아침 일찍 일어나 활짝 웃고, 연분홍빛 메꽃 또한 수수하게 피어 반갑다고 손을 내민다. 가을이면 쑥부쟁이꽃이 피고, 담쟁이가 담장을 어떻게 물들여야 아름다운지를 걱정하고 오색 물감을 풀어 색칠하느라 분주하다. 노랗게 물들이는 은행나무 잎은 또 어떤가. 겨울 또한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에 정신을 모두 내 줄 만치 기분을 좋게 한다. 설경은 말할 것도 없다.

수암천을 따라 걸으면서 벽화를 많이 만났다. 그들이 있어 수암천이 더 아름답고, 생기마저 있었다. 야외 갤러리, 야외 카페 분위기를 그들이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그들보다 자연이 더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그냥 그대로 자연이 액자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살아있는 생물이어서일까? 그들 앞에서 발을 떼기가 어려웠다. 다녀온 지 꽤 되었는데도 그들의 모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마 오래도록 내 마음 창고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도 수암천의 화룡점정(畫龍點睛)은 복사꽃이 아닌가 싶다. 봄이 찾아오면 복사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수암천 계곡에 가면 알 수 있다. 수리산 골짜기의 수암천 계곡에 있어 그런지 싱그러움이 가슴 설레게 한다. 그 자태에 수줍은 봄 처녀가 될 것만 같다.

글을 마치며, 1977년 7월 8일 밤부터 9일까지 1일 강우량이 454.㎜나 되어 그야말

로 안양을 초토시켰던 안양 대홍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망 또는 실종이 257명이나 되고, 9,439명이 집을 잃었다. 수암천변에 있던 울목마을은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다. 지면을 통해 아픔을 겪었던 수재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수암천을 따라 걸으면서 병목안 채석장과 안양역을 오가던 자갈열차 철길을 복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한다. 협궤열차가 수암천 따라 달리면 그냥 그대로 힐링이 될 게 아닌가. 병목안시민공원 놀이터 곁에 일부를 복원하여 자갈을 실어 나르던 화차 2량을 전시하였지만 보면 볼수록 아쉽기만 하다. 철길이 '생태 힐링 공간'을 꿈꾸는 수암천변에 복원되길 기대하면서 수암천을 따라 걷기를 마친다.

수암천 상류의 복사꽃



집필(가나다순)

김기영	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교수
김산옥	수필가, 안양문인협회 회원
김용환	수원도시재단 차장
김재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정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서종원	한국민속예술연구원 학술원장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우승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윤유석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객원연구원
임근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정아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석사 수료
정연학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선도문화학과 특임교수
홍미숙	수필가, 안양문인협회 명예회장

기획총괄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자료정리

설혜영, 김정서

편집·교정

이화정, 최인경

어반스케치

서은주, 서향숙, 이강은, 하미경(안양어반스케치회)

안양시사 11 **안양동**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20-1

ISBN 979-11-94861-09-6 (세트)



THE HISTORY OF ANYANG CITY

9 773113 446132 >
ISBN 979-11-94981-20-1
ISBN 979-11-94981-09-6 (平装)



中国书店/书店